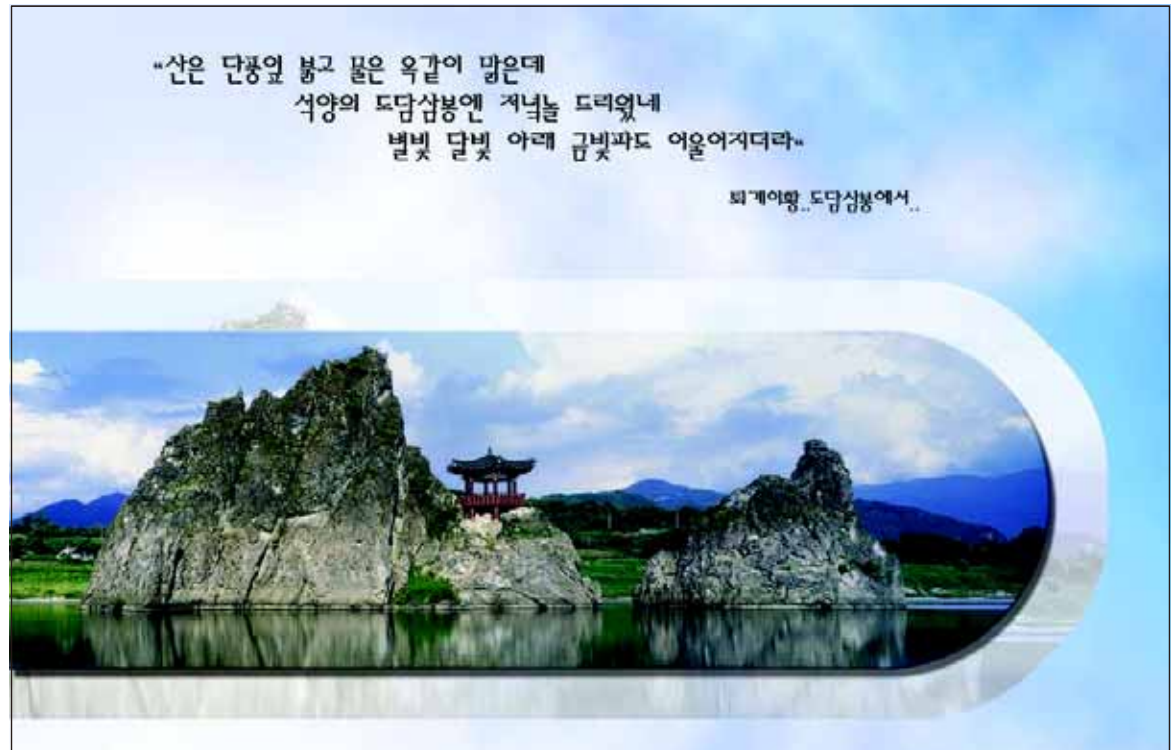


충청북도경관기본계획



현대사회의 발전과 복합화로 인해 정주환경이 기능적 측면에서 벗어나 질적 측면의 개선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를 시각적인 관점에서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이를 경관계획이라고 한다. 특히 지방자치시대에 지역의 특징적 경관이미지를 개발하고 이를 지역 마케팅으로 연결하는 중요한 계획수법으로 인식되어가고 있어, 충청북도차원의 경관미그림의 설정이 필요하게 된다. 특히 충북은 청풍명월의 고장으로 수려한 자연경관이 우세하나 국토종합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국책사업으로 인해 다양하고도 급격한 개발압력을 받고 있어 경관의 관리는 물론 보전과 형성의 기본 틀 안에서 권역별의 구체적이고도 차별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하고, 이들 간의 경관적 위계성과 연계성의 구축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충북이 가지고 있는 경관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새로운 변화에 대한 경관의 방향을 제시하고 이 틀 속에서 충북의 경관적 일반성속에서 지역의 시각적 특수성을 설정하는 과업이다. 거시적 경관의 틀로부터 지역적, 유형적 틀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행정관리 측면에서 활용함은 물론 주민과 함께 경관을 형성함으로써 도 경관계획의 신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 계 획 대 상 : 충청북도 전지역 (3시, 9군, 153읍.면.동, 7,431.44 km²)
- 계획목표년도 : 2005~2025 (중기목표 2015년, 최종목표 2025년)
- 연 구 기 간 : 2005. 9 ~ 2006. 12

PART I 충북경관기본계획이 왜 필요한가?

1. 경관과 경관기본계획

■ 경관은 우리의 삶

- 경관이란 인간이라는 주체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정지된 상태에서 한 장면을 보거나 혹은 이동과정에서 장면의 연결성까지 총체적으로 보는 현상이며, 이를 위해서 단수의 시각정보나 복수의 시각정보가 자연적 형태와 인공적 형태 그리고 이들의 복합적 형태로 인간에게 전달되면서 지각과 함께 이런 시각정보를 감성적으로나 이성적으로 인식하는 상황
- 경관은 그 자체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인 인간과 객체인 주변사물이나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설정되기 때문에 인간의 심적 사상(事象)으로 평가되며, 단순히 보여 지는 모습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인간의 가치 판단에 의해 발생
- 경관은 인간에 의해 지각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좋고 나쁨에 대한 가치판단까지 동반하게 되는데 이는 인간이 살고 있는 삶의 용기(容器)인 정주환경의 가치를 담고 있게 되며, 이런 현상은 점차 경제적 가치로 확대되어 삶의 쾌적성의 평가기준은 물론 재산권행사의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
- 따라서 지금까지의 경관은 단순히 기능에 의해 표출되어 단순히 보여지는 현상자체에 의미를 두었으나 현대사회로 진입하고 삶의 질에 대한 척도로 인식되면서 경관은 삶의 일부로 인식
- 우리의 삶의 일부로 인식되는 경관은 우리 주위를 늘 둘러싸고 있음. 경관자원의 특성에 따라 자연경관, 인공경관, 혼합경관으로 구분하며, 자연경관은 산지, 수변, 도로경관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인공경관은 시가지, 가로축, 역사문화경관으로 구분되며 혼합경관은 취락 및 농경지경관, 도로, 사적경관으로 구분

경관은 우리의 삶

경관이란??

인간이라는 주체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정지된 상태에서 한 장면을 보거나 혹은 이동과정에서 장면의 연결성까지 총체적으로 보는 현상

경관은 그 자체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인 인간과 객체인 주변사물이나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설정되기 때문에 인간의 심적 사상(事象)으로 평가

인간이 살고 있는 삶의 용기(容器)인 정주환경의 가치를 담고 있게 되며, 이런 현상은 점차 경제적 가치로 확대되어 삶의 쾌적성의 평가기준은 물론 재산권행사의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

경관은 단순히 보여 지는 현상자체보다는 삶의 질에 대한 척도로 인식되면서 **모든삶의 경제적 가치로 인식**

2. 경관기본계획의 필요성

■ 사회적 변화

- 과거 경관용어의 협의적 개념에서 점차 법정도시계획의 광의적 개념에서 의미하는 것처럼 삶의 환경 총칭을 경관이라 명명하면서 지역이미지와 직결시킴과 동시에 도시의 경우 마케팅전략으로 접근
- 또한 도시나 지역개발개념이 새로운 공간환경의 창출에 대한 계획수립보다는 기존환경에 대한 관리위주로 계획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오고, 이는 공간의 질적 향상을 위한 경관적 접근을 의미
- 이는 공시적으로 정주환경의 경관은 개별 건축물이 모여 이루어지고 가로에 면하고 있는 이들 건축물의 외관은 그곳을 통과하는 모든 사람들이 체험하는 공공공간으로서 가치를 갖게 됨은 물론, 통시적으로 후손대대로 물려줄 유산이기 때문에 체계적 계획의 수립 필요
- 따라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전문화되고 체계적인 계획수립의 필요성 대두

■ 지역적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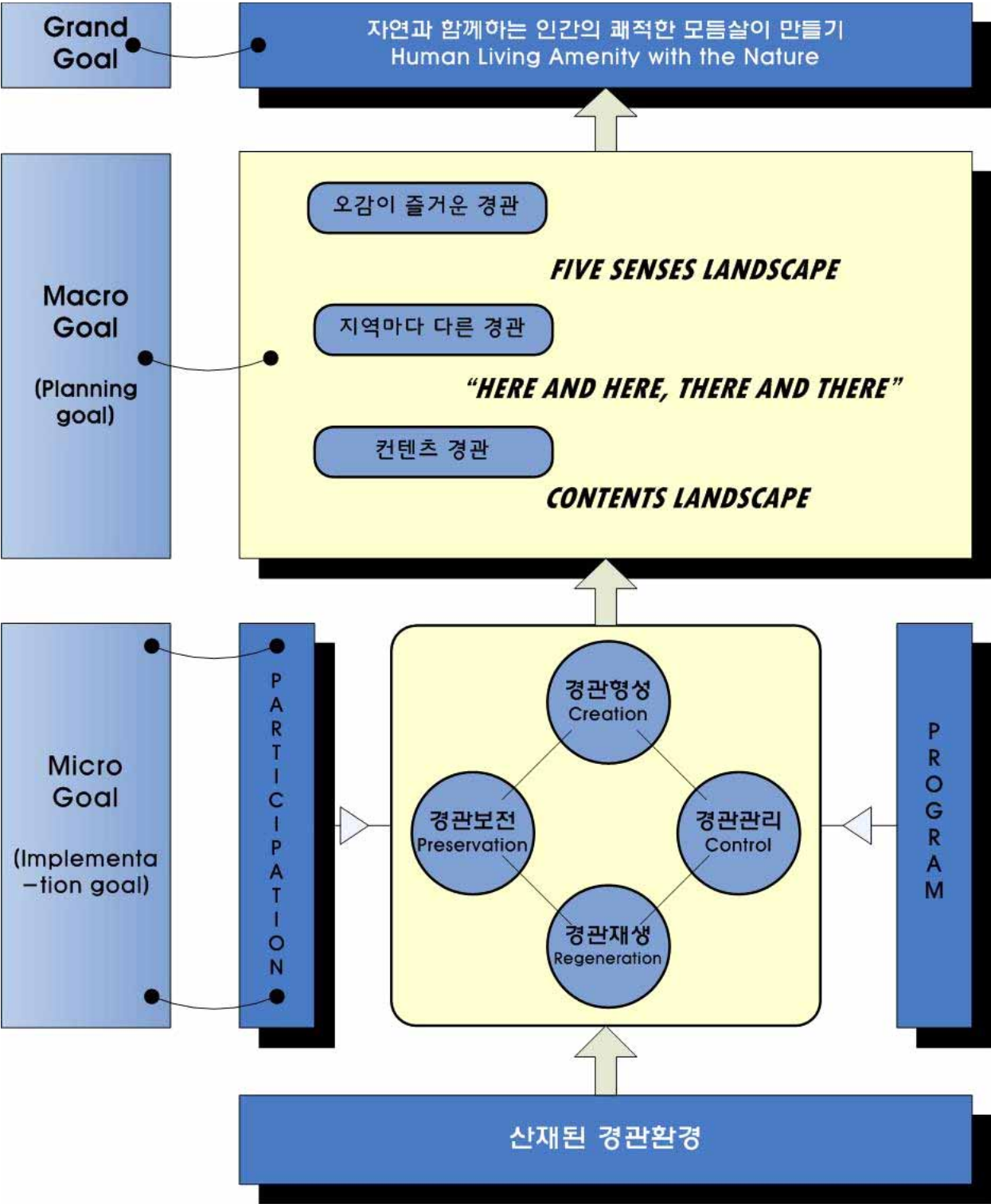
- 충청북도는 예로부터 수려한 강과 산을 의미하는 청풍명월과 같이 천혜의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찬란한 중원문화를 꽃피워온 자랑스러운 고장으로 우리들과 우리의 후손들이 대를 이어 살아갈 영원한 삶의 터전
- 196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을 거치면서 무분별한 개발과 기능위주의 도시건설 등으로 우리의 아름다운 경관이 크게 훼손·오염됨은 물론 정주환경의 삶의 질까지 위협받는 상황
- 충북에서는 중원의 수려한 경관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 나아가야 할 자산임과 동시에 국민의 쾌적하고 안락한 삶을 가능하는 척도임을 인식하면서 이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할 당위성을 인식
- 특히 충북 인근의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은 물론 지역 내의 신도시와,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대규모 개발압력은 물론 지자체마다 민간개발을 유도를 통한 지역단위개발압력으로 인한 충청북도 고유의 경관구조변화에 대한 기본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수립의 필요성 대두

■ 제도적 변화

- 수도권 중심의 개발논리에서 탈피하여 지방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충청북도 차원은 물론 시군자치단체들의 경쟁력향상을 위한 일환으로 정체성확립을 위한 물리적 관리계획인 경관기본계획의 수립 필요성 대두
- 지역문화의 자산인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지자체의 경관형성사업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지원 법체계의 미비로 2006년 하반기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2007년 시행예정인 경관법 활용방안의 필요성
- 2003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에서 경관계획이 부문별 혹은 종합계획으로서 위상을 갖게 되었으나 경관조례제정시 법적 근거의 미비로 상위계획의 필요성과 관리체계의 정비 필요
- 1종이나 2종 지구단위계획은 물론 각종 개발계획에서 경관계획수립이 일반화 되었으나 충청북도 차원의 경관이미지형성과 기본관리방안에 대한 틀의 부재로 도의 거시적 경관과 지역이나 단위개발사업상의 이미지와 연계 필요성 대두

3. 충북경관기본계획의 개요

1) 계획의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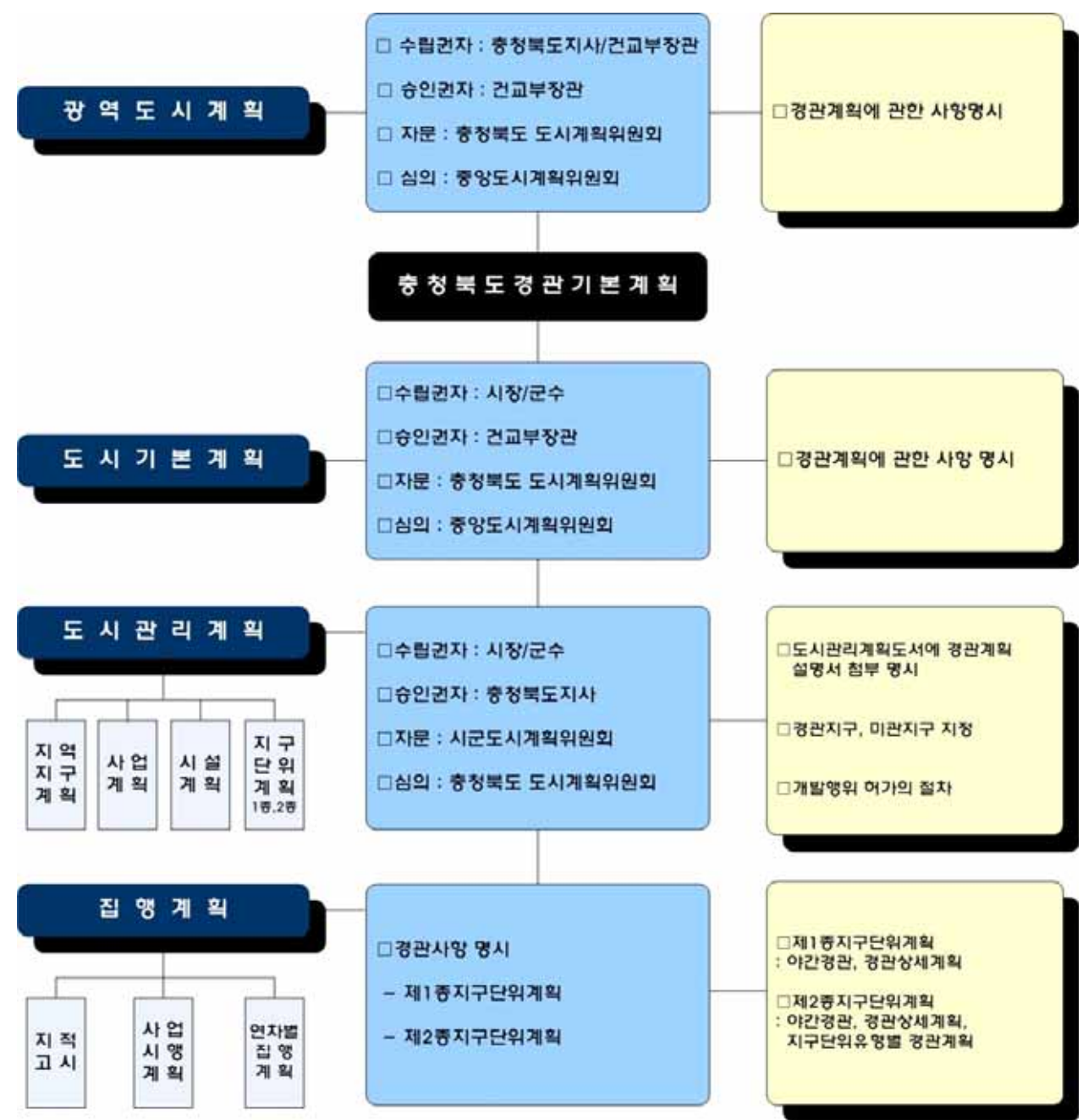


[그림 1-1] 충북경관기본계획의 목표

2) 계획의 위상

- 충청북도 이미지 구축 및 거시적 시각의 틀 작성
- 정주환경의 쾌적성 증대를 위한 가장 큰 행정구역 단위의 장기 로드맵 계획
- 광역도시계획과 각 도시의 기본계획을 시각적 제어·유도방법을 통해 연결하고 이를 하위계획에서 구체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근거 제시

<표 1-1> 충북경관기본계획의 위상



3) 계획의 방법 및 과정

■ 현황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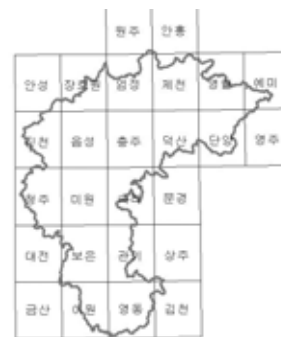
- 거시적 조사 : 경관 현황조사의 중요성으로 인한 여러 단계의 조사 과정을 거치면서 우선적으로 기본계획에서 사용되는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경관과 관련된 데이터를 정리하고 이를 충북과 인근 지역에서의 관련계획(충북의 오송분기점, 오송생명과학도시, 오창과학산업단지,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과 충남의 행정중심복합도시, 대덕과학단지 등 대규모 국책사업계획)을 통해 정리
- 미시적 조사 : 12개의 시군지역을 주민설문조사를 통해 각기 문제점과 잠재력, 그리고 대표경관을 바탕으로 점, 선, 면으로 조사하고 이를 지역의 경관유형을 찾아 분석함으로써 상호보완적인 경관 분석체계로 접근

■ 경관분석

- 정량적 경관분석 : 정량적 경관분석방법으로는 충청북도의 공무원과 일반도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 설문 내용은 총 5개 Part로써, 주민 경관인식 분석, 경관우수(Good)와 경관저해(Bad) 요소 분석, 경관 유형별 생각과 이미지 분석, 경관의 중요성, 규제정도 및 규제 시 참여정도에 대한 분석, 그리고 경관향상을 위한 선행요소에 대한 설문을 통해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경관관리의 목표와 제시 방안을 유도
- 정성적 경관분석 : 정성적 경관분석방법으로는 도내의 12개 시군의 현장조사로 충청북도의 긍정적, 부정적, 잠재적, 위험적 경관을 고찰, 충청북도의 사향성을 통해 충북경관전략을 수립

■ 3차원 시뮬레이션

- 지역의 대표적인 경관에 대한 2차원적 도면보정작업(2-D Simulation)기법을 사용하여 지역의 특이성 보존방법의 강구와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제시하여, 시각적 계획(Visual Planning)의 방법을 사용
- 충청북도의 대표적 경관시범지구를 객관적 평가에 의해 청주 로데오거리, 충주 남산인근지역, 그리고 보은 회남면 대청호주변 선정하여, 이곳에 대한 구체적인 3차원 경관시뮬레이션계획 수행



[그림 1-2] 충청북도 25000, 50000 도엽 Index

[그림 1-3] 3차원 시뮬레이션

5) 계획의 활용

- 충북 경관 틀을 통한 관련계획에서 활용: 충북의 경관성과 지역별 경관이미지설정을 통하여 거시적인 충북장기발전계획은 물론 미시적인 시군별 기본계획수립 시 이를 기본방향으로 활용하고 지역간 경관이미지 연결 및 조화 모색
- 시·군별 경관기본계획수립지침으로 활용: 경관법에 의한 법적 근거를 가진 계획으로서 도시계획수립체계에서 경관기본계획의 위계를 설정하고 지자체별로 수립할 수 있는 기준과 방향을 설정
- 경관권역의 분류와 이를 통한 행정관리: 기본적으로 지역의 경관을 관리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크게 4개의 경관권역(경관형성권역, 경관보전권역, 경관관리권역, 경관재생권역)설정을 의무화하고 각기 별도의 계획기준으로 특징적 경관창출 도모
- 경관지구지정기준으로 활용: 도시나 지역의 미관을 향상하기위해 기본적으로 지정하는 경관지구는 토지의 재산권행사에 상대적으로 많은 규제로 인해 민원소지가 많아 지정과정과 기준을 합리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기본 틀로 활용
- 시군별 경관조례안 작성기준: 현재 일부 시군에서 경관관련조례안을 작성하였으나 근거법의 미비로 입안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상위제도로 충청북도 경관조례안을 작성함으로써 직접 경관행정관리의 기준이 되는 시·군별 경관조례작성근거로 활용
- 경관관리지침으로 활용: 경관관리편람을 통하여 일선 시·군에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과 각종 개발계획수립 및 개발행위 시 등에 경관관리기준 및 지침으로 활용

PART II 충북의 경관성은 무엇인가?

1. 역사로 본 충북의 경관

1) 청주경관의 형성과 변천

- 현재의 청주 지역은 백제의 군사적 요충지로 취락이 형성된 이후 점차 도시로 활성화되어 현재에 이르렀으나 과거의 도시구조나 경관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존재하지 않으며, 비교적 명확한 최초의 기록으로는 조선왕조실록과 1790년대 작성된 청주읍성도(淸州邑城圖)에 의해 조선시대 후기부터 추정이 가능
- 조선시대 후반기부터 현재까지 청주 도시경관의 형성과 변천 과정을 시기별로 구분하자면, 각 시기별로 경관을 유발한 ‘형성배경’과 그 결과로 인식된 ‘경관적 특성’이라는 두 요소의 분석에 의해 다음과 같이 세 시기로 구분이 가능
- 조선시대 후기는 읍성에 의한 공간구조를 바탕으로 전통적 도시경관을 형성하였던 시기이며, 1910년대-1960년대는 일제강점기와 전후 복구기를 거치며 일본식, 서구식 기법의 수용에 의해 근대적 도시경관을 형성하였던 시기이며, 1970년대 이후는 청주도시계획의 수립 시행과 체계적 개발에 의해 현대적 도시경관을 형성하였던 시기

(1) 전통적 도시경관 (조선시대 후기)

① 형성배경

■ 도시의 원형으로써 읍성

- 한반도에서 발생되었던 각 왕조는 국가의 기본적 행정체계로써 수도인 도성(都城)을 중심으로 지방의 주요지역에 정치적, 행정적, 군사적 기본단위로 읍성(邑城)을 설치하였으며, 이와 같은 행정 체계는 조선시대까지 지속
- 지방의 주요 도시였던 읍성은 시대에 따라서 규모가 확장되거나 축소되기도 하였지만 기본적 형식과 공간구조는 조선시대까지 그대로 지속되었으며, 이후 근대적 도시로 변환되고는 현대적 도시로 발전되는 과정에서도 여전히 기본적 골격으로써 역할
- 현재의 국내 도시 대부분은 과거의 읍성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하였으므로 읍성은 현재까지도 도시 공간구조의 원형으로써 역할하며, 따라서 도시경관의 형성과 변천 과정을 알기 위해서는 읍성의 기본적 형식과 공간구조에 대한 분석이 필요
- 읍성의 공간구조와 경관을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는 존재하지 않으며, 조선시대 후기에 발간되어 현재까지 전해지는 각종 지리지(地理誌)와 지도 등을 통해 개략적인 추정이 가능

- 일반적으로 읍성은 외곽에 평균 약 400×600M 규모의 장방형 또는 타원형 평면의 연속적 성곽을 건설하고 동서남북 방향에 각각 출입구로서 성문 즉 사대문(四大門)을 설치하였으며, 내부에 성문을 상호 연결하는 십자형 또는 T자형의 주간선도로를 형성
- 주간선도로는 읍성 공간구성의 주축(主軸)이자 상징적 가로로 이용되었으며, 성벽과 주간선도로에 의해 구획된 대가구내에서 지형에 따라 부정형 또는 격자형의 소도로망과 소가구를 형성.
- 읍성의 대표적 공공건축물이자 정치, 행정의 기능을 담당하였던 객사(客舍), 동헌(東軒) 등의 관아(官衙)가 읍성의 중심부에 해당하는 주간선도로 교차부에 배치되어 읍성 공간구조의 중심적, 상징적 건축물로서 역할
- 주거지는 일반적으로 신분별로 구분되어 지역별로 형성되었으며 일반적으로 성곽 내부 관아를 중심으로 상류층 주거지를 형성하고 그 외곽에 중인계급 주거지를 형성하였으며, 성곽 외부에 하층계급 주거지를 형성

■ 청주읍성

- 현재의 청주 지역은 삼국시대 백제의 군사적 요충지로 취락이 형성된 이후 점차 도시로 활성화되어 현재에 이르렀으나 과거의 도시 공간구조나 경관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존재하지 않으며, 비교적 명확한 최초의 기록으로는 조선왕조실록과 1790년대 작성된 청주읍성도(淸州邑城圖)에 의해 조선시대 후기부터 추정 가능
- 청주읍성은 전체적으로 타원형에 가까운 장방형 평면으로 남북방향이 긴 약400×600M 규모의 평면을 형성하였으며, 성곽의 위치는 현재의 도로명에 의하면 동쪽은 상당로, 서쪽은 남주로, 남쪽은 남문길, 북쪽은 사직로와 개략적으로 일치
- 읍성 출입구로 사대문을 설치하였으며 동쪽에 벽인문(關寅門, 현재 청주백화점 부근), 서쪽에 청추문(淸秋門, 현재 서문오거리 부근), 남쪽에 청남문(淸南門, 현재 청주약국 부근), 북쪽에 현무문(玄武門, 현재 상당공원 앞 지하상가 입구 부근)을 각각 설치
- 사대문을 연결하는 주간선도로를 형성하고 그 주변에 관아, 병영 등 주요 공공건축물을 집중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읍성 공간구조의 골격을 형성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소규모 가구와 도로망을 형성
- 읍성에 의해 형성된 청주의 전통적 도시구조와 공간은 일제강점기 시구개정사업에 의해 성벽이 해체될 때까지 지속되었으며, 그 이후에도 현재까지 도시 중심부 공간구조의 기본적 골격으로서 역할



[그림 2-1] 청주읍성 (1790년 작성)



[그림 2-2] 청남문 전경



[그림 2-3] 청주관아 삼문

② 경관적 특성

■ 대표적 경관으로서 성곽

- 조선시대 일반적 읍성도시는 평지지형에 읍성의 기본적 요소인 성곽에 의해 도시구조와 공간을 형성하였으므로, 도시를 둘러싼 연속적 성곽이 읍성의 도시경관을 대표하는 요소로서 역할
- 전형적 읍성도시였던 청주도 높이 약4M 규모로 총연장 약 1,800M에 걸쳐 축성된 성곽이 도시구조를 형성하고 영역을 한정하는 공간적, 기능적 요소이자 어디에서나 보이는 시각적 요소로 존재하며, 도시를 인식시키는 대표적 경관으로서 역할
- 청주읍성의 출입구였던 사대문은 성곽의 가장 특징적 경관요소로 서문, 남문, 북문은 홍예(虹蜺, Arch) 출입구를 지닌 중층건물이었고 동문은 단층건물이었으며, 특히 남문인 청남문은 청주읍성의 정문으로 가장 대규모이었고 전면에 S자형의 웅성(甕城)을 설치
- 높고 긴 연속적 성곽을 경계로 청주읍성의 내부와 외부가 영역적, 공간적으로 분리된 채 서로 다른 형식의 공간구조를 형성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내부와 외부의 경관이 서로 다른 이원적 경관구조를 형성

■ 읍성내부 경관

- 사대문을 연결하는 도로 중 동문과 서문을 연결하는 주간선도로는 직교하지 않고 약간 불규칙하게 형성되었으므로, 남문과 북문을 연결하는 직선의 주간선도로(현재의 성안길)가 전체 공간구조 및 가로경관의 주축을 형성
- 청주읍성의 중심적 건축물로 다른 건축물들에 비해 대규모로 화려하게 건축된 관아 건물군과 병영(兵營) 건물군, 수직적 구조의 철당간(鐵幢竿) 등이 주간선도로 교차점 부근에 배치되며 읍성내부 경관의 주요 조망점으로서 역할
- 관아 건물군은 팔작지붕과 11×2칸 규모의 객사, 팔작지붕과 2×3칸, 2층 누각 구조의 부속건물 망선루(望仙樓, 현재의 중앙공원내로 이전 복원), 팔작지붕과 7×4칸 규모의 동헌(현재 청주군청내 현존), 내외 삼문(三門) 등으로 구성되어 읍성 중앙부의 약간 북측 지역(현재의 청원군청 일대)에 위치
- 병영 건물군은 팔작지붕, 3×2칸과 2층 누각 구조의 충청병마절도사영문(忠淸兵馬節度使營門, 현재 중앙공원내 현존), 팔작지붕과 6×2칸 규모의 운주헌(運籌軒), 내외 삼문, 부속건물 등으로 구성되어 관아의 남쪽 지역(현재 중앙공원 일대)에 위치
- 읍성내부에서 관아와 병영 건물군을 중심으로 그 외곽 지역에 주거지를 형성하였으며, 주거지는 남북축의 주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소규모 저층 주택들이 저밀도로 배치되며 무질서하게 산재



■ 읍성외부 경관

- 동측의 우암산 줄기와 서쪽, 남쪽을 감싸며 흐르는 무심천이 청주읍성 외부의 공간과 영역을 한정하는 자연적 요소이자 주요 경관적 요소로 역할 하였으며, 북측은 논과 밭의 평야지대에 의해 자연적 경관을 형성
- 관아, 병영 등 공공건축물과 주거지, 그리고 이들을 연결하는 도로에 의해 구성되었던 읍성 내부와는 달리 읍성 외부는 취락이 발달되지도 않았고 대부분의 지역이 논과 밭의 평야지대에 의해 구성
- 읍성 외부지역 중에서 읍성 정문이었던 남문의 바깥쪽 인접지역이 비교적 번성하여, 남문부터 서문까지의 성곽과 무심천 사이 평야지대에 시장을 형성하고 부근에 하층계급의 주거지를 형성
- 남문 전면도로는 읍성내부의 주간선도로와 연결되어 읍성의 내부와 외부를 공간적으로 연결하는 남북축을 형성함으로써, 청주읍성 전체경관 및 공간구조의 주요 시각적 축(Vista Axis)을 제공
- 읍성외부 지역 중에서 조선초기 동문 밖의 우암산 기슭에 건립된 청주향교, 조선중기 동측의 선도산 기슭에 건립된 신흥서원, 서문 밖의 현재 충훈탑 자리에 건립된 사직단(1910년 일제가 철거) 등이 특징적 건축물로써 경관적으로 주요 조망점을 형성



[그림 2-7] 청주향교



[그림 2-8] 현재의 신흥성원

(2) 근대적 도시경관 (1910년대-1960년대)

■ 전통적 도시공간과 경관의 훼손

- 일제는 일제강점기 동안 식민통치와 경제적 착취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전통적 도시구조를 의도적으로 개편하고 왜곡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이전의 전통적 도시공간과 경관을 파괴.
- 과거 읍성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던 청주의 전통적 도시공간과 경관은 시구개정사업, 시가지계획 등 일제강점기 동안 시행된 도시계획을 통하여 구조적으로 왜곡되었고 점차 원형을 상실.
- 오랫동안 청주 도시공간 구성의 핵심적 요소였던 읍성 성곽의 해체와 도시성장에 따른 시가지 확장으로, 성곽이 지녔던 도시경계로서의 의미가 사라지고 성곽 내부와 외부의 이원적 구조가 통합되면서 전통적 도시공간과 경관을 상실.

■ 근대적 도시경관 형성

- 20세기초 이후 읍성 철거, 새로운 격자형 도로망 체계의 도입, 기하학적 형태의 가구와 필지체계의 도입, 도로 위주의 시가지 정비 정책, 도로 주변에 건물의 밀집 등에 의해 도시의 기본적 구조와 형식이 점차 서구식으로 변화되었고 근대적 도시경관을 형성.
- 관공서, 학교를 비롯한 주요 건축물들이 목재, 석재, 기와 등 전통적 재료와 목조식 건축구법에서 벗어나 시멘트, 벽돌, 콘크리트, 유리 등 새로운 재료와 조적조, 콘크리트조 등 새로운 건축구법을 도입함으로써 서구식 근대적 도시경관을 형성.
- 저층, 한옥 지붕 위주로 수평성이 강조되었던 전통적 스카이라인은 도심부에 공공건물, 상업건물, 교회, 학교 등 2-3층 규모의 서양식 건축물이 들어섬에 따라 수직성이 추가되면서 점차 변화.

■ 도심부 경관

- 1908년 관찰부의 청주 이전을 계기로 이후 활발하게 건축된 각종 행정, 금융, 상업, 교육 관련기관이 새로운 건축양식, 대형 규모, 중심적 입지 등으로 인하여 시가지의 주요 조망점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격자형 도로망과 가구를 바탕으로 근대적 도시경관을 형성
- 청주는 과거 읍성 내부지역을 중심으로 남북방향으로 점차 확장되면서 시가화 되었으며, 특히 읍성 당시 남문과 북문을 연결하는 주간선도로였고 시구개정사업 당시 확장된 남북관통도로(현재의 성안길)가 시가화와 경관형성의 주축을 담당
- 청주 중심가를 남북방향으로 관통하며 도시기능 및 공간구성의 주축을 형성하였던 성안길은, 주변에 각종 상가와 은행, 청주우체국, 청주역 등의 주요 건축물이 2-3층 규모로 밀집되면서 청주의 대표적 가로경관을 형성.
- 시가화는 과거 읍성 내부지역을 중심으로 주로 진행되었지만, 외부지역 중에서는 북부의 청주역(1921년 현재 청석예식장 부근에 신축)과 그 주변지역 그리고 남서부의 남주동 일대 시장지역 등이 활성화되고 개발됨으로써 주요 시가지 경관을 형성





[그림 2-12] 충훈탑에서 본 청주전경 (1950년대)

■ 주거지 경관

- 1910년 이후 청주 인구의 지속적 증가로 주택 신축이 급증하였지만 과거 읍성 내부지역은 도심부로서 공공, 상업건축물 등에 의해 시가화 되었으므로, 주거지는 읍성 외곽지역이었던 과거 남주동, 서문동, 석교동, 서운동, 문화동, 북문로, 영동 지역에 걸쳐 확산되며 환상 형태로 형성
- 건축형식이 전통 한옥, 초가집에서 개량한옥, 일식주택, 양식주택으로, 건축대상지가 평지위주에서 평지뿐만 아니라 구릉지와 하천변까지로, 배치형식이 저밀도에서 고밀도로 변화되면서 전통적 형식에서 벗어나 근대적 형식의 주거지 경관을 형성
- 1907년 청주 최초의 서양식 주거로 탑동의 언덕 정상부에 선교사들을 위한 양관(洋館)이 건축되고 일제강점기 도심부와 근접한 문화동, 서운동, 영동 일대에 일본식 주거지가 형성되는 등 이국풍 경관의 주거지가 점차 확산
- 한국전쟁 이후 과거 수동 지역을 중심으로 우암산 기슭에 피난민들에 의해 자연발생적으로 주거지가 형성되었으며, 이들은 부정형 도로와 저층 불량주택이 무질서하게 배치된 고밀도의 주거지를 형성

(3) 현대적 도시경관 (1970년대 이후)

■ 현대적 도시경관 형성

- 1970년대 이후 청주의 도시공간구조는 구읍성 중심의 도심부와 그 외곽 주거지에 의해 구성되었던 과거의 이원적 형식으로부터 벗어나, 각종 개발사업에 의해 외곽지역에 부도심이 형성되는 다원화된 형식으로 변화되면서 현대적 도시경관을 형성
- 시가지가 급격히 확장되면서 도시계획에 의해 지역, 지구별로 정비 개발되고, 도심부는 상업과 업무용 건물 위주로 그리고 주거지는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위주로 각각 고층화, 고밀도화 되고, 또한 각각의 건물들이 현대적 건축언어와 기법에 의해 구성됨으로써, 청주는 점차 현대적 도시경관으로 변모
- 과거 대부분 2층 이하 규모였던 건축물들이 1980년대 이후 상당로, 사직로 등 주간선도로변을 중심으로 3층 이상으로 건축되고 또한 1990년대 이후는 상업, 업무용 건물과 아파트를 중심으로 고층화되면서 과거 저층 위주의 도시 스카이라인이 근본적으로 변화
- 1970년대 이후 도시계획과 택지개발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의해 시가지가 확장되며 도로, 가구, 필지, 건축물 등이 주로 기하학적 형태로 구성되면서 정형적 도시경관을 형성



[그림 2-12] 문화동 일대
주거지(1930년대)



[그림 2-14] 청주 도심부 경관

■ 도심부 경관

- 과거 읍성지역 중심의 단일도심 경관구조에서 도시공간이 확장되면서 1970년대는 내덕동, 복대동, 1980년대는 봉명동, 사창동, 1990년대는 가경동, 용암동, 분평동 등 지역에 부도심을 형성함으로써 점차 다핵도심 경관구조로 변화
- 과거 남북방향의 성안길을 주축으로 형성되었던 도심부 경관은 1980년대는 상당로와 사직로에 의해 남,북,서 방향의 T자형으로, 1990년대는 부도심을 연결하는 방사환상형으로 확장되며 전체 시가지 경관의 골격을 형성
- 도심부는 도시계획에 의해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지가상승과 인구집중을 배경으로 토지이용 및 공간구성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평적 보다 수직적 방향으로 확장을 추구하였으므로, 점차 고밀도 배치와 고층건물 위주의 경관을 형성
- 오랜 기간에 걸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기존 도심(과거 읍성내부 지역)은 부정형 필지를 바탕으로 소규모 건물 위주로 고밀도화 되었으며, 새롭게 계획적으로 형성된 부도심 지역은 정형적 필지를 바탕으로 중,대규모 건물 위주로 고밀도화



■ 주거지 경관

- 1970년대 이후 청주의 주거지는 이전부터 형성된 전통적 저층 주거지와 외곽에 형성되는 새로운 고층 주거지에 의해 이원적으로 구성되었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전통적 주거지는 공간적, 질적, 기능적으로 점차 낙후되는 대신에 외곽의 새로운 주거지가 상대적으로 활성화
- 남주동, 서문동, 석교동, 서운동, 문화동, 북문로, 영동 등의 전통적 주거지는 도심공동화 현상에 의해 주택용도 대신에 상업시설, 근린생활시설, 점포주택 등의 용도로 대치되며 주거지로서의 기능과 경관을 점차 상실
- 1970년대에는 우암동, 사직동 지역에, 1980년대에는 모충동, 수곡동, 율량동 지역에, 1990년대에는 용암동, 분평동, 가경동 지역에 새로운 형식과 경관의 주거지를 형성하며 주거지가 점차 시가지 외곽으로 확산
- 과거의 전통적 주거지는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어 대부분 저층 단독주택 위주로 구성되었지만, 1970년 이후 주거지는 택지개발사업 등에 의해 계획적으로 개발되며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고밀도 집합주거형식 위주로 구성
- 아파트는 1970년대 청주에 최초로 건설된 후 1980년대는 주로 5층 이하의 저층, 소규모단지로 건축되다 1990년대 이후는 용암동, 분평동, 산남동, 개신동, 가경동, 사천동, 율량동 등 외곽지역에 고층아파트를 집중적으로 건설
- 1990년대 이후 주거건축 형식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집중적으로 건설된 고층아파트는 청주의 대표적 주거지 경관을 형성하였지만, 판상형 위주의 남향배치, 획일적 규모와 형식, 동일재료의 반복적 사용 등에 의해 특색없는 단조로운 주거환경과 도시경관을 형성



[그림 2-17] 고층아파트 위주의 청주 주거지경관

■ 자연경관

- 청주는 분지 지형으로 동쪽의 우암산(339M) 중심의 산지, 서쪽의 부모산(232M) 중심의 구릉지, 시가지 중앙을 남북방향으로 관통하며 흐르는 무심천이 읍성 형성 당시부터 원형적 자연경관을 형성한 후 현재까지 대표적 자연경관으로서 역할
- 1970년대 이전은 과거 읍성지역을 중심으로 동쪽은 우암산, 서쪽은 무심천, 북쪽은 우암동, 남쪽은 석교동 지역을 경계로 시가지를 형성하고 그 외곽은 전원풍의 자연경관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나, 그 이후 시가지 확산과 개발로 점차 자연적 경관을 상실
-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1973년 우암산, 부모산을 포함한 청주 외곽 녹지대를 개발제한구역(Green Belt)으로 지정함으로써, 시가지를 둘러싼 환형의 녹지대 자연경관을 원형 그대로 유지하였으나 최근 지정 해제로 점차 훼손이 예상
- 무심천은 한때 시가지 발전의 장애가 되기도 하였으나 1971년 제방도로정비 완공을 계기로 시가지가 무심천을 넘어 확장되면서 청주 도심의 주요한 오픈 스페이스와 수변경관으로 역할하였으며, 1990년대 하상도로와 주차장 설치로 자연적 경관을 점차 상실



[그림 2-18] 무심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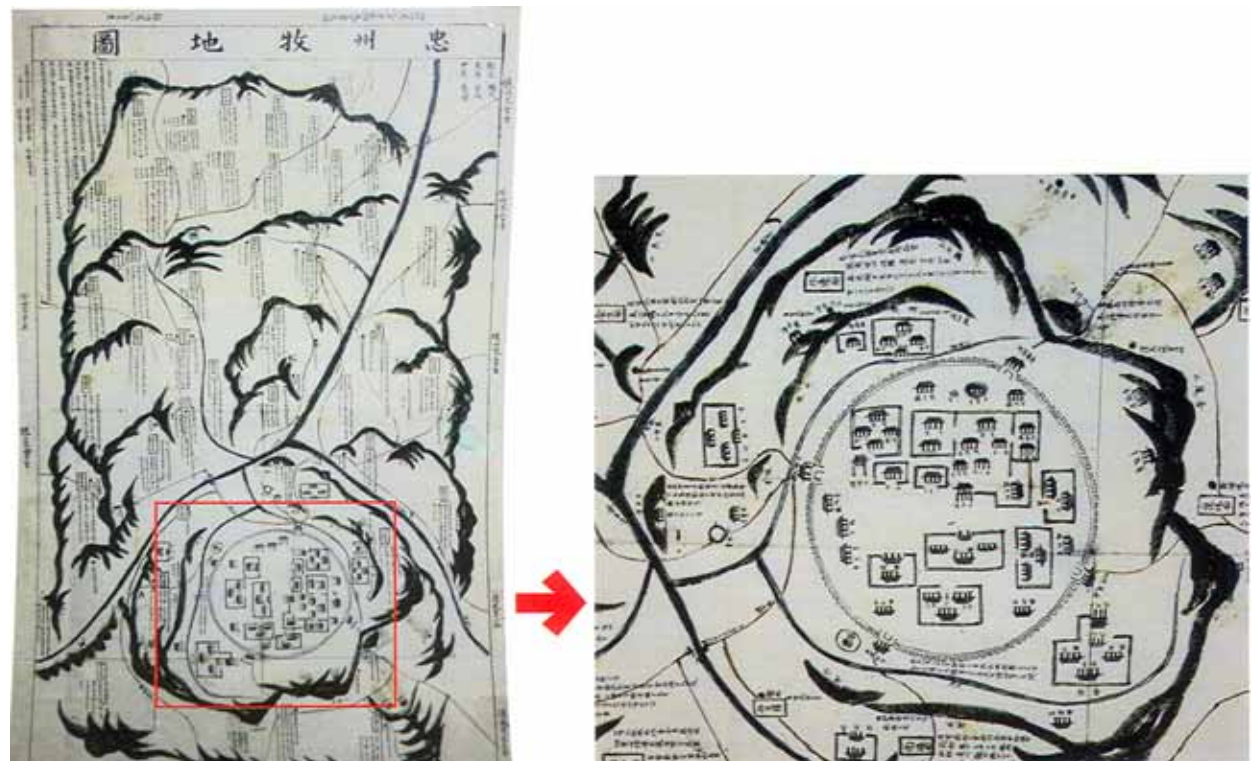
2) 충주경관의 형성과 변천

(1) 전통적 도시경관 (조선시대 후기)

① 형성배경

■ 도시의 원형으로써 읍성

- 현재의 충주 지역은 선사시대 당시 남한강과 달천강 유역에서 사람들이 거주한 후 지속적으로 정주지(定住地)를 형성하였으며,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하였다는 지리적 장점을 바탕으로 항상 군사적, 교통적 요충지로서 역할
- 충주도 청주와 마찬가지로 일찍부터 읍성이 설치된 후 시대와 여건에 따라서 규모가 확장되거나 축소되었지만 기본적 형식과 공간구조는 조선시대까지 그대로 지속되었으며, 이후 근대적 도시로 변환되고는 현대적 도시로 발전되는 과정에서도 여전히 기본적 골격으로써 역할
- 현재의 충주도 과거의 읍성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하였으므로 읍성은 항상 도시 공간구조의 원형으로써 역할하였으며, 따라서 도시경관의 형성과 변천 과정을 알기 위해서는 충주 읍성의 기본적 형식과 공간구조에 대한 분석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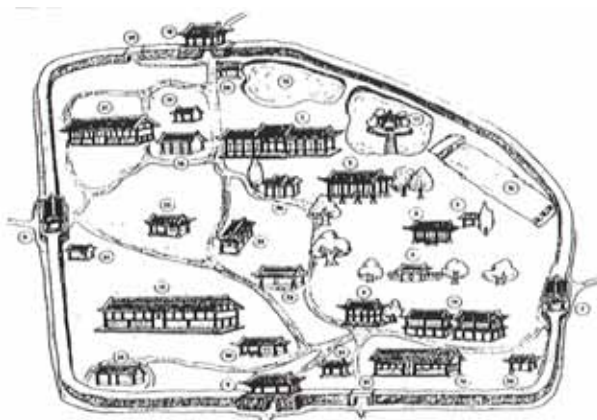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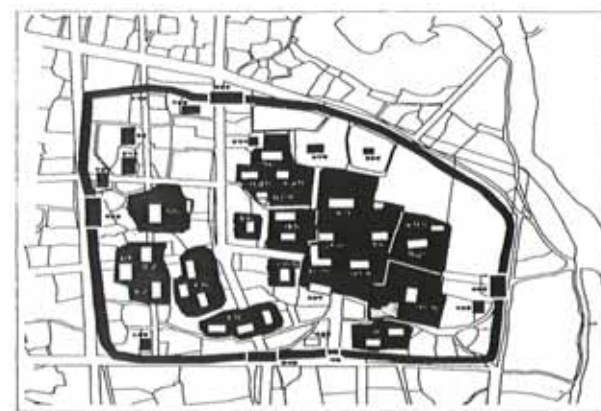
[그림 2-20] 충주읍성 출입문

■ 충주읍성

- 충주읍성은 신라 문무왕 당시 673년 석성(石城)으로 축성된 후 고려 충렬왕 당시 1281년과 조선 고종 당시 1869년에 개축되었으며, 당시 충주읍성의 공간구조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는 상태
- 충주읍성의 공간구조는 조선시대 후기에 발간된 해동지도(海東地圖, 1750년대), 충주목지도(忠州牧地圖, 1872년), 충청도읍지(忠淸都邑誌, 1780년경), 충주읍지(忠州邑誌, 1898년) 등 각종 지리지(地理誌)와 지도를 통해 개략적 추정이 가능
- 고종 당시 개축된 충주읍성은 불규칙한 장방형 평면으로 현재로 보면 위치는 현재의 성내동 일대로 제1로타리에서 제2로타리를 지나 동쪽 방향으로 가다가 학생도서관 동쪽과 북쪽 도로를 거쳐 다시 제1로타리로 연결하는 지점에 성벽을 건설
- 성벽은 외측은 석축으로, 내측은 토축으로 축성하였으며, 읍성 출입구이자 사대문으로 동쪽에 조양문(朝陽門, 2층 8칸), 서쪽에 휘금문(輝金門, 2층 8칸), 남쪽에 봉아문(鳳阿門, 2층 10칸), 북쪽에 경천문(敬天門, 2층 15칸) 등 각각 설치
- 읍성 내부는 북대문과 남대문을 연결하는 주도로 축을 강하게 형성하고 중앙부에 객사를 중심으로 주변에 관아, 병영 등 주요 공공건축물을 집중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읍성 공간구조의 골격을 형성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소규모 가구와 도로망을 형성
- 읍성에 의해 형성된 충주의 전통적 도시구조와 공간은 일제강점기 시구개정사업에 의해 성벽이 해체될 때까지 지속되었으며, 그 이후에도 현재까지 도시 중심부 공간구조의 기본적 골격으로서 역할



[그림 2-21] 충주읍성 복원도



[그림 2-22] 충주읍성 주요건물 배치도

③ 경관적 특성

■ 대표적 경관으로서 성곽

- 조선시대 일반적 읍성도시는 평지지형에 읍성의 기본적 요소인 성곽에 의해 도시구조와 공간을 형성하였으므로, 도시를 둘러싼 연속적 성곽이 읍성의 도시경관을 대표하는 요소로서 역할
- 전형적 읍성도시였던 충주도 성벽 높이 6.6M, 두께 8.2M 규모로 총 둘레 1,220M의 성곽이 도시구조를 형성하고 영역을 한정하는 공간적, 기능적 요소이자 어디에서나 보이는 시각적 요소로 존재하며, 도시를 인식시키는 대표적 경관으로서 역할
- 충주읍성의 출입구였던 사대문은 성곽의 가장 특징적 경관요소로 모두 홍예(虹蜺, Arch) 출입구를 지닌 중층건물이었으며, 특히 5×3칸으로 가장 대규모였던 북대문 경천문은 충주읍성의 주대문이자 수도 한양을 연결하는 상징적인 대문으로 역할

- 높고 긴 연속적 성곽을 경계로 충주읍성의 내부와 외부가 영역적, 공간적으로 분리된 채 서로 다른 형식의 공간구조를 형성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내부와 외부의 경관이 서로 다른 이원적 경관구조를 형성

■ 읍성내부 경관

- 충주읍성 내부는 도로망을 계획적으로 형성하지 않고 지형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된 소도로를 이용하여 사대문과 성내의 각 시설들을 연결하고 가구를 형성하였으므로, 전체적으로 비정형적인 공간구조와 경관을 형성
- 전체적으로 비정형적인 공간구성 속에서 북대문과 남대문을 연결하며 중앙부를 통과하는 주간선도로가 직선 축을 강하게 형성하고 주변에 관아(官衙) 건물군 등 주요건축물이 배치됨으로써 읍성 공간구조 및 가로경관의 주축으로 역할
- 읍성내부를 양분하는 남북 주간선도로를 중심으로 동쪽에는 읍성의 상징적, 중심적 건물이었던 관아 건물군을 배치하고 건너편 서쪽에는 향청(鄉廳), 사창(司倉), 장청(將廳) 등 부속건축물을 배치
- 관아 건물군은 동헌(東軒)이었던 팔작지붕, 7×4칸 규모의 청녕헌(淸寧軒)을 중심으로 영빈관이었던 팔작지붕, 6.5×3칸 규모의 제금당(製錦堂), 수직청(守直廳)이었던 팔작지붕, 4×2칸 규모의 산고수청각(山高水淸閣), 48칸 규모의 객사(客舍), 내삼문 등에 의해 구성



[그림 2-23] 충주 청녕헌



[그림 2-24] 충주 제금당

■ 읍성외부 경관

- 충주는 분지지형으로 동쪽과 남쪽의 계명산, 남산, 대림산과 북쪽의 천등산, 서쪽의 국망산, 보련산 등이 외곽을 감싸며 충주읍성 외부의 공간과 영역을 한정하는 자연적 요소이자 주요 경관적 요소로 역할
- 읍성 외부에는 동북쪽 현재의 교현동 지역에 향교가, 서북쪽에 진영(鎭營)과 훈련청(訓練廳) 등의 건물이 위치하였으며, 읍성 정문이었던 북대문의 바깥쪽 지역이 비교적 번성하여 충주천 변에 대규모 시장을 형성
- 읍성 외부에는 곳곳에 주거지가 형성되었는데 우선 북쪽 시장 근처에 상인들의 집단적 주거지가 형성되었으며, 외지로 연결되는 주요한 간선도로를 따라 밀집주거지가 형성되었는데 주로 남대문과 북대문 쪽에 각각 형성
- 관아, 병영 등 공공건축물과 이들을 연결하는 도로망에 의해 구성되었던 읍성 내부와는 달리 읍성 외부는 산, 구릉, 평야, 충주천 등의 자연적 요소에 경관을 구성하고 일부지역에 주거지와 시장을 형성

(2) 근대적 도시경관 (1910년대-1960년대)

■ 전통적 도시경관 훼손과 근대적 도시경관 형성

- 과거 읍성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던 충주의 전통적 도시공간과 경관은 일제강점기 동안 시구개정사업, 토지조사 등에 의해 읍성이 해체되고 구읍성 지역이 일본인 집단거주지로 개조되면서 구조적으로 왜곡되었고 점차 파괴되며 원형을 상실.
- 충주읍성 성곽 해체와 시가지 확장으로 성곽의 경계적 의미와 역할이 사라지고 성곽 내부와 외부의 이원적 구조가 통합되면서 전통적 도시공간과 경관을 상실하였으며, 새로운 격자형 도로망 체계의 도입, 기하학적 형태의 가구와 필지체계의 도입, 도로 주변에 새로운 양식 건축물의 밀집 등에 의해 도시의 기본적 구조와 형식이 점차 서구식으로 변화되며 근대적 도시경관을 형성.
- 공공건물, 상업건물, 학교 등 각종 새로운 건축물이 들어서고 이들이 시멘트, 벽돌, 콘크리트, 유리 등 새로운 재료와 조적조, 콘크리트조 등 새로운 건축구법에 건축됨으로써, 충주는 과거 한옥 위주의 경관에서 벗어나 점차 서구식 근대적 도시경관을 형성.



[그림 2-26] 1930년대 충주 전경



[그림 2-27] 1960년대 충주 시가지

■ 도심부 경관

- 과거 전통적 도시구조에서 중심적 기능과 역할을 하였던 충주읍성 내부지역은 읍성 철거 이후에도 여전히 기능적, 공간적으로 지역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지만, 내부를 구성하는 도로, 가구, 건축물은 대부분 변화되었고 따라서 경관도 대부분 변모되며 근대적 도시경관을 형성
- 시가화는 과거 읍성 내부지역을 중심으로 주로 진행되었지만, 점차 시가지가 외부로 확장되어 충주천, 교현천을 경계로 하는 지역까지 확장되었으며, 읍성지역을 중심으로 서쪽에는 시장과 점포주택의 상업용 건물이 주로 들어서고 북쪽에는 시장을 형성
- 성내동, 성서동을 중심으로 건축된 각종 행정, 금융, 상업 관련기관이 전통적 한옥양식과 다른 새로운 건축양식, 주변과 다른 대형 규모, 주요도로에 면한 중심적 입지 등에 의해 충주의 상징적 건축물, 장소로서 뿐만 아니라 주요 조망점으로서 역할
- 과거 읍성에서 북대문과 남대문을 연결하며 중앙부를 관통하였던 주간선도로가 읍성 철거 후에도 여전히 도시기능 및 공간구성의 주축을 형성하였으며 이와 연결된 소도로들과 함께 가로변에 경찰서, 우체국, 군청, 은행, 점포 등이 건축됨으로써 근대기 충주의 대표적 가로경관을 형성



[그림 2-28] 충주 시가지 (1950년대)



[그림 2-29] 충주 시가지 (1960년대)

■ 주거지 경관

- 과거 충주읍성 내부지역은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인들에 점유되어 관청, 공공건물, 상가 등이 집중되었으므로,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관사, 상가주택 등이 일식주거형식으로 건축되며 주거지를 형성
- 건축형식이 전통 한옥, 초가집에서 개량한옥, 일식주택, 양식주택으로, 건축대상지가 평지위주에서 구릉지와 하천변까지로, 배치형식이 저밀도에서 고밀도로 변화되면서 전통적 형식에서 벗어나 근대적 형식의 주거지 경관을 형성
- 일제강점기 당시 도심지역의 일본인 독점과 지가상승으로 내국인 주거지는 외곽지역으로 밀려나 충주천과 교현천 건너 지역까지 확산되었으며, 현재의 성서동, 성남동, 충인동, 충의동 등의 지역에서 저층 주거지를 형성
- 한국전쟁 이후 도시화와 인구증가로 시가지가 점차 확산되면서 주거지가 외곽으로 더욱 확산되었으며, 기존의 주거지는 상업, 업무용 건축물이 혼용되며 복합적 경관을 형성하였던 반면에 용산동, 봉방동, 교현동 등은 주거지 위주의 경관을 형성

(3) 현대적 도시경관

■ 현대적 도시경관 형성

- 1970년대 이후 충주의 도시공간구조는 구읍성 중심의 도심부와 그 외곽 주거지에 의해 구성되었던 이원적 형식으로부터 벗어나,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에 의해 지역, 지구 별로 체계적으로 개발, 정비되면서 점차 현대적 도시경관을 형성
- 시가지가 급격히 확장되면서 도심부는 상업과 업무용 건물 위주로 그리고 주거지는 아파트 위주로 고층화, 고밀도화 되고 또한 각각의 건물들이 콘크리트, 유리 등 현대적 건축언어와 기법에 의해 구성됨으로써, 충주는 점차 현대적 도시경관으로 변모
- 과거 대부분 2층 이하 규모였던 건축물들이 1980년대 이후 성내동, 성서동, 충인동을 중심으로 도로변에서 중층화되고 또한 1990년대 이후는 상업, 업무용 건물과 아파트를 중심으로 고층화되면서 과거 저층 위주의 도시 스카이라인이 근본적으로 변화

■ 도심부 경관

- 과거 읍성지역 중심의 단일도심 경관구조에서 시가지가 점차 확장되면서 1990년대 들어서 칠금동, 금릉동, 연수동 일대에 택지개발이 어느 정도 완료되고 부도심이 형성됨으로써 충주는 점차 다핵도심의 경관구조로 변화
- 과거 읍성지역을 중심으로 성내동, 성서동, 충인동 일대에서 형성된 구시가지는 소규모 저층 건물 위주로 구성되며 1980년대까지 오랫동안 충주의 대표적 도심부 경관으로 역할하였지만, 1990년대 이후 도심 공동화 현상에 의해 점차 역할과 기능을 상실
- 반면에 칠금동, 금릉동, 연수동 등 택지개발사업에 의해 외곽에 대규모로 새롭게 형성된 시가지는 구도심과 달리 도로, 가구, 필지, 건축물 등을 주로 기하학적 형태로 구성하면서 정형적인 현대적 도시경관을 형성

■ 주거지 경관

- 1970년대 이후 충주의 주거지는 이전부터 형성된 구시가지의 저층 주거지와 새롭게 형성되는 고층 아파트 주거지에 의해 이원적으로 구성되었으며, 구시가지의 주거지는 공간적, 질적, 기능적으로 점차 낙후되는 대신에 고층 아파트 주거지는 활성화되며 상호 대조적 경관을 형성
- 과거의 전통적 주거지는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어 대부분 저층 단독주택 위주로 구성되었지만, 1970년 이후 주거지는 택지개발사업 등에 의해 계획적으로 개발되며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고밀도 집합주거형식 위주로 구성
- 1990년대 이후 금릉동 택지개발지구 등 외곽 신개발지에 집중적으로 건설된 고층아파트는 충주의 대표적 주거지 경관과 스카이라인을 형성하였지만, 판상형 위주의 남향배치, 획일적 규모와 형식, 동일재료의 반복적 사용 등에 의해 단조로운 주거환경과 도시경관을 형성



[그림 2-30] 2005년 충주 전경



[그림 2-31] 1993년 충주 전경

3) 제천경관의 형성과 변천

- 제천시는 지리적 입지의 특성으로 인해 고대 부족국가의 형태를 이루었던 상고시대에는 진한의 발상지였으며, 4세기 초에는 한강 하류지역을 차지한 백제에 속한 일도 있었으나, 고구려, 신라, 백제 등 3국 시대에는 압록강 유역에서 일어난 고구려의 남하정책과 신라의 북상정책으로 인해 삼국의 각축지가 되었던 전략적 요충지역
- 고구려의 장수왕의 남진정책과 맞물려 대체로 5세기 중반까지 제천을 포함한 충주와 단양지역이 고구려의 최남단 지역이 되었음은 중원고구려비와 단양 사지원의 태장묘 등 고구려 유적 등을 근거로 유추가 가능
- 한편 신라의 아달라왕 3년과 5년 한강으로 통하는 교통로 상에 있던 제천과 청풍지역은 고구려와 신라의 양대 세력이 격돌하는 전쟁터가 되었으며, 이러한 연유로 많은 성터가 남아 있으며 고성터로 청풍의 덕주산성, 영월의 온달산성과 태화산성, 성산고성, 가은암산성 등이 대표적



[그림 2-32] 제천시 덕주산성



[그림 2-33] 덕주산성 덕주루



(1) 전통적 도시경관 (조선시대)

■ 형성배경

- 「동람도」 충청도 부분은 「동국여지승람」(성종12년)을 만들면서 덧붙여진 도별지도로 16세기 후반에 목판 인쇄한 것으로 당시의 충청도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으며 하천을 중심으로 56개 군현과 군현의 진산을 표시하고 있음. 제천과 청풍의 진산으로는 용두산과 감악산, 가은암산 및 월악산을 배치
- 전국을 대상으로 한 군현지도집에 수록된 읍지도「호서전도」에 수록된 제천현 지도를 보면 중심에는 읍치를 배치하고 향교와 아사, 창 등 공공건물은 파란 지붕의 가옥으로 표현하여 구별하였고 제천의 면은 동면, 남면, 북면, 현좌면, 현우면, 근좌면, 근우면, 원서면으로 구성되었으며 의림지가 부각되도록 그려져 있고, 소하천들의 모습이 상세히 그려져 있어 18세기의 제천의 모습이라고 유추가 가능
- 18세기 중반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군현지도집으로 편찬된 「해동지도」에서 제천과 청풍의 상황을 볼 수 있는데 지도에서 붉은 선으로 교통로를 표시하였으며, 소하천을 자세히 그려 놓은 점을 볼 때 진산인 용두산과 그 아래의 의림지를 읍의 상부에 표기
- 청풍부 지도를 보면 면의 표시가 되어있고, 붉은 선으로 교통로를 표시 하였으며, 붉은 점은 오치봉대를 표시. 옥천암, 백운암, 정방사, 신록사, 보광암 등 사찰을 상세히 표시한 것도 특이하다. 전체적으로 두현의 지도를 살펴보면 제천현이 청풍부 보다 읍세가 더 강하였던 것으로 판단
- 조선시대에는 태조 4년(1395) 양광도의 일부가 경기도로 편입하여 청주목과 충주목으로 개칭되고, 제주는 충청도에 이속되었으며, 태종 13년(1413)에 지방조직을 개편하여 전국을 8도로 나누어 제주를 제천이라 개칭하고 현감을 두었으며, 제천이라는 이름이 오늘까지 이름



[그림 2-36] 제천현 「해동지도」



[그림 2-37] 청풍부 「해동지도」

(2) 근대적 도시경관 (1890년대-1960년대)

■ 전통적 도시경관 훼손과 근대적 도시경관 형성

- 1885년 말 의병봉기 이후 의병운동의 중심지였던 제천은 다른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고 특히 1907년 8월15일 천남에서 이강년 의병부대에 패배한 일본군은 그 보복으로 그해 8월23일 제천지역전역에 대한 초토화 작전을 감행하여 이 때 제천은 철저히 파괴



[그림 2-38] 폐허간 된 제천시 전경(1907년 메켄지 촬영)

- 1909년 충청북도 관찰도 관하에는 18개 군이 있었으며, 청풍군은 8면 14동, 70리로 구성되었으며, 제천군은 8면, 20동, 114리로 구성되었고 제천경찰서가 있었으며, 관청 건물들의 현황을 보면 건조된 지 오래 되었고 수리를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여 전반적으로 상태가 좋지 못하였고 게다가 일본인들이 들어와 사무실로 사용하거나 순사주재소, 헌병분견소, 우편취급소 등으로 사용하면서 돌아킬 수 없도록 파괴
- 일제강점기에 들어서면서 이들 각 면들은 통폐합되면서 1914년 4월 1일 제1현인 우면 9개리, 제2현인 죄면 8개리, 제4현인 동면 10개리 등 27개 리하(里河)를 통합 개칭하여 제천면이라 칭하고 면사무소를 중앙로 1가 65번지에 설치



■ 도심부 경관

- 당시에는 충주·봉양에서 진입하게 되는 현 동명로와 확장된 중앙로에서 분기되는 어상천과 단양으로의 길, 그리고 북쪽의 영월로 통하는 길 등이 주요 교통로를 형성하였으며, 이들 도로의 형상 및 크기가 그대로 유지된 흔적들을 통해 당시의 도시경관 추정이 가능
- 현 우체국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던 관아공해를 중심으로 이 주변에 주거지가 형성되었으며, 1900년대 초에 이 건물에 일본인이 입처하면서 외지인이 이곳에 들어오게 되었다. 1920년대 들어서 일부 학교 교사를 중심으로 근대식 목조건축이 나타나고 중앙동을 중심으로 목조건축이 세워졌을 것으로 추정
- 실제로 주택용도보다는 근대식 기능을 담는 공공건물을 비롯하여 공장, 창고 등의 건물신축이 많았을 것이라 생각되며, 주거용 건물은 전래가옥의 형식이 대부분이었을 것으로 추정
- 1941년 7월 1일 중앙선의 개통과 더불어 상수도가 시설되었고, 동년 3월 31일 서부동 1번지에 연와조 2층의 읍사무소를 신축 이전하면서, 본격적인 근대시설이 들어서고 근대적인 도시경관 형성



[그림 2-40] 1930년대 중앙공원에서 본 제천시가지



[그림 2-41] 1940년대 제천시가지



[그림 2-42] 1960년대 제천시가지



[그림 2-43] 1970년 하늘에서 본 시가지 전경

■ 주거지 경관

- 본격적인 주택의 공급이 이뤄지게 된 것은 1941년 중앙선의 개통과 더불어 시작된 것으로 보이며 특히 철도의 개통과 동시에 영천동 뒷동산에 세워진 현존하는 철도관사군은 당시로서는 최신식 주거용건물을 형성, 이와 동시에 제천읍으로 승격되면서 인구증가에 따른 상업활동도 왕성하게 되어 기존 중앙시장뿐만 아니라 도로변에 연하여 점포병용주택들이 발생
- 현존하는 근대기 제천읍의 주거용 건물의 분포를 보면, 점포병용주택들은 중앙동 1·2가와 명서동 옛길 주변과, 그리고 역 앞 광장의 가지런히 정돈된 가로망에 세워진 점포와 여인숙 건물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주택들은 남천동 천주교회와 남천교회 주변에 구릉진 지형에 산재하여 분포
- 영천동이 철도관사 만이 유일하게 계획적인 주거지 구성에 입각하여 건설되었으며 이 건물이 건립될 당시에는 최상의 거주조건을 가진 건물로 다른 주택신축에 있어서 규범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
- 이러한 현상은 해방이후까지 지속되었으며,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제1차 경제개발계획의 시작과 함께 전국적으로 공영주택의 보급이 이루어지게 되며, 제천지역 역시 서부동과 화산동 일대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되면서 유사종류의 주택들로 인해 주거지경관이 형성



[그림 2-44] 옛날 중앙로(현 농협사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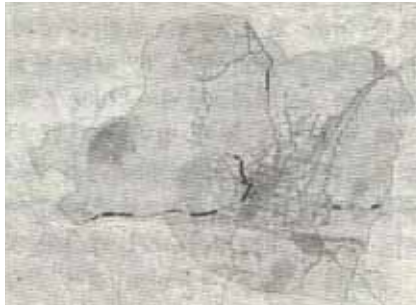
[그림 2-45] 제천시 승격 개철식 행사

(3) 현대적 도시경관 (1960년대 이후)

■ 현대적 도시경관 형성

- 제천시의 시가지 형성과정을 보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도시가 겪은 상황과 별반 차이를 보이지 않아 해방후 1960년대까지는 도시라기 보다는 전형적인 농촌읍급 규모의 도시로 성장
- 철도망의 발달과 지역의 주력산업인 시멘트 산업의 성장으로 인해 시군 총인구는 70년대를 기준으로 급격히 성장하였으며, 시부 또한 62,249명으로 성장함에 따라 우리나라 시급 도시 평균인구기준인 50,000명을 상회
- 시의 골격을 형성하는 시가지의 모습은 60년대 후반부터 형성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원인은 기존 교통수단인 철도망 의존도에서 탈피하여 자동차의 보급에 따른 것으로 판단
- 60년대의 시가지는 면적 규모상 도보로 접근이 가능한 정도의 규모를 띠고 있으며, 교동, 중앙동, 동현동 등을 중심으로 성장 발전하였으며, 근교권이라 할 수 있는 지역은 의림동, 용두동 등이 주변부를 형성

■ 도심부 경관



1960년대 주요간선망



1970년대 주요간선망



1980년대 주요간선망



1990년대 주요간선망

[그림 2-46] 제천의
시대별 주요간선망

- 제천시의 도시구조는 우선 자연지형인 북동쪽의 용두산과 서측의 하소천, 남측의 장평천 및 동측의 고암천으로 에워싸여 있으며, 제천역을 중심으로 한 남북축의 의림로를 중심으로 발달되어 왔던 것으로 의림로에는 남에서 북으로 3개소의 큰 광장(중앙교차로)이 원형의 형태를 유지
- 제1광장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남당로와 제2광장(명동교차로)에서 서쪽은 대체로, 동쪽은 중앙로가 있으며, 제3광장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명륜로가 제천시의 도로 구조의 골격을 형성
- 이러한 도시의 골격이 형성되기 이전은 1969년 제천도시계획도에서와 같이 중앙선개통(1941년) 이전에는 현 중앙로 2가동을 중심으로 구도심이 형성되었고 즉 현 중앙로 2가동 동측의 북에서 남으로 흘러 현 장평천으로 합류하였던 하천이 90년대에 상당기간 걸쳐 복개되기 이전의 하천을 끼고 구도심이 이미 있었으며 41년 중앙선이 개통된 후 의림로 서측으로 도시가 팽창되어 현재는 하소천과 용두대로까지 발전
- 중앙동과 명동을 중심으로 중심상업이 발달되었으며, 최근에는 청전동이 인근 대학으로 교통이 통과되는 지점으로 새로운 상업지역으로 부각되고 있음. 제천시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중앙동, 명동, 의림동은 기관 및 단체가 밀집하여 있으며, 특히 상권의 중심부에는 중앙시장과 17개 금융기관이 위치하여 있고, 최근 ‘차 없는 거리의 활성화’로 인하여 도시환경개선이 진행
- 최근 들어 청전동이 세명대학교까지 이르는 청전대로 및 중앙통로로 관통하는 교통 요충지로 자리 잡고 있으며, 교통뿐만 아니라 명동의 뒤를 이은 새로운 상권으로의 성장이 가속화 되고 있는 지역으로 난개발이 우려 되고 있는 지역
- 제천의 중앙부에 위치한 용두동을 중심으로 최근 들어 첨단산업지역의 활성화와 새로운 아파트 단지의 조성이 진행되고 있음. 특히 세명대학교와 대원과학대학 등에 인접하여 제천시의 교육중심지를 형성하며, 왕암동 일원에 36만여평에 첨단 바이오산업단지인 제천바이오벨리가 조성

■ 주거지 경관

- 80년대 군부의 인구가 시부의 인구로 급격히 이동하면서 80년에 중앙동이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였으나, 90년대 동현동, 청전동, 교동 등에 많은 주민이 거주. 이러한 현상은 도시개발사업에 의해 이루어진 도시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도시계획사업인 택지개발사업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이 곳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으로 가능
- 중앙동 등 도심지역은 주변지역의 성장에 비해 주거입지로서의 매력을 상실하여 점차적으로 주거지역에서 상업업무지역으로 변화 양상을 띠고 있음
- 신백동은 대단위 아파트 조성 및 도로개설 확충으로 신흥발전지역으로 부각하고 있으며, 용두동은 하소주공1~4차 아파트, 현대아파트, 청구아파트의 건립으로 제천의 주거지역으로 부상하였고, 현재 코아루아파트와 현대홈타운, 현진에버빌 등의 브랜드 파워를 갖춘 고급 아파트의 추가 건립으로 제천의 주거중심지로의 급부상이 기대되며 제천의 경제·교육·생활의 중심지로의 발전이 기대
- 기성시까지 이면, 하천변, 구릉지에 밀집하여 다가구주택이 군락을 이루고 있으며, 대부분 평스라브지붕으로 건축되어 획일적인 경관을 형성하고, 특히 상부에 적재물 노출로 경관훼손을 유발
- 공동주택단지는 시가지를 둘러싸는 구릉지와 시외곽의 평지에 산을 배경으로 밀집하여 군락을 형성하고 제천시의 주된 고층건물로 스카이라인을 형성

4) 보은경관의 형성과 변천

- 신라 자비마립간(慈悲麻立干) 13년(서기 470년)에 삼년산성(三年山城)을 축조하여 북진 기지로 삼아 백제와의 국경을 이루었고 지증왕(智證王) 3년(서기 502년)에 주현제(州縣制)를 실시하여 삼년산군(三年山郡)이라 칭하였음
- 신라가 망하고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한 뒤 940년(고려태조23)에 이름을 보령(保齡)이라 고쳤으며 뒤에 전와하여 보령(保寧)이라 부르게 되었는데, 조선에 들어와서 1406년(태종6)에 이름이 충청도 보령(保寧)과 음이 비슷하다 하여 보은(報恩)이라 고쳐 부르고 현감을 두었으며, 1413년(태종13)에 경상도로부터 충청도에 편입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음
- 조선후기에는 동학(東學)의 창도(創道)와 교조신원운동(敎祖伸冤運動), 1893년의 보은집회 등이 있었으며, 1894년 동학농민전쟁 시기에는 북실전투에서 2,600여명이 전사하는 등 보은은 동학농민운동의 중요 전적지
- 보은군은 북동부에서 남동부로 이어지는 소백산맥의 높은 준령과, 서북부에서 서남부로 이어지는 노령산맥 사이에 위치한 전형적인 분지를 이루며, 군의 서북부에서 발원한 보청천은 보은읍을 가로질러 역“에스”자 형태를 이루며 옥천군 청성면 합금리에서 금강 본류에 합류되는데, 이 보청천 주변은 군내에서 최대 국창지대를 형성
- 이러한 역사적 변천과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삼국 시대에는 보은과 회인과의 경계가 “신라”와 “백제”의 국경이 되는 등, 역사적 상황에 따라 그 소속을 달리하는 인접국의 각축장이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보은지역의 경관특성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

(1) 조선시대

■ 성터

- 보은군 지명에는 성재, 성터 등 전통마을 이름이 성터 때문에 생긴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음
- 실제로 지역 주민이 부르는 이름과 역대의 지리지 기록을 참고하여 현재까지 확인된 보은군 내의 성터들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 2-1> 조선시대 보은군의 성터

성 터	내 용
삼년산성	삼년성, 오정산성, 오항산성 등으로 기록에 보이며 현재 보은읍 성주리.어암리.풍취리.대야리의 경계를 이루는 곳에 있는 석축 산성
함림산성 (노고산성)	잣미산성, 백봉산성, 성산성, 성재산성, 백제성 등으로 기록에 보이며, 현행 1:5,000 지형도에 노고산성(老古山城)이라 표기되어 있음. 보은읍 산성리와 내북면 서지리 사이에 있는 석축 산성



삼년산성



노고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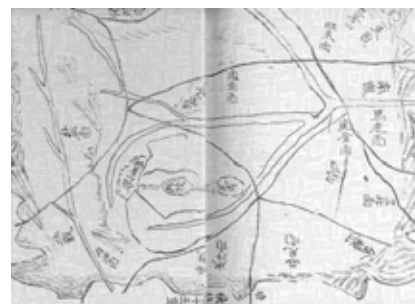


매곡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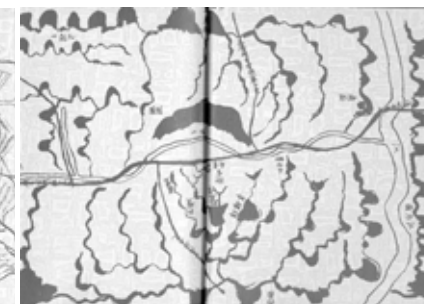
[그림 2-47] 보은군의 산성

■ 관아지(官衙地)

- 보은군의 주요 관아지로는 조선 태종 6년(1406년)에 지정된 보은현과 조선 태종 13년(1413년)에 지정된 회인현으로 대표
- 보은현 관아는 고을의 주산인 사산(蛇山)을 배후로 하여 현존 동헌 주위인 삼산리 119번지 일원에 크게 자리잡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객사 여지도서(輿地圖書)에 수록된 지도에 의하면 아사(衙舍) 동헌, 객사, 향청, 현사, 관노청 등이 넓게 배치
- 한편 회북면 중앙리 15번지에는 회인현의 객사 건물이 있는데, 회인현 관아는 고을 주산인 하마산(何磨山)을 배후로 객사, 관아, 향청, 현사 등으로 구성



보은현 고지도



회인현 고지도



보은현 동헌(철종 11년, 1860년)



회인인산객사(순조 3년, 1803년)

[그림 2-48] 보은군의 관아지

■ 속리산 법주사

- 신라 진흥왕 14년(서기 553년)에 의신조사가 처음으로 창건한 법주사(‘부처의 법이 머문다’는 뜻)는 성덕왕 19년(서기 72년)과 해공왕 12년(서기 776년)의 중창을 거쳐 대찰의 규모를 갖추기 시작
- 고려시대 홍건적의 침입때는 공민왕이 안동으로 피난갔다 환궁하는 길에 들르기도 하였고, 조선 태조는 즉위하기 전 백일기도를 올리기도 하였으며, 병에 걸렸던 세조는 복천암에서 사흘기도를 올리기도 하였다고 전함
- 조선시기 정유재란 때에는 충청도 지방 승병의 본거지였다 하여 왜군들의 방화로 모조리 불타버렸으며, 그 후 사명대사가 대대적인 중건을 하여 인조 4년(1626년) 중창을 마무리
- 법주사 가람배치는 대웅보전을 중심으로 하는 화엄산양축과 용화보전을 중심으로하는 미륵산양축이 팔상전에서 직각으로 교차하고 있었으나, 1990년에 33m 높이의 청동미륵불을 조성하면서 그 배치가 변화



속리산 법주사



정이품송

[그림 2-49] 속리산 법주사

(2) 일제강점기

- 1914년 군읍면 통폐합시 보은군은 회인군을 병합하여 10개 면을 관할
- 1930년 현재 보은군의 50호 이상 저명 동족부락은 보은읍 종곡리, 삼승면 선곡리, 산외면 봉계리, 회북면 고석리, 회북면 눌곡리 등 5개 부락으로 총 부락호수는 650여 호
- 이 중 보은군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동족촌은 보은읍 종곡리의 경주김씨 부락(일명 “북실”)으로 당시의 부락호수가 동족호수 181호를 포함 208호에 이르는 대부락을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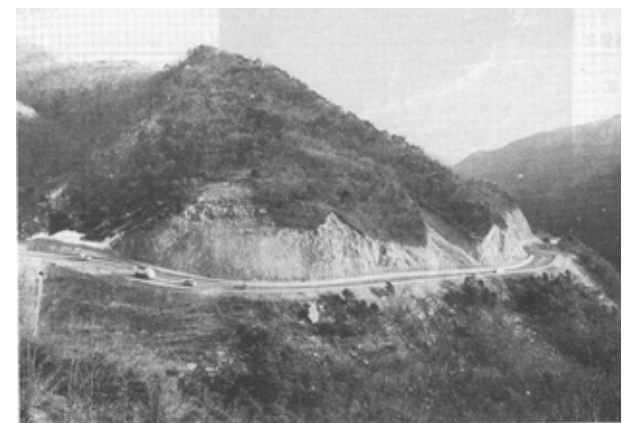
(3) 근대

- 1993년 현재 보은군 내에서 마을 주민의 70% 이상이 같은 성씨로 구성되어 있는 동족촌은 11개 부락으로, 1930년대 대표적인 5개 동족촌은 지금도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나, 신분계급의 해소, 산업구조의 변화, 경제적 기반의 약화,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지연집단적 성격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고, 특히 도시화·산업화의 영향으로 인해 이촌자가 급증하여 점차 와해
- 보은군과 경상북도의 경계가 되는 소백산맥의 서쪽 사면에 위치한 내속리면과 외속리면 일대는 고도가 높은 산지 지역으로 소규모의 산촌이 분포하는 산촌경관을 보이고 있으며, 보청천 유역에는 평지촌락이 다수 밀집 분포하고 있어 전형적인 농촌경관으로 평가

- 보은군 촌락의 형태는 전형적인 집촌을 이루고 있는데, 특히 가옥이 불규칙적으로 배열된 괴촌(塊村)의 형태를 보이고 있음. 이 중에서 내속리면 사내리의 경우는 상업적 기능을 갖고 있어 가촌(街村)의 형태
- 1960년대 이후 경제 성장과 더불어 인구 증가와 교통·통신망의 확충에 따라 아파트 등의 거주지가 확산되었으나, 지형여건상 인근 옥천이나 영동에 비해 철도나 고속도로 등 간선교통노선이 통과하지 않은 관계로 지역발전은 정체상태
- 산악지형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국립공원 속리산으로 넘어가는 37번 국도에 말티재가, 19번 국도와 37번 국도를 연결하는 202번 군도에 구티재가, 회북면 오동리에서 청원군 가덕면 인차리로 넘어가는 피반령 등이 위치
- 1973년 보은면의 보은읍으로의 승격, 1982년 보은군청 등 일부 관공서가 외곽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이들 관공서 주변이 새로운 시가지 및 상가로 바뀔으로써 어느 정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말티재



피반령

[그림 2-50] 말티재와 피반령



가촌



보은 시가지 전경(1970년)

[그림 2-51] 시대별 보은군의 시대별 모습

5) 옥천경관의 형성과 변천

- 옥천군은 본래 청산현과 옥천군을 합한 곳으로 신라 지증왕 5년에는 고시산군(古尸山郡)이라 부르다가, 신라 경덕왕 16년부터는 관성군(管城郡)이라 고쳐 불렀고, 고려 현종 9년에는 경산부 관할로 변경
- 그 후 고려 충선왕 5년에는 주로 승격되어 옥주(沃州)라 하고 주지사를 두었으며 경산부 성주소속이었던 이원, 안읍, 양산의 삼현(三縣)을 분리하여 옥주로 소속시키고 군서면 금천성 시구미에 있던 관청을 읍내면 향청리로 이전
- 조선 태종13년에 옥천(沃川)이라 고치고 군수를 두었으며, 경상도 관할이었던 것을 충청도로 행정구역을 변경

(1) 조선시대

■ 역(驛)

- 조선시대의 역(驛)은 공문서의 전달이나 관리들의 왕래와 숙박 등의 편의를 도모하고 관물과 공물의 수송을 돕기 위한 것으로서 신라 소지왕 9년(487년)에 처음 도입되어, 조선시대에는 538개 역을 두었으며, 이를 40개 구역으로 나누어 찰방을 위치
- 옥천의 역으로는 군북면 증악리에 증악 찰방역이 있었고, 옥천읍 가화리에는 가화역, 이원면 이원리에는 토파역, 안내면 인포리에는 화인역이 있어 이들 3개역은 증악 찰방역의 속역
- 특히 옥천군 군북면 증악리는 조선시대까지는 한양에서 동래까지 가는 길목 중 중간이 되고, 또 마달령(馬達嶺)의 협곡을 지나야 되는 중요한 지점인 역촌(驛村)으로, 전국 40개 중요 역 중의 하나인 찰방역(察訪驛)이 있던 곳으로 이곳에는 찰방(종6품) 외에 역리(驛里)가 355명이나 근무
- 현재 증악리 마을 앞에는 당시의 찰방들이 주민들에게 선정을 베풀어 그 공덕을 기리기 위한 찰방선정비가 8개나 세워져 있어 역이 매우 발달된 교통의 중심지역할 담당
- 옥천군 군북면 증악리에 있는 청석교는 660년 신라 문무왕때 만들어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다리의 구조는 하천 바닥에다 크고 긴 돌을 눕혀 놓고, 그 위에다 사각형의 돌기둥을 두개씩 세운 다음 엇침돌을 지르고 그 위에다 넓고 긴 돌을 널어 놓아 다리를 만들었는데, 다리의 길이는 6.9m 폭 2.2m, 높이 1.75m로, 이 다리가 있는 증악은 찰방역이 있던 곳으로 옛날 서울을 오르내릴때 많은 사람이 이용하였을 것으로 추정
- 이처럼 조선시대에 옥천은 인근 영동과 함께 중부지방과 영남지방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 역할을 담당

■ 향교(鄕校)

- 옥천읍 교동리 320번지에 있는 옥천향교는 조선 태조 7년(1398년)에 창건하였고, 임진왜란때 병화로 불탄 것을 그 후 중건한 것으로, 건물배치는 성균관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게 명륜당, 서재, 고직사, 대성전 등이 배치되어 있는데, 앞에는 교육시설이고 뒤에는 제사를 드리는 문묘

- 옥천군 청산면 교평리 269번지에 있는 청산향교는 태조 7년(1398년)에 창건하였다가 임진왜란으로 불타자, 선조 35년(1602년) 백운동에 재건한 것을 효종 5년(1654년)에 지금의 교평리로 이전하였으며, 그 후 중수한 것으로 명륜당, 서재, 대성전 등이 배치
- 한편 1739년(영조 35년)의 여지도서(輿地圖書)와 1890년의 신묘장적(辛卯帳籍)에 의하면 1739년의 옥천의 가구와 인구는 7,609호, 33,166명, 1890년에는 8,504호, 38,483명으로 시간에 비해 인구증가가 미미

<표 2-2> 조선시대 보은군의 인구

	1739년 輿地圖書				1890년 辛卯帳籍
	면수	동리수	가구수	인구수	면수
옥천군	11	95	5,306	22,745	11
청산현	6	22	2,303	10,421	6
계	17	117	7,609	33,166	17



옥천군 고지도



청산현 고지도



옥천 청석교



옥천향교

[그림 2-52] 조선시대의 보은군

(2) 일제강점기

- 한일합방 후인 1914년에 청산현(靑山縣)을 옥천군에 합하고 학산면, 용화면, 양산면을 영동군에 이관하여 11면으로 편성
- 1919년 군청사가 퇴락 붕괴되고 경부선 철도가 금구리로 통과하면서 옥천역이 이곳에 생기자, 교

- 통, 행정, 문화의 중심지가 자연히 금구리에 몰리게 되고 군청사를 삼양리222번지로 옮기게 되자 각급기관도 점차로 이전하여 구읍내는 쇠퇴
- 1929년 이내, 이남 두면을 합병하여 이원면으로 하고, 청서 청남 두면을 합병하여 청성면으로 하여 전체 9면으로 개편
 - 옥천읍 문정리 83번지에 있는 옥천죽향초등학교 구교사는 1936년에 건축된 목조 단층의 3개의 교실을 갖춘 편복도형 교사건물로 목재바른판벽을 가로로 대어 마감하는 등 옛교사의 흔적이 비교적 잘 남아있으며, 이 학교는 시인 정지용, 고 육영수여사등 많은 저명인사들을 배출
 - 옥천읍 금구리에는 일제강점기에 “향수”, “고향” 등의 서정적이고 회화적인 시를 발표한 정지용의 생가와 문학관이 위치하고 있으며, 그의 이름을 딴 거리 “지용로”도 있음
 - 가산사는 신라 성덕왕 29년(720년)에 창건돼 임진왜란 때 기허 영규대사와 중봉 조헌 선생이 의병을 소집하여 훈련을 시켰던 곳으로, 인조 2년에 중건되었으며 숙종 원년(1675년)에 조헌 선생을 비롯한 칠백 의사와 함께 금산전투에서 순절한 영규대사의 전공을 높이 기리면서 호국사찰로 지정



옥천죽향초등학교



정지용 문학관



가산사

[그림 2-53] 일제강점기의 보은군

(3) 근대

- 1949년 옥천면이 읍으로 승격하였고, 1978년 군청사를 삼양리로 이전 건립
- 1969년 경부고속도로가 옥천읍을 관통하여 지나가게 됨으로써 도시경관상 시가지가 양분되는 결과를 가져오기는 하였지만, 광역교통상의 접근성이 제고되어 옥천군의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계기로 작용
- 특히 옥천, 구일, 동이, 청산, 이원 등의 농공단지의 입주로 인해 산업활동이 활발하며, 장계유원지, 금강휴게소와 금강 유원지는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이는 관광지로 각광
- 특히 인접한 대전시의 광역화와 함께 국도 4호선의 확폭 등으로 인해 인근의 영동이나 보은과는 달리 거주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시가화 면적이 확대되고 있으나, 생활권이 대전권으로 편입되는 부작용을 보이고 있음

6) 영동경관의 형성과 변천

- 영동지역과 황간지역으로 구분되는 영동군은 신라초 길동(吉洞)이라 불리어 오다가 통일신라시대에 경덕왕 당시에 영동(永同)으로 고쳐 불림(신라시대 길동의 吉자를 이두문에 따라 발음하면 길=永이 되어 영동군의 명칭인 永同은 吉洞에서 유래된 것으로 추정)
- 한편 군청소재지인 영동읍에는 주곡천과 양정천의 이수(二水)가 합류하여 영동천(永同川)을 이루고 있는데 이 二水を 한 글자로 표기하면 永자가 되므로 현재의 영동(永同)으로 되었다는 설도 있음
- 영동의 경관은 조선시대까지는 별다른 변화가 없이 전통적인 농촌경관을 유지해 오다가 일제강점기인 20세기 초반 이후 주민의 생활양식과 풍습, 교육과 문화, 주거 환경, 지역개발 등 모든 면에서 큰 변화를 겪어왔음
- 특히 일제강점기, 8·15해방과 6·25동란을 거쳐 1960~80년대의 경제성장 정책에 따른 급격한 산업화·도시화로 인해 기존의 전통적인 옛 모습을 찾아보기는 어려운 실정

(1) 조선시대

- 충청북도의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는 영동군은 동부산지의 최남단부에 위치하고 있는데 영동분지와 황간분지 등 2개의 지형구로 나눌 수 있음
- 조선 후기에 제작된 대동여지도를 보면 당시의 영동현과 황간현은 중부지방과 영남지방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였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전략적 필요성에 따라 고종 32년(1895년)에는 영동군으로 승격
- 영남과 중부지방의 천연적인 장애를 이루었던 추풍령은 임진왜란 때는 왜적을 방어하였던 격전지였으며, 현재 추풍령면 사부리에는 장지현 의병장 사당이 위치



영동현 고지도(영조 36년, 1759년)



황간현 고지도(영조 36년, 1759년)



대동여지도상의 영동·황간 지역
(조선 후기)

[그림 2-56] 조선시대 영동군 고지도

(2) 일제강점기

- 1914년에 부군폐합령에 의하여 황간군, 옥천군 및 경상도 상주군 일부를 합병하여 영동군에 편입
- 시가지의 확장에 따라 주요 관공서 건물들이 자리 잡게 되는데, 어느 한 곳으로 집중된 형태를 보이지 못하고 분산되는 경향
- 20세기 초까지 영동지역의 중심지는 배산임수(背山臨水)의 입지 조건이 좋았던 금동·구교동·부용리 지역으로 주요 관청과 교육기관이 위치
- 철도 부설과 함께 일본인들의 이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토착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위 지역(한국인 거주지)을 일본인들은 의도적으로 기피함. 그들은 한국인과의 다툼과 갈등을 피하고 당시 일부 황무지로 남아있던 영동천변의 충적지를 개발하여 정착하면서 그들의 거주지를 형성
- 이처럼 일본에서 이주한 일본인들의 생활과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신시가지(일본인 거주 지역)를 지역 중심지로 삼고, 이 곳에 그들과 밀접한 이해 관계에 있는 역이나 학교 등 주요 관공서를 세우게 되었는데, 이러한 식민지시대의 건축물들은 1970년대 초까지 여러 곳에 남아 있으며, 영동역에서 로타리에 이르는 간선도로 변에 위치
- 변두리의 황무지는 일본인들에 의해 과수원으로 개간되었는데, 지금 영동중·영동고교 자리는 일본인 소유의 과수원이 있던 곳으로 1970년대 말까지 과수원의 창고시설을 영동중학교 음악실로 사용하는 등 당시 흔적이 일부 존재
- 영동면(面)의 읍(邑) 승격(1940.11. 1) 이후 일제강점기에 시행된 도시계획은 지금까지도 영동의 가로망과 시가지 정비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영동군청(1920년대)



영동보통역(1920년대)



목조 마차다리(1920년대)

(3) 근대

- 경부간 영남로의 요충지였던 조령은 1905년 경부선의 개통으로 쇠퇴하고 그 대신 추풍령이 경부간의 교통요지로 등장하게 되었으며, 특히 1969년 경부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추풍령은 서울-부산간의 중간 지점으로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게 교통이 붐비는 교통요지로 변모
- 근대의 도시개발은 일제강점기의 도시계획을 바탕으로 일부를 변경하거나 도로 폭과 노선의 개량과 확장, 또는 새로운 도로의 건설이 진행
- 바둑판 모양의 직교형(直交形)을 기본으로 한 가로망은 다른 지역과 연결하는 폭이 넓은 도로와 시가지 내 거주 공간을 서로 연결하는 폭이 좁은 도로들로 구성
- 철도노선이 시내 중심부를 가로질러서 부설되어 도시의 기능이 분리됨으로써 시가지 형태가 남북으로 길게 형성되어 차츰 주변지역으로 확장해 나갈 수밖에 없었음
- 1960년대 이후 경제 성장과 더불어 인구 증가와 교통·통신망의 확충에 따라 아파트 등의 거주지가 확산
- 또한 군청·교육청·보건소 등 일부 관공서가 외곽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이들 관공서 주변이 새로운 시가지 및 상가로 바뀜으로써 어느 정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기여
- 특히 1994년 영동대학교 개교 및 1997년 4번국도 우회도로의 개통은 남북방향으로의 영동 시가지의 확산과 도시경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음



제일토지구역정리지구(1955년)



경부고속도로공사 기공(1968년)



영동시가지 모습(1997년)



영동시가지 전경(1997년)

[그림 2-58] 근대의 영동군

2. 문학과 사회로 본 충북의 경관

1) 문학 속에 나타난 경관

■ 문학속의 청주 무심천경관

- 무심천은 청주의 도시역사와 맥을 같이하면서 가장 중요하고도 상징적인 경관으로 자리메김하고 있었으며, 문학작품의 많은 소재로 등장
- “ 그 옛날 어느 분이 애타는 무슨 일로/ 가슴을 부여안고 이 냇가에 호소할 제/ 말없이 흘러만 가 매 무심천이라 부르던가// 눈물이 실렸구나 보태어 흐르누나/ 원망이 잠겼구나 흐르는 듯 맺혀 있어/ 지금도 여흠 여흠이 목이 매어 우느냐”(노산 이은상의 ‘무심천을 지나가며’)
- 무심천 벚꽃거리를 일제 때는 ‘사쿠라마찌’라 불리며 청주무심천의 경관을 형성하고 축제의 장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해방 후 60년대 일제시대의 잔재라 하여 고사시키거나 베어버려 한동안 황량한 상태로 남아 있다가 1972년에 새롭게 조성하여 현재의 수변경관 모습으로 유지
- “멀리서 도끼질 소리가 들려온다. 쓸모없게 된 벚꽃동산을 살육하는 금속성의 파괴음이다. 사라져 가는 것과 새로운 것이 뒤바뀌는 교차음이 그토록 처절하게 들려왔던 것이다. 몰락한 귀족의 집안에서 농노생활을 하던 자가 주인의 벚꽃동산을 사들여 그것이 여지없이 망가뜨린다.”(안톤 체홉의 벚꽃동산)
- 무심천의 무심에 대한 정의는 종교철학적인 측면에서 시작되었고 이는 하안거의 주요한 시설이었던 무심천변 사뇌사를 통해 불교문화의 중심지와 역사적으로 삼국시대의 중원문화권에서 오는 특성으로 파악
- “무심이라함은 마음을 허공처럼 비우게 하여 놓은 상태이지만 비우게 한다는 그 마음도 없애야 하며, 다시 나아가서 비우게 한다는 그 마음을 없애는 그것조차도 또한 없애야 한다.”(국사편찬위 ‘한국사 7권’)



■ 문학속의 청주 상당산성 경관

-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소설 ‘금오신화’를 남긴 생육신의 한사람인 매월당(梅月堂) 김시습이 전국을 유랑하다가 상당산성을 보고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산성의 모습을 시로 표현

“꽃다운 풀향기 신발에 스며들고
활짝 갠 풍광 싱그럽기도 하여라.
들꽃마다 벌이와 꽃술 따 물었고
살진 고사리 배간 뒤라 더욱 향긋해.
웅장도 하여라 아득히 펼쳐진 산하
의기도 드높구나, 산성마루 높이 오르니
날이 저문들 대수랴, 보고 또 본다네.
내일이면 남방의 나그네 일터이니.”
(매월당 김시습의 ‘산성에서’)

2) 정보매체를 통한 충북의 경관

- 상당산성(上黨山城: 사적 제 212호)은 고도 청주역사의 산 증인이자 파수꾼이다. 신석기 시대부터 삼국시대를 거쳐 고려, 조선말까지 청주 역사의 이모저모를 품에 안고 있기 때문이다. 바람소리, 물소리 맑은 선비의 고장 청주를 한 눈에 조망하려면 상령산(上嶺山) 정수리를 감싸고도는 상당산성에 올라야 한다. 신라, 고구려, 백제의 바람이 뒤엉켜 불어오던 이곳은 삼국의 문화를 고스란히 담은 청주 역사의 질그릇이다.
마파람(동풍), 뉘새바람(북동풍), 하늬바람(서풍)이 번갈아 불어오다 돌연 역사의 가지에 부딪치고, 산자수명한 충청도 정취에 취해 또다시 정제되어 청풍명월이란 새 바람을 탄생시킨 것이다. 삼국의 문화가 충돌하고 융합하면서 이룩된 충북의 문화는 그 자체가 여타지방과 다른 충북만의 정체성(正體性)으로 작용한다. 장수왕, 진흥왕, 성왕의 말발굽 소리는 세월의 뒀안길로 사라졌어도 그들이 각축을 벌이던 상당산성은 삼국의 체취를 내뿜으며 넉넉한 가슴으로 청주시민을 받아들인다.

<충청리뷰 충북인뉴스..2005년2월3일/ 제목: 삼국의 문화 빛은 역사의 질그릇 중에서>



[그림 2-61] 청주시 명암동 상당산 기슭에 있는 상당사(上黨祠)



[그림 2-62] 김시습시비

- 신작로가 됐든, 하이웨이가 됐든, 길은 길이다. 도로(道路)는 한자식 표기이고 하이웨이는 영어 아닌가. 우리 조상들이 오가던 길은 신작로도, 하이웨이기도 아닌 그냥 길이었다. 그 옛 길은 아스콘 냄새가 물씬 나는 물질문명에 밀려 흔적도 없이 사라져 가고 있으니 이 또한 안타까운 일이다. 옛 길이라고 해서 무작정 오솔길이었거나 길폭이 좁은 소로(小路)로 예단하는 것은 금물이다. 옛 길이 오늘날 6차선, 8차선보다 좁았던 것은 사실이나 그래도 엄연히 국도요, 사람은 물론 우마차가 통행하던 곳이었다. 보은에서 청주에 이르는 옛길은 미원(米院)을 거치는 것보다 피반령을 넘어 회인~청주를 연결하는 코스가 일반적이었다. 피반령을 숨차게 넘어온 남도 과객은 방서동에 이르러 목을 축인후 선도산 자락을 따라 봉화뚝을 넘어 청주의 수문장격인 상당산성에 도착했었다. 여기서 청주로 가려면 것대산(거질대산) 상봉재를 넘어 명암지 뒤편으로 작로했고 청주를 거치지 않고 논스톱으로 오창, 진천 방향으로 가려면 상당산성 서문을 통과하여 율봉역(栗峰驛:율량)으로 길을 잡았다.

<충청리뷰 충북인뉴스..2005년9월26일/ 제목:풍파에 마모된 병사(兵使)의 실비명 중에서>

- 근대화 과정에서 도로, 철길이 뚫리면서 '남산 1호 터널' 같은 식의, 이런 저런 터널은 전국에 걸쳐 수없이 많아도 수 km에 달하는 천연적 나무 터널은 청주 가로 숲이 유일하다. 봄이 오면 연두색 새싹을 내밀며 봄소식을 전해주고, 여름이면 질푸른 나무 잎새에 한 여름이 와서 머물며 더위를 식혀주고, 낙엽 지는 가을엔 연인들의 밀어를 익게 하고, 눈 덮인 겨울엔 앙상한 가지마다 흰 눈을 잔뜩 이고 있다. 가로 숲의 앵글은 이처럼 계절을 따라 모습을 바꾼다. 또 사진을 찍는 장소에 따라 가로 숲의 운치가 달라진다. 계절마다 옷을 갈아입으며 바람소리 맑은 청주의 모습을 대신 말해주는 곳, 그래서 청주를 찾는 많은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가로 숲을 칭찬하고 청주의 첫 인상으로 꼽는다.

<충청리뷰 충북인뉴스..2005년10월26일/ 제목: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리숲 중에서>





[그림 2-65] 청주 웃다리 농악 시연장면

- ' 까치걸음 칠채가락 신명의 회오리 바람/ 들녘의 한 모퉁이 지신(地神)을 달래고 있다/ 등잔속 수심의 길쌈 청주 맥의 한풀이.../ 중모리 중중모리 휘모리로 달구는 마당/ 왕산악 우륵 박연 백결선생 뜯던 가락/ 청아한 현이 떨면서 풀어가는 천년의 말/ 꿩과리 세마치 장단 사직벌을 다 적신다/ 우암산도 우렁우렁 무심천도 출렁출렁/ 쇠소리 소지를 먹여 상령산(上嶺山:상당산성)을 오른다'

<충청리뷰 충북인뉴스..2005년11월17일/ 제목:"투박한 청주 웃다리 농악에 시름 잊고..."중에서>

- 청주문화의 벨트는 2~3개 권역으로 묶을 수 있다. 우선 상당구에선 우암산과 우암산 뒷자락으로 이어지는 국립청주박물관, 우암어린이회관, 천문대, 명암약수터, 상당산성을 잇는 문화벨트를 생각해볼 수 있다.....

(중략)

두 번째 벨트로는 철당간 ~정하, 마애불~정북동 토성을 잇는 코스다. 내덕동 새동네에서 북진하면 자연 암벽에 새겨진 정하마애비로자나불을 볼 수 있다. 마애불이란 자연암벽에 새긴 부처를 말하는데 양각된 것도 있고 음각된 것도 있으며 양각, 음각을 겸하는 경우도 있다.....

(중략)

흥덕구에선 아무래도 흥덕사지를 축으로 하여 문화벨트를 설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으로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직지심체요절'을 찍어낸 곳이니 역사도시 청주의 간판스타가 아닐 수 없다.....

(중략)

여기서 또 하나 주목을 끄는 것은 '문자의 거리'가 조성돼 새 명소로 각광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직지와 연관하여 청주예술의 전당과 세쌍둥이 건물사이 잔디밭에 세계 13개국의 언어 영역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문자의 거리'가 지난 2000년 가을에 준공을 보았다.....

<충청리뷰 충북인뉴스..2005년12월30일/제목:역사의 조각 모아 문화의 구슬 꿰기 중에서>



[그림 2-66] 청주농악 상쇠 이종환 옹



[그림 2-67] 공연장, 전시장, 회의실 등 첨단시설을 갖춘 청주예술의 전당



[그림 2-68] 문자의 거리 입구에 돌에 새겨진 세계 각국의 인사말

- 충북을 찾는 관광객 가운데 절반가량만 쇼핑을 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관광 상품이 지역 특성을 살리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개발연구원 정삼철 연구원은 “6~8월 3개월간 도내 12개 시군 관광객 67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가운데 52.5%만이 ‘쇼핑을 했다’고 답했다”고 2일 밝혔다.
구입 상품은 농특산품이 41.3%로 가장 많았고 기념품(21.5%), 공예품(14.1%), 토속주(11.7%) 등이 뒤를 이었다.
쇼핑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34.4%가 ‘지역 특성이 떨어진다’고 대답했으며 ‘쇼핑에 관심이 없다’(29%)거나 ‘상품이 다양하지 못하다’(14.9%)가 그 뒤를 이었다.
충북 관광의 최대 매력으로는 72%가 자연경관을 꼽았고 가장 많이 찾은 곳은 충주호(10%), 청남대(8.8%), 청원 문의문화재단지(7.9%) 순이었다.
그동안 충북의 대표적 관광지로 꼽혔던 수안보(6.2%)와 속리산국립공원(5.7%)은 뒤로 밀렸다.
응답자 가운데 71.2%가 ‘다시 방문하고 싶다’고 답했으나 당일치기(29.9%)나 1박 2일(42.1%)의 단기 관광이 주를 이뤘다.

<동아일보..2006년10월9일/ 제목:“경관 좋은데 살것 없어” 중에서>

- 충북 괴산은 남한강의 상류인 달천과 백두대간인 한남금북 정맥이 갈라져 있는 곳으로 깨끗한 천혜의 자연경관을 미래의 자원으로 삼고 있는 곳이다. 남으로 백두대간이 빚어 놓은 명산 속에서 발달된 화양동, 선유동, 쌍곡계곡 등이 선경을 이루고 있다. 발달는 곳마다 명승지가 아닌 곳이 없는 괴산. 한 번 찾았다하면 떠나는 발길을 무겁게 하는 곳! 괴산의 뛰어난 자연경관을 깊어만 가는 가을에 찾아가 본다.
◇대야산과 그 주위의 명산들
괴산은 전체면적에서 산이 76%를 차지하고 있다. 또 그 산세가 아름다워 많은 부분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에 괴산군은 많은 산중에 의미있고 산세가 수려한 35개의 명산을 엄선, 등산로를 개발해 여러 등산애호가들의 건강과 호연지기를 기르는데 애쓰고 있다.
대야산(해발 931m)은 소백산맥을 경계로 충북 괴산군 청천면 삼송리와 경북 문경시 가은읍 완창리가 경계를 이루는 산으로 산을 중심으로 괴산군과 문경쪽에 각각 선유동 계곡을 거느리고 있다. 대야산은 계곡에 반석 소등이 이어져 있어 낚랑 산행코스로 인기만점이다.
대야산을 중심으로 주변의 산을 살펴보면 이곳이 어떠한 곳에 위치한 곳인지 짐작할 수 있을만큼 절경이 뛰어난 곳이다. 우선 국립공원 월악산과 속리산을 사이에 두고 조령산, 주흘산, 운달산, 도락산, 희양산, 조항산 등 우리 귀에 익은 아름다운 산들이 이곳에 위치하고 있다.
(중략)
호젓하면서도 안으로 들어가면 계곡이 아름답고 능선 위에 오르면 암릉, 암봉이 줄이어 있어 산모습의 변화가 많으면서 주위의 조망이 시원한 산을 찾으려면 대야산이 좋다. 거친듯 하면서도 아담하고 정제된 아름다움을 갖고 있으면서도 느닷없이 거칠다. 용추폭포라는 특이하게 생긴 아름다운 폭포와 소, 화강암 암반으로 깔아놓은 수려한 골짜기를 가지고 있다.
소와 담, 폭류, 와폭이 연이어 나오는 계곡은 봄철엔 개울가 바위틈의 진달래, 산벚꽃, 각종 야생화가 아름답고 여름철엔 화강암 암반 특유의 푸르고 투명한 물줄기가 시원한 계류와 멋진 폭포가 가슴이 확 트이는 듯한 눈맛을 보장한다. 전체가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산이라 대야산 계곡의 물빛은 유난히 맑고 곱다.
(중략)

- 대야산과 선유구곡

대야산의 괴산쪽은 유명한 화양동계곡이고, 실제로 대야산으로 들어오기전 벌바위에서 고개(불란치재)를 계속 올라가 고개를 넘으면 화양동계곡의 상류쪽 계곡인 선유동 계곡이 된다. 이 길은 군자산이 있는 쌍곡으로도 연결되어 괴산으로 쉽게 빠질 수 있다. 이곳 대야산의 경관이 수려한 것은 화양동과 선유동의 연장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선유구곡은 괴산군 송면에서 동북쪽으로 1~2km에 걸쳐 있는 계곡이다. 조선시대 퇴계 이황이 7송정(현 송면리 송정부락)에 있는 함평 이씨댁을 찾아갔다가 산과 물, 바위, 노송 등이 잘 어우러진 절묘한 경치에 반하여, 아홉 달을 돌아다니며 9곡의 이름을 지어 새겼다 한다. 긴 세월이 지나는데 글자는 없어졌지만 절경은 여전하다.

신선이 내려와 노닐던 곳이라는 선유동문을 비롯해 경천벽, 학소암, 연단로, 와룡폭, 난가대, 기국암, 구암, 은선암이 9곡을 형성하고 있다.

▲제1곡 <선유동문>은 백척이 넘는 높은 바위에 새새마다 여러 구멍이 방을 이루고 있다. ▲제2곡 <경천벽>은 절벽의 높이가 수백척이며 바위층이 첩첩을 이루어 하늘의 지붕인 듯 길게 뻗어 아름다운 자태를 뽐낸다.

▲ 제3곡 <학소암>은 기암절벽이 하늘로 치솟아 그 사이로 소나무가 조밀하게 들어서 있다. 푸른 학이 동지를 틀었다고 한다. ▲제4곡 <연단로>는 위가 평평하고 가운데가 절구처럼 패어 있는데, 신선들이 이곳에서 금단을 만들어 먹고 장수하였다고 전한다. ▲제5곡<와룡폭>은 용이 물을 내뿜는 듯이 쏟아내는 물소리가 벼락치듯하고 흩어지는 물은 안개를 이루어 장관이다. ▲제6곡<난가대>는 옛날 나뭇꾼이 나무를 하러 가다가 바위 위에서 신선들이 바둑두며 노니는 것을 구경하는 동안 도끼자루가 썩어 없어졌다 하여 난가대(爛柯臺)라 한다. ▲제7곡<기국암>은 바위가 평평한 바둑판 모양으로 신선들이 바둑을 두고 있어 나뭇꾼이 구경하다 집으로 돌아와 보니 5대손이 살고 있더라는 전설이 있다. ▲제8곡<구암>은 바위 생김이 마치 큰 거북이가 머리를 들어 숨을 쉬는 듯하여 구암(龜岩)이라 하며, 겉은 여러 조각으로 갈라지고 등과 배가 꿈틀거리는 듯 하다. ▲제9곡 <은선암>은 두개의 바위가 양쪽으로 서 있으며 그 사이로 10여명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넓다. 옛날에는 통소를 불며 달을 희롱하던 신선이 이곳에 머물렀다 하여 은선암이라 한다. <槐山=嚴在天·吳仁根 기자>

<대전일보...2006년10월13일/제목:백두대간이 빚어 놓은 명산 발딛는 곳곳 무릉도원 중에서>

- 제천시 환경부 주관 제2회 그린시티 공모에서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돼 오는 19일 국무총리상을 수상한다고 15일 밝혔다.

그린시티는 시민참여를 바탕으로 자연환경보전, 생활환경개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등에 모범이 되는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는 제도이며 시상은 19일 전남 순천시에서 있을 예정이다.

올해 그린시티 공모에서는 모두 8개 자치단체가 선정됐으며 △대통령상 순천시 △국무총리상 충북 제천시, 전남 담양군 △환경부장관상 성남시, 여주시, 진주시, 태안군, 남해군 등이다.

이에 따라 제천시는 환경관련 예산을 우선 지원 받는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되며 국내외 홍보 등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우수사례로 소개되는 한편 국제적인 환경 우수도시로 육성된다.

시 관계자는 “자연생태, 대기 등 환경현황과 시의 환경시책사업이 우수한 평가를 받아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됐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환경정책들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관리 우수자치단체(그린시티) 지정제도는 환경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인 환경관리역량 제고와 친환경 지방행정의 활성화를 위해 2004년 도입, 격년제로 심의.선정하고 있다.

<충청일보..2006년10월16일/제목:제천시, 그린시티 국무총리상 수상 중에서>

3. 사진으로 본 충북의 경관

1) 북부권 경관

(1) 전경경관



1930년대의 충주



1960년대의 충주



(2) 공간시설경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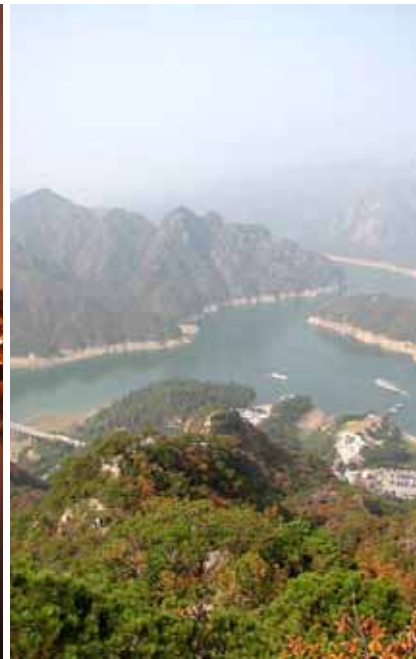
충주상징다리



충주 우륵당



의림지



제비봉에서



중원고구려비



충주 탑평리 7층석탑(중앙탑)



단양군 단양대교

[그림 2-70] 북부권 공간시설경관1



제천의 관문 구룡리 <출처: 제천시청>



관문의 팔영루 <출처:제천시청>



청풍의 옛장터 <출처:제천시청>



옥순대교 <출처:Daum>



[그림 2-71] 북부권 공간시설경관2



의림지야경 <출처:Daum>



제천 베론성지내 연못



제천 베론성지



충주댐 <출처:Daum>



충주호있는곳 <출처:Daum>

[그림 2-72] 북부권 공간시설경관3

2) 중부권 경관

(1) 전경경관



청주시가지에서 바라본 우암산 전경. 암소가 드러누운 형국의 산이라고 하여 우암산이라 명명



남주동쪽에서 바라본 무심천. 아래쪽 다리가 구 모충교, 신모충교이고 그 위가 남사교



[그림 2-73] 중부권 전경경관1



상당산성쪽에서 내려다 본 우암산 전경



1981년 음성 <출처:음성군청>



청원군 1978년 후곡리 <출처:청원군청>



청주시 전경



괴산 <출처:Daum>

[그림 2-74] 중부권 전경경관2

(2) 공간시설경관



보탑 사인문 <출처:Daum>



조각공원 <출처:Daum>



음성 <출처:Da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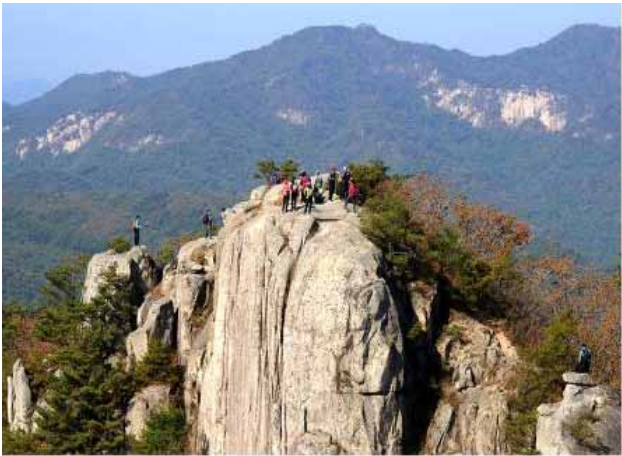


음성 <출처:Daum>





문의 문화재 마을



막장봉 <출처:Daum>



괴산소매지 <출처:Daum>



대청댐 <출처:Daum>



청주 가로수 터널



진천군 농다리

[그림 2-76] 중부권 공간시설경관2

3) 남부권 경관

(1) 전경경관



1970년대 옥천 전경



보은군 전경



(2) 공간시설경관



옥천향교



보은의 삼년산성 <출처:구글>



옥천군환산 <출처:구글>



보은 쌍암지



영동 옥계폭포



용암사 <출처:Daum>



진걸마을 <출처:Daum>

[그림 2-78] 남부권 공간시설경관1

4. 충북의 경관성

(1) 자생적 경관

■ 취락중심의 경관

- 시가화 밀도가 높은 몇몇 지역을 제외하면 내륙지방의 특성상 크게 높은 산지와 해안지형이 없이 낮은 구릉지를 배경으로 자리 잡은 작은 소규모 취락들이 지역 전체에 산재
-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주요 국도변을 따라 소규모 취락들이 자연과의 조화속에 자리 잡고 있는 친근한 경관 형성

■ 배산임수의 경관

- 우리나라 국토의 중심부의 내륙에 위치하고 있어 분지형태의 지형을 가진 지역이 많으며 비교적 해발이 낮은 산지와 거미줄 같은 하천망으로 지역 전체가 전형적인 배산임수의 모습
- 산을 배경으로 남향으로 입지하고 주변에 농경지와 하천을 끼고 자생적으로 형성된 취락들로 구성된 전통 공간형성구조를 보유

(2) 자연중심적 경관

■ 청풍명월 경관

- 예로부터 청풍명월의 고장으로 명성을 날릴 만큼 웅장하지는 않지만 흐름이 아름다운 산세와 계곡, 굽이쳐 흐르는 하천경관이 조화를 이루어 빼어난 경치를 보유
- 속리산, 월악산, 금강, 대청호, 화양계곡, 쌍곡계곡 등 내륙지방 특유의 아기자기한 자연경관지역들이 고루 산재
- 월악산과 충주호의 조화, 대청댐 주변 도로에서 보여 지는 수변경관, 속리산에서의 경관등 이 대표적인 지역 경관 이미지로 자리메김

■ 풍경화풍의 경관

- 예로부터 경치가 수려하여 문인들이 많았다고 전해질 정도로 한 폭의 산수화 같은 아름다운 산세를 자랑
- 주요 국도변을 따라 이동하면서 보여 지는 경관은 보는 시점, 시간, 계절, 기후에 따라 다양하고도 변화무쌍한 양상을 보이며 산과 강이 어우러진 자연경관의 백미로 인식

(3) 중원문화경관

■ 복합역사경관

- 백제, 신라, 고구려 삼국의 영토였던 지역특성으로 인해 다양한 역사문화 경관 보유
- 탄금대, 의림지 등 물과 관련된 역사경관, 법주사, 박달재 등 산과 관련된 역사경관 이외에도 산성, 사찰, 단양팔경 등 복합적인 역사경관 자원이 산재

■ 조화경관

- 국토의 중심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예로부터 다양한 문화가 혼재되어 충북지역만의 독특하고 개성 있는 경관으로 자리 잡음
- 자연경관과 인공경관, 역사문화경관이 서로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특히 비시가화지역에서는 잠재된 문화적 성격이 공간형성에 영향을 미쳐 이것이 하나의 중원문화경관을 창출

(4) 종합

- 현대도시계획이 도입하기 전인 1970년대까지 충청북도 경관성은 지형적 특성에 의해 배산임수의 취락을 중심으로 하는 자연발생적 경관과 함께 이런 우수한 자연성을 바탕으로 청풍명월이 가지는 청정한 수변과 다양한 산지들로 구성된 경관을 대표적 경관으로 자리매김이 가능
- 정주환경의 경관은 지형과 자연성에 의한 풍경화적 경관체계(Picturesque Landscape)를 가지고 있고 경관의 연속성(Continuity)과 다양성(Variety), 그리고 친밀성(Intimacy)으로 구성
- 또한 삼국시대서부터 영역의 변화와 여러 문화의 복합으로 다양한 역사문화 경관요소와 함께 형태적으로도 차별적인 경관을 형성
- 다른 지역과는 달리 복합 문화권과 생활권으로 인한 다른 경관요소끼리의 분리작업이 필요하며 같은 유형경관끼리의 연결 작업이 소홀하여 경관요소의 산재현상으로 출현
- 역사적으로 청주와 충주가 가지는 지역적 위상으로 인해 가장 많은 역사문화경관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점적인 요소로 독립적인 경관을 형성하고 주변과의 경관관리가 미약한 실정
- 문학적으로 경관은 지역의 산수가 우수하여 시와 시조에 중요한 주제로 사용되었으며, 영화의 주요배경으로 활용되다가 근래에 와서는 역사문화를 재현하는 세트장의 건립을 통해 지역경관의 변화를 모색

자생적 경관	취락중심의 경관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주요 국도변을 따라 소규모 취락들이 자연과의 조화속에 자리 잡고 있는 친근한 경관 형성
	배산임수의 경관	산을 배경으로 남향으로 입지하고 주변에 농경지와 하천을 끼고 자생적으로 형성된 취락
자연중심적 경관	청풍명월 경관	속리산, 월악산, 금강, 대청호, 화양계곡, 쌍곡계곡 등 내륙지방 특유의 아기자기한 자연경관지역들이 산재
	풍경화풍의 경관	예로부터 경치가 수려하여 문인들이 많았다고 전해질 정도로 한 폭의 산수와 같은 아름다운 산세를 자랑
중원문화 경관	복합역사경관	백제, 신라, 고구려 삼국의 영토였던 지역특성으로 인해 다양한 역사문화 경관 보유
	조화경관	국토의 중심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예로부터 다양한 문화가 혼재되어 충북지역만의 독특하고 개성 있는 경관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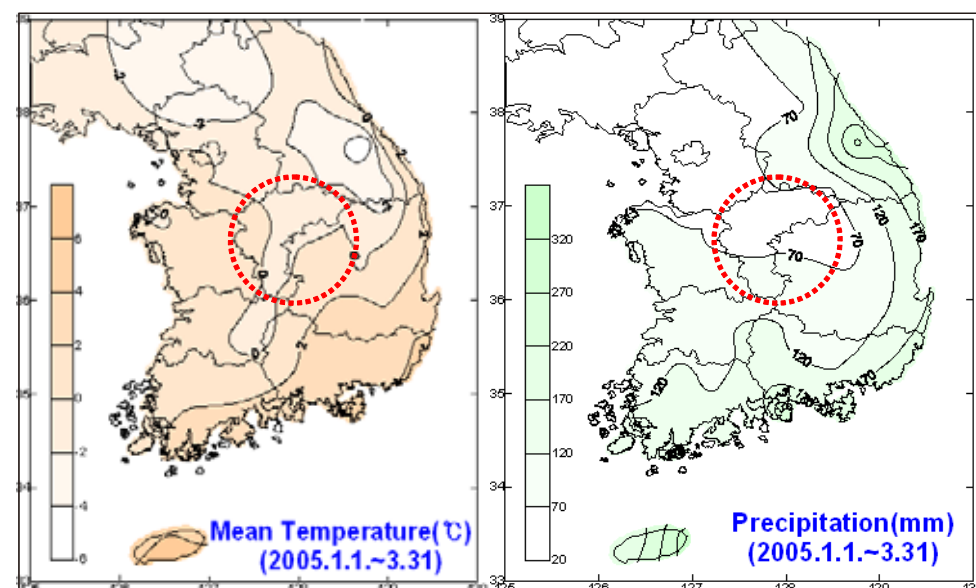
현대도시계획이 도입하기 전인 1970년대까지 충청북도 경관성은 지형적 특성에 의해 배산임수의 취락을 중심으로 하는 자연발생적 경관과 함께 이런 우수한 자연성을 바탕으로 청풍명월이 가지는 청정한 수변과 다양한 산지들로 구성된 경관을 대표적 경관으로 보유

PART Ⅲ 현재 충북경관의 모습은 어떠한가?

1. 경관을 위한 기초자료

1) 자연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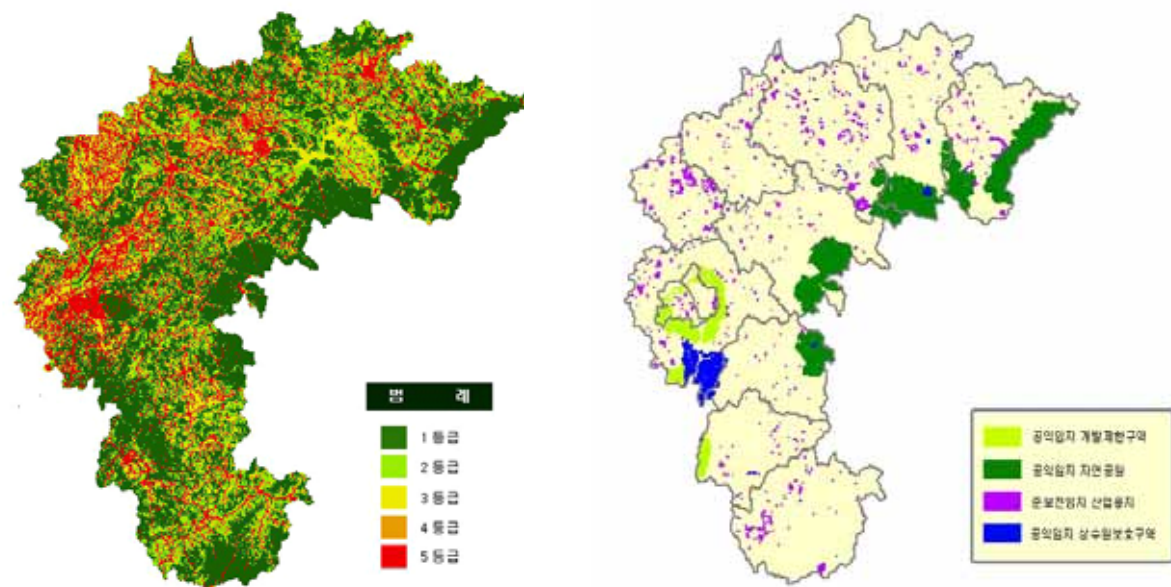
- 충북지역은 경위도상 한반도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은 소백산맥의 주능선을 경계로 경상북도의 상주시, 문경시, 영주시와 접하고, 서쪽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충청남도 천안시, 연기군과 접하고 있으며 남쪽은 전라북도 무주군, 경상북도 김천시, 북쪽은 경기도 여주군, 이천시, 강원도 원주시, 영월군과 접함
- 충북지역은 우리나라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는 수도권(서울, 경기)과 산악자원의 보고인 강원도와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충남, 대전, 경북, 전북에 둘러싸인 해안을 접하지 않는 내륙도로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
- 국토공간상으로는 남북과 동서를 연결하는 지역간 교류중심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수도권의 개발압력을 1차적으로 흡수·완충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수도권 과밀문제해결 및 국가 균형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최적의 지역으로 평가
- 수도권내의 서해안 산업지대, 국토 서남부에 입지한 산업 및 교역지대와 연계축 형성이 가능하고, 수도권과 경부 및 호남축을 잇는 간선교통축의 중앙에 입지하여 도시개발 및 교통·물류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



[그림 3-1] 충북의 평균기온 및 평균강수량

자료 : 기상청(<http://www.kma.go.kr>), 기후정보, 2005.

- 중북부지역에 발달한 저산성 구릉지대는 산업입지의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으며, 풍부한 온천지대와 빼어난 호수경관 및 산수는 종합여가선용 지대로 활용할 수 있는 천혜의 자원
- 충북은 동남경으로 소백산맥이, 북서로는 차령산맥이 지나고 서경은 구릉지 및 평야로 되어 있어 다소 개방적인 남고북저형의 분지지형이 생성되어 있으며 경북과 전북을 경계로 하는 소백산맥은 장년기 산지로서 비교적 험준한 산악으로 형성
- 지형적 특성으로는 화강암 및 화강편마암류가 전면적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같은 화강암의 광역분포는 자연풍화작용을 촉진시켜 곳곳에 분지지형을 형성시키는 원인으로 작용
- 기후는 한랭건조한 긴 겨울과 고온 다습한 긴 여름이 계속되는 대륙성 기후로서 기온의 연교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나, 도내 북부지역의 평균기온차는 심하지 않은 편이며 서쪽의 구릉지 및 평야지대의 기온이 높게 나타남
- 하천은 남한강과 금강의 2대 하천이 흐르고 있으며 오대산 부근에서 발원한 남한강은 강주변의 침식분지 발달로 동북부지방의중요한 생산지대를 형성하였으며 전라북도의 장수군에서 시작된 금강은 영동천, 보청천, 미호천 등과 만나 산간분지를 형성
- 또한 미호천 하류에는 준평원에 가까운 구릉성 산지가 많으며 이곳에 위치한 미호평야는 충북 최대의 곡창지대로써 비옥한 토양을 형성하고 이곳에서 생산된 쌀은 청주, 조치원, 대전 및 서울 등으로 공급



[그림 3-2] 국토환경성 평가도

자료 : 환경부 (<http://www.me.go.kr/>) 국토지리정보시스템



2. 분류체계(分類體系)					
대분류(大分類)		색상	중분류(中分類)	색상	
시가지권(市街地)	100		주거지역	110	
			공업지역	120	
			상업지역	130	
			위락시설지역	140	
			교통지역	150	
농업지역	200		농림시설지역	160	
			논	210	
			밭	220	
			취락시설지역	230	
			과수원	240	
산림지역	300		기타수목지	250	
			황폐수목	310	
			임업수목	320	
			혼합림	330	
			자연초지	410	
초지	400		골프장	420	
			기타초지	430	
			내륙습지	510	
습지	500		연안습지	520	
			해황지역	610	
나지	600		기타 나지	620	
			내륙수	710	
수역	700		해안수	720	

[그림 3-3] 토지피복도

자료 : 환경부 (<http://www.me.go.kr/>) 국토지리정보시스템

2) 인문사회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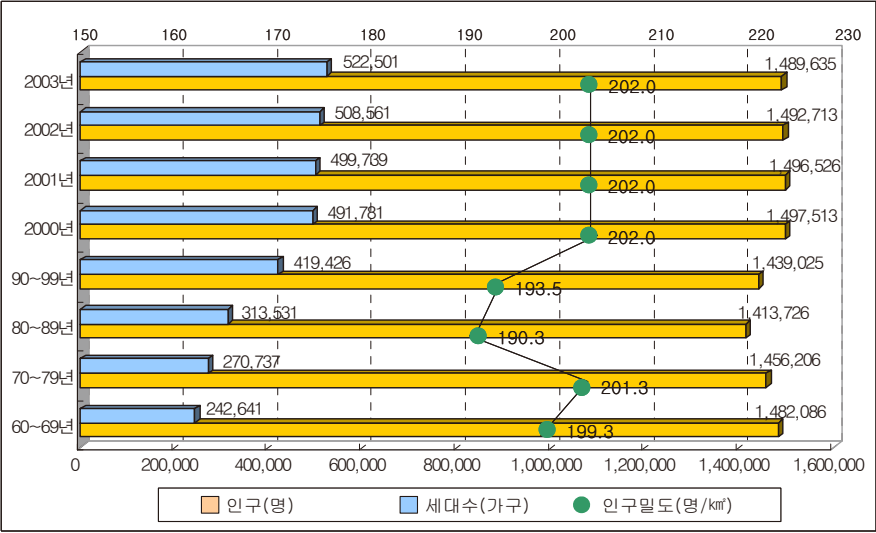
- 산업사회의 발달과 도시집중화 현상에 따라 충북의 인구는 1990년대 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1991년 이후부터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2000년을 기점으로 다시 소폭 감소하는 추세
- 세대수는 522,501세대(2003년 기준)로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2000년 이후에는 증가폭이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2003년 세대당 주민수는 2.9명으로 집계
- 이는 60년대의 6.1명, 70년대 5.4명, 90년대 3.4명 등 과거에 비해현저히 감소한 수치로 핵가족화의 가속을 의미하며 2000년대에 들어서는 감소량이 급격히 저하됨으로써 세대당 주민수의 안정을 찾은 것으로 판단



[그림 3-4] 산업사회의 발달



[그림 3-5] 도시집중화 현상



[그림 3-6] 충북의 연대별 인구변화
자료 : 충청북도, 충북통계연보, 2004.

- 2003년을 기준으로 지역별 인구규모를 살펴보면 청주시가 617,254명으로 전체 규모의 41.1%를 차지하고 있으며 충주시가 210,169명(14.0%), 제천시 141,215명(9.4%)순으로 차지
- 또한 군단위 지역에서는 청원군이 122,562명으로 8.2%의 가장 큰 규모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음성군이 88,259명으로 5.9%를 차지하는 반면 증평군은 2.1%인 31,520명으로 가장 적은 인구가 거주

<표 3-1> 충북의 지역별 인구규모(2004년 기준)

구 분	세대수 (가구)	인 구(명)							밀도 (명/㎢)
		합 계 (명,%)	남	여	한 국 인		외 국 인		
					남	여	남	여	
총 북	534,231	1,500,610	756,794	743,816	749,274	739,671	7,520	4,145	201.9
청주시	218,997	626,614	312,244	314,370	311,162	313,126	1,082	1,244	4,023.8
충주시	72,853	208,557	105,273	103,284	104,708	102,826	565	458	213.6
제천시	49,552	139,403	70,335	69,068	70,096	68,776	239	292	160.0
청원군	43,901	121,132	61,944	59,188	60,992	58,753	952	435	150.5
보은군	14,761	38,300	19,270	19,030	19,111	18,951	159	79	67.0
옥천군	20,806	57,079	28,849	28,230	28,579	28,055	270	175	107.8
영동군	19,905	52,905	26,425	26,480	26,238	26,359	187	121	64.2
증평군	11,028	31,116	15,730	15,386	15,632	15,267	98	119	385.1
진천군	22,565	62,491	32,481	30,010	30,845	29,502	1,636	508	151.9
괴산군	15,935	39,886	20,184	19,702	19,991	19,595	193	107	48.4
음성군	30,920	88,182	46,339	41,843	44,340	41,298	1,999	545	169.5
단양군	13,008	34,945	17,720	17,225	17,580	17,163	140	62	45.9

자료 : 충청북도, 충북통계연보, 2005.

(2) 토지이용 · 도시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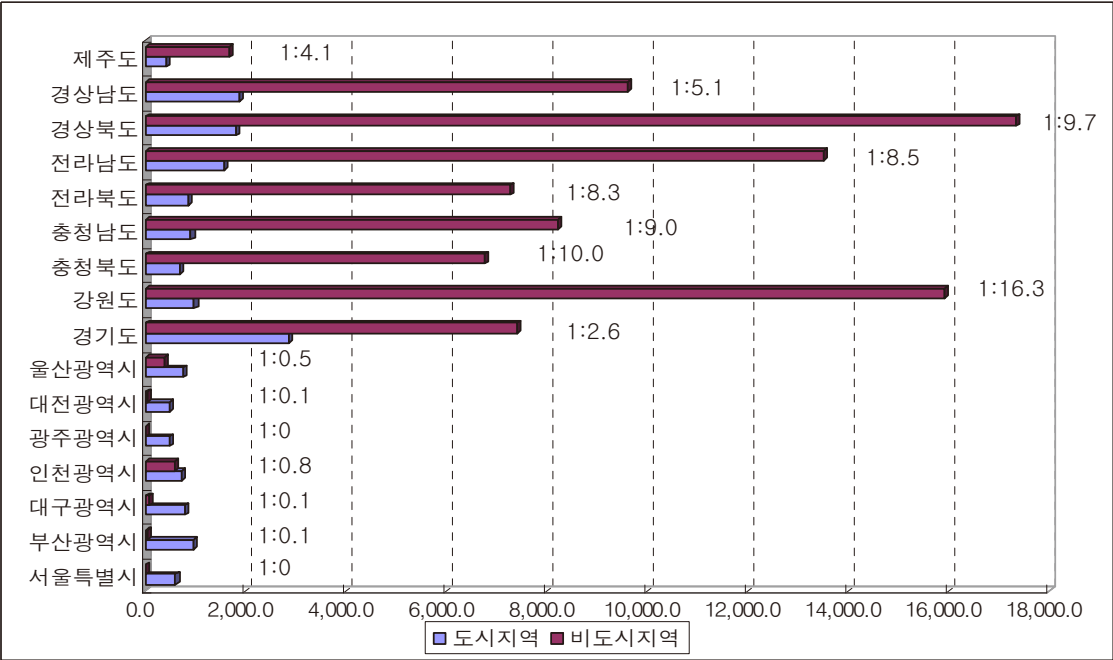
- 충북지역은 국토의 중앙에 위치한 유일한 내륙도로서 국토의 7.5%인 7,431.6㎢의 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임야의 비율이 67.9%로 가장 높고 논과 밭의 비율이 각각 9.3%, 9.4%의 비율
- 충청북도의 지목별 토지이용 변화를 살펴보면 농경지, 임야, 하천·제방 면적은 점차 감소하는 반면에 공장용지, 도로·철도용지, 구거, 유지, 기타용지 등의 면적은 점차 증가
- 이는 신도시 개발 및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주거지역의 확대와 오송 · 오창 공업단지 등의 공단 개발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이러한 현상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

<표 3-2> 지목별 변화추이

	충 청 북 도				
	1994	1997	2000	2003	2004
계	7,438.6	7,433.1	7,431.7	7,431.7	7,431.8
논	721.4	714.1	704.7	692.9	688.7
밭	746.7	726.9	715.2	705.4	700.6
과수원	37.3	40.4	41.8	43.1	43.8
목장용지	22.4	24.1	25.7	26.2	27.2
임야	5,095.1	5,073.6	5,064.1	5,050.5	5,046.3
대지	111.3	119.1	125.0	132.7	134.4
공장용지	21.5	30.2	34.9	42.4	43.8
학교용지	14.6	15.1	16.1	16.9	16.9
도로	141.3	152.1	160.6	170.0	175.9
철도용지	11.7	11.9	12.2	12.2	12.2
하천	211.3	211.1	210.3	209.0	209.2
제방	11.4	11.4	11.4	11.6	11.6
구거	117.8	119.0	121.3	123.2	123.7
유지	133.0	134.3	134.4	134.0	134.1
기타	41.6	49.8	53.9	61.6	197.5

자료: 충청북도, 통계연보, 각년도.

- 도시계획법상의 용도지역에 관한 면적 및 비율을 살펴보면 광역시등의 도시권에서는 비도시지역이 거의 잔존하지 않고 있으며 도시지역의 면적은 경기도가 가장 큰 규모를 나타내었고 비도시지역의 경우는 경상북도의 면적이 가장 넓은 것으로 조사
- 이는 지역면적에 따른 것이며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상대적비율에 따라서는 강원도가 1:16.3으로 가장 많은 격차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충청북도가 1:10.0으로 나타남에 따라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간의 면적에 따른 격차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
- 또한 도시지역의 주거지역의 비율은 전국평균에 비해 낮고 녹지의 비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도시지역의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전국평균보다 9.5%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



[그림 3-7] 도시지역 대 비도시지역 비율

※ X : Y = 도시지역 : 비도시지역

<표 3-3> 도시계획법상의 용도지역 및 구역 지정현황 (단위 : km², %)

구 분			전 국	충 북
용도지역	도시지역	합 계	16,762.6 (100.0)	676.8 (100.0)
		주 거 지 역	2,012.3 (12.0)	72.8 (10.76)
		상 업 지 역	258.5 (1.5)	10.0 (1.5)
		공 업 지 역	764.0 (4.6)	30.5 (4.5)
		녹 지 지 역	12,676.6 (75.6)	562.5 (83.1)
		미 지 정 지 역	1,051.0 (6.3)	0.8 (0.1)
	비도시지역	합 계	88,878.0 (100.0)	6,755.0 (100.0)
		관 리 지 역	27,113.2 (30.5)	2,195.4 (32.5)
		농 림 지 역	49,768.0 (56.0)	3,769.9 (55.8)
		자연환경보전지역	11,996.7 (2.2)	789.7 (11.7)
용 도 구 역		합 계	6,255.5 (204건)	63.3 (4건)
		개발제한구역	3,977.1 (144건)	56.6 (2건)
		수자원보호구역	2,266.8 (59건)	6.7 (2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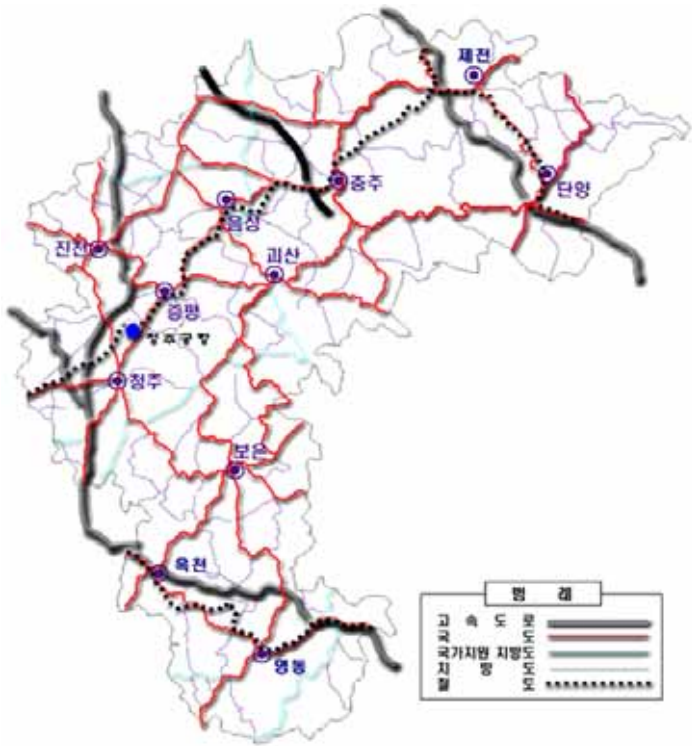
자료 : 건설교통부, 도시계획현황, 2004.

- 충북도의 도시화율은 2000년에 73.0%이었으나 2003년에는 74.1%로 1.1%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도시의 지역적인 적정배치와 육성은 지역균형개발의 중요한 과제로 도시마다의 특성을 부각시켜 지방도시 기능을 극대화하고 개발환경지표를 설정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로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2) 사회간접자본시설

① 교통망

- 충북의 도로총연장은 2004년 말을 기준으로 6,541.5km인 전국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부와 중부 두 양대 고속도로 및 중앙, 호남고속도로가 통과(총연장 256.0km)하여 사통의 접근성이 양호하고 남북 간의 국가 기간교통망이 집결
- 반면, 동서간의 간선 교통망은 미흡한 실정으로 파악



[그림 3-8] 충북 도로망 현황

<표 3-4> 충북의 도로현황 (2004.12.31 기준) (단위 : km, %)

	전 국	충 북	전 국 대 비 율
합 계	100,277.8	6,541.5	6.0
고속국도	2,923.0	256.0	8.8
일반국도	14,245.9	967.9	6.8
지 방 도	17,475.6	1,460.2	8.4
시 도	24,539.5	1,528.9	6.2
군 도	23,723.0	2,328.5	9.8

자료 : 건설교통부, 시·도별 도로현황, 2004.

- 2004년 포장도로의 길이는 4,641.3km로 71.0%의 포장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1994년 3,042.1 km (67.7%)에 비해 3.3% 증가

<표 3-5> 충북의 연도별 도로현황 (단위 : km)

	1994	1997	2000	2001	2002	2003	2004
총 연 장	5,053.2	5,826.4	6,201.1	6,346.4	6,470.6	6,496.7	6,541.5
포 장	3,042.1 (67.7%)	3,611.9 (62.0%)	4,062.1 (65.5%)	4,201.3 (66.2%)	4,459.3 (68.9%)	4,538.3 (69.9%)	4,641.3 (71.0%)
미 포 장	1,444.4	1,648.4	1,394.9	1,339.1	1,240.3	1,179.8	1,127.5
미 개 통	189.6	566.1	744.1	806.1	1,179.8	778.5	772.8

자료: 충청북도, 통계연보, 각년도.

- 철도교통망은 충북의 서부지역에 위치한 경부선과 북동부의 중앙선에 의해 타 지역으로 연결되고 있으며 지역 내 철도망으로는 충북의 동서를 가로지르는 충북선에서 경부선, 중앙선, 태백선으로 각각 연결
- 또한 철도이용현황은 1990대 이후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여객수송의 규모와는 반대로 화물의 수송은 증가하고 있는 경향

<표 3-6> 충북의 연도별 철도이용현황 (단위 : 명, 톤)

		1994	1997	2000	2001	2002	2003	2004
여객	승차인원	3,884,901	3,219,907	2,670,500	2,693,675	2,357,377	1,989,931	2,057,302
	강차인원	3,791,894	3,196,053	2,679,891	2,709,745	2,406,459	2,284,008	2,077,887
화물	발송톤수	14,640,858	16,119,065	14,351,414	14,947,143	15,593,858	17,403,000	14,519,361
	도착톤수	9,171,198	11,566,404	8,504,862	8,724,028	8,975,459	8,999,960	8,331,863

자료: 충청북도, 통계연보, 각년도.

2. 충북의 경관자원

1) 시간적 경관자원

<표 3-7> 북부지역의 시간적 경관자원

북부 지역	충주	가흥 창지, 경종대왕태실, 관월정, 관음사, 금강사, 김생사지, 누암리 고분군, 단월동 고려묘, 단호사, 단호사 철불좌상, 대원사, 대흥사, 도촌리사지, 동량 조동리 유적지, 모현정, 문화 유씨 열녀문, 미륵 석조기상, 미륵리 3층석탑, 미륵리 5층석탑, 미륵리 고분(말무덤), 미륵리 도요지, , 백운암,, 억정사 대지국사비, 억정사지, 연수동 건물지, 연수동 고분군, 열두대, 영국사지, 오갑사지 석불좌상, 온천리 5층석탑, 용맹이지석묘, 용탄동 선사유적, 운병암(태고사), 원덕상 효자문, 윤민걸 가옥, 이시진 효자문, 이시희 쌍효각, 임경업 장군 정문(쌍성각), 임경업장군 묘소, 임충민공충열사, 임형업 충효 정문, 장미산성, 전주이씨 효부문, 전주이씨 사정문, 정도사 법경대사 자등탑비, 제금당, 제내리 효행문, 조동리 삼층 지석묘, 고분군, 호암동 위령묘원, 호암동 육각정
	제천	강천사, 경호루, 고산사, 고산사 석조관음보살좌상, 고산사 석조나한상, 관란정, 금남루, 금병현, 김세균 판서 고가, 덕주사, 덕주사마애불상, 덕주사약사여래입상, 덕주산성, 두학석불, 명오리 고가, 무암사, 박도수 고가, 배론성지, 백련사, 사자빈신사 지석탑, 소악사지 삼층석탑, 수산 지곡리 고가, 신륵사, 신륵사 극락전, 신륵사 삼층석탑, 영호정, 원각사, 월광사지, 응창각, 자양영당, 장락사, 장락사 칠층 모전석탑, 정방사, 정원태 고가, 제천향교, 중전리 고가, 지석묘군, 청풍 도화리 고가, 청풍 황석리 고가, 청풍 후산리 고가, 청풍문화재단지, 청풍석조여래입상, 청풍향교, 탁사정, 팔영루, 한벽루
	단양	고평리석불좌상, 공문성, 관음사, 광덕암, 광법사, 구남굴유적지, 구인사, 단양향교, 대흥사지, 덕천사지, 도담금굴유적지, 독락산성, 묘적사지, 문수사, 바위그늘 유적지, 보국사지, 보현사, 비룡사, 비마라사지, 상선암지, 소백산성, 수양개선사유적지, 영춘향교, 온달산성, 원통암지, 월명암, 일명사지, 장안사, 적성비, 적성산성, 조계사지, 죽령산성, 지장사, 천룡사, 청연암, 하방리 고분군, 향산리삼층석탑, 향산사지, 현곡리 고려고분군, 화장암

<표 3-8> 조망시점의 종류와 선정기준

조망시점	선정기준
전망지	각 시군별 관광관련 브로셔 보고서에 표시된 곳(전망대 및 시설)
산마루, 고개	조망이 아름다운 곳
풍경도로	전망이 아름다운 곳, 계절별 경관이 좋은 곳, 역사적 유래가 있는 곳
취락지, 문화재	풍경도로 주변에 있는 취락지, 대표적인 문화재(주변포함)
옥외공간	주민의 모임이나 활동이 왕성한 장소(주변포함)
일반도로	통행량이 많은 대표도로들(주변포함): 속도와 스케일에 따라 분류

<표 3-9> 중부지역의 시간적 경관자원

중부 지역	청주	보암사, 보현사, 복대동 지석묘, 복천암, 봉황사, 부모산성, 산남동 굴바위, 산성동 것대산봉수, 삼곡사, 상당산성, 상당산성 보화정, 서기사, 서기사 석조약사여래좌상, 서원향약비, 송상현·한금섬·이소사 총렬문, 순치명석불입상, 신전동 고가, 신향서원, 안동김씨 영묘단, 연화사, 열일정씨효부각, 용두사지, 용두사지철당간, 용암사, 용암 사 비로자니불좌상, 용호사, 용화사, 용화사 석불상군, 운곡사, 정북동 토성, 정하마 애비로자니불좌상, 지북동입석, 청룡사, 청주 관음사, 청주 우암동 석조여래좌상, 청주 향교, 청주동헌, 청주백제유물전시관, 청주읍성, 청주한씨사효각, 청화사, 충청 도병마절도사영문, 탑동 5층석탑, 탑동 양관, 평화사, 충주선원, 현암동 김종우가 옥, 화암사, 화장사, 흥덕사지
	청원	단재 영당 및 묘소, 동화사, 백족사, 안심사, 운용사, 월리사, 의암 손병희 유허지, 현암사, 화림사
	음성	5층모전석탑, 가섭사, 가섭산 봉수, 감곡천주교회성당, 갑산리 고인돌, 갑산리 사 지, 갑산리 석탑, 갑산산성, 경호정, 고심사미륵불, 곡산 연문 효열각, 교동리 사지, 국사봉산성, 권국화 효자문, 권길 충신문, 권사익의 묘, 규정영당, 금생사지, 금석리 사지, 김순 효자문, 김종립 충신문, 김주태 가옥, 남연년 충신문, 능산지 고분, 덕정 리 사지, 도원사, 도장사, 도청리 고분, 도통사, 독성탱화, 동음리 도요지, 마이산 봉수, 망이산성 및 망이산봉수대, 무극리 탑골사지, 문촌리 도요지, 문충공 사우, 미타사, 미타사 마애여래입상, 미타사 석불, 미타사 석탑, 민단, 민동량 효자문, 민 정현 효자문, 민해준 효자문, 박순 충신문, 박정규 효자문, 박충민공 사당, 박호원 효자문, 백련서재, 백운사지부도, 보룡리 사지, 보룡리 석불좌상, 본성리 미륵불, 비 산리 고분, 사곡리 도요지, 사향산성, 산신탱화, 삼생리 도요지, 삼생리 산성,
	괴산 증평	각연사, 각연사 비로전, 각연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개심사, 개심사 목조여래좌상 과 목조관음보살좌상, 고산정 및 제월대, 공림사, 괴산향교, 괴산동헌, 김시민장군 충민사, 도명사 마애불, 백운사, 보광사, 보안사 3층석탑, 봉학사지 5층석탑, 봉학 사지 석조여래좌상, 삼방리 3층석탑, 삼방리 마애여래좌상, 석천암, 암서재, 애한 정, 연풍 동헌, 연풍향교, 연풍향청, 원풍리 마애불좌상, 채운사, 청안동헌, 청안향 교, 청천 미륵산성, 충민사 사당, 문수암, 문정리 선돌, 민진강 효자문, 밀양박씨 절 부분, 밀양손씨 열녀문, 박동룡 충신문, 박문강 충신문, 박세환 효자문 , 박인 효자 문 , 백운사, 백운사의 사리탑, 사정리 백자요지, 사정리 청자요지, 산계리 고인돌, 산정, 삼청리 고인돌, 석탄리 안터 2호 고인돌, 석탄리 안터 2호 선돌, 석탄리 입선 (안터 1호 선돌), 송림사, 수북리 선돌, 양수리 선돌, 양신정, 양촌룡 충효문, 옥주 사마소, 옥천의 충훈탑, 옥천향교, 용암사,
	진천	교성리연화좌대, 국사봉산성, 김덕송효자문, 김유신장군탄생유허비각, 김유신장군탄생 지 및 태실, 대흥사, 도당산성, 두타산성, 만성사, 백원서원, 백원정, 부자충신문, 사 곡리 마애여래입상, 사충문, 삼용리 백제 토기요지, 삼용리 질그릇(가마터), 서한순효 자문, 성림사, 소흘산봉수지, 수양사, 식파정, 양천산성, 연곡리사지, 영수사, 옥성리 석조약사여래좌상, 용정리사지, 용화사, 용화사 석조보살입상, 유언순효자문, 유희원 효자문, 은진송씨열녀문, 정선전씨효부분, 정송강사, 지장사지, 진천 산수리 백제 토 기요지, 진천 태화4년명마애불입상, 진천문화원 석조보살입상, 진천향교, 채경언효자 문, 청주한씨열녀문, 최유경부자효자문, 충신열녀문, 대령산성, 통일대탑보탑사

<표 3-10> 남부지역의 시간적 경관자원

남부 지역	보은	고봉정사, 금화서원, 난국정, 노고산성, 동학군 집단 매장지(망나니 골), 매곡산성(아미산성), 모현암, 백현 산성, 법주사, 법주사 대웅보전, 법주사 철당간 지주, 법주사 청동미륵대불, 보은삼년산성, 보은향교, 상현사, 상현서원, 석천암, 주성산성, 풍림정사, 호점산성, 회인향교
	옥천	가산사, 거포리 사지석탑, 거포리 선돌, 경율당, 경주이씨 효열비각, 경현당, 객자방 충신문, 관풍정, 교평리 1호 고인동, 교평리 2호 고인동, 교평리 3호 고인동, 구룡리 선돌, 궁천리 선돌, 김건 효자문, 김경탁 효자비각, 김상기 효자문, 김영복 정년문, 김용준 효자비각, 김일려 효자비각, 남곡리 1호 선돌, 남곡리 2호 선돌, 대성사, 덕양서당, 도농리 고인돌, 도덕리 1호 선돌, 도촌선돌, 독락정, 독산 상춘정, 두암리
	영동	고반대(, 관어대, 금성사(품관사), 금호루, 김수온 묘소, 노후사, 대각사, 두평리 5층 석탑, 반야사, 반야사 불상, 봉양정, 봉황대, 부용리 고분, 빙옥정, 삼도봉 대화합 기념탑, 삼호정, 세덕사, 세심정, 신안리 석불입상, 쌍효각, 어서각, 여의정, 영구사 동종, 영암사, 영천사, 월남천전기념탑, 읍청루, 이리사지 3층 석탑, 중화사, 지봉리 좌불상, 청절사, 충훈탑, 침강정, 풍천당, 한천정, 한천정사, 함벽정, 호서루, 화수정

2) 공간적 경관자원

<표 3-11> 북부지역의 공간적 경관자원

북부 지역	충주	① 공원/명산 : 계명산(774m), 국망산(해발 770m), 남산, 만수봉(983m), 박쥐봉(772m), 발치봉(549m), 보련산(764m), 부산(780m), 북바위산(772m), 수주팔봉(493m), 신선봉(해발 967m), 월악산(해발 1,097m), 월함삼봉(851m), 인등산(666m), 조산공원, 주봉산(643m), 중앙탑공원, 지등산(535m), 천등산(807m), 포암산(962m) ② 계곡/폭포 : 마약폭포, 만수계곡, 석문계곡, 송계계곡, 수룡폭포 ③ 약수/온천 : 능암탄산온천, 문강온천, 수안보온천, 양성온천 ④ 강/호수/동굴 : 충주다목적댐, 충주호, 충주호유람선
	제천	① 공원/명산 : 가은산(해발 575m), 감악산(해발 945m), 구학산(해발 970m), 금수산(1016m), 동산(896.2m), 문수봉(1,161.5m), 미인봉(596m), 비봉산(531m), 삼봉산(910m), 솔밭공원, 시랑산(691m), 신선봉(937m), 용두산(871m), 월악산국립공원(해발 1,097m), 의림지놀이공원, 작성산(해발 770.9m), 주론산(903m), 하설산(1,027m) ② 계곡/폭포 : 관폭대, 노목계곡, 능강계곡, 덕동계곡, 수경대, 수렴선대, 수문동폭포, 억수계곡, 와룡대, 월광폭포, 자연대, 청벽대, 탁사정, 팔랑소, 학소대, 학현계곡, 활래담 ③ 강/호수/동굴 : 의림지, 제천점말동굴, 청풍호반
	단양	① 공원/명산 : 구담봉(373m), 금수산(1,016m), 덕절산(780m), 도락산(964m), 도솔봉(1,314m), 말목산(710m), 묘적봉(1,148m), 사봉(879m), 삼태산(해발 876m), 소금정공원, 소백산(1,439m), 소백산관광목장, 소백산국립공원, 수리봉(해발 1,019m), 옥순봉(286m), 울산(해발 858m), 제비봉(해발 721m), 황정산(959m) ② 계곡/폭포 : 남천계곡, 다리안계곡, 죽령폭포 ③ 위락시설/관광단지 : 가대유원지, 군간유원지, 남천유원지, 느티유원지, 사동유원지, 새발유원지, 소선암유원지, 의풍유원지, 향산유원지 ④ 강/호수/동굴 : 고수동굴, 남한강, 노동동굴, 온달동굴, 일광굴, 천동동굴

<표 3-12> 중부지역의 공간적 경관자원

중부지 역	청주	① 공원/명산 : 부모산(231.7m), 삼일공원, 상당공원, 올림픽, 우암산(338m), 중앙공원 ② 계곡/폭포 : 인공폭포 ③ 약수/온천 : 명암약수터 ④ 위락시설/관광단지 : 명암유원지, 청주동물원 ⑤ 강/호수/동굴 : 무심천
	청원	① 공원/명산 : 구라산(해발 484m), 솔밭공원, 양성산(해발 297m) ② 휴양림 : 옥화자연휴양림 ③ 관광농원/자연체험 : 낭추골 현장체험학습원 ④ 약수/온천 : 초정약수 ⑤ 강/호수/동굴 : 대청댐, 대청호
	음성	① 공원/명산 : 가섭산(해발709.9m), 망이산(해발 472m), 백마산(해발 465m), 부용산(해발 644m), 소속리산(해발 431.6m), 수레의 산(해발 679.4m), 수정산(해발 393m), 오갑산(해발 609m), 원통산(해발 657m), 음성설성공원 ② 계곡/폭포 : 생극안터계곡 ③ 강/호수/동굴 : 백마굴, 삼형제, 통동리
	괴산 증평	① 공원/명산 : 가령산(해발 642m), 갈모봉(해발 582m), 구왕봉(877m), 군자산(948m), 금단산(746m), 깃대봉(835m), 낙영산(740m), 남군자산(827m), 대야산(931m), 덕가산(850m), 도명산(643m), 마분봉(776m), 마역봉(927m), 막장봉(887m), 박달산(825m), 백악산(857m), 백화산(1,064m), 보광산(539m), 보배산(750m), 성불산(520m), 시루봉(914m), 신선봉(967m), 신선암봉(937m), 아가봉(541m), 악취봉(845m), 옥녀봉(599m), 이만봉(990m), 조령산(해발 1,017m), 조봉산(해발 684m), 조항산(해발 951m), 주월산(해발 470m), 중대봉(해발 846m), 청화산(해발 970m), 칠보산(해발 778m), 희양산(해발 998m) ② 계곡/폭포 : 갈론계곡, 선유계곡, 수옥폭포, 쌍곡계곡, 용추폭포, 화양동계곡 ③ 약수/온천 : 손티찬샘물, 수리약수터, 안민동 약수터, 월문리약수터 ④ 강/호수/동굴 : 칠성수력발전소
	진천	① 공원/명산 : 두타산, 만뢰산(해발 614 m), 문안산(해발 415m), 양천산(해발 350m), 태령산(해발 421m), 환희산 ② 계곡/폭포 : 연곡계곡 ③ 강/호수/동굴 : 백곡저수지, 신계(이월)저수지, 연곡저수지, 장수굴, 초평저수지

<표 3-13> 남부지역의 공간적 경관자원

남부 지역	보은	① 공원/명산 : 구병산(해발 877m), 금적산(해발 652m), 묘봉(해발 874m), 상학봉(해발 861m), 속리산 국립공원, 속리산 오리숲, 속리산(문장대), 속리산(천황봉), 청법대, 향건산 ② 계곡/폭포 : 만수계곡, 서원계곡, 신정계곡 ③ 휴양림 : 말티재자연휴양림 ④ 약수/온천 : 대바위약수, 쌍암약수 ⑤ 강/호수/동굴 : 노티저수지, 달미못, 도원저수지, 독정이못, 동문지 소류지, 망월리 못, 비룡제, 상궁저수지, 서원소류지, 석동이못, 쌍암동굴, 쌍암저수지, 종곡저수지, 지덕이 연못, 질골바깥 소류지
	옥천	① 공원/명산 : 대성산(해발 705m), 옥천체육공원, 철봉산, 환산(581.4m) ② 휴양림 : 장요산 휴양림 ③ 위락시설/관광단지 : 용죽강변 ④ 강/호수/동굴 : 개심저수지, 교동저수지, 구일저수지, 명경호수, 부소무니, 용암저수지, 중곡
	영동	① 공원/명산 : 각호산, 갈기산(585m), 곤천산(해발1,032m), 마니산(해발640m), 민주지산(해발 1,242m), 비봉산(해발 481m), 삼도봉(해발 1,533.7m), 석기봉(1,200m), 어류산, 월이산(해발 551m), 천태산(715m), 포성봉(933m) ② 계곡/폭포 : 물한계곡, 삼단폭포, 옥계폭포, 옥소폭포, 진주폭포 ③ 휴양림 : 조동산촌마을 ④ 위락시설/관광단지 : 삼천유원지 ⑤ 강/호수/동굴 : 매천리토굴

<표 3-14> 경관자원의 점선면 구분

구분	세부내용	예
점	대표적 문화재	기초조사자료
	생태적으로 민감한 곳	철새도래지, 습지 등
	조망점	고개, 산마루, 정자 등
선	조망루트(도로축)	지방도 이상
	녹지축	주녹지축, 부녹지축 등
	하천축	한강수계, 금강수계권
면	도시지역	청주, 제천, 충주, 영동, 단양 등 세부 존별
	전이지역	도시와 농촌의 중간성격의 세부 존별
	농촌지역	평야, 호수 등
	산간지역	토지적성평가 3등급지 고려, 특수산림대

3. 설문조사를 통한 12개 시/군의 경관

1) 북부권 : 충주, 제천, 단양

■ 지역기본현황

인구	380,449명 (충북의 25.3%)
면적	2,646.82km ² (충북의 35.7%)
행정구역	충주, 제천, 단양 (2시 1군)
주요경관포인트	탄금대, 충열사, 미륵사지, 충주호, 수안보, 의림지, 청풍문화단지, 송계계곡, 탁사정, 박달재, 용화계곡, 금수산, 소백산, 단양팔경

■ 경관적 현황

- 자연형 관광 자원 및 조성형자원, 역사문화자원, 스포츠형자원 등 충북 내에서 가장 다수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

■ 경관적 특이성

- 제천 경관의 특이성은 기본적으로 제천의 장소특성, 즉 분지형의 고원으로서 주변 산들로 위요된 지형특성에 기인함
- 의림지 및 남측 농경지(청전동)는 농경문화의 측면에서 특이성을 가진 지역이며 시내 및 주변지역으로의 조망이 용이하고, 현재도 도시농업(Urban Agriculture)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함.
- 거점경관으로서 금수산, 월악산 지역(용하구곡, 송계계곡)은 빼어난 자연자원에 의한 경관적 특이성을 보유한 지역이며, 향후 등산객과 레저인구의 증가에 대비한 보존적 경관계획이 요구되는 지역



[그림 3-9] 북부지역 경관현황

■ 북부권 일반인 설문조사 통계

일반인 설문조사(북부권)			
설문항목 행정구역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1. 거주하는 시/군 지역의 경관이미지와 만족도			
1) 전체적인 경관의 질이 우수하다	보통	보통	매우 그렇다
2) 타 시군과 비교, 특징, 개성 경관 차별성정도	보통	보통	매우 그렇다
3) 자연경관요소와 인공경관요소들간의 조화정도	보통	보통	그렇다
4) 인공경관요소들의 시각적 조화정도	보통	보통	그렇다, 보통
2. 거주하는 시/군 지역의 경관에 대한 생각	보통	보통	매우 우수하다
1) 경관이 우수한 경우 (우선순위1)	자연경관의 보존과 관리	자연경관의 보존과 관리	자연경관의 보존과 관리
경관이 우수한 경우 (우선순위2)	자연경관과 인공경관의 조화	자연경관과 인공경관의 조화	자연경관과 인공경관의 조화
경관이 우수한 경우 (우선순위3)	경관에 대한 시민인식의 증진과 적극적 참여	경관에 대한 시민인식의 증진과 적극적 참여	상징경관의 정비 및 관리의 체계성
2) 경관이 불량한 경우 (우선순위1)	건축물의 노후와 무질서한 외관	지역내 상징적 경관대상의 부재	자연경관의 훼손과 관리소홀
경관이 불량한 경우 (우선순위2)	지역내상징적 경관대상의 부재 / 범람하는 옥외광고물	지역내 상징적 경관대상의 부재	건축물의 노후와 무질서한 외관
경관이 불량한 경우 (우선순위3)	경관에 대한 시민인식과 참여부족 / 범람하는 옥외광고물	경관전문가와 관리자의 부족 / 범람하는 옥외광고물	범람하는 옥외광고물
3. 거주하는 지역의 경관의 종류별 생각과 이미지			
1) 산지경관	좋다	좋다	매우 좋다
2) 농경지경관	보통	보통	보통
3) 주거지경관	보통	보통	보통
4) 가로(도로)경관	보통	보통	보통
5) 역사문화경관	보통	보통	보통
6) 상업지경관	보통	보통	보통
7) 수변경관	좋다	보통	매우 좋다
4. 거주하는 시/군 지역의 대표적 경관유형	수변경관	산지경관	산지경관
5. 거주하는 시/군 지역의 문제가 되는 경관유형	상업지경관	주거지경관	상업지경관
6. 시/군 지역의 경관의 중요성 정도	중요	중요	매우중요
7. 시/군 지역의 경관의 규제정도	강하게 규제	강하게 규제	강하게 규제
8. 시/군 경관의 규제 및 관리계획시, 참여정도	적극적 참여	적극적 참여	적극적 참여
9. 시/군 지역경관 향상을 위한 선행사항			
지역경관 향상을 위한 선행사항(우선순위1)	경관에 대한 시민의식의 향상과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	경관법 및 제도의 확립과 엄격한 관리집행	대표 / 상징경관의 우선설정과 신속한 조성
지역경관 향상을 위한 선행사항(우선순위2)	현실적 경관계획의 수립과 조례 제정	현실적 경관계획의 수립과 조례 제정	경관에 대한 시민의식의 향상과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
지역경관 향상을 위한 선행사항(우선순위3)	경관개선사업의 확대와 사업비 확충	경관개선사업의 확대와 사업비 확충	경관에 대한 시민의식의 향상과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

■ 북부권 일반인 설문조사 통계

공무원 및 전문가(북부권)			
설문항목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1. 거주하는 시/군 지역의 경관이미지와 만족도			
1) 전체적인 경관의 질이 우수하다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 타 시군과 비교, 특징 개성있는 경관 차별성정도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
3) 자연경관요소와 인공경관요소들간의 조화정도	보통	보통	보통
4) 인공경관요소들의 시각적 조화정도	보통	보통	보통
2. 거주하는 시/군 지역의 경관에 대한 생각	보통	우수	우수
1) 경관이 우수한 경우 (우선순위1)	자연경관의 보존과 관리	자연경관의 보존과 관리	자연경관의 보존과 관리
경관이 우수한 경우 (우선순위2)	자연경관과 인공경관의 조화	자연경관과 인공경관의 조화	잘 조화된 스카이라인
경관이 우수한 경우 (우선순위3)	자연경관과 인공경관의 조화	효율적 경관관리제도와 법체계	상징경관의 정비 및 관리의 체계성
2) 경관이 불량한 경우 (우선순위1)	자연경관의 훼손과 관리소홀 / 스카이라인의 부재 / 건축물의 노후와 무질서한 외관	경관전문가와 관리자의 부족, 경관에 대한 시민인식과 참여부족	자연경관과 인공경관의 조화부재 / 지역내 상징적 경관대상의 부재/범람하는 옥외광고물
경관이 불량한 경우 (우선순위2)	자연경관과 인공경관의 조화부재/지역내 상징적 경관대상의 부재/비효율적 관리제도와 법체계	자연경관과 인공경관의 조화부재/지역내 상징적 경관대상의 부재	경관전문가와 관리자의 부족
경관이 불량한 경우 (우선순위3)	지역내 상징적 경관대상의 부재 / 경관전문가와 관리자의 부족	건축물의 노후와 무질서한 외관 / 범람하는 옥외광고물	경관에 대한 시민인식과 참여부족
3. 거주하는 지역의 경관의 종류별 생각과 이미지			
1) 산지경관	좋다	매우 좋다	매우 좋다
2) 농경지경관	보통	보통	보통
3) 주거지경관	보통	보통	좋다. 보통
4) 가로(도로)경관	보통	보통	보통
5) 역사문화경관	보통	보통	좋다
6) 상업지경관	보통	보통	보통
7) 수변경관	좋다	매우 좋다	좋다
4. 거주하는 시/군 지역의 대표적 경관유형	수변경관	수변경관	산지경관
5. 거주하는 시/군 지역의 문제가 되는 경관유형	주거지경관	주거지경관	주거지경관 / 상업지경관
6. 시/군 지역의 경관의 중요성 정도	매우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중요하다
7. 시/군 지역의 경관의 규제정도	강하게 규제	강하게 규제	강하게 규제. 보통
8. 시/군 경관의 규제 및 관리계획시, 참여정도	적극적 참여	적극적 참여	적극적 참여
9. 시/군 지역경관 향상을 위한 선행사항			
지역경관 향상을 위한 선행사항(우선순위1)	경관법 및 제도의 확립과 엄격한 관리집행	경관법 및 제도의 확립과 엄격한 관리집행	대표 / 상징경관의 우선설정과 신속한 조성
지역경관 향상을 위한 선행사항(우선순위2)	경관에 대한 시민의식향상과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	대규모 개발과 건축시 경관적 측면의 노력	경관에 대한 시민의식향상과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
지역경관 향상을 위한 선행사항(우선순위3)	경관개선사업의 확대와 사업비 확충	경관개선사업의 확대와 사업비 확충	대표 / 상징경관의 우선설정과 신속한 조성

충주시

■ 충주시의 경관 일반론

- 우리나라의 중앙부와 동북부에 위치하며 동북으로 제천시, 서쪽으로 음성군, 남쪽으로 괴산군과 경상북도, 북쪽으로 경기도, 강원도와 경계를 이루며, 동남쪽으로 소백산맥의 여맥인 계명산, 남산, 대림산, 월악산과 서쪽으로 둘러싸인 산간분지로 형성되고 남한강과 달천강 및 요도천이 시를 관통하여 옛부터 수운이 편리하고 수자원이 풍부한 내륙분지에 위치
- 동쪽은 제천시, 서쪽은 음성군, 남쪽은 괴산군, 경상북도 문경시, 북쪽은 경기도 여주군과 강원도 원주시와 접하고 있다. 1읍 12면 12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인구는 남자 104,326명, 여자는 102,168명으로 총인구 206,494명이다. 시청 소재지는 충주시 금능동 700번지이고, 시를 상징하는 꽃은 국화, 나무는 사과나무, 새는 원앙
- 토지의 전체면적은 983.96㎢로써 충청북도 전체면적 7,431.58㎢의 13.24%를 차지고 있으며 전국의 1.0%, 서울의(605.52㎢)의 1.6배이며 충청북도의 자치단체 중에서 면적이 제일 크다. 위도상으로 중위도 지역으로 온대 계절풍 지대를 형성하여 사계의 구별이 뚜렷하며 한서의 차가 심한 기후로 계절에 대한 감각과 한대, 열대 등 이질적인 풍토에도 순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발달
- 대표적인 특산물은 사과이며 내륙 산간지의 지형과 일조량이 풍부, 기온의 일교차가 심하여 당도가 높고 색깔이 곱다. 남한강 상류지역의 맑은물, 13℃이상의 알맞은 온도, 비옥하고 공해 없고 오염되지 않은 비옥한 토양과 우리체질에 알맞은 생육 환경에서 재배 되는 충주쌀도 유명
- 충주시를 나타내는 이미지어로는 7Pride충주, 충주사과나무길, 사과특구 지정, 전국 제일의 사과의 고장, 레포츠허브 관광휴양도시, 친환경 바이오 농업 육성,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환경도시로 나타남

■ 충주의 상징



가운데의 흰 바탕은 백의민족이 더불어 사는 한반도를 의미하며 그 중심에 있는 빨간구는 충주가 21세기 한반도의 중심도시로 우뚝 솟아, 세계(지구)를 향해 힘차게 뻗어 나가는 충주시민의 기상을 나타냄

■ 충주의 미래상

- 중부내륙 광역경제권의 거점도시
- 민족 정신을 융합하는 중원문화의 중심도시
- 천혜의 관광자원과 중원문화가 연계된 국제적 관광도시
- 도시와 농촌이 조화를 이루는 복지환경도시

설문에 의한 충주의 대표적 경관

유형	사진	비고	
주거지 경관		연수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시청으로부터 동남쪽 1km 지점에 위치하고 면적은 5.08㎢로서 시전체 면적의 0.5%를 차지농촌 동에서 신도심 지역으로 변모하면서 아파트경관중심으로 형성다른 기존시가지 주거지역과 상대적 경관 우수성 보유
상업지 경관		성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충주상권의 중심으로 보행자전용공간을 비롯하여 휴먼스케일의 경관을 형성하고 있으며 도심활성화 차원의 대표야간 경관지역
가로 경관		사과 나무길	<ul style="list-style-type: none">충주진입의 상징적 가로경관이며 교통, 조경, 문화 등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 다목적성과 복합성으로 선적경관구성을 형성
역사문화 경관		탄금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자연경관의 연속적 배열이 시각적 우수장면으로 인식되고 인공경관물과 조화를 통한 복합경관성 및 장소경관성 보유

설문에 의한 충주의 문제점 경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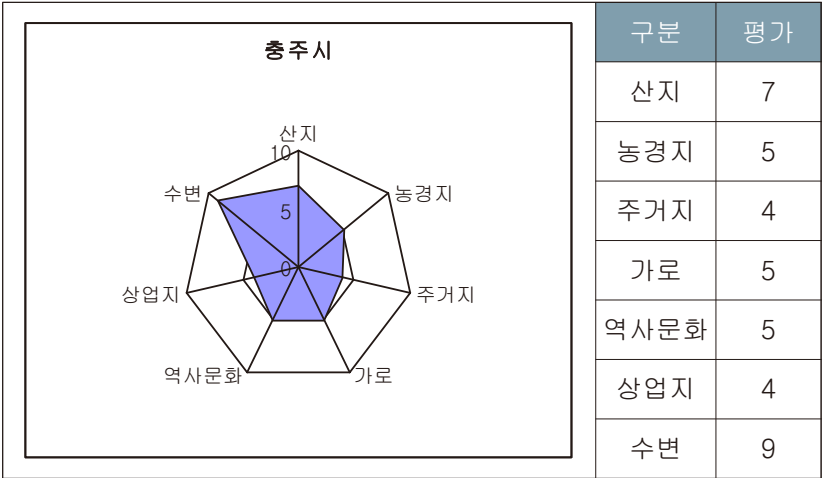
유형	사진	비고	
주거지 경관		충추천 양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지역 현대화 과정의 일반적 주거유형밀집지에 대형아파트로 인한 규모 및 시각적 단절현상과 함께 배후경관 차단
상업지 경관		충주 상업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영세상업시설의 밀집으로 인한 지역경관 통합이 미지의 상실과 상세경관의 부재가로시설물과 녹지부재로 인한 자연성 결여
가로 경관		충주 가로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도심부진입가로임에도 불구하고 장소성인식을 위한 경관요소가 결여되어 있고 경관요소간 규모, 형태, 색채, 장식등의 부재
역사문화 경관		중원 고구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점적 경관요소의 경관범위형성 부재와 관리소홀로 인한 경관 디테일의 파괴, 주변 경관배경의 약화

충주시 경관현황도



[그림 3-10] 충주시 경관현황도

<표 3-15> 충주시 경관평가표



- 충주시는 수변경관에 대한 만족도가 타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지역
- 대표적 경관유형 역시 충주호, 탄금호와 같은 수변경관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남
- 설문 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랜드마크, 특히 자연경관과 관련된 랜드마크 요소가 경관 인식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지역
- 경관이 불량한 이유에 있어서는 같은 행정구역 위계(시 단위)에 있는 다른 도시에 비해 가장 다양한 이유가 표출된 지역

제천시

■ 제천시의 경관 일반론

- 제천은 충청북도의 북부, 차령산맥과 소백산맥의 중간에 위치하여 동측은 단양군, 서측은 충주시, 남측은 문경시, 북측은 원주시, 영월군과 접해 있고 월악산 국립공원과 청풍호가 어우러진 문화관광의 도시이다. 특히 청정한 자연 경관과 명승지, 풍부한 역사문화 유적 그리고 인심 좋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내륙호반의 도시 제천은 지리적으로는 국토의 중심부에 자리하여 옛부터 사통팔달 교통의 요충지로 발달
- 교통은 국토의 남과 북을 연결하는 중앙선, 동서를 연결하는 태백선과 충북선이 교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앙고속도로 개통과 잘 정비된 국도와 지방도로로 연결되어 전국 어디에서나 손쉽게 찾을 수 있는 중부 내륙의 관광호반 도시
- 제천은 의병의 기개와 혼이 살아 숨쉬는 의병의 고장이다. 1895년 우리나라가 외침을 당해 풍전등화에 처했을 때 분연히 떨치고 일어난 을미의병전쟁의 진원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자랑스러운 전통과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자양영당, 의병기념관, 박약재, 철의사충, 남산전적지등은 호좌창의진의 유인석, 정운경, 원용팔, 이강년, 안승우, 홍사구등 제천의병의 처절하고 치열한 삶의 의기가 면면히 살아 숨 쉬고 있다. "제천은 의병의 처음이요. 마지막인 고장으로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선 장병이 제일 많았다," 고 단언한 것처럼 한말 제천의병은 2기 의병과 3기 항일무장 독립운동의 사상적 모태가 된 민족 주체성의 정화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에 제천에서는 자랑스러운 의병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매년 제천 의병제를 지역축제로 개최
- 제천시는 북쪽에 남서쪽으로 달리는 차령산맥이 있고, 남동쪽에 소백산맥이 병풍처럼 둘러 쌓여 있으며 중앙부에는 동산(771m), 국사봉(632m), 대덕산(580m), 천등산(807m) 등의 높은 산들이 동서로 가로막고 있어 북부와 남부 지방으로 분리하는 작용
- 제천시는 내륙의 고지대에 위치한 관계로 다른 지방에 비해 첫서리, 첫얼음이 비교적 빨리 나타나고 있으며, 연평균기온은 10.1℃, 연교차는 29.0℃, 연평균 강수량은 1,283.8mm. 바람은 연중 남서풍이 탁월한 가운데 높은 북동풍의 빈도

■ 제천의 상징



제천의 빼어난 자연경관과 화합, 단결하는 시민, 21세기 최고의 살기좋은 도시로 웅비하는 제천의 미래 발전과 비전을 상징






제천에는 박달재라는 고개가 있으며 노래가사에 쓰일 만큼 유명한 곳
오래전 박달선선과 금봉선녀의 슬픈 이야기에서 비롯된 박달재 고개는 지금도 제천의 명소로 자리 메김






■ 제천의 미래상

- 자연·인간·문화가 어우러지는 웰빙 관광도시
- 약초의 재배 가공 유통이 가시화되는 한방특화도시
- 중부내륙 영상문화를 선도하는 영상종합도시

■ 설문에 의한 제천의 대표적 경관

유형	사진	비고	
산지 경관		금수산	• 원래는 백암산(白岩山)이라 하던 것을 퇴계 이황(李滉)이 단양군수로 있을 때, 산이 아름다운 것을 “비단에 수를 놓은 것 같다”고 하며 대표적 거점자연경관
수변 경관		청풍 호반	• 지역의 대표적 거점경관으로 산과 물의 자연경관과 함께 이를 둘러싼 생태경관이나 풍치가로 등 다양한 경관의 깊이를 보유
역사문화 경관		청풍 문화재 단지	• 주변의 풍경을 관망할 수 있는 적지의 조망점 역할과 함께 수목지역의 삶과 공간을 재현한 대표적 역사문화경관

■ 설문에 의한 제천의 문제점 경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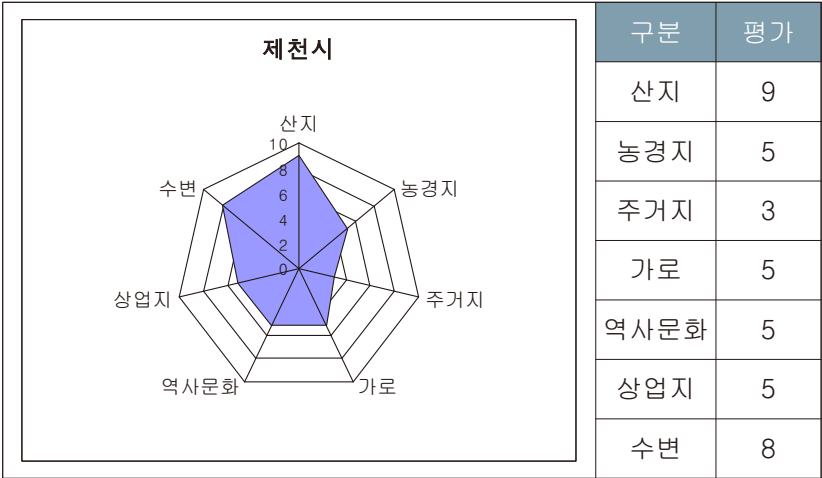
유형	사진	비고	
주거지 경관		제천 주거지	• 근대 저층중심의 콘크리트 주거양식과 현대고층중심의 양식대립으로 발생하는 경관요소간 상충성과 각기 요소의 시각적 풍요성 부재, 그리고 자연경관현상의 강한 차폐성
상업지 경관		서부 시장	• 재래시장이 가지는 단순한 기능성에 의한 보여지는 아름다움의 부재 • 경관시설과 이를 포함하는 외부공간의 시각적 관계성 부재
가로 경관		중앙 시장부근	• 도로기하구조의 부재를 인한 교통안전성 문제발생과 함께 중소도시의 Greend mode system 미건설로 경관적 특이성 상실 • 경관관리 및 요소간 부조화
공업 경관		쌍용 시멘트 공장	• 산지와 평지의 결합점에서 경관형태적 파괴현상의 발생 • 산업시설에 대한 차폐성 부재 • 동선이동시 산업시설의 대형화로 인한 부정적 시각 지배현상발생
역사문화 경관		박달제	• 자연성 우수지역에서 인공시설물의 경관적 부조화 • 역사와 문화와 관련된 은유적 형태변형부재 • 조망시설부재로 인한 조망점 역할상실

제천시 경관현황도



[그림 3-11] 제천시 경관현황도

<표 3-16> 제천시 경관평가표



- 제천시는 “청풍호”의 뛰어난 수변자원에도 불구하고 일반시민의 수변경관에 대한 만족도가 보통수준으로, 공무원의 높은 만족도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특이한 지역
- 또한 경관 개선을 위한 선행사항에 대한 질문에서 2순위의 답이 타 지역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타 시/군 지역에서의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경관에 대한 시민의식의 향상과 시민의 적극적 참여와 노력(주민참여)”를 선택한 반면, 제천시에서는 “현실적 경관계획의 수립과 조례제정(계획)”과 “대규모 개발과 건축 시 경관적 측면의 고려(개발)”을 선택함으로써 상이한 양상

단양군

■ 단양군의 경관 일반론

- 단양군은 한반도의 중심지역인 충북 최북단 지역에 위치한 유서깊은 역사문화의 고장으로 북쪽으로는 강원도 영월군, 동쪽으로는 경상북도 풍기읍, 남쪽으로는 경상북도 예천군과 문경시, 서쪽으로 제천시와 경계하고 있는 3도 접경의 도 경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백두대간의 소백산과 소백산맥을 따라 군 지역을 북에서 남으로 관류하는 남한강이 어우러져 빚어낸 산자수명한 많은 자연경관으로 예로부터 명승지로 널리 알려지진 고장이며 총 면적은 780.1㎢이며, 군청 소재지는 단양읍 별곡리로 알려짐
- 단양군 지형은 상당히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나 그 83.7%가 산악지대이고 경지면적은 11.2%에 불과하며 집단취락 및 도시지역만 일부의 분지와 구릉으로 형성되었을 뿐 대부분 산악으로 이루어져 험준한 산세를 형 주수계는 남한강 상류로서 본지역을 관통(연장 23.7km)하여 충주호를 형성하며, 지류로서 오대산에서 발원 평창강 등이 소백산에서 발원한 죽령천, 단양천, 금곡천 등과 합류하여 남한강(충주호)으로 유입
- 남한강은 강원도 영월군으로 부터 흘러들어 군내를 동서로 관류하며 남한강 동쪽에는 소백산맥이 뻗어 도솔봉(1,316m) 국망봉(1,421m), 연화봉(1,394m),용두산(1,015m),도락산(960m)등 고봉을 일으키고, 연화봉 과 도솔봉 사이의 안부에 죽령이 있다. 남한강 북쪽에는 태백산맥이 뻗어 금수산(1,016m)등 준봉이 솟아 있음
- 기후는 내륙산간지대에 위치하여 기온의 교차가 심한 내륙성 기후를 나타내며 연평균 기온은 11.2℃, 평균최고 17.7℃, 평균최저 5.6℃, 연간 총 강수량 1,195.8mm임
- 교통은 중앙고속도로 와 중앙선이 군의 중앙부를 남북으로 관통하고 중앙고속도로, 중앙선과 병행하여 국도가 달려 영주,제천,영월, 충주로 연결되며 군의 남동쪽 경계를 이루는 죽령은 예로부터 교통의 요충으로 중앙선, 중앙고속도로는 터널에 의해 고개를 넘고 , 국도는 고개를 통해 열려있음

■ 단양의 상징



- 단양의 "단"의 형태를 기본으로 변형, "단"자를 마주보며 인사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형상화해 단양군의 친절한 이미지를 의인화하였으며, 관광단양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담고 있음
- 단양과 도담삼봉을 둘러싸고 흐르는 강을 가로획과 세로획으로 형상화하였으며, 가운데 붉은 원은 태양을 본뜬 것으로 밝아오는 단양의 미래를 상징





■ 단양의 미래상

- 선사시대 부터 남한강 유역을 근원으로 한 문명의 유적지
 - 70만년전부터 사람이 거주 : 금굴구석기유적, 수양개, 구남굴, 상시바위그늘선사유적 등
- 전통문화와 수려한 자연경관이 어우러진 천혜의 관광지
 - 삼국시대의 문화가 융합된 중원문화의 중심지 : 신라적성비 등 문화재 20여점
- 21C 중앙고속도로 개통으로 관광 및 지역산업의 가속화 발전 기대
 - 수도권 2시간대 접근 가능, 풍부한 지하 자원 (전국시멘트 30%)

설문에 의한 단양의 대표적 경관

유형	사진	비고	
산지 경관		소백산	• 육산이나 국망봉 정상, 상월봉처럼 암질이 돌출하여 다양한 경관을 보이고 있는 봉우리와 함께 영춘면쪽 남천계곡처럼 암반과 소, 단애와 절벽이 가경을 연출하는 아름다운 바위계곡 위치
역사문화 경관		도담삼봉	• 산과 물 그리고 기암괴석의 수중석봉이 어우러져 경관요소의 다양성과 풍요성은 물론 경관대상, 조망점의 역할을 담당
수변 경관		양백폭포	• 양백폭포는 충주호 주변정비 일환으로 조성되어 단양읍 전면에 위치한 양방산 줄기의 암벽을 자연친화적으로 개조한 인공폭포로써 지역의 대표적 원경의 가치

설문에 의한 단양의 문제점 경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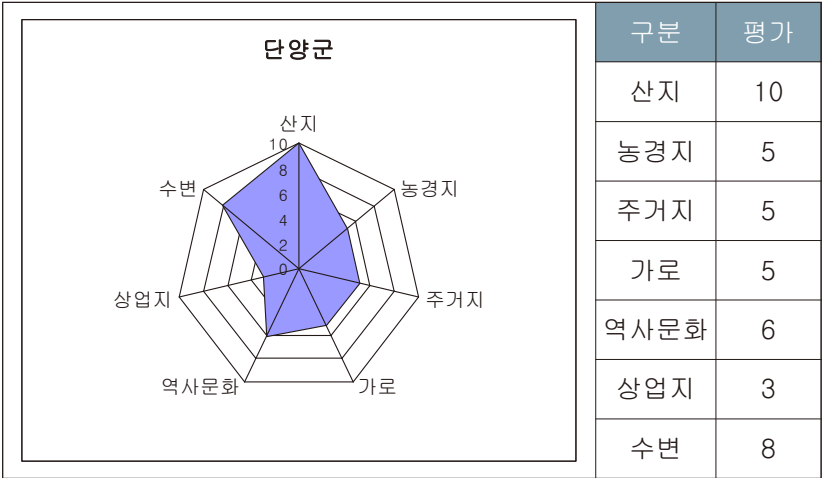
유형	사진	비고	
산지 경관		석회산	• 토취채굴에 의한 자연경관의 심각한 현상과 지역의 대표적 생태경관성에 대한 파괴현상 발생
가로 경관		5번국도 성신 양회앞	• 지역대표산업시설이 주변 우수자연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가로변 차폐경관의 부재 • 가로변 식재와 조경, 가로시설물 부재로 인한 경관성 상실
상업지 경관		고수동굴 입구	• 지역의 대표적 관광시설로써 통합 경관이미지의 미구축과 경관요소간 위계부재, 외부공간간의 지역경관성 파괴현상 발생
수변 경관		양백폭포 인근	• 경관대상으로 이미지 구축의 실패와 스케일감의 부재, 주변경관과의 시각적 단절 현상 발생

단양군 경관현황도



[그림 3-12] 단양군 경관현황도

<표 3-17> 단양군 경관평가표



- 단양군은 월악산 국립공원, 소백산, 단양팔경, 남한강 등 최고의 자연자원을 갖춘 지역으로 청풍명월의 이미지와 가장 부합하는 지역
- 도내에서 경관에 대한 만족도가 최고로 높은 지역이나 상업경관, 특히 관광지의 사업경관의 문제점에 의해 낮은 평가
- 산지경관과 수변경관에 대한 만족도가 동시에 높게 나온 지역 (충주시, 옥천군)과 비교해보아도 만족도가 최고로 높은 지역

중부

중부지역 일반적 특성

인구	975,437명 (충북의 64.96%)
면적	2817.9㎢ (충북의 37.97%)
행정구역	청주, 청원, 증평, 음성, 진천, 괴산 (1시 5군)
주요경관포인트	명암약수터,상당상성,가로수길,대청댐,조정약수,초평저수지,백곡저수지,길상사 화양동,쌍곡계곡,조령삼관문,선유동,무극전적지

경관적 현황

- 자연형의 경관자원은 지역내의 지형적 속성으로 인해 대표성을 가지지 않고 있으며 인공적 경관 우세지역
- 도청소재지인 청주시를 중심으로 도시형 경관위주로 형성되고 충북수위도시경관성 보유
- 음성에서 발원한 미호천은 진천과 음성의 남부지역에 걸쳐 크게 형성된 단층분지인 진천평야를 따라 남류하고 있어 충북의 곡창지대를 이루어 대표적 농촌가로경관을 형성

경관적 특이성

- 청주시를 중심으로 꾸준한 인구증가에 의한 대규모 주거단지의 개발과 이에 대한 경관성 부재와 단기간 경관 연결성 부재로 지역적 특성이나 개성을 나타내기보다는 획일적이고 정돈되지 못한 경관을 제공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등 주변 개발여건변화와 여러 대규모 국가사업에 의해 꾸준히 경관성이 달라지는 지역



[그림 3-13] 중부권 경관 현황도

■ 중부권 일반인 설문조사 통계 (1)

일반인 설문조사 (중부권)			
설문항목 행정구역	청주시	청원군	충청군
1.거주하는 시/군 지역의 경관이미지와 만족도			
1) 전체적인 경관의 질이 우수하다	보통	보통	보통
2) 타 시군과 비교, 특징, 개성있는 경관 차별성정도	보통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3) 자연경관요소와 인공경관요소들간의 조화정도	보통	보통	보통
4) 인공경관요소들의 시각적 조화정도	보통	보통	보통
2. 거주하는 시/군 지역의 경관에 대한 생각	보통	보통	보통
1) 경관이 우수한 경우 (우선순위1)	자연경관의 보존과 관리	자연경관의 보존과 관리	자연경관의 보존과 관리
경관이 우수한 경우 (우선순위2)	자연경관과 인공경관의 조화	건축물의 외관정비와 노후건물의 정비	상징경관의 정비 및 관리의 체계성
경관이 우수한 경우 (우선순위3)	상징경관의 정비 및 관리의 체계성	경관에 대한 시민인식의 증진과 적극적 참여	경관에 대한 시민인식의 증진과 적극적 참여
2) 경관이 불량한 경우 (우선순위1)	지역 내 상징적 경관대상의 부재	자연경관과 인공경관의 조화부재/건축물의 노후와 무질서한 외관	자연경관의 훼손과 관리소홀/경관에 대한 시민인식과 참여부족
경관이 불량한 경우 (우선순위2)	건축물의 노후와 무질서한 외관	지역 내 상징적 경관대상의 부재	건축물의 노후와 무질서한 외관
경관이 불량한 경우 (우선순위3)	범람하는 옥외광고물	건축물의 노후와 무질서한 외관	경관에 대한 시민인식과 참여부족
3. 거주하는 지역의 경관의 종류별 생각과 이미지			
1)산지경관	보통	좋다	보통
2)농경지경관	보통	좋다	보통
3)주거지경관	보통	보통	보통
4)가로(도로)경관	보통	보통	보통
5)역사문화경관	보통	보통	보통
6)상업지경관	보통	보통	보통
7)수변경관	보통	보통	보통
4. 거주하는 시/군 지역의 대표적 경관유형	가로경관	산지경관	산지경관
5. 거주하는 시/군 지역의 문제가 되는 경관유형	주거지경관	주거지경관	주거지경관
6. 시/군 지역의 경관의 중요성 정도	중요	중요	중요
7. 시/군 지역의 경관의 규제정도	강하게 규제	강하게 규제	강하게 규제
8. 시/군 경관의 규제 및 관리계획시, 참여정도	적극적 참여	적극적 참여	적극적 참여
9. 시/군 지역경관 향상을 위한 선행사항			
지역경관 향상을 위한 선행사항(우선순위1)	시민의식의 향상과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	시민의식의 향상과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	대표/상징경관의 우선설정과 신속한 조성
지역경관 향상을 위한 선행사항(우선순위1)	시민의식의 향상과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	시민의식의 향상과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	시민의식의 향상과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
지역경관 향상을 위한 선행사항(우선순위1)	경관개선사업의 확대와 사업비 확충	경관개선사업의 확대와 사업비 확충	시민의식 향상과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현실적 경관계획의 수립과 조례 재정

■ 중부권 일반인 설문조사 통계 (2)

일반인 설문조사 (중부권)			
설문항목 행정구역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1.거주하는 시/군 지역의 경관이미지와 만족도			
1) 전체적인 경관의 질이 우수하다	그렇다. 보통	보통	보통
2) 타 시군과 비교, 특징, 개성있는 경관 차별성정도	보통	그렇다	보통
3) 자연경관요소와 인공경관요소들간의 조화정도	보통	보통	보통
4) 인공경관요소들의 시각적 조화정도	보통	보통	보통
2. 거주하는 시/군 지역의 경관에 대한 생각	보통	보통	보통
1) 경관이 우수한 경우 (우선순위1)	자연경관의 보존과 관리	자연경관의 보존과 관리	자연경관의 보존과 관리
경관이 우수한 경우 (우선순위2)	자연경관과 인공경관의 조화	잘 조화된 스카이라인/자연경관과 인공경관의 조화	자연경관과 인공경관의 조화
경관이 우수한 경우 (우선순위3)	우수한 자연경관의 보존과 관리/자연경관과 인공경관의 조화	경관에 대한 시민인식의 증진과 적극적 참여	경관에 대한 시민인식의 증진과 적극적 참여
2) 경관이 불량한 경우 (우선순위1)	건축물의 노후와 무질서한 외관/스카이라인의 부재	자연경관의 훼손과 관리소홀/건축물의 노후와 무질서한 외관	자연경관과 인공경관의 조화 부재
경관이 불량한 경우 (우선순위2)	자연경관과 인공경관의 조화 부재/지역 내 상징적 경관대상의 부재	경관에 대한 시민인식과 참여부족	지역 내 상징적 경관대상의 부재
경관이 불량한 경우 (우선순위3)	획일적인 아파트경관/비효율적 관리제도와 법체계	자연경관과 인공경관의 조화 부재/지역 내 상징적 경관대상의 부재	경관전문가와 관리자의 부족/범람하는 옥외광고물
3. 거주하는 지역의 경관의 종류별 생각과 이미지			
1)산지경관	좋다	매우좋다	좋다
2)농경지경관	좋다/보통	보통	보통
3)주거지경관	보통	보통	보통
4)가로(도로)경관	보통	보통	보통
5)역사문화경관	보통	보통	보통
6)상업지경관	보통	보통	보통
7)수변경관	보통	보통	보통
4. 거주하는 시/군 지역의 대표적 경관유형	산지경관	산지경관	산지경관
5. 거주하는 시/군 지역의 문제가 되는 경관유형	상업지경관	상업지경관	주거지경관
6. 시/군 지역의 경관의 중요성 정도	중요	중요	중요
7. 시/군 지역의 경관의 규제정도	강하게 규제	강하게 규제	강하게 규제
8. 시/군 경관의 규제 및 관리계획시, 참여정도	적극적 참여	적극적 참여	적극적 참여
9. 시/군 지역경관 향상을 위한 선행사항			
지역경관 향상을 위한 선행사항(우선순위1)	시민의식의 향상과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	대표/상징경관의 우선설정과 신속한 조성	대표/상징경관의 우선설정과 신속한 조성
지역경관 향상을 위한 선행사항(우선순위1)	시민의식의 향상과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	시민의식의 향상과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	시민의식의 향상과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
지역경관 향상을 위한 선행사항(우선순위1)	시민의식의 향상과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	경관개선사업의 확대와 사업비 확충	경관개선사업의 확대와 사업비 확충

■ 중부권 공무원 및 전문가 설문조사 통계 (1)

공무원 및 전문가 (중부권)			
설문항목 행정구역	청주시	청원군	증평군
1.거주하는 시/군 지역의 경관이미지와 만족도			
1) 전체적인 경관의 질이 우수하다	보통	보통	보통
2) 타 시군과 비교, 특징, 개성있는 경관 차별성정도	보통	보통	그렇지 않다
3) 자연경관요소와 인공경관요소들간의 조화정도	보통	보통	보통
4) 인공경관요소들의 시각적 조화정도	보통	보통	보통
2. 거주하는 시/군 지역의 경관에 대한 생각	보통	보통	보통
1) 경관이 우수한 경우 (우선순위1)	우수한 자연경관의 보존과 관리	우수한 자연경관의 보존과 관리	우수한 자연경관의 보존과 관리
경관이 우수한 경우 (우선순위2)	자연경관과 인공경관의 조화	잘 조화된 스카이라인 / 상징경관의 정비 및 관리의 체계성	자연경관과 인공경관의 조화
경관이 우수한 경우 (우선순위3)	상징경관의 정비 및 관리의 체계성	경관에 대한 시민인식의 증진과 참여	잘 정비된 옥외광고물 / 기타
2) 경관이 불량한 경우 (우선순위1)	스카이라인의 부재 / 지역 내 상징적 경관대상의 부재	자연경관의 훼손과 관리소홀	건축물의 노후와 무질서한 외관 / 지역 내 상징적 경관대상의 부재 / 경관에 대한 시민인식과 참여부족
경관이 불량한 경우 (우선순위2)	획일적인 아파트경관	범람하는 옥외광고물	지역 내 상징적 경관대상의 부재
경관이 불량한 경우 (우선순위3)	범람하는 옥외광고물	경관전문가와 관리자의 부족	건축물의 노후와 무질서한 외관
3. 거주하는 지역의 경관의 종류별 생각과 이미지			
1)산지경관	보통	좋다	좋다
2)농경지경관	보통	보통	좋다. 보통
3)주거지경관	보통	보통	보통
4)가로(도로)경관	좋다	보통	보통
5)역사문화경관	좋다	보통	보통
6)상업지경관	보통	보통	보통
7)수변경관	보통	보통	좋다
4. 거주하는 시/군 지역의 대표적 경관유형	산지경관 / 가로경관	농경지경관	수변경관
5. 거주하는 시/군 지역의 문제가 되는 경관유형	상업지경관	가로경관	상업지경관
6. 시/군 지역의 경관의 중요성 정도	매우 중요하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 / 중요하다
7. 시/군 지역의 경관의 규제정도	매우 강하게 규제	강하게 규제	강하게 규제
8. 시/군 경관의 규제 및 관리계획시, 참여정도	적극적 참여	적극적 참여	적극적 참여
9. 시/군 지역경관 향상을 위한 선행사항			
지역경관 향상을 위한 선행사항(우선순위1)	경관법 및 제도의 확립과 엄격한 관리집행	경관에 대한 시민의식향상과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	경관에 대한 시민의식향상과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
지역경관 향상을 위한 선행사항(우선순위1)	경관에 대한 시민의식향상과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	경관에 대한 시민의식향상과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	경관에 대한 시민의식향상과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
지역경관 향상을 위한 선행사항(우선순위1)	대규모 개발과 건축시 경관적 측면의 노력	경관개선사업의 확대와 사업비 확충	경관개선사업의 확대와 사업비 확충

중부권 공무원 및 전문가 설문조사 통계 (2)

공무원 및 전문가 (중부권)			
설문항목 행정구역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1.거주하는 시/군 지역의 경관이미지와 만족도			
1) 전체적인 경관의 질이 우수하다	보통	그렇다. 보통	보통
2) 타 시군과 비교, 특징, 개성있는 경관 차별성정도	보통	보통	그렇지 않다
3) 자연경관요소와 인공경관요소들간의 조화정도	보통	보통	그렇지 않다
4) 인공경관요소들의 시각적 조화정도	보통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2. 거주하는 시/군 지역의 경관에 대한 생각	보통	보통	보통
1) 경관이 우수한 경우 (우선순위1)	우수한 자연경관의 보존과 관리	우수한 자연경관의 보존과 관리	우수한 자연경관의 보존과 관리
경관이 우수한 경우 (우선순위2)	자연경관과 인공경관의 조화	잘 조화된 스카이라인 / 자연경관과 인공경관의 조화	자연경관과인공경관의 조화 / 상징경관의 정비 및 관리의 체계성
경관이 우수한 경우 (우선순위3)	기타	건축물의 외관정비와 노후건물의 정비	상징경관의 정비 및 관리의 체계성
2) 경관이 불량한 경우 (우선순위1)	획일적인 아파트경관	자연경관의 훼손과 관리소홀	자연경관의 훼손과 관리소홀
경관이 불량한 경우 (우선순위2)	자연경관과 인공경관의 조화부재 / 건축물의 노후와 무질서한 외관	자연경관과 인공경관의 조화부재 / 지역내 상징적 경관대상의 부재	지역내 상징적 경관대상의 부재
경관이 불량한 경우 (우선순위3)	자연경관과 인공경관의 조화부재/획일적인 아파트경관	건축물의 노후와 무질서한 외관 / 경관에 대한 시민인식과 참여부족	경관에 대한 시민인식과 참여부족 / 범람하는 옥외광고물
3. 거주하는 지역의 경관의 종류별 생각과 이미지			
1)산지경관	좋다	좋다	좋다
2)농경지경관	좋다. 보통	보통	보통
3)주거지경관	보통	나쁘다	보통
4)가로(도로)경관	보통	보통	보통
5)역사문화경관	좋다	보통	보통
6)상업지경관	보통	나쁘다	보통
7)수변경관	보통	보통	보통
4. 거주하는 시/군 지역의 대표적 경관유형	수변경관	산지경관	산지경관
5. 거주하는 시/군 지역의 문제가 되는 경관유형	상업지경관	상업지경관	주거지경관 / 상업지경관
6. 시/군 지역의 경관의 중요성 정도	중요하다	중요하다	중요하다
7. 시/군 지역의 경관의 규제정도	강하게 규제	강하게 규제	강하게 규제
8. 시/군 경관의 규제 및 관리계획시, 참여정도	적극적 참여	적극적 참여	적극적 참여
9. 시/군 지역경관 향상을 위한 선행사항			
지역경관 향상을 위한 선행사항(우선순위1)	경관법 및 제도의 확립과 엄격한 관리집행	대표 / 상징경관의 우선설정과 신속한 조성	시민의식향상과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
지역경관 향상을 위한 선행사항(우선순위1)	시민의식향상과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	시민의식향상과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	경관개선사업의 확대와 사업비 확충
지역경관 향상을 위한 선행사항(우선순위1)	경관법 및 제도의 확립과 엄격한 관리집행	경관개선사업의 확대와 사업비 확충	경관개선사업의 확대와 사업비 확충

음성군

■ 음성군의 경관 일반론

- 음성군은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한강과 금강의 수계로 분류되는 국토의 중심에 위치한 내륙군으로 북쪽으로는 경기도 이천시와, 서북쪽으로는 경기도 안성시와, 동쪽으로는 충주 시와, 남쪽으로는 괴산군과, 서쪽으로는 진천군과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서북쪽은 야산과 구릉지가 많고 수원이 풍부하여 예로부터 기름진 옥토로 농사가 잘 되는 풍요로운 고장이며, 인심이 좋은 고장으로 유명
- 서북쪽을 관통하는 중부고속도로와 현재 공사중인 북쪽의 중부내륙고속도로가 있으며 또한 동서고속도로가 동서를 관통하게 되어 있고, 충북선 복선철도는 음성읍, 원남면, 소이면을 경유하며 또한 일반국도도 고속화 되어 36번 국도(청주~충주)는 4차선화 되었 으며, 3번국도(충주~서울)도 현재 4차선 확장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어 사통팔달의 교통망은 지역경제 발전의 원동력
- 관광지로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확보하고 있지는 않으나 6.25동란시 최초로 공산군을 물리친 무극 국민관광지가 있고 금왕읍에 삼형제 저수지가 있으며, 이밖에 저수지가 많아 많은 낚시 동호인들이 즐겨 찾고 있다. 또한 인근에는 괴산의 화양동, 충주호, 수안보, 양성의 온천 등이 인접하여 이들과 연계한 관광이 유리한 지역
- 음성군은 전통적인 농업군으로 비옥한 토질과 풍부한 수원을 바탕으로 예로부터 양질의 농.특산물을 많이 생산하였으며, 특히 청결고추, 인삼, 미백복숭아, 수박, 참외, 포도, 사과 등은 전국적인 지명도를 갖고 있는 농특산물로 품질을 인정받고 있으며, 또한 유기농법을 이용한 무공해농산물 생산과 첨단시설을 이용한 각종 채소를 생산,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있고 공업분야에서는 1987년도 중부고속도로의 개통과 더불어 많은 기업체가 입주하여 1998년 현재 875개의 기업체가 등록되어 있어 충청북도내에서 가장 많은 기업체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개발 및 계획중인 지방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중부권의 공업핵심지역으로의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며, 농업과 공업이 조화를 이루는 이상적인 지역

■ 음성군의 상징



- 우주와 지구를 상징하는 원형도구내에 개발과 보전의 지역과제를 고리모양으로 조합하여 과거·현재를 바탕으로 한 음성의 미래를 형상화 함



- 음성군 전통민속놀이인 거북놀이의 거북을 의인화한 푸른 색깔의 거북이 모습을 통해 청정 고장의 이미지를 표현한 기본형 캐릭터

■ 음성군의 미래상

- 공장과 산업단지가 크게 증가하는 중부내륙의 핵심 공업군
- 고속도로 2개로선과 국도 5개로선이 통과하는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
- 수도권과 가까워 야산 구릉지가 많아 개발잠재력이 높은 신개발지역
- 청청농업과 과학영농 기술이 발달한 고소득 농업군

설문에 의한 음성의 대표적인 경관

유형	사진	비고	
산지 경관		봉학골	• 다양한 산림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높이고 정서함양에 기여하고자 조성
수변 경관		설성공원	• 공원 내에서 연못과 경호정이라는 정자가 있고,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수영장, 테니스장, 여성회관 등의 편의시설들이 위치하여 거점경관역할 담당
역사문화 경관		철박물관	• 철의 기원과 탄생, 철의 문명 발달사, 한반도의 철의 역사, 철강발달사 등을 전시하였으며, 사회교육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한 문화의식 고취, 박물관 운영에 역점

설문에 의한 음성의 문제점 경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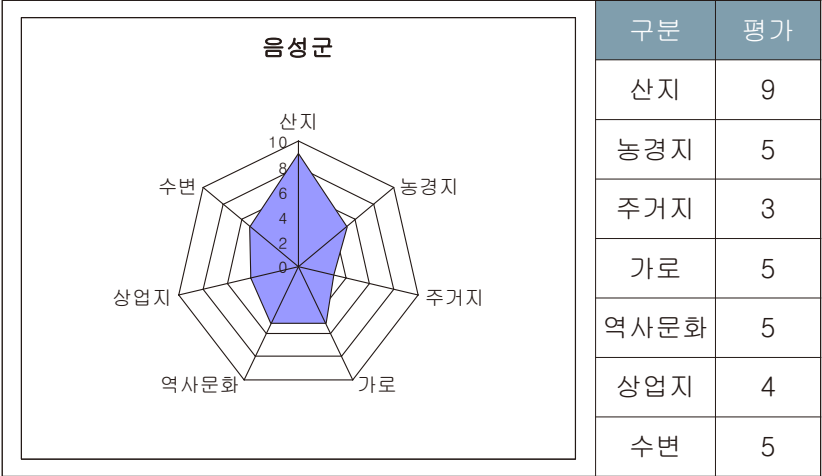
유형	사진	비고	
산지 경관		소이면 석산개발	• 개발 위주의 자연 경관 훼손 (토취허가에 의한 채석장으로 주변 생태경관의 파손과 복원노력의 부재)
주거지 경관		금왕읍 벽성아파트	• 평지의 도로변에 나홀로 아파트가 건설되어 공간적 질서와 기능적 부조화는 물론 일부 시점에서 불량한 조망차폐 현상 발생
가로 경관		용계저수지 진입부	• 주변에 우수한 경관우수 가능성 있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가로수 배치 방식으로 인한 경관저하현상

음성군 경관현황도



[그림 3-14] 음성군 경관현황도

<표 3-18> 음성군 경관평가표



- 음성군은 경관 차별성을 묻는 항목에서는 청원군과 함께, 인공 경관요소들의 시각적 조화정도는 괴산군과 함께 낮은 지역으로 평가
- 자연경관과 인공요소간의 조화정도에 있어서는 도내에서 유일하게 조화정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인식되는 지역
- 낙후된 주거시설의 산재와 함께 일부 나홀로 아파트건설로 인한 주거지경관의 낮은 평가

진천군

진천군의 경관 일반론

- 진천은 충청북도 중부에 위치한 중부고속도로가 관통하는 농공병진이 함께하는 내륙도시로 반경 40km내에 청주, 음성, 괴산, 안성, 천안등이 위치
- '생거진천'이라는 유래에 따라 차령산맥이 북쪽으로부터 남쪽에 이르러 산악이 많고 동북부는 금강상류인 미호천이 광혜원명과 백곡면에서 시작하여 남쪽의 광활한 평야가 흐르고 있어 비옥한 곡창지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산이 많은 내륙 산간지역으로서 수려한 자연환경과 유서 깊은 문화를 지닌 곳
- 사통팔달의 교통요지로 태백권의 상업 중심지이며 진천읍·덕산면·초평면·문백면·백곡면·이월면·광혜원면 등 1개 읍 6개 면으로 이루어졌으며, 군청소재지는 진천읍 읍내리
- 지형은 북서부에 서운산(547m)·무제봉(574m)·옥녀봉(457m)·덕성산(521m)·백석봉(468m) 등 차령산맥의 연봉이 북동-남서 방향으로 뻗어 있기 때문에 비교적 높고 험준한 산지를 이루며, 북쪽에 덕성산과 서쪽 차령산맥 줄기인 서운산이 경기도와 충청북도의 경계를 이루며 남서쪽에 덕유산·환희산·국사봉이 충청남도과 충청북도의 경계를 이루며 이 밖에 서북쪽에는 장군산·백석봉·옥녀봉·무제산 등이 솟아 있음
- 남부와 동부는 400m 이하의 구릉성 산지가 발달했으며 군의 중앙은 음성군의 남쪽 지방과 연결되는 침식분지이며 백곡천·초평천·보원천 등의 지류를 받아들인 미호천(美湖川)이 남쪽으로 흐르면서 하천을 낀 넓은 평야를 펼쳐 놓으며 이 평야는 침식평야가 대부분이지만 하천 주변은 토사의 퇴적으로 충적지를 형성하는 곳이 많아 논농사에 적합
- 중남부지역의 하천연안에는 미호천에 의해 형성된 성평평야와 장양평야가 있으며 진천읍의 동부에는 백곡천이 서남류하면서 진천들을 형성하고 있고 읍의 북부에는 덕산들, 이월면의 동부에는 이월들 등이 있어 진천평야를 형성하며 진천평야에서 생산되는 진천쌀은 질이 좋기로 유명

진천군의 상징



- 우주만상을 상징하는 원형곡선안에 "진천"을 남녀의 웃는 모습으로 표기하여 21세기를 향한 진천인의 희망과 창조를 형상화 함.
- 21C주역이 될 남녀어린이를 용맹스럽고 날쌔며 온후한 모습으로 형상화하여 진천인의 기상을 새롭게 표현 진천은 예로부터 화랑정신의 발원지요, 군전역이 삼국통일의 주역이었던 화랑들의 터전이었음에 기인하여 진천인은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진천군의 미래상

- 군민이 주인되는 생거진천, 혁신진천
- 경제가 진천의 자랑, 복지는 진천의 사랑, 교육이 진천의 미래, 문화가 진천의 생활, 환경이 진천의 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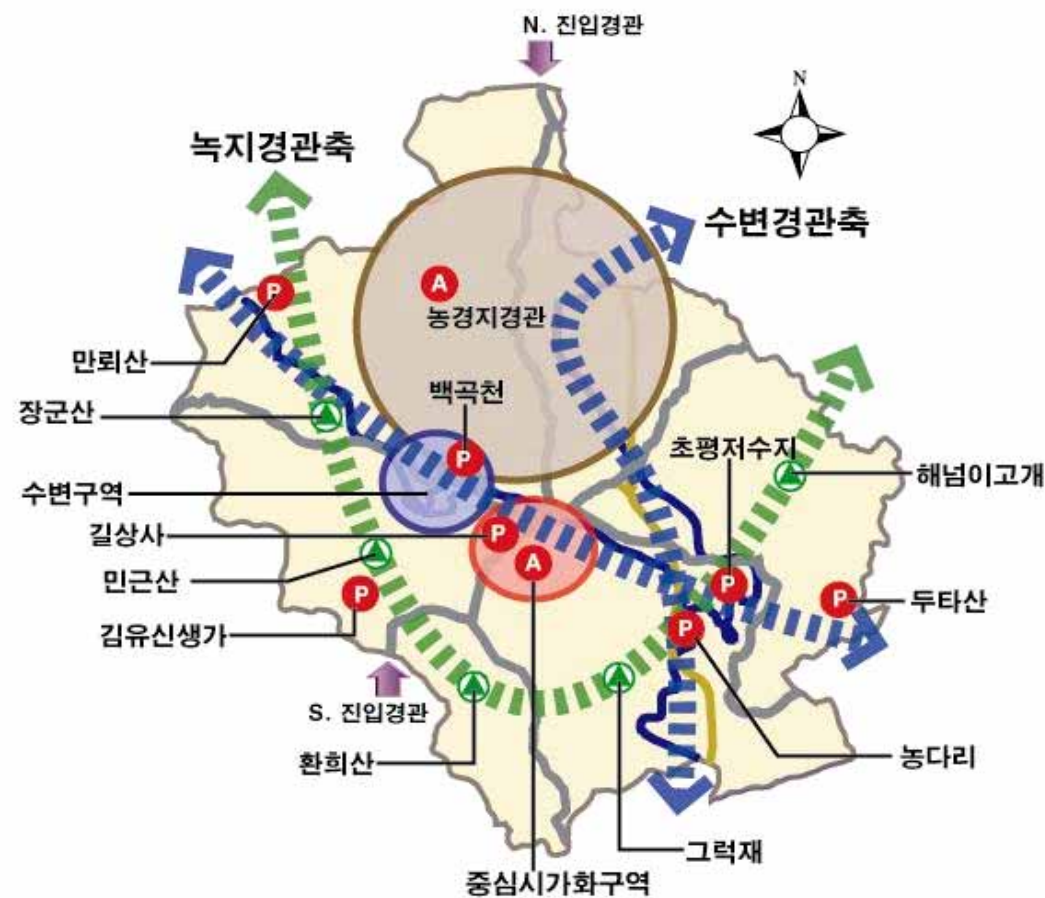
■ 설문에 의한 진천군의 대표적 경관

유형	사진	비고	
산지 경관		만뢰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높이는 611m이며 만노산·이흘산이라고도 불림• 정상에는 화가 최양호가 제작한 장승이 세워져 있으며 이 장승은 한자 외 산(山)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데, 진천에서 가장 높은 산을 상징
가로 경관		34번국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평저수지와 연결하여 선적인 수변가로 경관을 형성하며 도로선형의 완만함으로 인해 넓은 가시경관영역을 보유
수변 경관		백곡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백곡저수지는 충북 진천군 진천읍 건송리 일대에 위치• 진천의 3대 낚시터중의 하나로 위요형 경관을 형성하여 경관적 안정성과 편안함을 제공
역사문화 경관		길상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길상사는 진천 도당산에 있는 삼국통일의 위업을 완수한 흥무대왕 김유신의 영정을 봉안한 사당• 충북 진천군 진천읍 벽암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지정문화재(기념물 제1호)로 지정
상업지 경관		중앙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120-4번지 일원에 위치하여 대표적 도심재래시장의 재생경관사례• 도로를 중심으로 조선시대부터 전래된 5일장의 명맥을 이어오던 진천장을 76년 현시장으로 노점상을 유도하여 군민의 농산물거래 및 생필품 구매에 활용토록 도모

■ 설문에 의한 진천군의 문제점 경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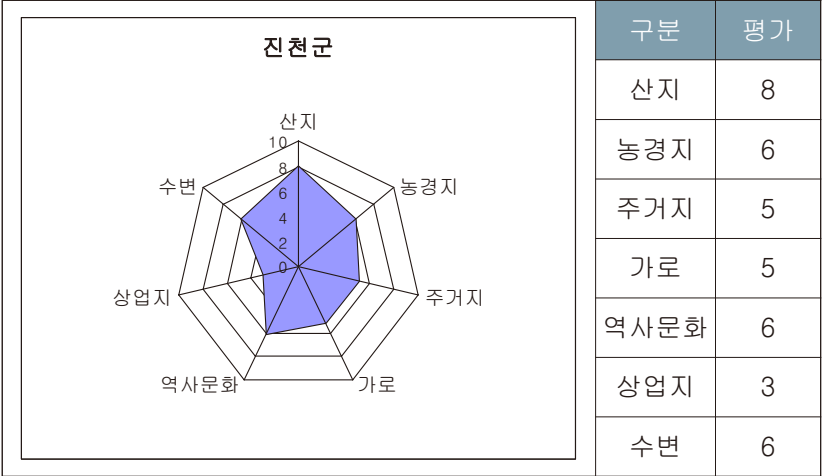
유형	사진	비고	
가로경관		진천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고유경관의 상실과 경관요소의 혼잡성• 시각 통로상의 건축물 건축으로 인한 차폐• 건물간의 시각적 연계성 부족
주거지경 관		34번 국도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릉지 연결부 개발로 인한 자연경관의 시각적 훼손• 주거지패턴의 획일성으로 인한 경관특성의 상실• 배후산지에 대한 주요 경관이동로에서 Skyline 부재

진천군 경관현황도



[그림 3-14] 진천군 경관현황도

<표 3-19> 진천군 경관평가표



- 진천군은 경관의 차별성이 청원군과 함께 가장 낮은 것으로 인지
- 자연경관과 인공경관과의 조화정도가 도내에서 유일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인공경관간의 차별성 정도도 괴산군과 함께 낮은 인식수준
- 특이성 있는 산지경관이나 수변경관 대신 농경지 경관이 면적 범위에서 타시군과 비교해 우세성을 차지

청주시

■ 청주시의 경관 일반론

- 청주는 서울 동남방 128km지점에 위치한 중부권의 내륙도시로 반경 40km내에 대전, 천안, 괴산, 보은 등이 인접
- 시의 사방이 청원군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동쪽으로는 괴산군, 서쪽으로 조치원읍, 남쪽으로 영동군, 보은군, 북쪽으로 진천군과 연결되고 시청 소재지는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3가 89번지이며 면적은 153.41㎢로 전국의 0.15% 충북의 2.1%이며 인구는 626,614명으로 218,997세대로 구성
- 시가지를 동서로 양분하는 무심천(無心川)은 청원군 낭성면의 국절봉(546m)에서 발원하여 남서류하다가 남일면에서 급한 곡류를 이루어 북쪽으로 흐름을 변경하여 시가지를 지나 북서쪽 청원군과의 경계 부근에서 미호천과 합류
- 그 때문에 무심천의 흐름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길게 발달한 청주평야는 대부분 범람원으로 비옥한 충적평야이며 대부분의 평지는 시가지화 하였고 농경지로는 남쪽의 대머리평야, 무심천 하류지역의 오창평야와 미호천 왼쪽 연안의 신대평야 등이 남아 있고 산록도시로서 아름답고 깨끗하며 조용한 도시일 뿐만 아니라 충청북도 제일의 곡창지대인 미호평야를 옆에 끼고 있어 농산물이 풍부한 도시
- 사계절이 뚜렷한 온대 대륙성기후로 여름에는 고온다습한 남동풍이나 남서풍이 불며 겨울에는 한랭건조한 북서풍이 부는 건기와 우기가 뚜렷한 기후현상
- 다른 지방에 비해 한서의 차가 비교적 심한 편이나 우리나라의 평균기온인 11℃에 비해 11.6℃로 비교적 기상여건이 양호하며 강수량은 연평균 1,200mm이상으로 6~9월에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고 자연재해가 비교적 적은 살기좋은 지역으로 대청댐의 풍부한 용수, 저렴한 용지와 함께 첨단산업이 입지하기에 최적의 조건

■ 청주시의 상징



- 상단 : 청주시를 대표하는 시각적 이미지로 21세기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문화예술의 도시로 발전하고자 하는 청주시민의 의지를 표현
- 하단 :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인 '직지'를 모티브로 하여 청주가 세계인쇄문화의 발상지라는 의미를 부여하였음

■ 청주시의 캐릭터



- 세계적인 문화유산인 「직지」를 모티브로 하여 「청주」의 자음과 모음을 활자의 형태로 풀어서 직지를 형상화한 것으로
- 여럿이 모여 있는 형상 → 화합과 단결
- 자유스러운 동작 → 변화와 의지
- 자연친화적이며 인간적 형태의 다정한 모습 → 미래의 청주를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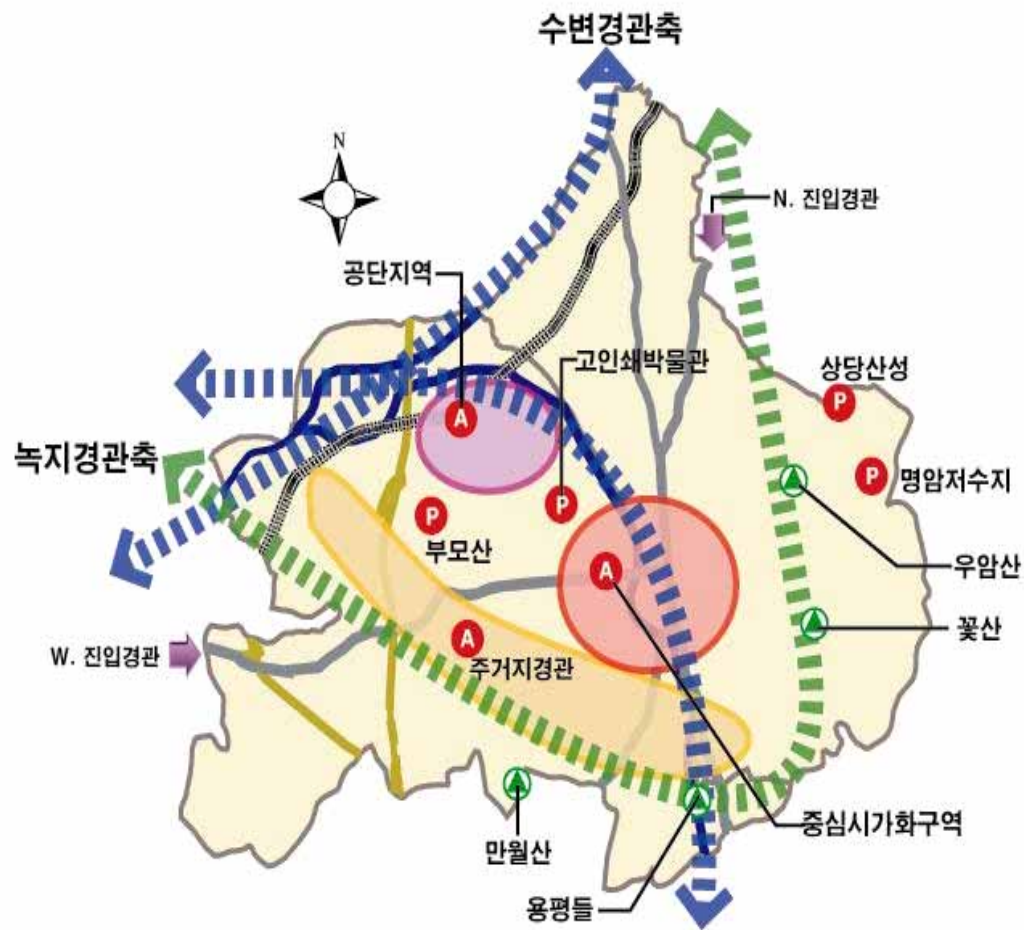
■ 설문에 의한 청주시의 대표적 경관

유형	사진	비고	
주거지 경관		무심천	• 무심천의 위치와 상징성으로 구도심과 계획적 도심으로 나누는 경계로 작용하고 있어, 지역의 도시공간조직(Urban tissue)의 특징적 경관으로 인식
상업지 경관		성안길	• 보행중심의 눈높이 경관으로 형성되어 있는 직선형 상업가로 경관이며 자생적 근대 건축물군으로 인해 시각적 경관성과 공간적 경관성이 동시에 형성
가로 경관		가로수길	• 청주뿐만 아니라 충북의 대표가로경관으로 계절의 변화에 따라 경관적특성을 가지며 시각적 연속성이 특히 우수하고 적당한 경관각으로 가로가 전개
역사문화 경관		흥덕사지	• 청주공간의 중심녹지축상에 위치한 조망점과 경관대상의 역할을 담당하고 직지문화구역의 중심 경관축을 형성

■ 설문에 의한 청주시의 문제점 경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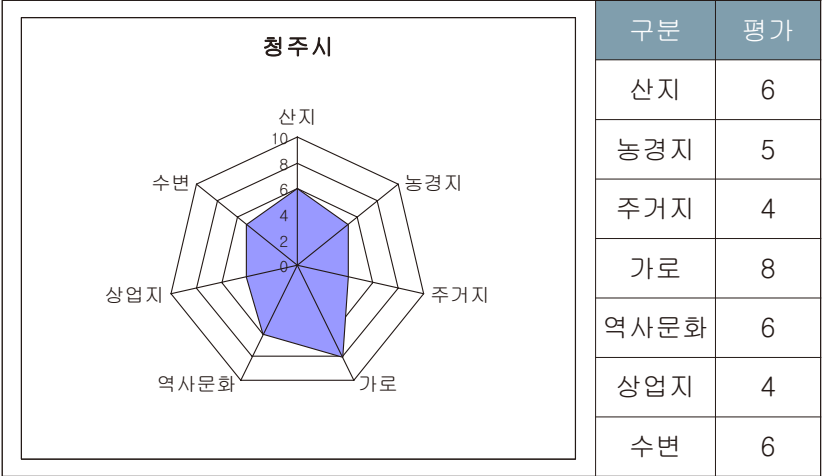
유형	사진	비고	
주거지 경관		가경동 일대	• 고밀판상형 중심의 경관요소변화부재의 주거 경관형성 • 주변 자연 경관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아파트 경관구조
상업지 경관		하북대	• 모텔과 유흥시설의 자극적인 네온사인과 형태 • 일정치 않은 스카이라인 • 옥외광고물 난립으로 인한 건축물 외관문제
가로 경관		청주 진입부	• 가경터미널주변의 청소년 유흥시설의 밀집과 과도한 경관요소 및 시각적 부조화 • 가로주변의 산재한 옥외광고물 • 진입로로써 청주의 이미지훼손
역사문화 경관		철당간	• 국보제 41호로 지정되었으나 경관자원으로써 문화재이미지 부재와 활용 및 관리의 미흡 • 주변상권과시각적 조화와 연결성의 부재

청주시 경관현황도



[그림 3-16] 청주시 경관현황도

<표 3-20> 청주시 경관평가표



- 청주시의 특징은, “범람하는 옥외 광고물”을 경관이 불량한 이유로 다수가 선택
- 이러한 특징은 청주시가 타 지역에 비해 가장 도시화된 지역으로서, 많은 상업지와 인공경관요소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자연경관을 대표하는 산지경관에 대한 만족도가 타 지역에 비해 낮게 나타나는 것은 또 다른 도시화의 반증
- 설문 결과, 같은 위계상의 충주시와 제천시와 청주에 비해 산지경관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하위 위계의 농촌지역(군 단위)과 비슷한 만족도를 보임

청원

■ 청원군의 경관 일반론

- 기후는 대륙성 기후로 평균기온 13.6℃, 1월 평균기온 -1.3℃, 8월 평균기온 25.6℃, 강수량은 평균 1,640.6mm
- 청원군은 동쪽은 괴산군과 보은군, 서쪽은 충청남도 연기군, 남쪽은 대전광역시, 북쪽은 천안시·진천군·괴산군과 인접
- 청원군 지형은 동고서저형(東高西低形)으로 동쪽은 산악지대이며 서쪽은 평야와 파랑상(波浪狀)의 잔구성 산지가 산재한 저지대를 형성
- 동쪽 산악지대를 구성하고 있는 노령산맥은 차령산맥의 오갑산(梧甲山)에서 분기하여 정남으로 뻗어내려 백마령(白馬嶺)·보광산(普光山)·칠보산(七寶山)을 지나 군의 북동부 미원면의 좌구산(座龜山:657m)에서 미동산(米東山:558m)·국사봉(國師峰:587m)·피반령(皮盤嶺)·샘봉산(462m)을 지나 옥천군의 환산(環山:581m)·대성산(大聖山:705m)으로 연결
- 교통은 청주시를 둘러싸고 있어 청주시를 중심으로 국도가 청주-조치원, 청주-충주, 청주-신탄진, 청주-보은 간을 잇고, 지방도는 청주-진천, 가덕-미원, 강내-옥산-증평, 청주-옥산, 남일-신탄진 간을 달리고 있어 교통이 매우 편리
-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가 지나고 있는데 2개 노선의 길이가 46.58km에 이르며 경부선과 충북선 철도가 있으며 경부선은 부강면 부강리-현도면 양지리 사이의 12.2km, 충북선은 강외면 정중리-북이면 옥수리 사이의 3.3km

■ 청원군의 상징



- 그린청원21을 상징하는 녹색산과 맑은 대청호에 비친 산그림자를 통해 깨끗한 청정이미지를 강조하였으며, 산과 산사이에 보이는 흰 물방울은 초정광천수가 근원이 되는 천혜의 맑은 물을 표현. 형상화 함으로써 농업과 IT, BT산업의 결합을 통해 무한하게 발전해가는 청원의 희망찬 미래 비전을 내포
- 전체적인 이미지는 녹색과 청색, 흰색의 조화를 통해 청정함과 깨끗한 이미지를 주고 있으며 역동적인 모습은 선진적, 미래지향적인 발전 잠재력과 끊임없이 가치를 창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21C 청원의 밝은 미래를 상징

■ 청원군의 캐릭터





- 맑고 깨끗한 물방울과 푸른 나뭇잎을 모티브로 청원군의 청정한 자연을 수호하는 귀여운 요정으로 형상화 하였으며, 또한 발빠르게 움직이는 요정은 교통의 핵심으로서 빠른이동이 가능함을 표현

청원

설문에 의한 청원군의 대표적 경관

유형	사진	비고	
주거지 경관		오창 신주거 개발지역	• 현대적 도시계획 및 경관이론과 녹지율을 바탕으로 쾌적한 정주환경을 형성하면서 도로변과 주거지의 완충지역을 만들고 아파트의 맥락적인 라인을 형성
수변 경관		대청댐	• 충북의 최대담수경관을 형성하며, 지역 및 수도권 식수원으로 활용되어 주변개발이 억제되고 이로 인한 자연경관성 및 주변 이동경관이 매우 우수하며 지역거점경관 역할을 담당
농경지 경관		오송	• 절대농경지로 취락과 분명한 경계와 미호천의 경계로 산과 농경지의 어우러진 조화를 이루고 있고 신도시개발로 잠재적 경관을 보유
역사문화 경관		청남대	• 원래 정치적 배경으로 주변지역을 가장 조망하기 용이하게 조성되어 대표적 조망점으로 사용 • 주변자연경관과 어울어지는 시설물 경관과 관리의 우수성

설문에 의한 청원군의 문제점 경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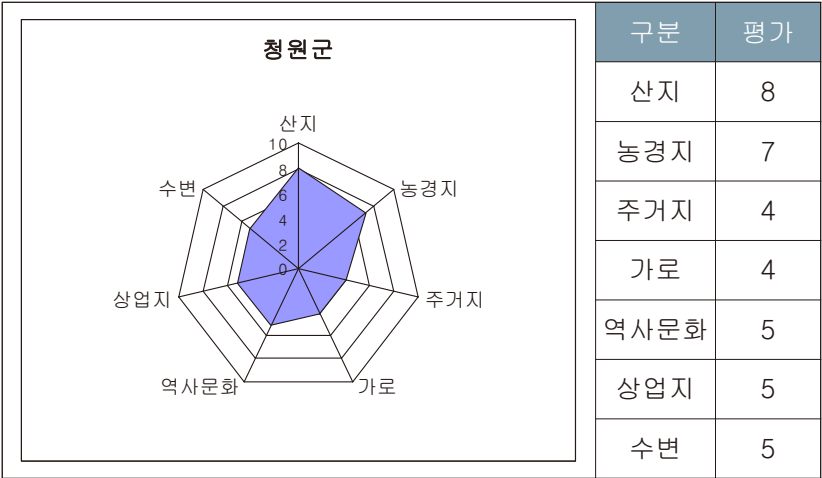
유형	사진	비고	
농경지 경관		17번 국도변	• 경부고속도로변 인지성확보를 위한 선형의 시설물과 홍보를 위한 선전시설물의 시각적 혼란 야기 • 준농림 지역에서 난개발로 인한 경관파괴현상
가로경관		현도	• ‘Y’ 자형의 상징적 공간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육교에 의한 차단과 결절부분의 상징성 부재 • 가로주변의 산업시설에 대한 차폐경관의 부재로 혼란스러운 모습 양산

청원군 경관현황도



[그림 3-17] 청원군 경관현황도

<표 3-21> 청원군 경관평가표



- 청원군은 음성군과 함께 경관의 차별성에 대한 인식이 낮은 지역
-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는 것은, 청원군이 타 시/군 지역에 비해 충청북도 수위도시인 청주경관과 비교되는 이유때문
- 경관의 차별성에 대해 여러 가지 경관유형의 특징과 개성을 지닌 경관이 부재하다는 주민들의 인식을 반영

괴산군

■ 괴산군의 경관 일반론

- 동쪽으로 소백산맥을 경계로 경상북도 문경시·상주시에 접하고, 북쪽으로 음성군·충주시, 서쪽으로 진천군·청원군, 남쪽으로 보은군에 접하며 행정구역은 1읍 10면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군청 소재지는 괴산을 서부리 125번지
- 군의 남동부를 소백산맥이 북동에서 남서로 달려서 남동부는 높고 험준하며 북서부는 낮으며 남동부는 소백산맥의 산릉인 덕가산(850m)·칠보산(778m)·보개산(780m)·군자산(948m)·낙영산(681m)·조봉산(680m) 등이 연봉을 이루고 남동부의 중앙에 박달산(825m)을 중심으로 한 제2의 산지가 형성되어 산악이 중첩하고 평탄부가 협소하며 북서부는 대부분 500m 이하 구릉성 산지가 산재하고 하천을 따라 좁은 곡저평야가 발달하며, 산지 산록에는 완사면이 발달하여 밭으로 이용되는 곳이 많음
- 하천은 소백산지에서 발원하는 달천이 연풍천·동진천 등의 지류를 합류하여 중앙을 관류하면서 유역에 좁은 곡저평야를 발달시키고 남한강에 합류하고 보광산·백마산 등에서 발원하는 지류를 합류한 보강천은 남서류하여 증평 부근에 군내에서 가장 넓은 평야를 발달시키고 금강에 합류하며, 전반적으로 소백산지에 속하여 산지가 많고 평지가 협소
- 내륙에 위치하여 대륙성기후의 성격이 강하며, 연평균기온 9.04℃, 1월 평균기온 -5.7℃, 8월 평균기온 22.8℃로 연교차가 크며 연평균강수량은 1,155mm로 여름에는 집중호우 빈도가 높으며, 겨울에는 장기간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북서계절풍의 바람받이에 위치하여 강설량이 많음
- 교통은 괴산읍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국도가 통과하고 서쪽으로 수안보~단양 간 국도가 이어져 청주시·충주시·문경시·장호원읍·보은군 등으로 통할 수 있으며 서부지역의 증평역과 도안역을 통과하는 충북선은 조치원읍과 제천시를 연결

■ 괴산군의 상징



- 괴산의 "山"자의 형태를 기본으로 하여 아름다운 산이 있고 맑고 깨끗한 물과 공손히 인사하는 사람의 모습을 의인화 하였고 붉은 원은 태양으로 밝아오는 괴산을 상징
- 녹색은 자연환경을 파란색은 청정과 청결을 물파장 형태는 괴산이 중심이 되어 세계로 발전하는 괴산군을 상징





■ 괴산군의 캐릭터




- 임꺽정 캐릭터는 괴산군청과 군민, 외래인 사이를 친밀감 있게 연결해주는 촉매제 역할
- 따라서 캐릭터는 괴산군의 상징이며 부정과 부패에 맞서 항상 민중의 편에 섰던 친근감 있고 당당하며 강력한 이미지를 느낄 수 있도록 디자인
- 캐릭터를 통하여 전진하는 괴산, 새롭고 친절한 괴산의 이미지를 나타냄

괴산군

설문에 의한 괴산군의 대표적 경관

유형	사진	비고	
산지 경관		도명산	• 옥천지향사대(沃川地向斜帶)에 딸린 동고서저의 경동지괴(傾動地塊)로서 화강암과 편마암으로 구성된 소백산맥 줄기로 자연 경관성이 특히 우수
가로경관		괴산읍~ 대덕 사거리방면	• 자연경관과 투시시설물을 통한 경관투시성의 향상과 굽은 선형으로 인한 경관대상물의 연속성강화 • 보행, 자전거, 차량등 이동수단간 분리된 시설로 인한 독자적 경관성 확보
농경지 경관		사리면 사당리	• 전형적인 배산임수의 전통적인 추락구조를 형성하며 전형적 농경지경관으로 인식되며 요소간의 규모비례가 우수
역사문화 경관		충민사	• 충무공(忠武公) 김시민(金時敏:1554~1592)과 그의 숙부인 문숙공(文肅公) 김제갑(金悌甲:1525~1592)의 위패를 봉안하고 배향하는 사당으로 경사면 우수한 경관각과 경관관리

설문에 의한 괴산군의 문제점 경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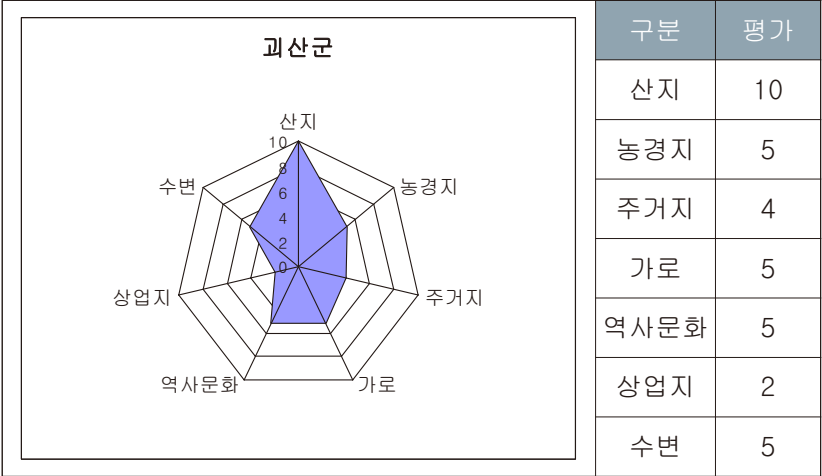
유형	사진	비고	
가로 경관		34번 국도	• 지역규모에 비해 넓은 가로로 부적절한 공간 스케일을 나타내고 있고 계획적 가치는 인정되나 경관적 배려가 부족 (가로시설물, 조경물 등)

괴산군 경관현황도



[그림 3-18] 괴산군 경관현황도

<표 3-22> 괴산군 경관평가표



- 괴산군은 인공경관요소들의 시각적 조화정도에 대한 설문에서, 음성군과 함께 도내에서 유일하게 낮은 인식을 나타낸 지역
- 주거지 경관에 대한 만족도에서도 도내에서 유일하게 나쁘다는 의견이 많은 지역
- 상업지 경관 역시 소수의 다른 지역과 함께 나쁘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보아 주거지와 상업지가 혼재되어 주민들의 만족도가 낮게 나온 것으로 해석

증평군

■ 증평군의 경관 일반론

- 충청북도의 한가운데에 있는 군으로, 동쪽은 괴산군 청안면(淸安面), 서쪽은 청원군 북이면(北二面)과 접하고, 북쪽은 진천군 초평면(草坪面), 음성군과 접함
- 북쪽에 해발고도 598m의 두타산(頭陀山)이 동서로 길게 솟아 있고, 사방에 해발고도 300m 이내의 산이 여럿 있으며 수리적으로는 동경 127°, 북위 36°에 해당하고 연평균 기온은 10.4℃, 평균강수량은 1,204mm
- 농공단지는 증평·도안에 2소가 위치하며 여기에는 총 8개 업체가 입주해 있고 재래시장으로는 증평장돌시장이 있으며 상설시장이면서도 1·6일에 맞춰 전통 5일장이 열림. 2개 보병 사단과 1개 여단이 주둔하고 있는 군사 요충지로, 34번국도와 36번국도, 충북선 철도가 지나며 또 중부고속도로 증평인터체인지와 청주국제공항이 인접해 교통도 편리
- 증평은 청주공항과 인접하고 중부고속도로, 충북선이 지나가므로 교통의 중심지라 할 수 있으며 인삼과 씨름으로 널리 알려져서 교육 문화체험의 중심지 부상하고 있는 고장이라 할 수 있고, 21C 우주산업 메카로 육성하려는 첨단산업의 거점지역
-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해 국토균형개발, 지방분권화에 따른 인구 유입 등 개발여건 증대 및 청주공항, 중부고속도로, 충북선 철도, 34번, 36번 국도, 고속철도 오송역 설치 예정 등의 교통자원은 증평지역이 내륙의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성숙되었으며 이와 같은 사통팔달의 교통여건과 더불어 오창과학산업단지, 오송생명과학산업단지와 인접해 있고 증평군 내에 충주대학교 증평캠퍼스가 자리하고 있으며 대전 대덕연구단지 및 대덕테크노밸리와 중부고속도로로 직접 연결되어 있어 과학산업단지 조성의 지리적 이점이 있으며 이러한 여건 또한 증평군이 과학 산업의 메카로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성숙

■ 증평군의 상징



- 영문 JP가 여러개의 글자로 구성되어 증평의 다양한 모습과 가능성을 역동적이고 부드러운 유기적인 모습으로 표현하여 증평군민의 다양한 꿈과 희망의 역동성과 또한 군민의 순수함을 같이 표현
- 또한 푸른 하늘을 연상시키는 증평블루와 증평하늘 블루를 사용하여 군민의 높은 이상과 친환경을 생각하는 긍정적인 모습을 상징화

■ 증평군의 캐릭터





- 도심속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맑은 밤 하늘의 푸른 별을 소재로 하여 증평군의 청정자연 이미지를 부각시켰고, 오른손엔 인삼열매를 들어 증평군이 인삼의 도시임을 표현
- 증평군 캐릭터의 활용은 친근한 이미지로 군정홍보, 공공행정안내, 각종 군 주최 행사에 활용할 수 있으며, 나아가 증평군 기념품(캐릭터상품) 및 특산품 포장 디자인으로 적용

■ 설문에 의한 증평군의 대표적 경관

유형	사진	비고	
산지 경관		두타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산이름인 두타는 속세의 번뇌를 버리고 불도 수행을 닦는다는 뜻으로 생태경관의 지역거점은 물론 두타산성, 사원터, 오십정 등 다양한 역사경관이 산재
가로 경관		읍내 문화회관 앞	<ul style="list-style-type: none">읍내의 평지지형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광로에 증평의 특징적인 가로등 시설과 주변으로 자연 경관의 다양한 시각 확보
수변 경관		보강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증평읍의 성장관리한 경계역할을 담당해 왔으나 산업단지 등 선택지개발의 건설로 신규경관의 완충적 기능과 함께 압축 인 공경관사이에 수변경관을 형성

■ 설문에 의한 증평군의 문제점 경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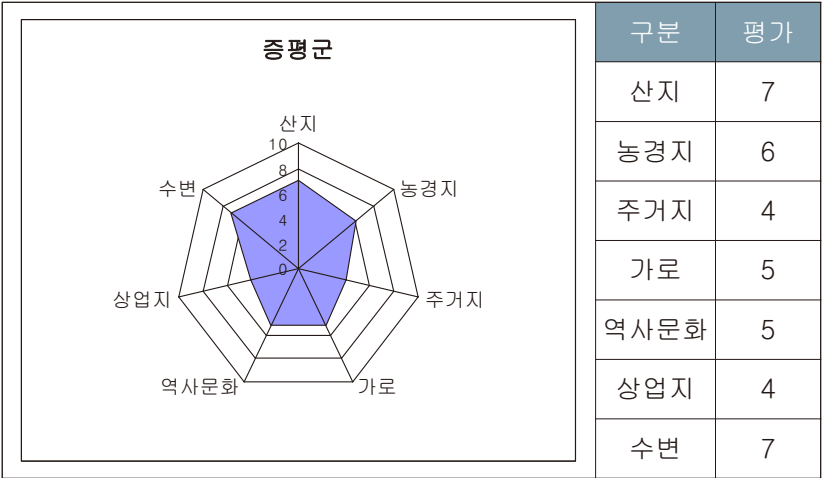
유형	사진	비고	
주거지 경관		증평 초중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택지개발지역에 급속하게 건설된 다세대 공동주택은 지역경관성이나 형태적 경관성 측면에서 특징이 없으며, 특히 주변의 구릉지에 입지한 주거지는 지형의 훼손으로 자연성과 부정적으로 대비
상업지 경관		증평 읍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일정한 가로내에 서로의 형태적 통일성 (datum 부재)이 없으며 무분별한 옥외광고물로 인해 건물형태가 잠식보행공간을 위한 시설물과 자연성의 부재로 전무한 녹시율

증평군 경관현황도



[그림 3-19] 증평군 경관현황도

<표 3-23> 증평군 경관평가표



- 청주시와 인접되어 다른 지역보다 정리된 상업가로를 형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설문에서는 낮게 조사
- 증평군은 타/시군과의 경관 차별성 정도에서 가장 낮은 인식을 보이는 지역
- 다fms 지역과 비교하여 분명한 특성을 가진 경관은 없다고 설문 조사에서 분석되나 이는 반대로 뚜렷한 경관적 문제점과 경관유형간 격차가 적게 분석

3) 남부권 : 보은, 옥천, 영동

■ 남부지역 일반적 특성

인구	145,788명 (충북의 9.7%)
면적	1966.6㎢ (충북의 26.5%)
행정구역	보은, 옥천, 영동 (3군)
주요경관	속리산, 삼년산성, 삼가저수지, 장계유원지, 금강유원지
포인트	서화천, 양산팔경, 물한계곡, 심천수영장

■ 경관적 현황

- 북부권과 마찬가지로 자연형 경관 자원으로서 강, 호수, 산등 자연형 경관 자원이 강세를 보이거나 속리산국립공원을 제외하고는 보존가치형 경관으로서만 존재하고 있으며 인공경관을 국지적으로 형성

■ 경관적 특이성

- 군급도시로만 형성되어있어 농촌중심의 지역생산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읍급도시를 제외하면 산재된 취락형태로 정주환경이 구성되어 있고, 이는 계획적이기보다 자연발생적 취락경관구조형태로 구성
- 주요 녹지축, 수변축이 남북방향 중심으로 위치하면서 중간을 가로지르는 보조 녹지축, 수변축으로 인해 자연경관으로 위요된 분지형태로 형성



[그림 3-20] 남부권 경관 현황도

■ 남부권 일반인 설문조사 주요 내용

일반인 설문조사 (남부권)			
설문항목 행정구역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1.거주하는 시/군 지역의 경관이미지와 만족도			
1) 전체적인 경관의 질이 우수하다	그렇다. 보통	보통	그렇다
2) 타 시군과 비교, 특징, 개성있는 경관 차별성정도	그렇다	보통	보통
3) 자연경관요소와 인공경관요소들간의 조화정도	보통	보통	보통
4) 인공경관요소들의 시각적 조화정도	보통	보통	보통
2. 거주하는 시/군 지역의 경관에 대한 생각	보통	보통	보통
1) 경관이 우수한 경우 (우선순위1)	자연경관의 보존과 관리	자연경관의 보존과 관리	자연경관의 보존과 관리
경관이 우수한 경우 (우선순위2)	잘 조화된 스카이라인	자연경관과 인공경관의 조화	잘 조화된 스카이라인 / 자연경관과 인공경관의 조화
경관이 우수한 경우 (우선순위3)	상징경관의 정비 및 관리의 체계성	잘 정비된 옥외광고물	경관에 대한 시민인식의 증진과 적극적 참여
2) 경관이 불량한 경우 (우선순위1)	건축물의 노후와 무질서한 외관	자연경관의 훼손과 관리소홀/자연경관과 인공경관의 조화부재	자연경관과 인공경관의 조화 부재/지역내 상징적 경관대상의 부재
경관이 불량한 경우 (우선순위2)	스카이라인의 부재	자연경관의 훼손과 관리소홀 / 비효율적 관리제도와 법체계	비효율적 관리제도와 법체계
경관이 불량한 경우 (우선순위3)	자연경관과 인공경관의 조화부재	범람하는 옥외광고물	경관에 대한 시민인식과 참여부족
3. 거주하는 지역의 경관의 종류별 생각과 이미지			
1)산지경관	매우 좋다	좋다	좋다
2)농경지경관	보통	보통	좋다
3)주거지경관	보통	보통	보통
4)가로(도로)경관	보통	보통	보통
5)역사문화경관	좋다	보통	보통
6)상업지경관	매우 나쁘다	매우 나쁘다	보통
7)수변경관	보통	좋다	보통
4. 거주하는 시/군 지역의 대표적 경관유형	산지경관	수변경관	산지경관
5. 거주하는 시/군 지역의 문제가 되는 경관유형	상업지경관	상업지경관	상업지경관
6. 시/군 지역의 경관의 중요성 정도	중요	중요	중요
7. 시/군 지역의 경관의 규제정도	강하게 규제	보통	강하게 규제
8. 시/군 경관의 규제 및 관리계획시, 참여정도	적극적 참여	적극적 참여	적극적 참여
9. 시/군 지역경관 향상을 위한 선행사항			
지역경관 향상을 위한 선행사항(우선순위1)	시민의식의 향상과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	경관법 및 제도의 확립과 엄격한 관리집행	시민의식의 향상과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
지역경관 향상을 위한 선행사항(우선순위1)	시민의식의 향상과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	시민의식의 향상과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	시민의식의 향상과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
지역경관 향상을 위한 선행사항(우선순위1)	경관개선사업의 확대와 사업비 확충	경관법 및 제도의 확립과 엄격한 관리집행	현실적 경관계획의 수립과 조례 제정 / 경관행정전문가의 확충

■ 남부권 공무원 및 전문가 설문조사 주요 내용

일반인 설문조사 (남부권)			
설문항목 행정구역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1.거주하는 시/군 지역의 경관이미지와 만족도			
1) 전체적인 경관의 질이 우수하다	그렇다	보통	보통
2) 타 시군과 비교, 특징, 개성있는 경관 차별성정도	그렇다	보통	보통
3) 자연경관요소와 인공경관요소들간의 조화정도	보통	보통	보통
4) 인공경관요소들의 시각적 조화정도	보통	보통	보통
2. 거주하는 시/군 지역의 경관에 대한 생각	우수	보통	보통
1) 경관이 우수한 경우 (우선순위1)	자연경관의 보존과 관리	자연경관의 보존과 관리	자연경관의 보존과 관리
경관이 우수한 경우 (우선순위2)	잘 조화된 스카이라인	자연경관과 인공경관의 조화	자연경관과 인공경관의 조화
경관이 우수한 경우 (우선순위3)	상징경관의 정비 및 관리의 체계성	상징경관의 정비 및 관리의 체계성	경관에 대한 시민인식의 증진과 참여
2) 경관이 불량한 경우 (우선순위1)	자연경관과 인공경관의 조화부재	스카이라인의 부재	자연경관의 훼손과 관리소홀 / 자연경관과 인공경관의 조화부재
경관이 불량한 경우 (우선순위2)	지역내 상징적 경관대상의 부재	스카이라인의 부재 / 확실적인 아파트 경관 / 건축물의 노후와 무질서한 외관	경관전문가와 관리자의 부족
경관이 불량한 경우 (우선순위3)	경관전문가와 관리자의 부족	비효율적 관리제도와 법체계 / 경관전문가와 관리자의 부족	경관에 대한 시민인식과 참여부족
3. 거주하는 지역의 경관의 종류별 생각과 이미지			
1)산지경관	매우 좋다	좋다	매우 좋다
2)농경지경관	좋다	보통	보통
3)주거지경관	보통	보통	보통
4)가로(도로)경관	좋다	보통	보통
5)역사문화경관	좋다	보통	보통
6)상업지경관	나쁘다	보통	보통
7)수변경관	좋다	좋다	좋다
4. 거주하는 시/군 지역의 대표적 경관유형	산지경관	수변경관	산지경관
5. 거주하는 시/군 지역의 문제가 되는 경관유형	주거지경관	상업지경관	주거지경관
6. 시/군 지역의 경관의 중요성 정도	중요하다	중요하다	중요하다
7. 시/군 지역의 경관의 규제정도	강하게 규제	보통	강하게 규제
8. 시/군 경관의 규제 및 관리계획시, 참여정도	적극적 참여	적극적 참여	적극적 참여
9. 시/군 지역경관 향상을 위한 선행사항			
지역경관 향상을 위한 선행사항(우선순위1)	경관개선사업의 확대와 사업비 확충	경관에 대한 시민의식향상과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	경관에 대한 시민의식향상과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
지역경관 향상을 위한 선행사항(우선순위1)	경관에 대한 시민의식향상과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	경관에 대한 시민의식향상과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	경관에 대한 시민의식향상과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
지역경관 향상을 위한 선행사항(우선순위1)	경관행정전문가의 확충	경관개선사업의 확대와 사업비 확충	현실적 경관계획의 수립과 조례제정

보은군

■ 보은군의 경관 일반론

- 1읍 10면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군청 소재지는 보은군 보은읍 이평리 45번지
- 동쪽 경상북도와의 경계에는 소백산맥이 뻗어 있고, 서쪽 청원군과의 경계에는 노령산맥에 딸린 산지가 중첩한다. 소백산맥은 북단부에서 금단산(767m)·묘봉(874m)·속리산(1,058m)·형제봉(803m)·구병산(877m) 등을 일으키고 있으나 보은군·상주시 사이의 안부 시루봉고개(175m)를 지나면서부터 산세가 급격히 약화되어 천택산(683m)·팔음산(772m)으로 이어짐
- 속리산은 주봉인 천황봉을 비롯한 비로봉·입석대·문장대·경업대·관음봉 등 연봉이 이루는 산악미·계곡미와 울창한 자연림의 임상(林相) 및 명찰 법주사 등을 포함하는 넓은 범위의 산역(山域)이 국립공원으로 지정
- 비록 고도는 낮지만 교통 통행이 어려운 큰 산맥으로, 군의 북단부 내북면(內北面)에서 청원군 미원면(米院面)으로 흐르는 미원천의 지류 하곡을 따라 청주시로 통하는 도로가 지나감
- 북부지역에는 소백산맥의 천황봉에서 분기하여 서쪽으로 수철령(536m)·탁주봉(456m)·구봉산(506m)·구룡산(445m)을 지나 노령산맥의 피반령에 이어지는 산맥이 가로놓여 있는데, 그 산맥이 분수령을 이루어 북쪽 사면은 남한강의 지류인 달천 상류에 해당되고, 남쪽은 금강의 지류인 보청천 상류 유역을 형성
- 중앙부를 관류하는 보청천은 북쪽 군계에 있는 구룡산에서 발원하여 남쪽으로 흐르면서 보은분지와 삼승분지를 형성하고, 다시 동쪽으로 흘러 탄부(炭釜) 하곡평지를 형성한 뒤 북쪽으로부터 남류하는 삼가천을 합치면서 남쪽으로 물길을 바꾸어 옥천군으로 흐르며 중앙에 펼쳐지는 보은·삼승·탄부 평야는 땅이 비옥하고 수리와 교통이 편리한 곡창지대인 데 반해 북부 달천의 상류 속리천은 산간계곡을 곡류하고 있어 뚜렷한 평야를 이루지 못함

■ 보은군의 상징







- 은혜에 보답하고 감사할 줄 아는 『보본사은』의 고장 보은의 『보』와 『은』을 형상화하였고 밝은 세계와 희망을 품은 태양과 하늘(天)과 조화를 이뤄 어진 품성을 지닌 사람(人), 만물의 근원을 이루는 물(水)이 어우러져 무한한 우주로 힘차게 발전하는 기상을 형상화

■ 보은군의 캐릭터






- 새 천년의 출발을 함께 할 정이와 송이로서 보은군을 대표하는 정이품 송이로 의인화
- 캐릭터는 보은군의 각종 홍보활동과 사업내용 등의 메시지 전달을 강화하며, 보조적 역할로써 대민 행정과 봉사행정의 따뜻한 이미지를 심어 줌

■ 설문에 의한 보은군의 대표적 경관

유형	사진	비고	
산지 경관		속리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한국 팔경중에 하나이며 태백산맥에서 남서방향으로 뻗어나오는 소백산맥 줄기 가운데 위치하고 있으며, 생태적으로 안정되어있고 자연성이 뛰어난 생태자연경관으로 형성되어있고 대부분이 자연녹지여서 주민들에게 친숙한 이미지
가로 경관		진입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청원군 문의면 쪽으로 진입하는 국도는 대청댐을 연결하여 진입하게 되어 수변으로 가로경관을 형성하고, 미원에서 진입하는 길은 피발령 같은 산지를 거쳐 진입하여 산지형 가로경관을 형성
역사문화 경관		법주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충청북도 보은군 내속리면 사내리 속리산에 있는 사찰로 대표적 역사문화경관이면서 경관대상법상종의 대찰로 25교구 본사의 하나이며, 신라 진흥왕 14년(553)에 의신 화상이 창건
수변 경관		만수 계곡	<ul style="list-style-type: none">내속리면 만수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속리산 천황봉에서 발원한 4km²의 계곡주위의 우거진 숲과 깎아지른듯한 바위의 절경과 함께 생태경관을 형성하고 있으며 점, 선, 면의 통합 경관 이미지

■ 설문에 의한 보은군의 문제점 경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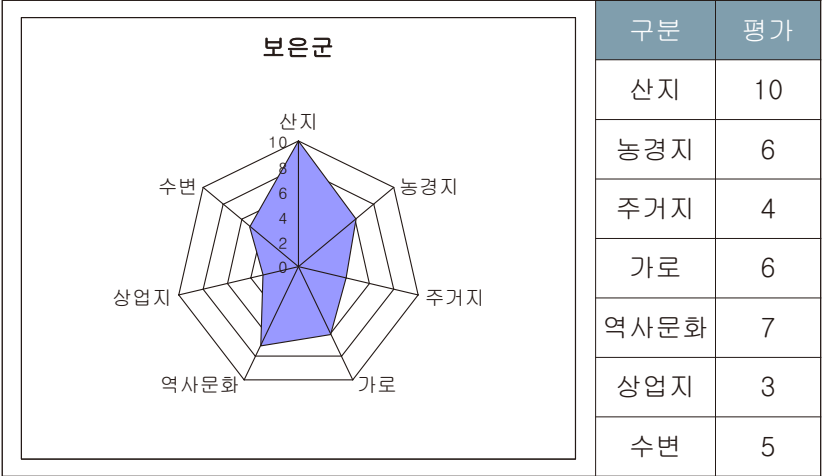
유형	사진	비고	
가로 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전형적인 농촌취락공간구조와 다른 주거형식으로 인한 시각적 부조화와 고층으로 인한 시각 차폐현상발생. 그리고 경관배경과 상이한 지붕선 발생
역사문화 경관		시인오장환 생가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점적 경관요소에 대한 시각적 개방성과 인지성의 부재문화시설에 대한 관리부재와 상세경관시설물의 낙후성
상업지 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부족한 보행공간으로 인해 보행경관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과도한 옥외광고물로 인한 건물의 외관인식이 불가능하며 가로시설물의 부재

보은군 경관현황도



[그림 3-21] 보은군 경관 현황도

<표 3-24> 보은군 경관평가표



- 보은군은 “속리산”과 같은 뛰어난 자연자원으로 인해, 단양군과 함께 산지경관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지역
- 상업지 경관에 대한 만족도는 도내에서 가장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낙후된 사업시설과 영세성에 이유를 찾을 수 있음
- 회남면에 위치한 대청댐과 하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변공간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조사

옥천군

■ 옥천군의 경관 일반론

- 옥천군은 총면적 537.10㎢중 임야 351.04㎢, 전 58.65㎢, 답 49.66㎢, 기타 77.75㎢로 되어있으며, 강으로는 전북 무주-영동간 덕유산과 보은 속리산을 기원으로 흐르는 금강상류가 남북으로 관통하고 교통은 경부선 철도와 고속도로 및 국도가 관내 군북면에서 옥천, 동이, 이원면을 통과하고 옥천~ 보은간, 옥천~금산간, 청성~영동간을 연결
- 옥천군 지형은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지형적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산이 많고 평지가 적은 산악지대임. 동쪽의 소백산맥에 있는 팔음산(762m)을 최고봉으로 하여, 남쪽으로는 천금산(464m)·천관산·도덕봉(440m)·월이산(551m), 북쪽으로는 삼승산(574m)·금적산(652m)·덕대산(593m)이 '八'자 모양을 이루며 군을 둘러싸고 있음
- 하천은 심한 곡류를 이루며 군의 중앙을 통과해 북서쪽으로 흐르는 금강을 중심으로 크고 작은 하천이 합류하며 그중 보은군 내북면에서 발원하여 남서쪽으로 흐르는 보청천은 군내 제일의 평야인 청산분지를 형성하고, 충청남도 금산군에서 흘러들어오는 옥천천은 북쪽으로 흘러 옥천분지를 형성한 뒤 군북면에서 금강과 합류함. 금강의 본류 유역에는 뚜렷한 평야가 없으며, 대부분 심한 협곡을 이룸
- 기후는 한국의 중남부 내륙에 위치하여 한랭건조하고 긴 겨울과 고온다습하고 긴 여름이 계속되는 대륙성 기후를 나타내어 연평균기온은 11.8℃, 1월 평균기온은 -3.8℃, 8월 평균기온은 26℃이며 기온의 연교차는 29.8℃로 한서의 차가 큼. 연평균강수량은 1,147mm로, 전국 평균보다 약간 많고, 6~8월의 강수량이 전체의 54%로 여름철 농사에는 충분하지만 이따금 집중폭우가 쏟아져 수해를 입기도 함
- 교통은 옥천역·이원역·지탄역을 통과하는 경부선과 경부고속도로가 옥천군의 남부지방을 지나고, 이와 나란히 지나는 4번 국도와 옥천읍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통하는 37번 국도가 대전·영동·보은·금산과 연결

■ 옥천군의 상징



- 옥천군의 이미지 활성화 사업의 중요한 요소로서 해, 산과 들, 맑은 물을 배치하여 "친환경적인 고장", "힘차게 전진하는 문화 군민상" 을 표현




■ 옥천군의 캐릭터





- 우리지역의 대표적인 농·특산물인 소재로 포도송이가 풍성하게 맺혀 있는 모습을 의인화하여 이름을 송글이라 하여 표현
- 여성권위의 신장과 동반자로서 함께하는 모습을 남·여 한 쌍으로 개발하였으며 여자 마스코트는 우리군의 특산품을 권하는 모습을 하였고, 머리에는 우리군의 꽃인 개나리를 꽃아 아름다움을 더했으며 이름은 송알이로 명명

옥천군

설문에 의한 옥천군의 대표적 경관

유형	사진	비고	
산지 경관		장용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용암사가 있는 북쪽 옥천 방향은 골짜기와 비탈이 많아 서쪽 금산리 방면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아 자연 그대로의 경관을 가지고 있으며 지역 생태경관의 중심
역사문화 경관		정지용 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모가 작은 점적 경관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적 재료를 사용한 건물의 특성과 함께 주변 취락과 조화를 이루고 관리가 우수
수변 경관		금강 유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수한 경관조망과 함께 수변이 가지는 수평적 요소와 어울리는 건물의 입지• 건축물이 가지는 넓은 전망대와 실내 조망권 확보 (아름다운 화장실로 선정)

설문에 의한 옥천군의 문제점 경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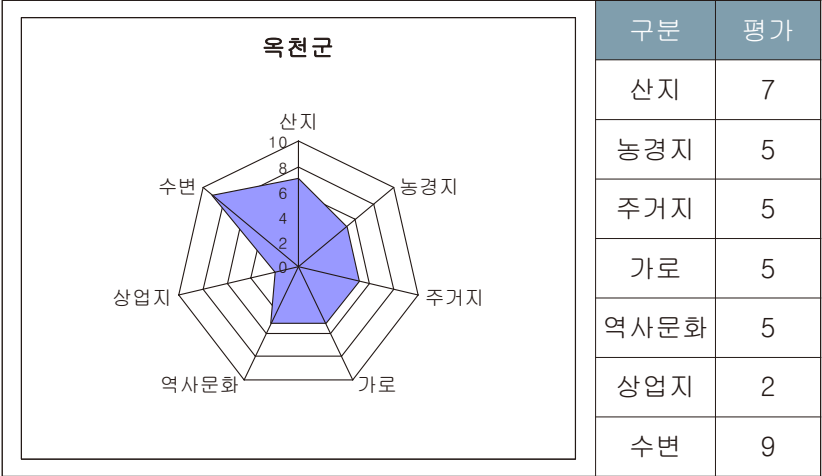
유형	사진	비고	
상업지 경관		옥천 삼양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도하고 현란한 색채의 옥외광고물로 인한 지역경관의 낙후된 이미지 제공과 함께 인접한 자연경관과 부조화
수변 경관		소옥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수공간의 기능적 활용으로 인한 자연경관 파괴와 사라지는 생태서식처로 인한 경관미와 경관건강성의 상실

옥천군 경관현황도



[그림 3-21] 옥천군 경관 현황도

<표 3-25> 옥천군 경관평가표



- 옥천군은 충주시와 함께, 수변경관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뛰어난 지역이며 가장 대표적인 경관유형 역시 “금강”과 “대청호”의 수변경관이 다수를 차지하는 지역
- 전반적인 경관에 대한 높은 만족도로 인해, 도내에서 유일하게 지역경관의 규제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지역
- 특이한 점은, 지역경관의 향상을 위한 선행사항을 묻는 항목에서 일반인은 “경관법 및 제도의 확립과 엄격한 법 집행(제도적 측면 강조)”을, 공무원은 “경관에 대한 시민의식의 향상과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주민참여 측면 강조)”을 선택하여, 다른 지역과는 반대의 양상

영동군

■ 영동군의 경관 일반론

- 남한의 중앙에 위치하고 영동군은 위도 상으로 동경 127 °04 ' , 북위 36 °01 ' ~ 36 °19 ' 이며 충청북도 최남단에 있으며 동쪽은 경상북도 김천시 · 상주시, 서쪽은 충청남도 금산군, 남쪽은 전라북도 무주군 등 주변 3도와 인접
- 대도시와의 거리를 보면 서울까지 193.8km, 청주까지 74.2km, 대전까지 41.5km, 대구 95.9km, 부산 234.2km, 광주 212.2km, 원주 284.1km
- 면적은 845.01㎢이며 전국 면적의 0.85%이며 충북 면적의 11.4%에 해당하며 임야가 658.29㎢로 77.8%를 차지하고 농경지가 119.2㎢로 14.1%, 기타가 68.70㎢로 8.1%임
- 영동군은 소백산맥과 노령산맥이 갈라지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 군 전체가 아름다운 산들로 둘러싸여 있으며 동쪽에는 놀의산(訥誼山 743m) · 황악산(黃岳山 1,111m)이 우뚝 솟아 있고 소백산맥에서 노령산맥이 갈라지는 지점인 서쪽에는 마니산(摩尼山 640m) · 천태산(天台山 715m) · 성주산(聖主山 624m) 등이 아름다운 능선을 자랑
- 남쪽으로는 천혜의 자연림으로 알려진 민주지산(民周之山 1,242m)과 석기봉(石寄峰 1,200m) · 각호산(角虎山 1,176m) · 삼도봉(三道峰 1,176m) · 천마령(天摩嶺 926m) · 막기황산(1,000m) 등 높은 산들이 모여 있으며 북쪽에는 백화산맥의 포성봉(捕城峰 933m)이 있고 예전부터 교통로로 이용되어 온 북동부의 추풍령(秋風嶺)과 괘방령(掛榜嶺)에 지금은 고속도로와 지방도가 지남
- 영동은 금강 상류지역으로 곳곳에서 발원한 지류들이 금강에 흘러들고 있는데 남쪽 석기봉(石寄峰 1,200m)에서 시작되어 동부와 북부를 돌아 금강에 합류하는 초강천과 서부의 호탄천 · 원당천 등이 있고 내륙에 위치하여 한서의 차가 심한 대륙성 기후의 특징을 보이지만 충청북도에서 가장 따뜻하고 일조량이 많아 '과일나라'라고 불릴 만큼 생산되는 과일이 많고 맛이 매우 좋음

■ 영동군의 상징



- 옥천군의 이미지 활성화 사업의 중요한 요소로서 해, 산과 들, 맑은 물을 배치하여 "친환경적인 고장", "힘차게 전진하는 문화 군민상" 을 표현

■ 영동군 지역특성

- 전통과 자연이 어우러진 예향의 고장
- 전국 제일의 고품질 농특산물 생산지
- 국토 중심의 개발 잠재력이 풍부한 고장

■ 설문에 의한 영동군의 대표적 경관

유형	사진	비고	
산지 경관		민주지산	• 높이 1242m로 북쪽으로는 국내 최대 원시림 계곡인 물한계곡과 각호산(1176m)이 이어지며, 남동쪽으로는 석기봉(1200m)과 삼도봉(1176m), 경상북도 쪽으로는 직지사가 이어지는 선적 대표 거점 산지경관
가로 경관		가로수길	• 가로수가 감나무로 심어져 있어 녹시율 제공 및 경관적 쾌적성 부여 • 과실수는 책임관리제등 유지관리체계만 수립된다면 Scenic Beauty 관점에서나 야생동물 서식처 제공측면에서 많은 장점을 보유
역사문화 경관		영국사	• 충남 영동군 양산면(陽山面) 천태산에 있는 사찰로 신라 제30대 문무왕 8년에 원각국사가 창건하였고 전통건축으로 경관적 가치와 함께 역사성을 지님
수변 경관		송호리	• 송호리는 이곳에 소나무와 금강이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산지경관, 수변경관, 농촌취락경관이 각각 특징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특히 복합자연적 경관으로 우수한 가치를 가짐

■ 설문에 의한 영동군의 문제점 경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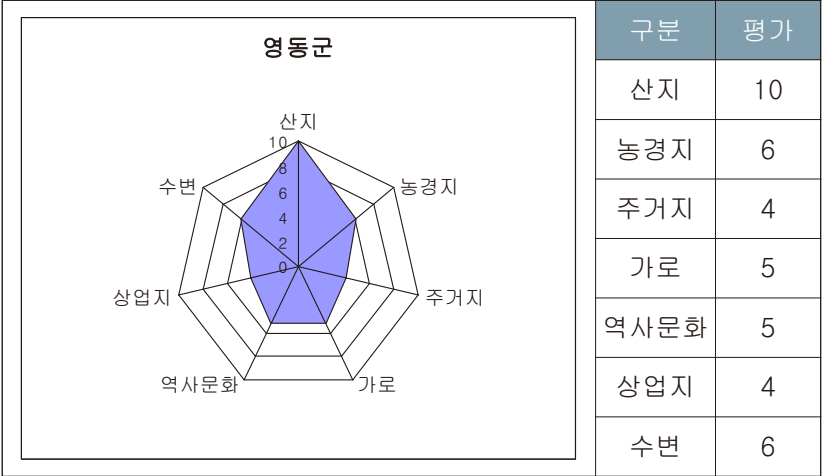
유형	사진		비고
가로 경관		영동역 방면	• 도로변에 입지하여 간판의 크기가 크고 원색 사용하여 눈에 자극적으로 띄도록 설치, 또한 도로변을 따라 수평적 선적으로 위치하여 주변의 곡선적 자연경관 훼손
주거지 경관		군청옆 아파트	• 6호 이상의 판상형 아파트 주거로 낮은 차폐율과 스카이라인의 단조로움 등 지방에서 경제성에만 초점을 맞춘 경관 미고려 주거단지 • 주변의 도시조직규모 (urban tissue mass) 와 부조화
상업지 경관		읍내 재래시장	• 녹시율의 부재와 과도한 옥외광고물, 그리고 불법 가로 시설물 등이 가로변을 점용하고 있어 보행의 장애요소로 작용

영동군 경관현황도



[그림 3-22] 영동군 경관 현황도

<표 3-26> 영동군 경관평가표



- 영동군은 군의 지역경관 이미지나 경관에 대해 보통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별 다른 경관적 특징이 나타나지 않은 지역
- 개발이 덜 된 지역인 만큼 지역내의 가장 좋은 이미지로는 우수한 자연경관의 보존과 관리의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이러한 요소로는 산지경관의 이미지를 매우 좋게 선택하였음
- 상업지, 역사문화, 가로, 주거지 등 산지경관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경관성이 낮게 평가

4. 충북경관의 四向性

긍정적 경관

- 청풍명월의 지역이미지에 걸맞은 우수한 자연경관(산지경관/수변경관 등)



보은 화양계곡



청원 대청호



제천 금수산

- 산으로 둘러싸인 도시형태, 배산임수, 자연스러운 경관형성, 도시의 배경(배경막)으로서의 역할



제천 주거지



청주 우암산



단양 주거지

- 급속한 개발이 없어 역사적 자생경관을 유지



옥천 정지용생가



청원 대청호 주변



도담삼봉

- 지역마다 대표적인 경관요소를 가지고 있음(일부지역 제외)



단양 도담삼봉



상당산성



만수계곡

- 야간경관이 집단적으로 형성되어 원경으로서의 가치를 가짐



충주시 전경

긍정적 경관

- 북부(충주호, 청풍호), 중부(청주가로수길), 남부(대청호) 주변의 Scenic Drive 등 각 지역의 대표성과 상징성을 가지는 선적 경관요소를 보유



대청호



가로수길



음성 가로

- 남한강과 금강수계로부터 파생되는 천변경관과 담수경관을 통한 우수한 시각적 경관 연속성



금강



청원 대청호



제천 의림지

- 지형특성상 높고 낮은 구릉의 상층부(조망점)에서 아래로 내려다보이는 자연스럽고 우수한 원경을 많이 가지고 있음



괴산 칠보산



괴산 구릉지



괴산 주흘산

- 백두대간의 생태경관과 한남금북정맥의 하이킹경관 등 자연복합경관의 형성과 괴산군의 32개 산을 중심으로 분기되는 산지경관지구의 형성



증평 두타산

부정적 경관

- 군집된 고층아파트군들이 주변 도시조직과 결(Grain)이 맞지 않음



충주 연수동



옥천군 주거지



옥천군 주거지

- 건축의 재질이 단순함, 획일적인 재료(콘트리트)사용으로 인한 질감/color등이 오히려 산만해지고 있음



제천 주거지



청주 주거지



옥천군 주거지

- 도시 내 가로식재의 부족과 도로위계 체계의 불분명성으로 인해 경관분절(영역성)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음. 영역성이 희미



단양 신단양가로



제천 용두대로



제천 중앙시장앞 가로

- 수많은 다양한 조망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망점에 대한 활용이 미흡함



음성 가섭산



진천 만뢰산



영동 천대산

부정적 경관

- 충북지역내 건물의 규모가 작고 높은 건물이 적음(수직적 요소의 부족)



단양 주거지



충주 연수동



단양 주거지

- 경관 detail의 열악성(가로/교통/상징물/광고물/street furniture)



증평군청 앞 가로



충주시 주거지경관



음성 가로

- 야간 경관계획 수립을 고려하지 않은 건축물(특히 고층, 대규모 건물의 상층부)



제천 의림대로



충주 중원빌라앞 가로



충주역

- 특징 없는 야간경관, 야간경관계획의 부재



충주시 전경

- 관광자원현황에 비해 관광지 주변 경관이 매우 열악함



상선암 상업지



고수동굴



고수동굴 상업지

잠재적 경관

- 구릉지형이 많아 자연스러운 Skyline 형성의 잠재적 가능성



증평 두타산

- 경관구도가 원근감을 가질 수 있는 경관의 중첩성/깊이감을 느낄수있는 구조



괴산의 산지



영동 민주지산



괴산의 산지

- 지형자체의 굴곡이 많아 다양한 조망점이 형성가능



증평의 구릉지



단양 도담삼봉 주변



옥천 취락지역

- 충북경관 전체로 볼때 단절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남. 시가화지역과 도시지역의 산재, 연속성 형성을 위한 경관계획이 필요



청주 강서지구



충주 연수동



청주 강서지구

- 시가화구역이 집중되어있어 야간경관도 집중적으로 형성되어 계획, 관리가 용이



충주 차없는거리의 야경



충주 차없는거리의 야경



충주 차없는거리의 야경

잠재적 경관

- 생태하천 복원, 생태통로 설치, 산지훼손지역의 골프장 건립등 다양하고도 활발한 경관복원운동이 진행 중



무심천 생태공원사업



단양 골프장



무심천 생태공원사업

- 내륙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생태경관을 가지고있음(야산, 강, 호수)



금강



제천 금수산



도담삼봉

- 양호한 경관형성과 관리가 이루어진 충주, 제천 등 중소도시규모의 경관모델제시



충주시 전경



충주시 전경



충주시 무심천

- 동측의 백두대간의 자연환경과 서측의 청주, 청원 등 도시환경과 대립적 구도를 통한 경관전이성의(Visual Landscape Transformation)구축 가능



청주 강서지구



괴산 취락



영동 민주지산

A

위험적 경관

- 상대적으로 산세와 자연지형이 좋은 반면 경관적으로 주요지점에 입지한 산업시설 및 나홀로 건물들로 인한 경관적 부조화 초래, 경관단절현상 야기



단양 고수동굴주변 구조물



단양 농산물 판매장



단양 고수대교

- 경관유형이 다양하지않고 특이성을 찾아보기 어려움



단양의 주거지



충주 연수동



증평역 앞 주거지

-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인한 개발압력의 증가로 자연경관의 지속적인 파괴



음성 채석장



청주 가경지구



청주 강서지구

- 불안정한 법적, 제도적, 계획적 지원체계의 미비 속에 급속한 경관형성지구의 발전



괴산군의 가로경관



청원 문의의 가로경관



단양군 고수동굴 입구 다리

위험적 경관

- 행복도시, 오송, 오창, 혁신도시 등 서측의 도시화로 인한 경관성 변화



신도시조감도

신도시조감도

신도시조감도

- 주민인식부재로 인한 주민참여형 경관형성과 자치경관관리의 한계



선거형태의 참여

회의형태의 참여

주민참여모임

- 많은 경관보전지역으로 인한 관리행정의 어려움과 개발민원에 대한 미흡한 대응체계



경관보전지역

제천 금수산

경관보전지역

PART IV 충북경관 구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1. 충북경관의 다섯가지 계획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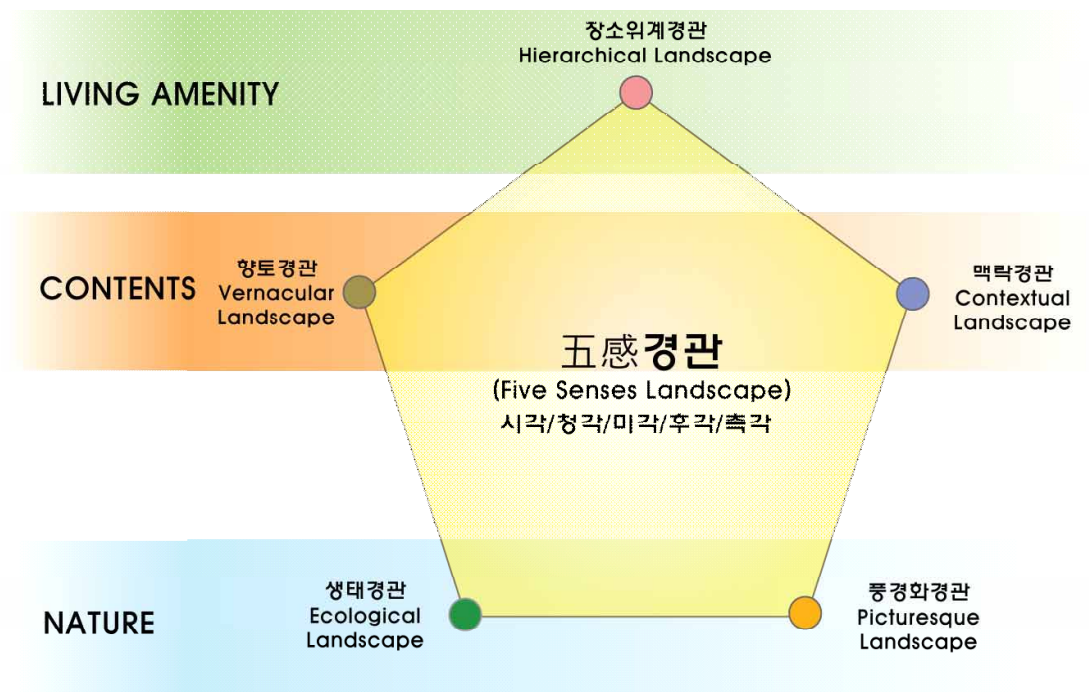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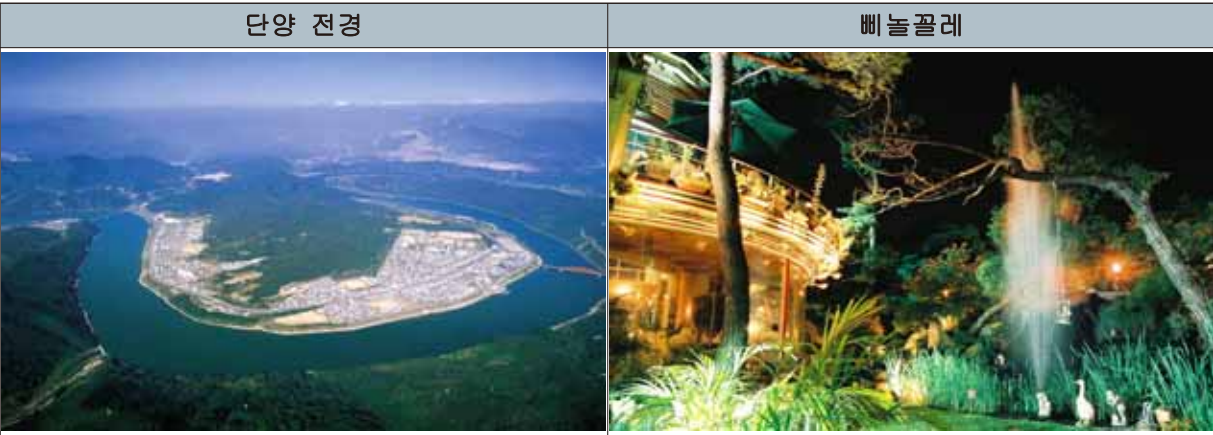


Image 1: 청풍명월의 통경화경관(Picturesque Landscape)

- 자연경관 : 산지와 하천이 어우러져 전형적인 동양화를 연상하게 하며 인공적 요소보다는 자연적 요소가 우세한 경관의 이미지
- 곡선경관 : 산세가 가지는 곡선적 이미지와 이로 인한 지형의 굴곡으로 부드러운 선형을 형성하는 경관이미지
- 호기심유발 경관 : 굽어치는 자연경관으로 인해 끊어질 듯 연결되는 경관은 막다른 지점에 이르러 다음 경관에 대해 호기심을 유발하는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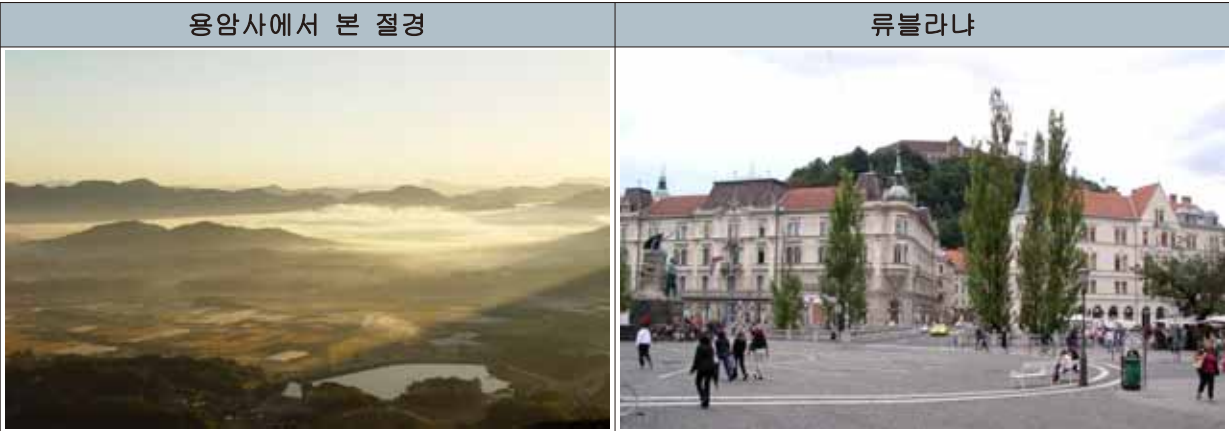
■ Image 2: 백두대간의 생태경관(Ecological Landscape)

- 생태거점경관 : 백두대간과 한남금북정맥이 만나는 지점으로 국토의 생태전이거점은 물론 지역적으로 생태중심의 이미지
- 침투형경관 : 생태거점(Ecological Anchor)을 중심으로 인공정주환경으로 스며들되 서로간의 연결성을 가지면서 구축되는 경관이미지
- 연담경관 : 충청북도 뿐 만 아니라 주변의 지방자치단체(경기도, 경북, 강원도, 충남 등)와 연결하면서 생태적으로 중심적 역할을 하는 경관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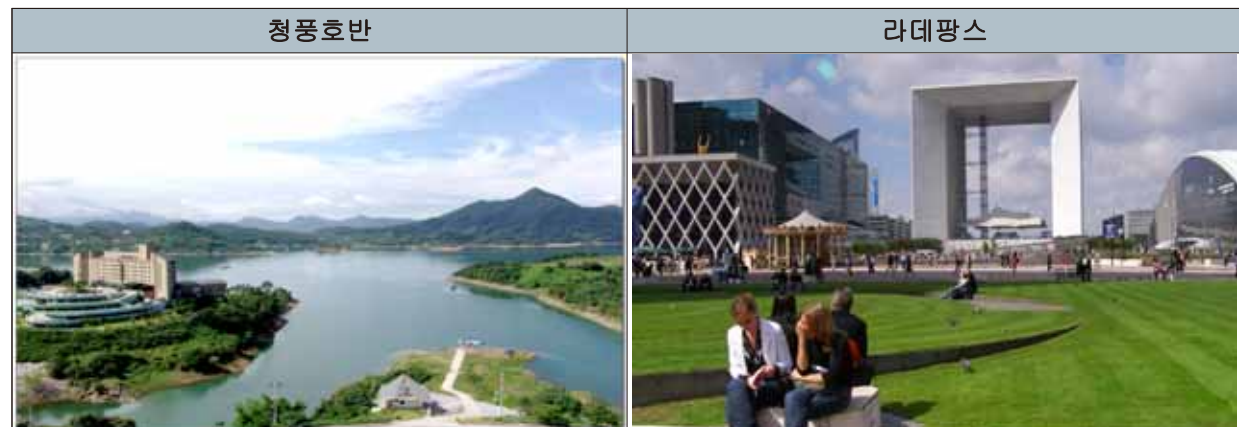
■ Image 3: 국토내륙의 향토경관(Vernacular Landscape)

- 자생경관 : 해안이 없는 내륙지형에 의해 자연재해가 없는 안전한 지역에서 인위적 계획에 의한 정주환경의 조성이나 관리보다는 자연과 순응하고 역사와 관습에 의해 형성되는 스스로의 경관이미지
- 지역경관 : 많은 산지와 구릉으로 인해 자연스러운 지역과 공간구분이 가능하여 이런 분절(Articulation)된 지역에서 주변과 융화되는 차별적인 공간 이미지
- 압축경관 : 자연경관의 보호와 생태성의 확보를 위한 집약적 공간활용을 통한 인공환경과 자연환경을 분할하고 인공환경에 최대한의 침투형 자연성을 추가하는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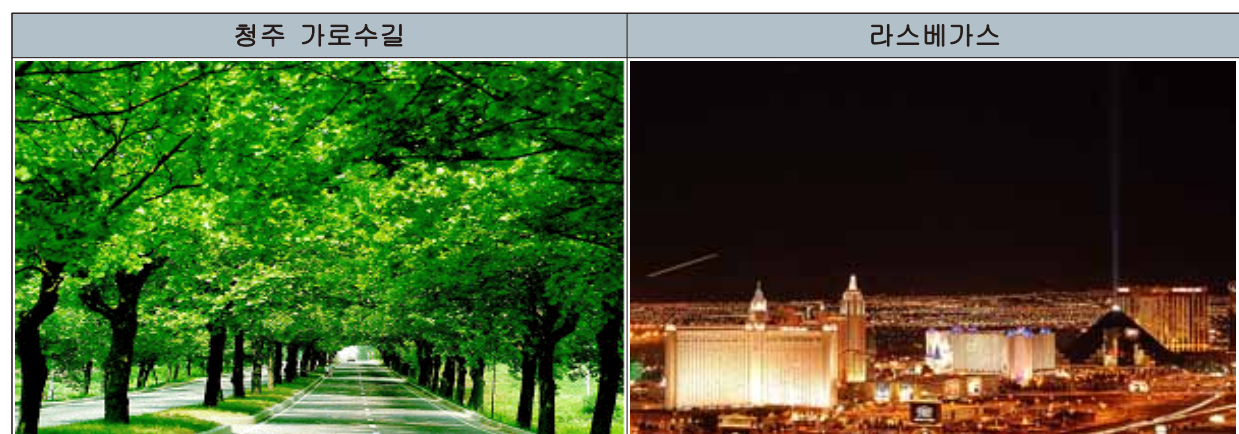
■ Image 4: 정주환경의 맥락경관(Contextual Landscape)

- 관리경관 : 기존시가화지역을 중심으로 난개발로 인해 야기된 지역에 대해 순차적인 경관계획과 순화사업을 통해 시각적 조화를 이루는 이미지
- 참여경관 : 경관이 삶의 쾌적성 부여는 물론 지역 마케팅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자발적 주민참여와 주도에 의해 배경경관(Ground Landscape)이 강한 이미지
- 경계경관 : 분명한 지역이나 도시영역을 통한 영역적 경관을 형성하고 지역과 지역사이의 완충지역을 통한 차별적인 경관이미지



■ Image 5: 장소형성의 위계경관(Hierarchical Landscape)

- 전이경관 : 일단의 지역안에서 기능적 시설이나 상징적 공간시설을 중심으로 정주환경이 주위로 확장하면서 건축물간의 스카이라인, 규모, 형태가 일정한 리듬이나 위계를 가지는 이미지
- 연결경관 : 지역이나 도시에서 기능과 기능사이에 자연스러운 연결을 위해 조화롭고 변형적 형태로 시각적 연속성을 가지는 이미지
- 상징경관 : 지역이나 도시의 이미지를 결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경관시설을 통한 상징성의 부각



2. 경관계획기조

Principle 1	자연과의 조화(Harmony with Nature)	<div><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수하고 다양한 충북자연경관자원을 최대한 보전하면서 이들 자원을 공간적, 형태적, 시각적 연결체계를 통해 친환경성과 지속가능성의 우선적 부각</div>	
Principle 2	정주환경의 쾌적성 증대(Amenity Within Living Environment)	<div><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주환경의 기능성과 편리성을 바탕으로 심미성과 편안함을 첨가하여 다양한 공간 및 시각적 즐거움이 풍부한 장소를 조성하여 시민의 정서함양 및 정체성 고취</div>	
Principle 3	지역특성의 확립(Establishment of Urban Significance)	<div><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의 위치, 토지이용, 도시의 규모, 경관유형에 따라 자연적 요소를 바탕으로 형태적 특징을 부여하여 지역 간 공간적, 시각적 차별성의 부여</div>	
Principle 4	경관관리의 효율성(Efficiency of Landscape Control)	<div><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마다 건축물 및 인공구조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함은 물론 이를 통해 거시적으로 지역의 경쟁력과 마케팅으로 이용</div>	
Principle 5	주민참여 경관조성(Creative Landscape with Citizen Participation)	<div><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자가 살고 있는 지역의 효율적 형성 및 관리를 위한 시민의식향상 방안을 마련하고 함께 만들어 가는 도시와 마을로서의 새로운 계획패러다임의 도입</div>	

3. 정책과제 및 실천전략

1) Policy 1: 경관구조의 구축

■ Strategy 1: 지역경관축의 형성

- 충북지역의 주요 경관요소의 흐름을 자연 경관축과 인공 경관축으로 구분, 경관적 특성을 파악하고 도차원은 물론 시·군 단위경관계획에서도 경관의 기본골격으로 활용
- 주요 경관축의 거점경관을 설정하여 경관의 중심적 역할을 부여함은 물론 이들 각각의 연결성을 극대화하고 다양한 경관적 경험이 가능토록 계획

■ Strategy 2: 경관권역(형성/보전/관리/재생/목적)의 형성

- 시·군 단위에서 경관계획 및 관리의 기본단위로 활용하기 위하여 경관권역을 구분하고 각각의 특성에 맞는 경관계획 수립 유도
- 지역의 경관 특성과 변화추이를 고려하여 형성, 보전, 관리권역으로 분리하고 여기에 재생권역과 지역의 전략 지역이나 시범 사업조성을 위한특수목적경관권역을 추가로 지정하여 특성에 맞는 맞춤형 경관관리 실시

■ Strategy 3: 콘텐츠를 통한 경관형성

- 자연경관, 인공경관의 각각의 특성을 유지할수있도록 독립경관 영역을 형성하고 각각 경관에 구체적인 내용이나 주제를 활용하여 의미가 있는 경관으로 유도.
- 경관내용과 함께 체험이 가능하도록 하며, 이를 위해 오감(Five Senses)은 물론 지역 경관 속성을 활용

■ Strategy 4: 새로운 야간경관의 형성

- 주간 경관과 차별성을 가지는 경관형성구조를 형성하며 점, 선, 면적으로 야간 경관을 형성
- 상징구조물이나 대표적 경관대상을 적어도 지역마다 1개소이상 선정하고, 지역이미지에 맞도록 야간 경관시설의 설치



[그림 4-1] 선유도 공원



[그림 4-2] 돌산대교

2) Policy 2: 경관체계의 구축

■ Strategy 1: 생태경관체계 구축

- 속리산, 월악산, 소백산을 연결하는 백두대간을 중심 생태 경관축으로 형성하고 한남금북정맥을 보조 생태 경관축으로 설정
- 지속가능성 및 성장관리체계의 일환으로 지역 생태의 건전성을 회복하고 이를 경관계획과 연계토록 구상하며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관리체계 구축

■ Strategy 2: 보행중심경관체계 구축

- 청주, 충주, 제천의 기존 보행전용 공간의 경우 확대를 모색하고 새로운 보행공간형성과 함께 공간적 연결을 물론 시각적으로 연계가 가능하도록 계획 모색
- 보행을 통한 이동성의 특성에 맞추어 경관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 및 건축물 배치, 그리고 역사문화 탐방로 등 테마나 주제가 있는 보행 중심경관체계 구축

■ Strategy 3: 역사문화경관체계 구축

- 충북에 산재한 역사문화경관자원에 대한 전체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하여, 주변 건축물 입지에 대한 경관규제 및 가이드라인 형성
- 역사문화경관자원의 적극 활용을 위하여 이들 간 연계성 극대화를 위해 경관도로를 중심으로 한 도로망과의 조직적 네트워크 망 구상

■ Strategy 4: 경관도로체계 구축

- 충북의 우수한 경관자원을 적극 활용하기위한 방안으로 경관도로(Scenic Drive)를 발굴, 정비하여 주요 연결도로와의 연계망 구축
- 권역별, 지역별로 경관도로와 문화, 관광자원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또한, 경관도로루트를 설정하며 선적인 경관요소에 시각적 특징을 부여



[그림 4-3] 네덜란드 노테르담



[그림 4-4] 한강르네상스프로

3) Policy 3: 경관관리제도의 구축

■ Strategy 1: 경관기본계획 등 관련계획의 수립

- 충북 야간 경관계획 수립과 함께 경관 관련 계획들과 법정 도시계획간 관계나 위계설정을 통해 체계를 수립하고 시군별 경관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실천성 강화
- 경관관련 계획들이 효율적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모든 계획들이 일관된 계획의 기조와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체계를 확립

■ Strategy 2: 효율적 경관관리행정체계 구축

- 효율적 경관계획의 수립과 집행 관리를 위하여 행정 전문 인력확충과 기구의 재편이 필요하고, 지속적인 경관 관리체계의 개선
- 행정당국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관(경관 센터, 도시 디자인 센터 등)을 추진하며 함께 경관을 만들어 가는 환경형성

■ Strategy 3: 조례 등 경관제도의 확립

- 지역의 경관적 정체성을 찾고 이를 유지, 관리하기위한 기본틀로서 지역별, 유형별(인공, 자연, 혼합경관 등) 경관 조례의 작성 및 적극적 활용
-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고 민간사업에 의한 경관, 공공사업에 의한 경관등 사업 주체에 따른 경관지침의 작성과 적극적 활용

■ Strategy 4: 경관심의체계의 구축

- 일정한 규모 이상이나 지역 중복/공동사업, 경관적 가치가 우수한 시설물 등에 대해 충청북도 경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시군 단위의 경관심의 위원회 설치 유도
- 경관이 가지는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특성 때문에 도시계획과 성장의 질적 관리의 지표로 인식하고 영속성을 가지기 위한 상설특별기구의 구성



[그림 4-5] 샹페테르부르그



[그림 4-6] 루브르

4) Policy 4: 경관운영체계 구축

■ Strategy 1: 경관시뮬레이션기구의 운영이나 시뮬레이션 작성기준 마련

- 경관계획 특성상 계획내용의 시각화작업이 필수적인 점을 감안하여 일정규모 이상이거나 경관적 특이성, 경관적 중요성이 있는 지역과 시설에 대해서 효율적이고 실제적인 계획 수립과 실행을 위해 경관시뮬레이션을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
- 경관을 보는 지점과 관점에 따라 다른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관심의나 계획에 필요한 시뮬레이션 작업 기준이나 지침을 작성

■ Strategy 2: 관련분야와 연계하나 충북 경관홍보관의 운영

- 경관자원을 문화자원화하고 이를 지역이미지 홍보에 적극 활용하기위해 도차원의 홍보관을 설치 운영하여 관광, 마케팅과 연계
- 지역별 경관홍보관을 설치, 운영하여 경관자원과 경관도로 등 지역이 보유한 경관문화를 지역홍보와 연계

■ Strategy 3: 추진주체별 경관시범지구사업의 조성

- 경관의 확산과 생활화를 위해 도 중심의 경관시범 사업지구, 지자체와 주민들간의 경관협정지구, 특수목적에 따른 경관 지구를 설정하여 차별적으로 추진
- 지역별로 경관시범가로를 선정하고 가이드라인에 맞는 계획을 수립, 실행토록 하여 타 공간계획 수립 시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관리

■ Strategy 4: 옥외광고물 시범지구의 지정 및 운영

-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기본계획의 수립과 이를 근거로 지역별 옥외광고물 관리계획 및 조례안등을 수립하고 옥외광고물 시범가로를 선정, 운영
- 옥외광고물의 유형별 사례집을 제작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 활용하여 지역옥외광고물의 전체적인 수준 제고



[그림 4-7] 현황경관



[그림 4-8] Simulation 후 경관

5) Policy 5: 경관참여기회 확대

■ Strategy 1: 경관협정지구지정 및 확대

-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시군별 주민자치협정지구를 지정하여 주민과 행정의 함께 경관을 만들어가기 위한 근거와 기본틀을 작성하고 도 차원의 협정지구도 지정 및 추진
- 경관 협정지구에 대한 행정지원 매뉴얼의 작성과 주민참여 경관사례집을 작성하며 실질적으로 주민이 경관을 이해하고 계획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

■ Strategy 2: 경관형성 주민협의체 구성

- 경관협정지구 이외에 지역에 대한 주민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경관계획 수립에 주민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경관형성 주민참여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유도
- 관학협동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주민의 경관개선 아이디어를 구체화 할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한 마을만들기 사업의 추진 및 주민발의 경관지구 사업의 시행

■ Strategy 3: 시민 경관모니터링제도 도입

- 경관형성주민협의체등 지역 주민의견의 적극적 반영장치를 마련하고 지속적인 참여유도를 위한 시민경관모니터링 제도를 도입
- 시민참여형 경관조성 아이디어 경연대회 와 현재 시행중인 충청북도 건축상등 관련 시상제도와 연계하여 새로운 경관상 시상을 통해 경관의식고취와 함께 일반시민의 관심유도 전략

■ Strategy 4: 주민교육의 실시

- 경관계획의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인 점을 감안하여 충청북도 경관이미지 및 계획 홍보물을 제작 및 배포
- 시·군별 경관기본계획 수립시 주민 홍보 및 설명회 과정을 일정 횟수이상으로 규정하고(시군의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 시행시 계획뿐만 아니라 경관의 일반성과 필요성에 대한 교육도 병행



[그림 4-9] 일본 이시카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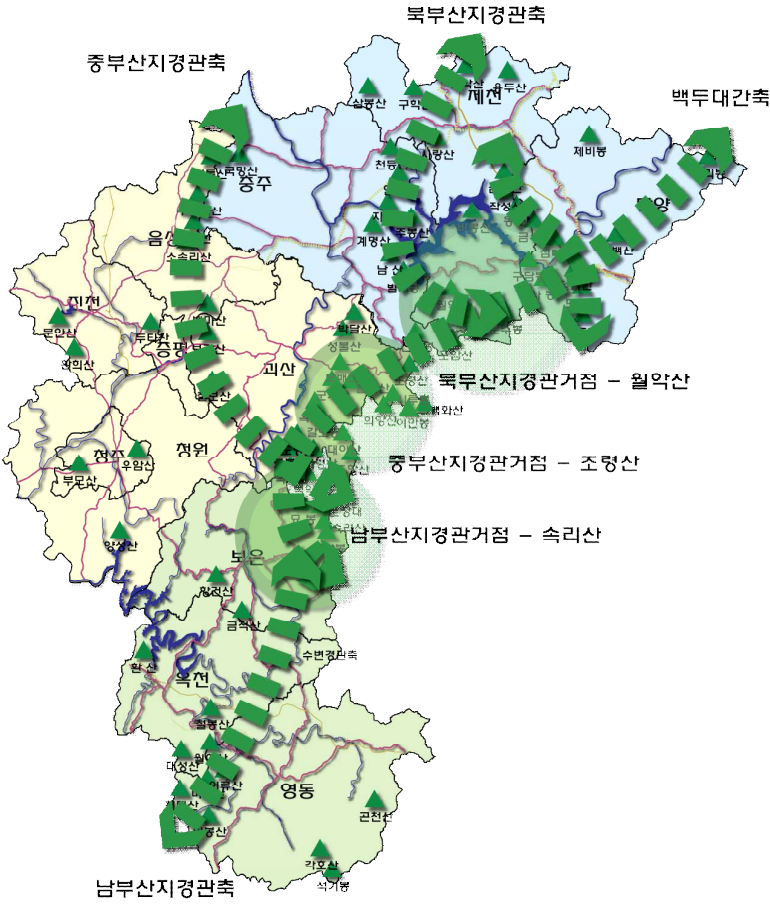


[그림 4-10] 일본 오키나와

4. 경관구조구상

1) 산지경관구상

- 충청북도의 산지경관은 산악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녹지경관축과 2개 이상 축의 결절점으로 형성되는 녹지경관거점지구, 그리고 시가지내의 공원녹지, 완충녹지, 경관녹지 등으로 구성
- 여러 산악들이 길게 이어져 연산을 이루는 산맥, 산줄기는 녹지축의 주요 골격을 형성하고 있어 산세의 흐름을 따라 광역 산지경관축이 결정
- 충청북도의 동쪽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소백산맥과 그 여맥들이 가장 큰 골격을 형성하고 있어 주로 동쪽에서 남북방향으로 수직녹지축이 형성되며 소백산맥의 여맥을 따라 권역별 녹지축이 형성
- 단양-제천-충주-괴산-보은을 이으며 충청북도의 동쪽을 남쪽으로 가로지르는 소백산맥 류가 가장 큰 녹지 경관축으로서 북부경관거점인 월악산국립공원과 중남부경관거점인 속리산국립공원을 모두 포함하여 담고 있음
- 각 경관거점의 경우 경관축이 2개 이상 겹치면서 녹지공간의 중심 역할을 담당



[그림 4-11] 산지경관구상도

2) 생태경관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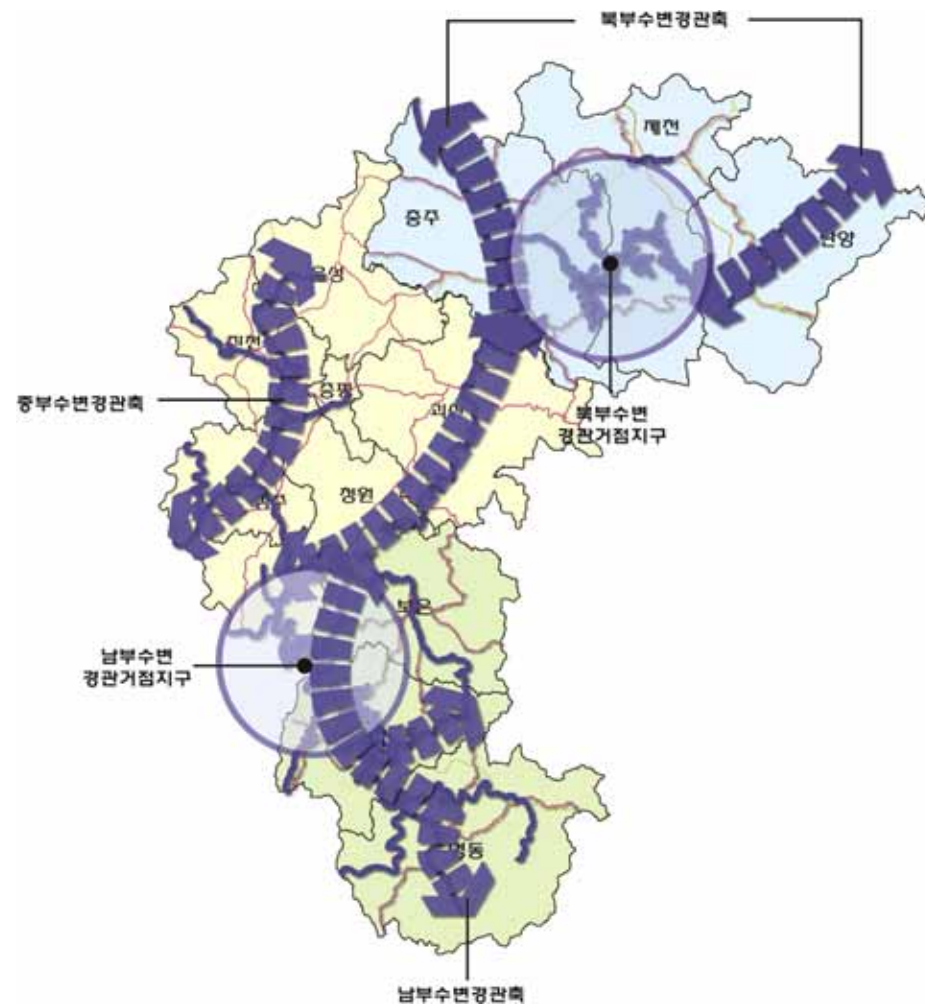
- 국토환경성영향평가도의 1, 2등급 지역을 하나의 단위점으로 표시 후 단위점들을 면단위로 이어 충청북도의 생태경관도를 작성
- 충청북도의 주요 생태축은 백두대간의 소백산-월악산-속리산 지역을 잇는 지점으로 넓게 나타나 중심생태 경관지역으로 설정
- 도내의 각 시군이 시가지가 있는 지역은 생태경관도 상에 하얀색으로 표시, 앞으로의 생태경관관리 및 복원지역으로 설정
- 거점생태경관확보와 지역경관특성강화를 위한 경관지구지정의 적극적 활용
- 충주호, 대청호가 있는 지역 역시 면적으로 넓게 나타나 생태경관의 주요 거점으로 계획



[그림 4-12] 생태경관구상도

3) 수변경관구상

- 하천은 남한강과 금강 2대 하천으로 구성되어 이를 중심으로 2개의 수변경관축을 형성
- 오대산 부근에서 발원한 남한강은 도내에 들어오면서 서남류하다가 단양부근에서 유로를 서쪽으로 바꾸고 도중의 제천 황강리를 지나 충주부근에서 달천과 합류하면서 북류하여 경기도를 지나 서해로 유입
- 강유역에는 단양 제천 한수 충주 연풍 괴산 음성 등의 침식분지가 발달되어 일정구역 이내 경관성 제고를 위한 권역 설정필요
- 전라북도의 장수군에서 시작된 금강은 북류하다가 심천부근에서 유로를 서북쪽으로 바꾸면서 심하게 곡류하여 모식적인 곡류천을 형성하기 때문에 경관 거점지구로 설정
- 충청도와 의 도계를 따라 올라가다가 부강부근에서 남서쪽으로 바꾸어 충남도로 흐르며 도중에서 영동천 보청천 미호천 등의 지류와 만나는데 그 유역에 황간 영동 심천 옥천 보은 청산등 산간분지를 형성하고 있으며 미호천의 하류에 청주분지인 미호평야를 형성, 충북 최대의 곡창지대를 이루어 복합 자연 경관을 형성



[그림 4-13] 수변경관구상도

4) 가로경관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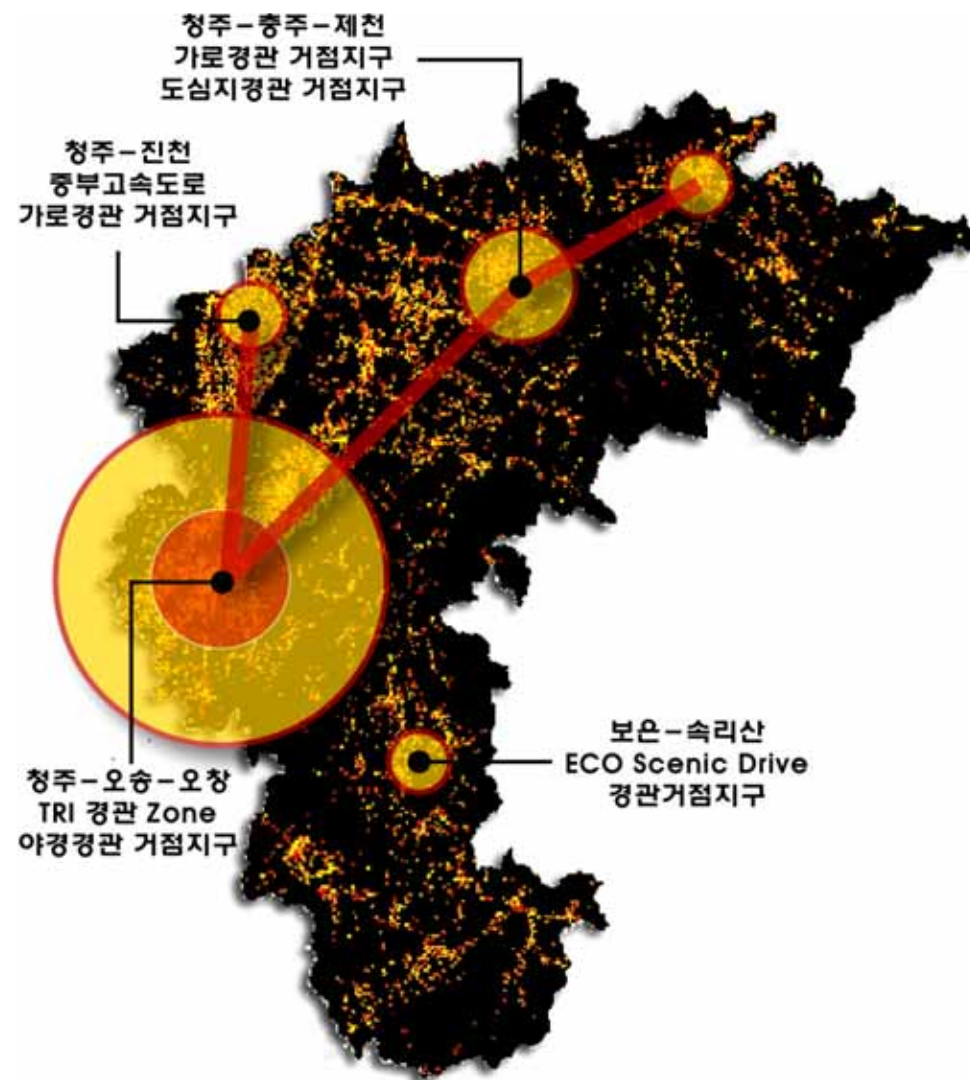
- 고속도로축 :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의 도 서측 통과로 인한 주변 충분한 완충 녹지와 경관 녹지의 설치를 통한 경관단절 형상을 최소화
- 지역간 도로축 : 청주-충주-제천을 연결하는 국도변을 중심으로 형성하며 고속화에 가까운 도로 가로 조경 및 시설 차별화 유도
- 생태 도로축 : 속리산-월악산-소백산을 연결하는 국도로 친환경적 가로의 조성과 절개지의 복원을 추진하고 조망을 위한 최소 조경계획
- 경관 가로축 : 대청댐, 충주호 주변 연결가로를 설정하고 차량이동 중심의 경관조망 체계를 구상하고 조망점 계획
- 상징 경관 가로축 : 충북의 대표적 이미지 중의 하나인 청주 가로수길을 확장하여 상징가로축으로 설정하고 오송까지 연결
- 이러한 충청북도의 가로경관축으로는 중부고속도로-가로경관축, 청주-충주, 보은-상주, 청주-진천, 충주-제천 가로경관축을 설정하여 지역경관 파괴 최소화, 도로를 지나가는 운전자 및 보행자가 바라보는 경관 고려, 양호한 경관을 지닌 도로 보전, 쾌적한 시각적 체험이 가능한 경관도로 발굴등을 설정



[그림 4-14] 가로경관구상도

5) 야간경관구상

- Tri-zone 야간 경관 거점 지구 : 청주중심부와 가로수길을 통해 오송과 연결하고 오창 주거 지역과 함께 조성, 또 3개 도시별 야간경관 주계 설정을 통한 상호 보완적 경관형성을 추구하여 Amenity Light zone으로 구상
- 남부 야간 경관 거점지구 : 규모가 작고 특징적인 야간경관 형성을 위해 보은군의 속리산 일대를 설정
- 북부야간경관 거점지구 : 충주, 제천 중심상업지역과 수변을 연결하는 가로지역을 중심으로 설정하여 야간경관 기반시설의 통일적 조성을 구상



[그림 4-15] 야간경관구상도

6) 종합경관구상

- 충청북도 경관계획을 위한 기본구상은 크게 산지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농경지경관지구, 산지경관축, 수변경관축, 도로경관축, 거점경관지구, Scenic Drive, TRI 경관 ZONE 등으로 표현
- 자연경관은 충청북도의 동쪽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축을 중심으로 구상
- 인공경관은 충청북도의 서쪽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축과 지구를 중심으로 구상
- 오창, 오송 등 새로이 개발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자연경관과 인공경관의 조화를 이루어 TRI 경관 ZONE 을 설정, 혼합경관을 중심으로 경관관리유도
- 북부의 충주, 중부 Tri-zone, 남부의 속리산을 충청북도의 거점 경관지구로 구상



[그림 4-16] 종합경관구상도

PART V 충북경관의 부문별 모습 어떻게 그릴 것인가?

1. 자연경관계획

■ 계획의 원칙

공간적 주요범위
자연 및 녹지지역과 경관보전지역

- 최소 계획(Minimum Plan): 자연적 경관성을 최대한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가능한 계획요소를 최소화하며 자연상태가 훼손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회복을 위한 계획을 수립
- 경관생태계획(Ecological Landscape): 생태적 가치가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보전하며 생태적 가치 정도에 따른 고유의 경관을 형성하도록 계획
- 면적 경관계획(Areal Approach): 우수자연의 해당부분만이 아닌 일부 주변까지 포함하여 포괄적이고 연결적 측면에서 면적으로 계획
- 인간과 최소한의 교류(Minimum Interface with Human): 가로 이동을 통해 자연경관을 시각적으로 경험하고 조망점을 중심으로 자연과 인간이 점적 공간에서 교류할 수 있도록 계획
- 전망/관찰공간계획(Observatory Orientation): 가로변 중심으로 전망, 관찰시설을 통해 경관대상이나 최단거리 트레일(Trail)을 통해 자연경관의 경험을 유도

■ 산지경관

	특성	주요 지역	모습	제어요소		계획Guideline
Spine (골격산지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청북도 산악지형을 바탕으로 자연산지경관의 골격축을 형성하면서 도내에서 가장 우량한 산지를 연결 권역별 거점산지경관을 형성함과 동시에 국토 중추산맥 역할을 하는 지역 충북 자연경관을 형성하는 배경의 역할과 함께 생태경관 특성 대부분이 국립공원으로 형성이 되어 녹지경관보전상태가 양호 보행위주의 조망경험과 함께 차량이동을 통한 연속경관경험으로 형성 	남부의 속리산과 중부의 월악산 그리고 북부의 소백산일부를 연결하는 백두대간의 충북지역의 국립공원중심의 산지 등		Skylin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북의 주산으로써 적극적인 보전을 원칙으로 하며 속리산, 월악산, 소백산으로 경관 연결체계를 강화 녹지를 하나의 유기체로 인식하여 약화되거나 단절된 곳을 발굴하여 정비 생태경관의 모델로 활용하고 이를 위한 서식지조성을 통한 경관루트형성과 지역별 경관도로의 건설과 연결 지역별, 권역별 조망시설을 형성하고 이들 간 차별적 공간을 유도 종단 Hiking Trail조성을 통한 이동조망의 극대화
				야간경관	○	
				V.C	●	
				V.P	●	
				V.S	●	
				색채	●	
				천공, 녹시율	●	
				차폐율	○	
				Guideline	●	
Branch (가지산지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골격산지에서 가지형태로 뻗어난 산지경관을 중심으로 지역과 지역의 완충역할과 함께 지역침투형의 특성 자체적인 경관축으로서 산지경관의 연속경관 형성 일부지역의 난개발에 의한 경관훼손 발생 권역 내의 랜드마크로서의 가치가 있는 산지경관을 형성하는 지역 구릉지 산지로서 지역의 배경이 되는 산지이며 대부분의 산지가 해당 	소백산맥의 가치를 형성하는 산지와 한남금북정맥상의 산지 등		Skylin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가화지역의 확장한계 경계부로 활용하며 이를 위해 도시성장관리제도(Urban Growth Management)에 의한 경관관리체계의 수립 산림-낮은 구릉지-시가지녹지의 자연스러운 녹지축을 형성, 녹지네트워크 구축 개발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작성을 통한 경관 관리 골격산지와 연결부 훼손을 최소화하여 생태적 건강성의 영역을 확장 지역별 조망시설의 유도
				야간경관	○	
				V.C	●	
				V.P	●	
				V.S	●	
				색채	○	
				천공, 녹시율	●	
				차폐율	●	
				Guideline	●	
Anchor (거점산지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지경관의 점적 요소로써 각 시군지역 생활권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산지 거시적 산지경관의 축과는 분리되어 지역의 Accent 가 되는 공간 각 지역의 경관거점을 형성 경관특성으로는 초점경관을 이루며 강조적 역할을 함 도시공원녹지로 지역내 인공적으로 조성된 공원과 녹지대를 포함 	백마산 구담봉 천태산 백악산 우암산 구녀산 도락산 등		Skylin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지역별 정주환경의 침투형 녹지(Finger Green)를 활용한 경관관리 도시경관의 배경으로서 주변경관의 중요한 녹색요소로서 자연산림, 도시내 잔존산림, 도시공원, 학교 등 공공공간과 주택, 사무소 등의 기존의 녹음, 가로수 등을 체계적으로 네트워크화 하여 시민이 공유하는 경관자원으로 관리 소규모의 조망시설 유도
				야간경관	●	
				V.C	●	
				V.P	●	
				V.S	●	
				색채	●	
				천공, 녹시율	●	
				차폐율	●	
				Guideline	●	
				경관지구	●	

V.C : Visual Corridor V.P : View Point V.S : Visual Sequence

●절대적 중요 ●매우 중요 ●중요 ○고려

■ 수변경관

	특성	주요위치	모습	제어요소		계획Guideline
Core (거점수변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변경관의 면적요소로서 해안 지역이 없는 충북지역에 내륙의 바다 역할을 담당 대부분의 담수호 형식으로 각기 여러 지역에 걸쳐있어 경관 형성 및 관리에 대한 공감대 형성 댐형성으로 이루어진 다목적 호수로 수변경관의 Scenic Drive로서 가치가 매우 높음 충주-단양 유람선 코스는 새로운 경관수변도로형성 	충주호 청풍호 대청호 괴산호 등		Skylin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변이나 호수 등 수공간과 근접한 지점은 수상생태계와 육상생태계가 교차하는 지점에서는 다양한 생태적 특이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호안선이 보전되도록 하고 공공이용이 보장 지역의 특성에 따라 호안선의 일정거리 내에서는 건축행위가 원천적으로 봉쇄하며 거리를 벗어나더라도 건축은 자연지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행정관리 및 유도 거점수변경관으로 인접한 지자체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수변경관계획과 관리를 수립하여 공동보전방안의 모색
				야간경관	●	
				V.C	●	
				V.P	●	
				V.S	●	
				색채	●	
				천공, 녹시율	●	
				차폐율	●	
				Guideline	●	
				경관지구	●	
Line (선형수변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변경관의 선적요소로서 공간영역의 분리와 함께 시각적 연결성을 부여 산지경관과 접합지역으로 장연경관의 복합적 형태로 형성 산줄기는 하천의 유역을 나누는 분수령이 될 뿐만 아니라 시각적으로 개방된 하천경관을 위요하여 산수절경을 형성 환경문제 등 가장 많은 수변경관의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는 중점경관관리지역 산지와 수변경관의 Drive 결정점의 역할 수행 	남한강 무심천 미호천 달천 금강 등		Skylin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지경관과 계곡경관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자연복합경관적 차원에서 계획과 관리가 필요하며 하안선을 보전하고 50m이내에는 건축물의 입지를 제한하며 이 거리를 떨어지더라도 자연경관의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형태로 건축 도시화지역의 수변지역은 경관지구로 지정하고 이를 통한 구체적인 경관관리지침을 마련 거점수변경관으로 인접한 지자체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수변경관계획과 관리를 수립
				야간경관	●	
				V.C	●	
				V.P	●	
				V.S	●	
				색채	●	
				천공, 녹시율	●	
				차폐율	●	
				Guideline	●	
				경관지구	●	
Spot (지점수변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변경관의 점적요소로서 생활권과 연계되어 생계형인공시설과 함께 경관을 형성 자연적 경관은 산능선 및 하천과 해안선을 따라 분포하는 호수, 폭포, 하구로 형성 주로 조망대상으로 대표적 미시적 경관요소로 초점경관의 구성요소이자 지역의 상징요소로 주변지역에 방향성을 제공하거나 장소성을 부여 단위경관시설물로서 많은 조망점을 형성 	백곡저수지 삼형제저수지 호암저수지 의림지 쌍곡계곡 화양동계곡 초평저수지 명암유원지 노티저수지 개심저수지 물한계곡 등		Skylin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좋은 전망과 수려한 수변경관의 조망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요 조망점에서 일정 간격, 일정 폭으로 시각회랑을 설정(지자체 경관조례)하여 건축물의 입지 및 높이제한구역을 설정하여 관리 지역의 랜드마크적 요소로서 산지경관, 도로경관등과의 연계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 생활형 시설의 입지를 억제하고 집단화를 통해 압축적 경관을 유도하며 환경오염규제 기준을 강화를 통한 관련부속시설의 설치를 의무화
				야간경관	●	
				V.C	●	
				V.P	●	
				V.S	●	
				색채	●	
				천공, 녹시율	●	
				차폐율	●	
				Guideline	●	
				경관지구	●	

V.C : Visual Corridor V.P : View Point V.S : Visual Sequence

●절대적 중요 ●매우 중요 ●중요 ○고려

■ 도로경관

	특성	주요위치	모습	제어요소		계획Guideline
Scenic Drive (경관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륙의 수변과 국립공원의 인접지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고 동적 경관경험의 특성을 보유(Moving Experience) 자연경관환경속의 지역 간 연결도로로서 자연환경을 경험할 수 있고 특히 지형과 녹지를 바탕으로 하는 다양한 조망점과 시각적 연속성을 보유 수변경관과 연계성이 있으며 Core수변경관도로의 경우 충북에서 청주 가로수길과 함께 상징적 경관도로의 역할담당 화려한 수변경관외의 각 수변경관 Core 에 관광문화자원이 많이 분포 	<p>충주호댐 접근로</p> <p>대청호(신탄진-낭성)</p> <p>도담삼봉</p> <p>탄금대순환로</p> <p>제천 - 청풍문화재단지 등</p>		Skylin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의 경관성을 유지하기위해 인공경관시설을 기본적으로 억제하며 불가피하게 위치할 경우 차폐나 최소한의 규모나 형태로 배치 주변의 경관을 가능한 잘 보일 수 있도록 선형을 설정하고 가로수로 인해 시야가 방해받지 않도록 계획 수변 통과시 경관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특히 하천선을 파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선형계획. 운전자에 대해서 항상 동일한 방향으로 수면이 보이게 되는 상태는 단조로움이 생기게 되어 수면을 효과적으로 보이는 방향을 의식하여 선형계획을 할 필요가 있음.
				야간경관	○	
				V.C	●	
				V.P	●	
				V.S	●	
				색채	●	
				천공, 녹시율	●	
				차폐율	●	
				Guideline	●	
				경관지구	●	
Eco Drive (생태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관성이 우수한 도로가 수변을 중심으로 형성된 반면 생태도로는 내륙 산지계곡을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하면서 연속적인 시각경험을 할 수 있는 도로 환경성검토의 1, 2등급지역으로 보전을 원칙으로 하며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 내의 도로경관 지형을 이용한 동적 경관을 형성하기 때문에 곡선과 분절적 영역성을 가지는 풍경화적인 경관구조 (Picturesque Landscape) 이용적 측면에서 수요공급위주형 접근보다는 생태자원관리접근형으로 관리가 필요 	<p>구병산/서원계곡25번 국도</p> <p>박달재</p> <p>산당산성/명암약수터</p> <p>속리산/월악산간 연결도로 등</p>		Skylin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지를 통과하는 도로의 선형 계획에서는 산지를 분단하는 직선적인 통과는 가능한 피하는 것이 바람직함 산지의 경관을 보다 인상적이고 깊이 있는 도로경관으로 형성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곡선을 삽입하여 산지의 깊이를 느껴지도록 선형을 계획하는 것이 필요함 상하행선을 분리하여 수목을 남겨놓은 중앙분리대를 설계하는 것은 산지와외의 경관적인 조화감을 높여 주게 됨
				야간경관	○	
				V.C	●	
				V.P	●	
				V.S	●	
				색채	●	
				천공, 녹시율	●	
				차폐율	●	
				Guideline	●	
				경관지구	●	

V.C : Visual Corridor V.P : View Point V.S : Visual Sequence

●절대적 중요 ●매우 중요 ●중요 ○고려

2. 인공경관계획

■ 계획의 원칙

공간적 주요범위: 도시화지역과 경관관리지역

- 맥락계획(Contextuality): 시각적 조화를 이루기 위해 도시화 지역내에서 건축물간 형태와 규모, 그리고 색채의 통일감을 형성할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체계 구축
- 위계적 경관 구성(Hierarchy): 경관의 분명한 지역간 차별성을 갖게하기위하여 도시화 지역내에서 공간적 위계성과 함께 수직적으로 변화를 통한 스카이라인의 높이 리듬 부여는 물론 수평적 건물 입면의 연계성 확립 및 변화 유도
- 야간성 고려(Night Landscape): 주간 경관성과 함께시간의 변화에 따른 경관적 변형을 위해 도시 공간유형별 관리권역별 야간 경관 주제를 통한 시각적 즐거움과 인지성을 유도
- 특징적 경관기반물 강화(Infra-scape): 건축물이나 자연경관의 배경이나 기반의 역할을 담당하는 교량, 상징물, 공급처리시설 등 공공구조시설물에 경관개념 적용을 통한 도시이미지 개선
- 인간눈높이 계획(Human Eye Scale): 자동차중심의 도시화된 정주환경에서 보행자중심으로 변함에 따라 거주민이 안전하고 선택적으로 경험하기 위한 인체공학적 공간과 시설을 위한 조성은 물론 이동상의 경관적 눈높이에 맞추어 계획

■ 시가지경관

	특성	주요위치	모습	제어요소		계획Guideline
Commercial (상업지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휴식공간 및 녹지공간 등 자연의 푸르름이 절대적으로 부족 중소도시의 중심지는 노후화된 건축물, 간판, 광고물 난립, 보차분리 미흡, 보행자 배려부족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보도 등 보행공간이 차량에 의해 잠식 주요 관광지 주변은 도로변을 따라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노후 영세한 상업시설 난립 	청주 성안길/용암동/가경동 충주 성서동 제천 중앙/의림/명동 등	 	Skylin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 외관정비 및 간판정비, 매력적인 점포유도 등으로 산만한 가로경관 완화 및 개성적인 쇼핑물 형성 유도 낮에는 조명시설의 디자인적 측면을, 밤에는 야경연출을 고려하여 조명 및 보행등 설치 도심상업지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공공공간 및 녹지공간 확보
				야간경관	●	
				V.C	●	
				V.P	●	
				V.S	●	
				색채	●	
				천공, 녹시율	●	
				차폐율	●	
				Guideline	●	
				경관지구	●	
Residential (주거지 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층의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주변 산악경관 차폐 주변지역과 자연지형을 무시한 채 획일적으로 형성되는 공동주택 경관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아파트 건설 시 휴식공간 및 기반시설 열악 구 시가지 주거지내 녹지 부족, 차량위주의 가로공간 등 열악한 주거환경 	청주 가경동 청주 용암동 청주 내덕동 충주 연수동 제천 장락동 제천 하소동 등	 	Skylin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 능선에 의해 형성되는 스카이라인 보전 및 산악경관과 주요 자연경관에 대한 조망권 확보 층고 및 건축물 외관 다양화, 가로주택 유형개발, 외부공간 디자인 등을 통한 아파트 경관 차별화 구시가지내 단독주택지는 녹화담 설치, 쌈지공원조성, 공동주차장 설치 등으로 주거환경 정비
				야간경관	●	
				V.C	●	
				V.P	●	
				V.S	●	
				색채	●	
				천공, 녹시율	●	
				차폐율	●	
				Guideline	●	
				경관지구	●	
Industrial (공업지경관/산업시설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로수 미비, 녹지공간 부재 등은 삭막한 공단경관 형성 및 주변 배후주거지 환경을 악화 대규모 공장은 획일적인 박스형 및 슬레이트형 건축물로 외관에 대한 관리가 부족하며 입면이 큰 벽을 형성 자연발생적인 영세공장들이 곳곳에 분포하고 있어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으며 주변환경도 매우 열악 	청주/충주 산업단지 청원 오창과학단지 음성농공단지 오송생명단지(계획) 보은 농공단지(예정) 증평산업단지(예정) 등	 	Skylin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단조성 시 주변 환경 및 배후주거지 등을 고려한 입지선정 및 쾌적한 공단환경 조성 이 가능한 단지 계획 수립 영세공장의 단지화 및 오염정화 시설 설치로 환경오염 최소화 각 지역의 전통산업 육성을 통해 전통산업의 특성을 살린 단지 조성 및 지역생산물을 이용한 소재 발굴
				야간경관	●	
				V.C	●	
				V.P	●	
				V.S	●	
				색채	●	
				천공, 녹시율	●	
				차폐율	●	
				Guideline	●	
				경관지구	●	

V.C : Visual Corridor V.P : View Point V.S : Visual Sequence

●절대적 중요 ●매우 중요 ●중요 ○고려

■ 가로축 경관

	특성	주요위치	모습	제어요소		계획Guideline
Arterial (간선축 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도시별 고속화 연결도로로서 많은 통과교통 발생 충북의 우수한 자연경관과 어울리지 못하는 가로시설물인 신주, 옥외광고물과 주변에 난립한 홀로 공장, 아파트 등 인공물로 인해 조망 훼손 통행만 강조되고 경관에 대한 배려와 계획 부재 	19번국도 (충주-영동) 4번국도 (옥천-영동) 36번국도(청주-충주) 34번국도 (진천-괴산) 17번국도 (진천-청주) 중부고속도로 등		Skylin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변의 시계확보를 위한 운전자 시점에서의 조망을 배려 자연지형을 최대한 고려하여 변화감 있는 경관이 연출되도록 선형계획
				야간경관	●	
				V.C	●	
				V.P	○	
				V.S	○	
				색채	●	
				천공, 녹시율	●	
				차폐율	●	
				Guideline	●	
Symbol (상징가로축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 성격으로 외곽에서 시가지로의 진입도로역할 담당 녹색교통가로축과 연계되지 않고 단절된 가로축경관 시가지내의 도로장식물이나 도로점용물 등 캐릭터가 있는 장식적 디자인을 사용하여 도로나 광장을 일체화시켜 맥이 뛰는 경관을 연출 	청주 가로수길 충주 사과나무길 등		Skylin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색 있는 가로수 식재, 바닥 포장 등을 이용한 구간별 이미지 특화작업 및 시군경계부 이미지 작업 필요 녹색교통가로축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네트워크로 상징가로축경관조성
				야간경관	●	
				V.C	●	
				V.P	●	
				V.S	●	
				색채	●	
				천공, 녹시율	●	
				차폐율	●	
				Guideline	●	
Green Mode (녹색교통가로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도확장으로 과도한 절개지의 발생으로 인한 자연경관훼손 및 가로수가 식재되지 않아 삭막한 가로경관을 형성 하천변 정비 및 자연생태하천으로 복원 등을 통해 친환경적 가로축을 구상가능 	청원, 미원면, 제천, 의림지 주변 무심천 자전거도로 충주 탄금대 확장되는 청주 가로수길 등		Skylin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분리대 녹화, 가로수 식재 등 도로변 완충녹지 및 경관녹지 도입으로 적극적인 도로녹화를 통한 녹지 네트워크 조성 및 가로의 축적 성격 강조 자연환경을 고려한 노선선정 및 생태다리 설치
				야간경관	●	
				V.C	●	
				V.P	●	
				V.S	●	
				색채	●	
				천공, 녹시율	●	
				차폐율	●	
				Guideline	●	
Pedestrian (보행가로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눈높이 보행자 레벨의 인지환경으로 지역상권의 구심점 역할담당은 물론 젊은 연령의 활동공간 단위시설, 건축, 광고물 등 세부 조경물의 디테일과 색채, 조형미를 부각 상업지, 주거지경관과 연계하여 자생적 도심으로 인식 	충주 성서동 차없는 거리 청주 성안길 제천 중앙로 등		Skylin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관이 양호한 지역은 자전거 도로 및 보행자공간 조성 차도와 보도사이에 완충녹지를 조성하고 보행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오솔길을 연상시킬 수 있는 보행공간 조성 동선 계획시 자전거와 롤러블레이드 등 이용자들이 일반보행자의 흐름과 충돌하지 않도록 계획
				야간경관	●	
				V.C	●	
				V.P	●	
				V.S	●	
				색채	●	
				천공, 녹시율	●	
				차폐율	●	
				Guideline	●	

V.C : Visual Corridor V.P : View Point V.S : Visual Sequence ●절대적 중요 ●매우 중요 ●중요 ○고려

■ 역사 문화 경관

	특성	주요위치	모습	제어요소		계획Guideline
Point (점적 역사문화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부분의 역사문화경관요소로서 긍정적 인공경관요소에 속함 문화재가 주변과 유리되어 점적 대상으로 입지 경관대상으로서 시각회랑 형성 및 경관 활용 필요성 제기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등 거주민의 생활과 문화재 원형보존의 갈등이 가장 심화되는 곳 	단양 구인사 충주 중원고구려비 각 지역향교	 	Skylin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 역사경관자원의 상징성 고양을 위한 주변 건축물 높이 제한, 시각회랑 설정 및 야경 연출 역사경관의 왜소화방지 및 스카이라인 보전을 위한 높이규제 역사문화경관자원이 도시내 고립된 섬으로 위치하지 않도록 도로 및 주변 건축물 건설시 유의
				야간경관	●	
				V.C	○	
				V.P	●	
				V.S	○	
				색채	○	
				천공, 녹시율	○	
				차폐율	●	
				Guideline	●	
				경관지구	●	
Line (선적 역사문화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곽 등 경관대상이 선적이 요소와 점적 역사문화경관을 연계하여 상징적으로 만들어진 역사탐방로 등의 선적요소가 있음 경관대상으로서의 역할도 있지만 조망점으로서의 역할 비중이 큼 	청주 산당산성 단양 온달산성 제천 덕주산성	 	Skylin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사자원을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역사탐방로 등을 조성 도로를 이용한 평지에 역사경관 조망확보 점적 역사문화경관자원을 네트워크화할 수 있는 보행자중심의 가로형성계획 점적 문화유산을 선적, 면적으로 연계하는 네트워크 전략 구축
				야간경관	○	
				V.C	○	
				V.P	●	
				V.S	○	
				색채	○	
				천공, 녹시율	○	
				차폐율	○	
				Guideline	○	
				경관지구	●	
Area (면적 역사문화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시군이 갖는 역사문화적 특성을 바탕으로 시군의 경관 이미지를 설정하고 있음(청주의 직지, 충주의 사과) 일곽의 구역을 형성하는 역사문화경관을 대상으로 함 상징적 역사문화매개체로 하여금 면적 역사문화경관 창조(직지) 선적 역사문화경관요소가 연계하여 네트워크를 이루어 면적 역사문화경관 형성 	제천 청풍문화재단지 청주 직지 괴산 역사문화체험지구	 	Skylin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사자원에 대한 접근성 확보, 안내체계 정비 및 특징 있는 지시판 설치 등 시군별 통합적인 이미지 관리 역사경관주변의 배경보전을 위한 주변지역 높이규제 역사자원 공원화 역사문화경관외의 주변경관 자원을 중시하고 지역의 경관특성을 반영 역사적 지명의 재현, 거리의 보존 등 역사적 요소를 소재로 지구 특성화 계획
				야간경관	○	
				V.C	○	
				V.P	●	
				V.S	●	
				색채	○	
				천공, 녹시율	○	
				차폐율	●	
				Guideline	●	
				경관지구	●	

V.C : Visual Corridor V.P : View Point V.S : Visual Sequence ●절대적 중요 ○매우 중요 ○중요 ○고려

3. 혼합경관계획(자연녹지 및 경계지역/형성지역)

■ 계획의 원칙

공간적 주요범위: 자연녹지 및 경계지역, 경관형성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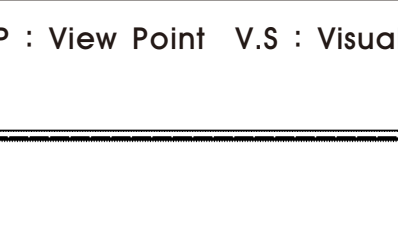
- 자연적 요소와 조화(Natural Interaction): 인공시설물이나 경관요소가 원경의 자연경관을 가리지 않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계획의 수립
- 인공경관의 분명한 경계부(Defined Edge-scape): 인공경관영역이 자연경관으로 전이되는 지역에서 시각적 연결성을 부여
- 취락의 공간형태적 특성부여(Visual Urban Settlement): 자생적 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원형을 보전하고 시각적 차별성 부여
- 진입가로경관의 강화(Entrance Enforcement): 지역의 이미지의 제고와 영역성의 확립을 위한 시각적 상징조형물 계획
- 조망점의 강화(Imforing View Point): 자연성과 인공성의 혼합으로 복잡한 시각구조를 계획적 지점에서 정돈되고 정리된 경관을 제공

■ 취락 및 농경지 경관

	특성	주요위치	모습	제어요소		계획Guideline
Hilly (구릉지 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충북의 취락구조는 대부분 구릉지에 형성되면서, 전통배치인 배산임수의 구조를 보이면서 독립적이고 자생적 공간구성을 형성하고있어 단위분절경관 (Unit Articulation Landscape)이 우수시가지와 인접한 구릉지는 개발수요 증가와 개발·확장 위주의 도시정책으로 경관훼손의 위험이 증대되고 관리기준의 미약으로 시급한 경관관리대상대부분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인 경우 양호한 경관으로 보존의 당위성 증대	괴산군 칠성면 진천군 등		Skyline	●	<ul style="list-style-type: none">배산임수의 전통적인 취락구조를 띠고 있는 구릉지 취락은 마을정비사업을 통해 보전하고, 연속적인 공간구성을 위해 마을간 도로의 정비, 보행로의 조성을 통해 연결산지경관과의 연계성을 바탕으로 경관 조망대상을 선정돌출경관을 방지하며, 산지의 개발이나 산줄기를 가로지르는 도로의 개설을 금지지역별 취락지구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경관을 독립적 부문으로 계획
				야간경관	●	
				V.C	●	
				V.P	●	
				V.S	●	
				색채	●	
				천공, 녹시율	●	
				차폐율	●	
				Guideline	●	
Flat (평지형 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농촌의 평지는 대부분 경작지로 되어있으며, 평지의 경작지는 경지정리를 통해 경관 및 생산성을 위해 보전 필요가로 주변에 등성등성 들어서 있는 소규모 공장들이 난립으로 경관성 악화지역으로 인식농경지 주변 가로변의 고층 아파트는 구릉지로의 경관을 저해평지형 농촌 취락은 경지정리가 된 환경속에 입지하여 경계부를 포함하며 취락형태(Morpholgy)가 명확	정주, 오근장동 청원 오창면 증평군 송산리 진천군		Skyline	○	<ul style="list-style-type: none">평지의 경우 도로변 주변 식재를 하여 소음 및 매연을 보호하고, 경작지의 식재로 농경지 풍경의 다양화 증진대단위 비닐하우스 단지는 유리화하여 경작물 전시 효과와 가로변 경관을 조성가로경관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차량이동을 통해 취락 형태를 인지할 수 있도록 배치
				야간경관	●	
				V.C	●	
				V.P	●	
				V.S	●	
				색채	●	
				천공, 녹시율	○	
				차폐율	○	
				Guideline	●	
Combination (조합형 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충북에서 가장 보편적 취락 및 농경지경관형태로서 대부분 구릉지와 평지가 혼재해 있고, 자연환경과 조화로운 전통농촌지역의 경관을 보여주고 있으나 취락지의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원경에서 경관비율의 우수성과 취락구성의 메스(Mass)의 유사성으로 장면성 경관창출산지, 구릉지경관 연접부 나홀로 아파트 건축으로 인한 배경자연경관 대상물의 차단 항상 발생	제천시 괴산군 장연면 등		Skyline	●	<ul style="list-style-type: none">농촌취락정비를 통해 중·저층을 유도하고 또한 정비를 통해 농가의 최대한 단지화하여 편익시설을 중심부(혹은 진입부)에 위치하여 경관적 위계성을 확보하고 전원성을 강조하기위해 건축적 맥락성에 기초한 취락구조형성돌담 또는 식재를 통해 전통적인 농촌의 친수공간을 조성가능한 개발을 규제하여 녹지보전 및 지형의 변형을 최소화도로 건설 등 개발시 구릉지와 산지, 평지가 단절되지 않도록 친환경적 계획 수립
				야간경관	●	
				V.C	●	
				V.P	●	
				V.S	●	
				색채	●	
				천공, 녹시율	●	
				차폐율	●	
				Guideline	●	
				경관지구	○	


V.C : Visual Corridor V.P : View Point V.S : Visual Sequence ● 절대적 중요 ● 매우 중요 ● 중요 ○ 고려

■ 도로 경관

	특성	주요위치	모습	제어요소		계획Guideline
Picturesque (풍경화풍 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곡선위주의 지형을 고려하여 성형으로 경관이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변하는 상황을 연출 호기심을 유발하여 시각적 긴장을 통해 공간이나 지역의 분절현상 창출 생태성, 수변등으로 자연경관은 우수하나, 가로 특성을 반영한 전반적인 계획이 없이 설계된 지역이 대부분이지만 대청호, 충주호 주변과 월악산, 속리산 주변도로는 가로 시설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충북의 대표적 경관을 형성 하나의 선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닌 복수의 선과 혼합된 선을 병행하며 경관을 연출 지방도로로 전원지대, 수변, 산지통과로 발생하는 Scenic Drive(경관도로)의 성격 	단양~충주 53번국도 영동IC~영동읍 19번국도 등		Skylin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곡선위주의 도로공간을 구성할 때 지루한 느낌을 없앨 수 있도록 많은 녹음 조성으로 풍형 효과를 일으켜 시각적 피로감 및 공간의 위요감을 형성 조망점 형성가로로서 도로측에서 수변, 산지 및 전원지대, 구릉지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지점을 설계하고 확보 수변경관 조망을 위해 도로와 조망 대상사이에 일정한 거리 이격을 통한 건축물 개발 관리
				야간경관	●	
				V.C	●	
				V.P	●	
				V.S	●	
				색채	●	
				천공, 녹시율	●	
				차폐율	●	
				Guideline	●	
				경관지구	○	
Straight (직선형 도로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선 부분에서 충분한 시야 확보로 인해 고속화로 운행되며, 주변시설물은 상대적으로 적어 끊어지는 경관현상발생 원경의 경관우수성에 대한 시각적 인식이 높아 차량이동을 위한 거대상징물 설치에 용이한 지역 직선적인 요소가 강하며, 자칫 식상해버리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나 방향성 및 지시성이 강하게 드러남 지역간 연결을 위주한 통과 교통으로서의 역할 고속통행(60~80km/h)으로 전체적인 경관윤곽을 인지하며 특징적 점적요소를 인지 도심부 도로로 대표성을 가진 심볼도로로 가로수길 등의 상징적 역할을 담당 	괴산군 진입부 옥천~영동간 4번국도 증평~충주 36번국도 등		Skylin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로수 식재를 통해 통행공간의 쾌적함을 증진시킬수 있으며, 차폐를 통해 딱딱한 인공경관 및 방음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있는 경우 중앙분리대 식재를 통해 도로공간의 분절 효과와 녹음의 도입으로 삭막한 가로경관을 완화 녹색교통이나 농촌 생산 교통 시설과 분리한 공간을 계획하여 안전은 물론 복수의 이동 경관경로의 구성 주요 도시 진입부에 상징적 가로경관계획을 통해 도시 이미지 부여
				야간경관	●	
				V.C	●	
				V.P	●	
				V.S	●	
				색채	●	
				천공, 녹시율	●	
				차폐율	●	
				Guideline	●	
				경관지구	○	

V.C : Visual Corridor V.P : View Point V.S : Visual Sequence ●절대적 중요 ●매우 중요 ●중요 ○고려

■사적 경관

	특성	주요위치	모습	제어요소		계획Guideline
On-Site (대지내 사적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가화구역내의 역사문화재나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경관 각 시도별 '문화재보호조례'를 제정하여 지방문화재를 보존, 보호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넓은 범위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조례여서, 각 지역 고유의 역사경관을 보전하는 데는 미흡 시가화구역내에 입지하는 경우 이미 주변에 고층의 건물들이 들어선 경우가 많아 경관적 특이성을 보전하기가 힘든 상황(대표적으로 청주 성안동) 인공시설물과 연결되어 경관적 특이성을 통해 지역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알리는 좋은 계기이기도 하지만 형태적 맥락성부재 때문에 경관적 연속성이 단절 	청주 용두사지 철당간 청주 직지		Skylin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적경관자원의 보호 및 조망점 선정을 위해 주변에 적절한 완충지대를 설정하여 역사문화경관으로부터 보이는 조망권내의 주변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높이와 입지를 제한 조망시점을 고려한 경관계획이 필요 문화재 보호구역내 옥외광고물을 전면 금지 안내체계는 지자체 나름의 통일된 공통시스템으로 구축 주변 건축물을 해당 문화재의 특성에 맞추어 색채계획 적용
				야간경관	●	
				V.C	●	
				V.P	●	
				V.S	●	
				색채	●	
				천공, 녹시율	●	
				차폐율	●	
Off-Site (대지외 사적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시가화구역내의 역사문화재나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경관 대체로 주변의 우수한 자연환경속에 입지하고있어 원경/중경에서의 경관대상의 역할을 담당함과 동시에 지형적 속성으로 인해 조망점의 역할 담당 대부분 단일시설로 기존의 정주체계와 격리된 형태로 위치하여 규모가 큰 경우는 면적공원이나 가적지의 형태이나 그렇지 못한 경우 경관적 특이성을 찾기 어려움 나홀로 경관으로 방치되는 경우가 다수 있으며 취락이역과도 단절된 현상 발생 	단양 적성비 충주 중원 고구려비		Skylin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사경관과 그 주변 자연경관까지 함께 보전할 수 있도록 조례적용범위를 확대 대부분 면적인 경관이 대부분이므로 유적지로의 진입로 확보 및 정비계획수립 지역 전체의 사적경관에 대한 체계적인 연계가 필요 주요 사적경관자원에 대한 주변의 전체적인 정비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경관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문화재와 주변경관의 문화재 보존을 위한 체계적 가이드라인 설정
				야간경관	●	
				V.C	○	
				V.P	●	
				V.S	●	
				색채	●	
				천공, 녹시율	●	
				차폐율	●	
				Guideline	●	
				경관지구	●	

V.C : Visual Corridor V.P : View Point V.S : Visual Sequence ●절대적 중요 ● 매우 중요 ● 중요 ○ 고려

4. 야간경관계획

■ 계획의 원칙

- 안전을 위한 야간조명(Safe Lighting): 자동차, 사람, 그린모드 등 이동주체의 유형에 따라 기능적으로 안정성을 제고
- 지역별 야간경관의 위계 설정(Local Lighting Hierarchy): 충북 내에서 도시규모별 혹은 경관유형별 조명시설 위계를 설정
- 친환경적 조명의 활용(Sustainable Lighting):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조명과 광공해를 저감하는 조명기술의 구현
- 휴먼인터페이스 라이팅 구축(Human Interface Lighting): 조명 색상 등의 변화를 통해 일상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조명을 연출하고 사람의 감성 표현을 통해 커뮤니케이션을 촉발시키는 조명시스템의 구축
- 도시조명 기반시설의 구축(Lighting Infrastructure): 자연광의 변화에 대응하는 감응시스템의 구축과 이를 지역홍보 및 관광객 유치에 위한 조명예술로 연결 가능성을 마련



[그림 5-1] 도시조명



[그림 5-2] 조명예술

1) 야간경관구조계획

	특성	주요 지역	모습	제어요소		계획Guideline
특별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의 상징적 공간이나 시설로서 야간경관을 통해 도시나 지역이미지 마케팅으로 활용가능 충북 야간경관의 대표적인 지역으로 계획성, 기획성, 기술성, 공간성 등이 서로 통합적인 시스템으로 구축 야간경관위계를 통한 야간경관전이성의 표현으로 자연경관, 인공경관, 복합경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 	청주 가로수길 충주호와 대청댐 제천 의림지 청주 무심천변 등		Skylin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시군별 야간경관특별지구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수립을 통한 지역대표 야간경관의 육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야간경관 랜드마크를 설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경관위계를 형성하도록 유도 안전성에 기초하여 심리적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색채와 휘도를 설정하고 초기 투자비 및 유지관리의 절감방안을 모색
				국지조명	●	
				V.C	◐	
				V.P	◑	
				옥외광고물	○	
				색채조명	●	
				조명인프라	○	
				휘도제어	●	
				Guideline	◐	
				경관지구	●	
관리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용도지역상 차이가 현격하게 나타나는 곳으로 상업지역과 연결한 주거지역이나 시가화 지역과 연결한 농촌취락 등으로 조도와 휘도의 불균형으로 인한 시각적 위화감을 조성 특별지역과 위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배경적 야간경관역할을 담당 권역별 혹은 지역별 야간경관특화를 통한 차별적 경험을 부여 	청주/충주/제천의 주간선도로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등		Skylin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경적 야간경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민간건축물의 야간조명 설치를 보조하고 안전과 야간이미지제고를 위한 건축물점등에 대해서는 공공이 전력에 대한 보조금이나 인센티브를 부여 건축계획 시 별도의 야간경관조명계획을 제시하도록 하고 Digital IT 및 Media, 기술을 이용한 조명계획을 권장
				국지조명	●	
				V.C	◐	
				V.P	○	
				옥외광고물	●	
				색채조명	●	
				조명인프라	●	
				휘도제어	●	
				Guideline	◐	
				경관지구	●	
억제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재와 같은 역사성이 있는 곳이나 자연환경과 같은 보전성이 강한 지역으로 최소한의 야간경관을 통해 보전대상물을 보호 문화재는 빛의 파장으로부터 보호하고 자연환경은 빛의 종류와 강도로부터 생태계를 보호 전용주거지역이나 취락지구의 경우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야간경관을 통한 편안함과 야간쾌적성을 증대 	문화재관리지역 제 1종 주거지역 국립공원 등		Skylin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야간경관억제지역에서는 휘도와 광도를 최대한으로 낮추고 주변지역으로부터 광원을 차단하기 위한 차폐식재를 활용하여 안정적 분위기를 연출 주거전용지역이나 저밀주거지역에서는 서로의 조명이 간섭되지 않도록 건축배치의 기준을 작성하고 실내의 빛이 외부로 확산되지 않도록 주민교육의 실시와 야간경관관리방안의 홍보
				국지조명	◐	
				V.C	○	
				V.P	○	
				옥외광고물	○	
				색채조명	●	
				조명인프라	●	
				휘도제어	●	
				Guideline	◐	
				경관지구	●	

V.C : Visual Corridor V.P : View Point V.S : Visual Sequence ●절대적 중요 ◐ 매우 중요 ◑ 중요 ○ 고려

2) 야간경관특화계획

■ 야간경관의 대상의 특성화



[그림 5-3] 야간경관계획 대상

■ 공공부문 주도의 야간경관계획

- "역동성"= 활력 있는 정주 조성을 위한 야간경관계획 추진
- 주요 가로변, 주요 랜드마크, 정부 청사, 구조물 등 공공시설 및 구조물에 대한 야경계획 추진
- 백두대간 및 한남금북정맥 등 주변 거점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조명영향성분석
- 대청호와 충주호 거점수변 경관 향상을 위한 야경계획수립
- 청주무심천 등 지자체별 중심 수변공간의 야경계획 수립 및 사업의 추진 관리체계 구축



[그림 5-4] 무심천 야경

■ 좀더 효과적인 LED조명으로 교체

- 서문교 조형물을 LED 조명으로 교체하여 주변환경과 어우러진 도시야경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함
- 서문교조형물 LED 조명 설치로 무심천 분수대와 더불어 사직동 롤러스케이트장과 체육공원으로 이어져 시민들의 나들이 산책코스로 각광 받을 것으로 기대

■ 민간부문 야간 경관계획

- 주요 건축물에 대한 야간경관계획 및 야간조명시설설치기준의 작성
- 옥외광고물에 대한 야간경관계획 수립 : 권역별, 용도별 조도 및 색채 기준 등
- 민간부문 야간경관계획의 실현을 위한 야간경관심의위원회 신설

도시 골격 형성	도시 식별성 향상	안전 및 쾌적성 향상	도시 특성·정체성 향상
			
1번 국도, 순환도로, 특화가로	행정관청, landmark	주거지역, 공업단지, 중심상업지역	landmark
▶ 조명 방법 : 라이트 업, 일루미네이션, 수목조명, 레이저쇼, 불꽃놀이, 라이트 아트, 빛의 모뉴먼트			

[그림 5-5] 야간경관 향상방안 (대상/시설)



[그림 5-6] 서울 인사동의 야경

■ 다양한 경관의 구성과 관리체계의 개선

- 야간경관요소의 발굴 : 특징적인 야간의 경관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도시공간과 특징적 건축물의 상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
- 옥외광고물의 개선 : 도시경관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옥외광고물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자체 관리계획의 수립과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체계의 구축

5. 경관시설물계획

■ 계획의 원칙

- 일반적 개체성(Wholistic Component): 지역이미지의 구축을 위해 계획요소 간 통합적 이미지 틀 속에 개별적 특이성 창출
- 향토경관시설물(Vernacular Landscape Structure): 지역적으로 향토성이 있는 특화 경관시설물의 개발과 체계구축
- 시범사례의 발굴(Sample Making): 시설물별 특화권역이나 지역설정을 통한 경관시설물 모범사례의 지속적 발굴과 확산

1) 옥외광고물계획

(1) 옥외광고물 제한지역

- 문화재주변지역이나 보전의 필요성이 강한 지역



청주향교

충주댐 가로변

보은군 회남면

- 최소 옥외광고물의 설정과 부착
- 관리프로그램의 운영으로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관리체계 구축



[그림 5-7] 절제된 옥외광고물

(2) 옥외광고물 협정지구

- 보행자 중심의 상업지역 위주로 지정



청주 성안길



충주 차없는 거리







제천

- 주민자치기구에 의해 추진하며 지자체는 전문가와 행정을 지원
- 협정에 의해 옥외광고물의 완화조치 시행

<표 5-1> 일본 경관협정지구 사례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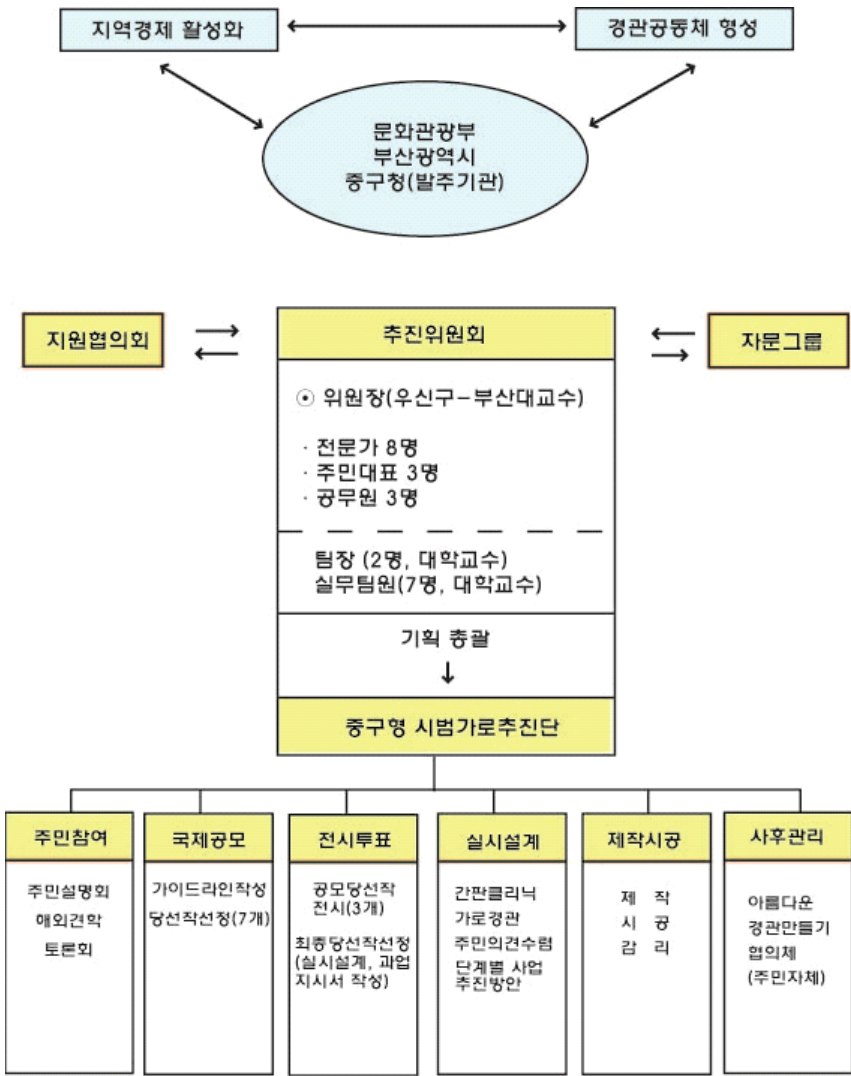
■ 新長田驛北지구 동부경관 형성 시민 협정(개별건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치 : 코베시 나가타구• 개요 : 新長田驛北지구에 있어서는, 「杜의 작은마을」을 마을만들기의 기본이념으로 하여 「슈즈 갤러리 구상」 「아시아 갤러리 구상」 등 마을만들기 계획이 정해지는 것과 동시에 거기에 적합한 환경이나 경관을 만들기 위한 경관 형성 시민 협정 「개별건축기준」이 체결되어 있다. 「개별건축기준」은 각각 개인이 건축하는 경우에 의해 보다 좋은 환경을 이웃과 만들어 가기 위한 「집과 거리만들기를 위해 만든 법」이다.• 주거·상업·공업 건축물의 공통 방침 「녹화된 공간안에서 주거·상업·공업이 일체화 되어 세련되고 활력이 있는 거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1. 「부지 내 녹화」를 추진해, 「신록이 풍부한 거리」를 만든다. 2. 「경사 지붕」을 통하여 「주거·상업·공업이 조화를 이루어 일체화된 거리」를 만든다. 3. 「지붕, 외벽 등의 색의 조화」를 통하여 「세련된 거리」를 조성한다. 4. 「건물의 배치형태」나 「담·울타리 등의 구조」 등으로 「재해나 범죄 등에 대해서 안전한 거리」를 만든다.	
광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모·색채는 마을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도록 함• 옥상광고는 가능한 설치하지 않음• 네온사인 등의 현란한 광고물은 사용을 자제• 차양막의 형태는 근린 내에서 동일한 형태를 사용

<표 5-2> 일본 경관협정지구 사례 2

■ 新長田驛北 서쪽지구경관 형성 시민 협정 - (新長田驛北·西지구 마을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치 : 코베시 나가타구• 개요 : 「새로운 시대에 사는 새로운 작은 마을만들기」 新長田驛北 서쪽지구 지구에서는 부흥 토지 구획 정리 사업에 의해 도로나 공원등의 기반 정비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평성 11년 10월 22일에 경관 형성 시민 협정을 체결해 마을만들기를 하고 있다. 건물을 짓는 경우는 마을의 Rule에 따라 건축하여 보다 좋은 마을을 만들어 낸다.• 경관 형성 시민 협정으로 목표로 하는 마을만들기 기본방침 - 「이 거리 모두가 좋아하게 되고 싶다!」• 마을만들기의 Rule의 포인트		
		
집앞의 식재는 문, 전등, 우체통 등과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 권장	건물은 도로로부터 50cm이상 후퇴시켜 세우는 것을 권장 (庇はかまいません)	경사 지붕을 사용하고 지붕의 색은 흑·진한 회색·진한 갈색 등 진한 색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리에 접한 1층 점포나 사업소 등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		
		
차양막, 간판 등은 근린에서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디자인 권장 (보조금은 3채 이상 연속하는 차양막)	상점의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도록 투명유리와 내부가 보이는 셔터를 사용 권장 (보조금은 내부가 보이는 셔터)	네온사인은 현란하지 않도록 권장

(3) 옥외광고물 시범지구

- 새로운 택지개발지구나 특수목적 경관관리지역
(청주 강서지구, 오송 신도시, 진천 혁신도시 등)
- 지자체나 관주도의 시범적 옥외광고물지역을 조성
- 사업비를 일부 지원하고 행정자문은 물론 전문가와 연결한 민관협동체계로 운영



대 상 지 : 광복로 · PIFF광장 일원
▷ 광 복 로 : L=750m, B=15m (광복로 입구 ~ 창선상가)
▷ PIFF 광장 : L=240m, B=15m (PIFF Zone 쇼핑몰 ~ 부산극장4관)
사업기간 : 2005. 1 ~ 2007. 12.
사업내용 : 간판, 가로시설물(보·차도, 가로등, 가로수 등)을 토탈디자인 개념으로 종합개선
사업예산 : 80억(국비·시비·구비)

[그림 5-8] 부산광역시 광복로일원 시범가로 조성사업

■ 경관구조물계획(Infra-Scape)

(1)교통인프라 통합디자인

- 생태계밀집지역이나 자연경관우수지역에서 교량은 하천변 점유를 최소화하는 구조로 하며 형태는 주변의 지형을 응용한 자연스러운 곡선을 활용하여 계획
- 도시화나 시가화 지역에서의 교량은 고수부지의 공간활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소한의 교각을 사용하며 상징적 형태로 계획
- 일반교량의 경우 변단면 거더를 통한 부드러운 곡선을 사용하며 경간장 조절을 통한 자연친화적 교량계획



[그림 5-9] 청계천 교량 경관설계

(2) 상징구조물계획

- 지역/도시로 진입부에 지역이미지부각과 경관의 영역성확보를 위해 진입구상징물을 조성
- 지역과 도시내 상징물은 위치설정과 시나리오를 통해 상호 연계성을 극대화
- 보조간선로 위주로 평면교차가 예상되는 지역에 교통조형물의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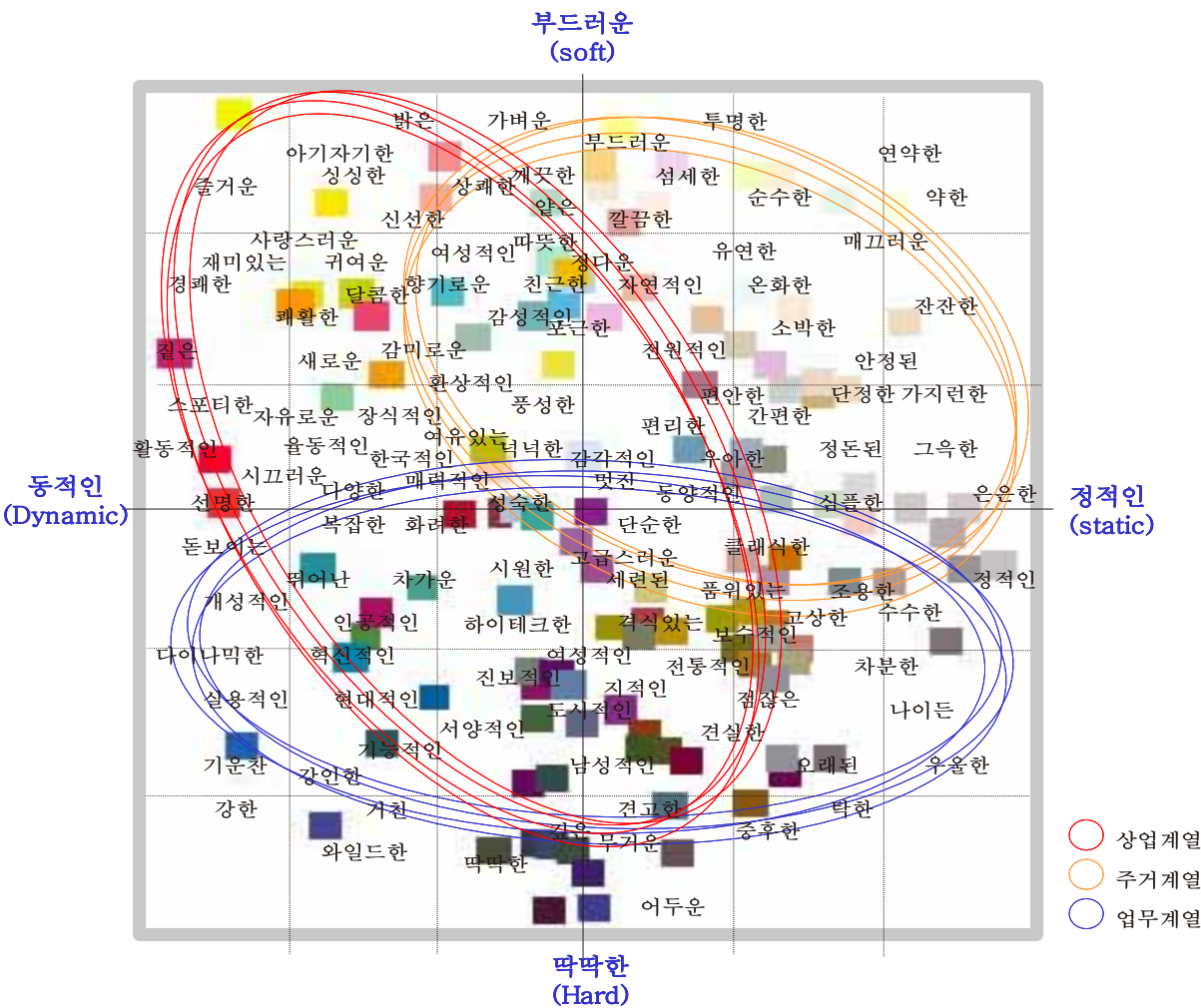


[그림 5-10] 도시구조상징물

■ 색체계획

(1) 자연경관

- 자연환경색채분포분석표에 의해 자연경관지역 내에서 관련 수림이나 산림수종의 색채범위 10% 범위에서 인공시설물의 주조색을 설정하고 전체 시설물의 50%이상을 사용
- 주조색과 함께 사용하는 보조색의 경우 2가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화 색을 사용
- 자연경관이 다른 경관과 인접하는 경우에는 지역의 주조색을 복수로 설정하여 색체의 전이성을 가 지도록 계획



[그림 5-11] 색상일람표

(2) 인공경관

- 자연친화적 도시이미지의 형성을 위하여 건물색체는 도시경관의 배경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도시 기조색을 설정
 - 차분하고 안정감 있는 색채로 유도하며 주변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룰수 있는 재료와 색채 적용
- 역동적인 도시이미지 형성을 위하여 권역· 부문별 특성을 고려하여 개성 있는 색채경관을 유도
 - 권역별 중심공간에 랜드마크가 되는 차별화된 색채이미지 적용
- 차별화된 도시이미지 형성을 위하여 지형과 가로구조를 따라서 도시 기조색을 적용
 - 기본가로구조 주변은 기조색의 변화된 보조색 중심으로 유도



훈데르트바서

광주

일본 철골건축물

[그림 5-12] 도시인공경관

(3) 특화경관

- 청풍문화재단지 등 문화재를 중심으로 하는 특화경관은 대상지에서 보이는 시각적 범위내의 환경 색채는 통일
- 청주가로수길 등 상징가로 특화경관은 양쪽 주변 100미터 내에는 자연색채를 주조색으로 하여 조화스러운 배경으로 조성
- 대규모 공공시설단지중심의 특화경관은 주변의 색채와 대비색채로 계획하여 상징성과 차별성을 부각

PART VI 충북경관의 지역모습 어떻게 만들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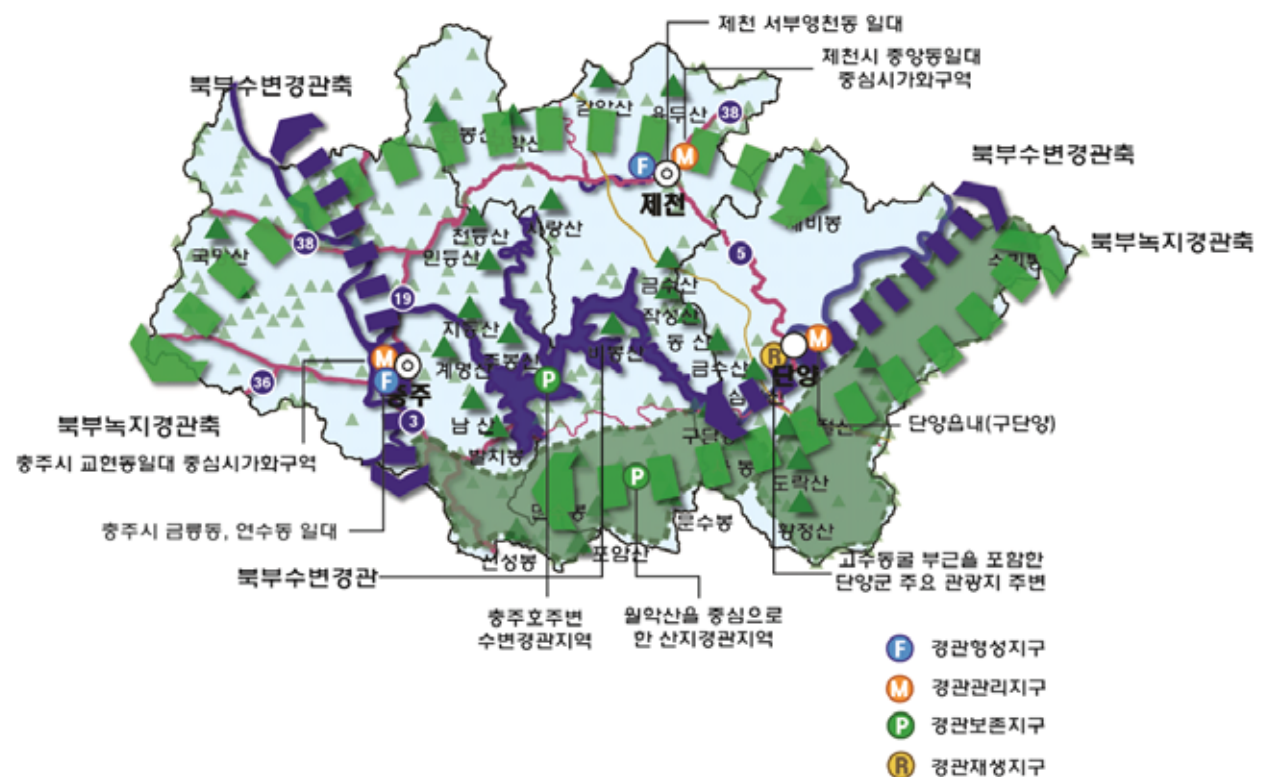
1. 북부지역 경관계획

1) 경관계획 구상

■ 과제



- 충주, 제천, 단양을 포함하는 권역으로서 충북내에서 가장 수려한 자연형 경관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중요 지역
- 월악산을 중심으로 금수산, 황정산 등 빼어난 산지경관자원과 충주호, 도담산봉 등 수변경관자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 활용계획 수립과 홍보활동을 통한 관광자원화 전략과 동시에 경관자원에 대한 보전, 유지전략도 함께 필요
- 역사 및 문화재 등주요 경관포인트들을 연결하는 루트 구상 및 개발
- 자연형 경관자원, 조성형 경관자원, 역사문화경관자원, 스포츠형 경관자원 등 다양한 경관자원들에 관한 전략 수립
- 거점 경관으로서 경관적 특이성을 보이는 지역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 경관자원들에 대한 환경성, 생태성 보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계획수립이 필요
- 생태 경과 가로, 수변경관 가로, 내륙 순환산지경관 등 주요 루트별 경관 형성 및 관리 전략 수립

■ 구상도







[그림 6-1] 북부지역 경관구상도

2) 경관권역계획

	경관특성	주요위치	모습	제어요소		계획Guideline
경관 형성 권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택지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택지개발이 진행된 유동 인구가 많은 신개발 지역 블록의 규모가 크고 중심시가화지역 주변에 지리적으로 가깝게 위치하고있어 자칫 경관적 몰개성화가 우려 새로 건축되는 건물들이 많아 경관규제가 비교적 용이 주변에 산지, 수변경관요소들과 인접해있어 이들과의 조화로운 배치와 밀도계획이 필요 난개발로 인한 환경파괴와 경관훼손 문제 심각 경제적 논리에 초점을 맞춘 개발계획 수립으로 인한 경관파괴현상 심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주시 금릉동, 연수동 일대 제천시 서부영천동 일대 등 	 	Skylin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지역의 특성과 경관적 잠재력 및 특성을 극대화하여 향후 다양한 경관창출이 필요한 지역 새롭게 개발되는 지역이 많아 개발초기단계부터 경관관리계획 수립이 가능하여 제어가 다소 용이한 지역 주변 자연경관요소와의 조화와 활용을 위한 조망확보나 지형 특성보존 등을 위한 고도나 밀도계획이 필수 획일적 경관형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역별로 개성있는 경관과 장소성이 창출될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디테일한 계획안 제시 자연과의 공존하는 친환경적 경관 형성 유도 인공적으로 조성된 경관요소들과 기존 경관축의 연계성 확보 민관합동방식의 경관형성사업 이행 기존의 우수한 경관자원들과의 조화를 위한 연계성있고 실행 가능한 현실적 계획 수립 다이나믹하고 조화로운 경관형성을 위해 경관총량제 적용 등 다양한 기법을 고안하여 적용 시도
				V.C	●	
				V.P	●	
				V.S	●	
				색채	●	
				천공, 녹시율	○	
				차폐율	●	
경관 관리 권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 개발된 구도심지역 건물이 낙후되고 지중화 사업등이 시행되지 않은 지역이 많음 상업용 건물의 경우 옥외광고물로 인한 문제가 심각 장기적으로 경관재생지역으로 전환해야할 필요가 있는 지역 고층건물 입지등으로 인한 경관훼손현상 발생 고가도로, 교량 등 대형 구조물의 경관적 배려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주시 교현동 일대 중심시가화구역 제천시 중앙동 일대 중심시가화구역 단양읍 내(구 단양) 등 	 	Skylin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 형성된 시가화구역들이 대부분으로 경관적 제어가 가장 어려움 장기적, 거시적 안목에서 친환경적 경관관련 계획 수립 경관관리계획 수립을 지역별, 단계별로 차등관리 주요경관요소 주변지역, 시가화집중지역 등 중점적 경관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여 관리토록 유도 건축물 높이 및 배치규제, 입면차폐도, 주요 경관축 주변 입지제한 등 다양한 경관제어를 통한 관리계획 수립 경관유형별로 특성에 맞는 경관관리전략 수립 필요 상업, 업무지역 과 주거지경관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각각 특성에 맞는 경관계획 수립 상업, 업무지역의 경우 건축물외관 디자인 규제나 옥외광고물 규제 등 별도의 계획 수립이 필요 고가도로, 교량 등 주요 구조물과 관련하여 경관 관리 계획 수립
				V.C	○	
				V.P	●	
				V.S	○	
				색채	●	
				천공, 녹시율	●	
				차폐율	●	

V.C : Visual Corridor V.P : View Point V.S : Visual Sequence ●절대적 중요 ●매우 중요 ●중요 ○고려

	경관특성	주요위치	모습	제어요소		계획Guideline
경관 보전 권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려한 자연경관요소들이 입지한 지역 빼어난 경관적 가치를 지닌 월악산, 충주호등 산지와 수변경관이 지역내 포함되어 있음 남한강변을 따라 Scenic Drive로 개발할 잠재력을 지닌 도로들이 입지 자연경관 요소들의 훼손 현상 발생이 빈번하며 대책마련이 시급 골프장 등 자연형 개발사업의 입지로 인한 경관변화가 많이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 주 호 주 변 수변경관지역 월악산을 중심으로 한 산지경관지역 문경새재 남한강 주변 지역 등 		Skylin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전가치가 있는 우수 경관자원을 대상으로 경관보전지구 지정을 통한 철저한 경관관리 문화재로 지정된 경관자원 뿐 아니라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역사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근대 건축물 등 경관적 가치를 가진 모든 요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민참여유도를 위한 다양한 주민참여방안 마련 우수한 경관자원의 보존과 이를 활용한 지역마케팅 전략 수립 관망하는 대상으로서 뿐만 아니라 직접 체험하고 즐기는 대상으로서 경관요소들을 활용 우수한 경관자원을 지키고 가꾸기위해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이에 다한 행, 재정적 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 생태성, 환경성을 고려한 자연경관요소 보전계획 수립 골프장 등 자연형 개발사업 시행 시 주변 지역과의 경관적 괴리현상이나 개발로 인한 경관훼손현상이 발생하지않도록 대책 마련
				V.C	●	
				V.P	●	
				V.S	◐	
				색채	◐	
				천공, 녹시율	◐	
경관 재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사문화 경관요소를 많이 보유하고 있으나 해당 요소 주변의 개발지역의 경관적 질이 낙후 역사문화경관 요소들이 점적으로 산재되어있어 이들 간 연계성 부족 재개발 사업등의 시행으로 인한 경관재생 가능성 지역이 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수동굴 부근을 포함한 단양군 주요 관광지 주변 등 		Skylin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후불량주거지나 훼손된 역사문화경관, 자연경관요소등의 복원과 재창조가 필요한 지역 훼손되었거나 단절된 녹지축, 구릉지능선, 하천등의 회복을 통한 유기적 네트워킹 구축 친환경적 하천경관환경 정비 지역 아이덴티티 확립을 위한 다양한 이미지 찾기 시도 사라진 중요 경관자원들을 찾아내고 이들을 통해 지역 경관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계획 수립 현재 복원중이거나 이미 관련계획이 수립된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적인 사업추진 지원 역사문화 경관요소 주변지역 경관정비계획 수립 재개발 예정지역등을 대상으로 개발사업 시행 전 경관계획 선수립 유도 기타 경관재생권역은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현실적인 계획수립과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V.C	◐	
				V.P	◐	
				V.S	◐	
				색채	◐	
				천공, 녹시율	◐	
				차폐율	◐	
				차폐율	◐	

V.C : Visual Corridor V.P : View Point V.S : Visual Sequence ●절대적 중요 ◐ 매우 중요 ◐ 중요 ○ 고려

2. 중부지역 경관계획

1) 경관계획 구상

■ 과제

- 청주, 청원, 증평, 음성, 진천을 포함하는 지역으로 도내 거주인구의 약65%가 거주하는 지역
- 대부분이 구릉지로 구성되어있고 개발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경관적 혼잡과 부조화가 심각하여 정비가 시급
- 음성, 진천지역을 중심으로 한 농경지 경관이 시가지경관지역과 더불어 지배적인 양상을 보임.
- 자연형 경관자원 보다는 도시형 인공경관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며 이러한 지역에서의 단조로운 경관이 문제시 되고 있음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등 여러 대규모 국가사업에 의해 계속 경관의 모습이 달라지는 변화가 많은 지역으로 이에 대한 거시적 대안마련이 필요
- 경관요소에 대한 훼손이 심각한 지역으로 이들의 복원과 회복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
- 경관형성과 경관관리가 동시에 진행되도록 효율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한 지역
- 재개발, 재건축 등 사업예정지구가 다수 포함되어 경관재생에 관한 관심이 필요한 지역

■ 구상도



[그림 6-2] 중부지역 경관구상도

2) 경관권역계획

	경관특성	주요위치	모습	제어요소		계획Guideline
경관 형성 권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창일대, 산남동, 성화동 일대 지역등 새롭게 택지개발을 통해 형성되는 신개발 지역이 집중 신시가지 혹은 시가지 확장 구역으로 경관계획의 수립 및 적용이 비교적 용이한 지역 자연경관과 인공경관이 어우러진 복합경관지역 충북에서 가장 개발압력과 개발밀도가 높은 지역으로 도시주변지역에 신시가지가 급속히 형성 신개발로 인한 경관훼손 및 부조화 현상이 심각하게 대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창일대 신개발지역 청주시 산남동, 성화동 일대 택지개발 지역 증평군 초종리 일대 등 	 	Skylin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지역의 특성과 경관적 잠재력 및 특성을 극대화하여 향후 다양한 경관창출이 필요한 지역 새롭게 개발되는 지역이 많아 개발초기단계부터 경관관리계획 수립이 가능하여 제어가 다소 용이한 지역 주변 자연경관요소와의 조화와 활용을 위한 조망 확보나 지형 특성보존 등을 위한 고도나 밀도계획이 필수 획일적 경관형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역별로 개성있는 경관과 장소성이 창출될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디테일한 계획안 제시 자연과의 공존하는 친환경적 경관 형성 유도 인공적으로 조성된 경관요소들과 기존 경관축의 연계성 확보 민관합동방식의 경관형성사업 이행 기존의 우수한 경관자원들과의 조화를 위한 연계성있고 실행 가능한 현실적 계획 수립 경관총량제 적용 등 다양한 선진기법을 적용하여 다이나믹하고 조화로운 경관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유도
				V.C	●	
				V.P	●	
				V.S	●	
				색채	●	
				천공, 녹시율	○	
				차폐율	●	
경관 관리 권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주시 구도심지역으로 개발 밀도가 매우 높은 지역으로 인공경관 위주 경관형성 과산, 음성, 증평군의 오래된 자생적 시가지 주변 지역으로 건축물을 포함한 시설물이 매우 낙후 과도한 옥외광고물 부착으로 건물외관이 대부분 가려져있으며 형태, 위치, 색상등이 매우 다양하여 이로 인한 경관적 혼란현상이 심각 낡은 (가로시설물)Street Furniture, 전신주와 전선 등 신시가지의 정비된 모습과는 다른 경관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주시 제1순환로 내부 중심 시가지 구역과 2순환로 주변 시가지 지역 과산을 버스터미널 부근 시가지구역 음성읍사무소 주변 시가지구역 증평군청 주변 시가지구역 등 	 	Skylin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 형성된 시가지구역들이 대부분으로 경관적 제어가 가장 어려움 장기적, 거시적 안목에서 친환경적 경관관련 계획 수립 경관관리계획 수립을 지역별, 단계별로 차등관리 주요경관요소 주변지역, 시가지집중지역 등 중점적 경관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여 관리토록 유도 건축물 높이 및 배치규제, 입면차폐도, 주요 경관축 주변 입지 제한 등 다양한 경관제어를 통한 관리계획 수립 경관유형별로 특성에 맞는 경관관리전략 수립 필요 상업, 업무지역 과 주거지경관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각각 특성에 맞는 경관계획 수립 상업, 업무지역의 경우 건축물외관 디자인 규제나 옥외광고물 규제 등 별도의 계획 수립이 필요 지역별 옥외광고물의 부착과 디자인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 지역별로 해당지역 CIP계획의 일환으로 가로시설물(Street Furniture) 디자인 계획 수립
				V.C	○	
				V.P	●	
				V.S	○	
				천공, 녹시율	●	
				차폐율	●	
				차폐율	●	

V.C : Visual Corridor V.P : View Point V.S : Visual Sequence ●절대적 중요 ●매우 중요 ●중요 ○고려

	경관특성	주요위치	모습	제어요소		계획Guideline
경관 보전 권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부권역까지 연결되는 대청호 주변 수변지역이 상당한 면적으로 위치 한남금북정맥이 지역의 동서축을 가로지르는 강한 산지경관축을 형성 생태경관지역으로 보존 혹은 복원이 가능한 잠재력을 지닌 지역 상대적으로 개발면적이 타 권역에 비해 넓으며 이로 인한 경관훼손현상이 심각 기존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택지개발예정지구 등 개발압력의 잠식현상이 두드러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주시 우암산 주변 산지경관지역 청주시 무심천변 하천경관 지역 대청호주변 수변 경관 지역 우암산, 선도산을 연결하는 한남금북정맥을 중심으로 한 산지경관 지역 등 		Skylin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전가치가 있는 우수 경관자원을 대상으로 경관보전지구 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경관자원 뿐 아니라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역사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근대 건축물 등 경관적 가치를 가진 모든 요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민참여유도를 위한 다양한 주민참여방안 마련 우수한 경관자원의 보존과 이를 활용한 지역마케팅 전략 수립 관망하는 대상으로서 뿐만 아니라 직접 체험하고 즐기는 대상으로서 경관요소들을 활용 우수한 경관자원을 지키고 가꾸기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이에 대한 행, 재정적 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 자연경관자원의 특성과 면적, 위치, 주변지역의 개발 압력 등을 고려하여 경관자원의 보전등급제 등 현실적인 계획 수립
				V.C	●	
				V.P	●	
				V.S	●	
				천공, 녹시율	●	
				차폐율	●	
				차폐율	●	
경관 재생 권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당산성 주변 경관보전계획 수립이 필요 무심천을 중심으로 생태하천으로 복원계획 추진 중 청주 성안길, 철당간 등 사라진 상징적 역사경관요소의 복구 재개발, 재건축 등 타 권역에 비해 경관재생권역이 많이 분포함 주요 하천변 하상주차장, 하상도로의 철거 및 자연형 생태하천으로의 복원계획이 활발히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주 상당산성 주변 청주 무심천변 하천경관 주변 청주 성안길 옛 성터 지역 등 		Skylin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후불량주거지나 훼손된 역사문화경관, 자연경관요소등의 복원과 재창조가 필요한 지역 훼손되었거나 단절된 녹지축, 구릉지능선, 하천등의 회복을 통한 유기적 네트워크 구축 친환경적 하천경관환경 정비 지역 아이덴티티 확립을 위한 다양한 이미지 찾기 시도 사라진 중요 경관자원들을 찾아내고 이들을 통해 지역 경관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계획 수립 현재 복원중이거나 이미 관련계획이 수립된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적인 사업추진 지원 재개발, 재건축지역을 경관재생권역으로 지정하고 주변과의 조화 및 선도적인 경관형성지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유도 기타 경관재생권역은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현실적인 계획수립과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V.C	●	
				V.P	●	
				V.S	●	
				천공, 녹시율	●	
				차폐율	●	
				차폐율	●	

V.C : Visual Corridor V.P : View Point V.S : Visual Sequence ● 절대적 중요 ● 매우 중요 ● 중요 ○ 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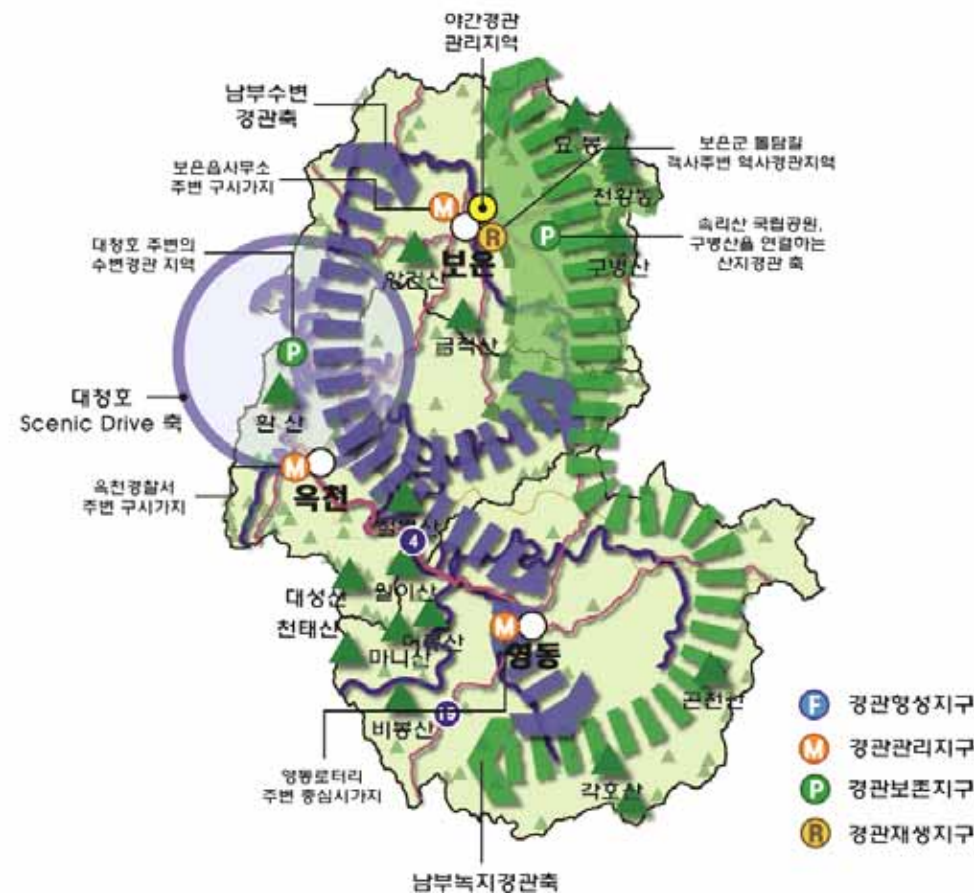
3. 남부지역 경관계획

1) 경관계획 구상

■ 과제





- 보은 옥천, 영동을 포함하는 지역으로 속리산을 중심으로 한 자연경관요소와 역사경관요소가 다수 존재하며 금강주변 수변경관요소의 질도 매우 뛰어난 지역
- 자연형 경관요소들이 강세를 보이는 지역이지만 속리산을 제외하고는 활용되는 사례가 적은 보존형으로 존재하고 있어 적극적인 활용방안 마련이 필요
- 시가화구역의 개발밀도는 중부권과 비교할 때 강도가 약하며 정주환경이 자연발생적 취락구조로 되어있고, 주변 자연경관요소와의 시각적 조화를 고려한 계획 수립
- 주요 녹지축과 수변축이 남북방향으로 지나가면서 자연경관으로 위요된 분지형태의 경관구조를 지닌 지역으로 타 지역에 비해 특히 주변자연경관과의 시각적 통과성 및 연계성 확보가 중요한 지역

■ 구상도







[그림 6-3] 남부지역 경관구상도

2) 경관권역계획

	경관특성	주요위치	모습	제어요소		계획Guideline
경관 형성 권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규모 택지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택지개발이 진행된 유동인구가 많은 신개발지역 새로 건축되는 건물들이 많아 경관규제가 비교적 용이함 주변에 산지, 수변경관요소들과 인접해있어 이들과의 조화로운 배치와 밀도계획이 필요 난개발로 인한 환경파괴와 경관훼손 문제 심각 경제적 논리에 초점을 맞춘 개발계획 수립으로 인한 경관파괴현상 심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늘머니과일공원 등 	 	Skylin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지역의 특성과 경관적 잠재력 및 특성을 극대화하여 향후 다양한 경관창출이 필요한 지역 새롭게 개발되는 지역이 많아 개발초기단계부터 경관관리계획 수립이 가능하여 제어가 다소 용이한 지역 주변 자연경관요소와의 조화와 활용을 위한 조망확보나 지형특성보존 등을 위한 고도나 밀도계획이 필수 획일적 경관형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역별로 개성있는 경관과 장소성이 창출될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디테일한 계획안 제시 자연과의 공존하는 친환경적 경관 형성 유도 인공적으로 조성된 경관요소들과 기존 경관축의 연계성 확보 민관합동방식의 경관형성사업 이행 기존의 우수한 경관자원들과의 조화를 위한 연계성있고 실행가능한 현실적 계획 수립 특히 중요한 자연경관요소가 많이 산재한 권역이므로 주변과의 조화에 대한 특별한 고려 필요
				V.C	●	
				V.P	●	
				V.S	●	
				색채	●	
				천공, 녹시율	○	
				차폐율	●	
경관 관리 권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은, 옥천, 영동군의 도시계획구역의 구 시가지 자생적이고 오래된 인공경관이 주를 이룸 건축물을 비롯한 시설물 낙후 구시가지 주변 중고층 아파트 등의 난립으로 경관적 부조화 현상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은읍사무소 주변 구시가지 옥천경찰서 주변 구시가지 영동로터리 주변 중심시가지 	 	Skylin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 형성된 시가화구역들이 대부분으로 경관적 제어가 가장 어려움 장기적, 거시적 안목에서 친환경적 경관관련 계획 수립 경관관리계획 수립을 지역별, 단계별로 차등관리 주요경관요소 주변지역, 시가화집중지역 등 중점적 경관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여 관리토록 유도 건축물 높이 및 배치규제, 입면차폐도, 주요 경관축 주변 입지제한 등 다양한 경관제어를 통한 관리계획 수립 경관유형별로 특성에 맞는 경관관리전략 수립 필요 상업, 업무지역 과 주거지경관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각각 특성에 맞는 경관계획 수립 상업, 업무지역의 경우 건축물외관 디자인 규제나 옥외광고물규제 등 별도의 계획 수립이 필요
				V.C	○	
				V.P	●	
				V.S	○	
				천공, 녹시율	●	
				차폐율	●	
				차폐율	●	

V.C : Visual Corridor V.P : View Point V.S : Visual Sequence ●절대적 중요 ●매우 중요 ●중요 ○고려

	경관특성	주요위치	모습	제어요소		계획Guideline
경관 보전 권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속리산과 환경평가등급에서 보존지역으로 결정된 지역이 많아 생태경관계획의 시범지역으로 선정, 계획 유도 중부지역의 청원군에서 보은군으로 연결되는 대청호 주변 수변경관지역이 면적으로 넓게 위치 고층건물의 무분별한 입지로 인한 경관훼손 현상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속리산 국립공원, 구 병 산을 연결하는 산지 경관축 대청호 주변의 수변경관 지역 	 	Skylin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전가치가 있는 우수 경관자원을 대상으로 경관보전지구 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경관자원 뿐 아니라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역사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근대 건축물 등 경관적 가치를 가진 모든 요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민참여유도를 위한 다양한 주민참여방안 마련 우수한 경관자원의 보존과 이를 활용한 지역마케팅 전략 수립 관망하는 대상으로서 뿐만 아니라 직접 체험하고 즐기는 대상으로서 경관요소들을 활용 우수한 경관자원을 지키고 가꾸기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이에 다한 행, 재정적 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 스카이라인을 고려한 경관계획 수립을 통한 자연스럽고 조화로운 경관형성 유도
				V.C	●	
				V.P	●	
				V.S	◐	
				천공, 녹시율	◐	
				차폐율	◐	
				차폐율	◐	
경관 재생 권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속리산을 중심으로 법주사, 정이품송 등 지명도 높은 역사문화경관요소가 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은군 돌담길, 객사주변 역사경관지역 	 	Skylin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후불량주거지나 훼손된 역사문화경관, 자연경관요소등의 복원과 재창조가 필요한 지역 훼손되었거나 단절된 녹지축, 구릉지능선, 하천등의 회복을 통한 유기적 네트워크 구축 친환경적 하천경관환경 정비 지역 아이덴티티 확립을 위한 다양한 이미지 찾기 시도 사라진 중요 경관자원들을 찾아내고 이들을 통해 지역 경관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계획 수립 현재 복원중이거나 이미 관련계획이 수립된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적인 사업추진 지원 기타 경관재생권역은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현실적인 계획수립과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V.C	◐	
				V.P	◐	
				V.S	◐	
				천공, 녹시율	◐	
				차폐율	◐	
				차폐율	◐	

V.C : Visual Corridor V.P : View Point V.S : Visual Sequence ●절대적 중요 ◐ 매우 중요 ◑ 중요 ○ 고려

PART VII 충북경관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1. 경관사업계획

1) 충청북도 단위의 추진 10대 경관사업

- 충청북도의 경관이미지 설정 및 정착을 위해 도 단위 사업으로 진행
-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공동사업으로 진행이 가능하며 도의 균형발전 측면을 고려
- 20년 단계별 계획으로 진행하며 기본계획의 변경 시에 사업내용을 조정

(1) 단기(2007~2012)

- 현재 경관관련계획과 기반시설을 활용하며 국지적의 경관개선효과를 보일 수 있는 사업위주로 선정하며 동시에 장기적인 경관이미지와 경관관리 틀 조성에 중점
- 경관에 대한 시민인식으로 부족으로 야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주민홍보프로그램과 함께 지역별 기초경관데이터 구축

■ 경관법에 의한 협정경관지구 조성사업

- 주민발의에 의한 경관협정지구를 청주, 충주, 제천, 청원군은 최소 2개 지구 이상을 주민과 협의 지정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기타 군 지역은 최소한 1개 지역을 협정경관지구로 지정, 조성, 관리하는 사업
- 경관형성 주민참여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하고 시민참여형 경관조성 아이디어 경연대회 개최하며, 이를 위해 자체적인 추진보다는 관학협동프로그램이나 전문가 단체와 협의를 통한 공동협력개발을 통한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추진
- 효율적 행정지원과 도이미지 통일을 위해 충청북도 경관과의 신설과 함께 도시디자인실(혹은 경관디자인센터)의 설치를 통한 행정인력의 지원 및 경관에 대한 주민교류의 장을 조성

야간경관계획(Harmony)

사례1 : 프랑스 파리(Paris)



세느강변 야간경관

- 프랑스 파리의 야간경관사업은 기능성, 장식성, 축제성, 종합적 총 4가지 성격으로 구성
- 가로의 성격을 고려하여 야간경관 주제를 부여하고 건축물 조명 조성과 함께 가로시설물의 조명이 서로 조화될 수 있도록 계획

성격	기능성	장식성	축제성	종합적
구분				
지역				
설명	상젤리제거리	에펠탑	라데팡스 신개선문	세느강변

■ 충북 야간경관 및 경관기반시설을 계획수립과 기초경관기반시설물조성사업

- 충청북도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충청북도 야간경관계획 및 경관기반시설물계획의 수립하고 이를 근거로 각 지자체에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도 전체 야간이미지의 통일은 물론 지역별, 권역별 야간경관특화계획 수립
- 충청북도 야간경관 조례는 물론 야간경관시설물설치기준을 충청북도 야간경관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작성하고 이를 시설설치기준을 활용
- 가로등, 교량, 주요공공시설 및 건축물, 역사문화사적지 등 충청북도 경관의 골격을 형성하는 시설에 대한 기초경관시설물을 계획하고 조성
- 청주시의 성안길(상업지역), 충주호 주변(자연가로경관지역), 그리고 단양 도담삼봉(역사문화지역) 등 지역과 기능을 대표하는 지역을 야간조명시범지구로 조성

■ 충북 경관상징물 조성과 경관이미지통일사업

- 국토의 중심부를 상징하고 주변지역으로 사통팔달 위치의 위상과 상징성을 부여하기 위해 충청북도 동서남북의 대표적 진입부에 지역의 특성과 함께 통일된 이미지의 경관상징물 조성계획 수립
- 충청북도의 가장 상징적인 위치(설문조사를 통한 입지선정)에 복합상징경관시설과 체험공간을 조성하여 지역경관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한 이미지 확보
- 경관기반시설과 경관상징물과 이미지 통합을 시도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

■ 가로경관 특화 시범가로 조성사업

- 충북을 대표하는 가로경관을 자연경관의 생태경관가로, 인공경관의 시가화 옥외광고물시범가로, 그리고 혼합경관의 역사문화탐방가로 등을 조성
- 시범가로의 조성사업은 대상지를 공론화과정을 통해 선정하며 대규모 국제공모전(International Competition)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고 행정기관을 비롯한 많은 참여주체를 통한 “함께 조성하는 경관만들기 사업”으로 추진
-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행정관리편람을 작성하여 시군별 옥외광고물 계획과 관리의 틀을 제시하고 옥외광고물 유형별 Guideline의 제작

야간경관계획(Symbol)

사례2 : 상하이



상하이 야간경관 전경



황푸강 남포대교 야경



푸저지역의 구시대적인 야경



푸둥지역의 현대적인 야경

- 도시의 야간경관을 상징적으로 계획함으로써 중국의 대표적 도시로 이미지에이킹과 차별화 전략으로 활용함은 물론 관광 자원으로 활용
- 상하이 황푸강 주변의 야경은 현대적인 것과 구시대적인 야간경관을 대비시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동시에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로 구성

(2) 중기(2007~2016)

- 충북경관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지역적 경관특성을 확립하기 위한 지역경관이미지 구축사업에 초점을 맞추며 특히 영역성내의 경관이미지 통일성의 확립을 위한 사업의 전개
- 충북경관의 대표적 시설과 이미지인 자연생태경관 구축사업과 인공경관의 복합화사업을 전개하고 지역별로 경관권역에 대한 경관사업구상을 진행
- 장기적 사업인 충청북도 100경 사업과 기타사업에 대한 의견수렴과 기초자료의 구축

■ 충북 진입 경관상징시설물 조성사업

-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지역의 특산물을 형상화하여 진입가로에 조성한 상징물의 기본이미지를 통일시킴은 물론 단기 사업에서 계획한 충북의 대표적 진입가로나 이동위치에 충북을 대표하는 상징경관조형물이나 시설물의 조성
- 경관상징조형물과 함께 공간시설로 연계하여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의 거점 조망대상으로 활용하고 이를 거점으로 다양한 경관트레일(Trail)의 시점과 종점으로 활용
- 진입경관상징조명물 주변은 도시계획적 관리체계와 연계하여 미관지구나 경관지구 혹은 지구단위계획지구로 설정하여 주변의 경관을 계획적으로 규제

■ 충북생태경관 Route(Eco Green Landscape Trail)조성사업

- 자연경관 지역에서는 비오토 맵핑을 적용하여 생태적 특이성을 최대한으로 보전하면서 경관적 관찰통로 및 자연경관을 체험할 수 있는 보행전용의 선적인 공간시설형태로 조성
- Spine 생태경관으로 백두대간 생태경관루트와 한남금북정맥생태경관루트를 조성하고 Branch생태경관루트는 지역간 연담화 형태로 조성하고 이 경우에는 해당지역과 함께 조성
- 각 시군별로 경관기본계획안에 생태경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평가와 보정을 통해 정확한 계획을 유지하면서 Branch와 Anchor경관을 조성
- 시가화지역내에서는 생태회랑(Green corridor)계획을 통해 도시의 자연경관 연출하고 외곽의 녹지대를 도심까지 연결하는 핑거 플랜(finger plan)의 개념의 경관사업추진

■ 지역별 거점경관조성사업

- 충북의 균형적인 발전과 경관 차별화를 위하여 북부의 충주호 주변, 중부의 청주, 오창, 오송을 연결하는 삼각지역, 남부의 속리산을 중심으로 하는 자연경관지역을 거점경관으로 조성
- 거점경관은 광역화된 특성때문에 충청북도는 기본계획수립과 함께 관련지자체의 추진체계를 구성하고 재원조달을 위한 방안모색과 함께 관련지자체의 사업추진을 독려
- 지역의 거점경관은 지역의 시각적 맥락을 유도하는 구심점 및 기준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물리적, 비물리적 특성파악이 선행

- 리용시의 야간경관 마스터 플랜은 주요 도로망, 시각적 랜드마크 및 도시관문, 지역별 역사 및 문화유산 등의 경관요소를 강조
 - 자연 경관적 특성이 강한 지역
 - 도시적이고 현대적 특성의 산업지역
 - 하천경관 특성이 강한지역

야간경관계획(Spectacle) 사례3 : 프랑스 리용(Lyon)



시각적 랜드마크

주요도로망

벽면 활용

3) 장기(2007~2026)

- 충청북도의 경관이미지를 기본적으로 완성하는 시기로 경관기반시설과 함께 정주공간체계까지 경관적 공간구성과 함께 주민주도의 경관조성 및 관리시스템구축
- 이론적으로 기존의 경관개념부재에서 실시한 최소의 목표연도이기때문에 경관적 완성도를 가짐은 물론 계획목표 이후 20년을 대비한 새로운 경관형성 및 변화과정에 대한 공감대형성과 이미지의 구축
- 기존의 경관형성과 보전의 관점에서 계획과 사업의 추진체계를 관리와 경관재생의 관점으로 추진하여 경관적 연속성을 통한 지역성의 확보와 통시적 정주환경체계의 구축

■ 충청북도 100경 조성사업

- 충청북도를 대표할 수 있는 경관을 지역별, 기능별, 역사별 등 다양한 관점에서 가치분석을 통해 설정하여 이를 중심으로 정주환경의 경관골격을 형성
- 자연경관이나 혼합경관지구에서 설정되는 100경은 점적인 시설을 중심으로 가능한 면적인 경관시설물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인공경관에서의 100경은 서로간의 연계선을 고려한 선적은 측면으로 경관구조를 재편
- 도시계획적 관리체계와 연계하여 미관지구나 경관지구 혹은 지구단위계획지구로 설정하여 시각회랑(Visual corridor)계획을 통해 주변의 경관을 계획적으로 규제

■ 농촌 취락경관개선사업

- 농촌주택사업, 농촌경작지 정비사업, 등 다양한 중앙정부 지원 사업으로 진행하며,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 우수 경관마을에 대한 표창제도 실시
- 농촌의 경관관리를 위한 마을단위별 조직구성 및 경관인식교육하고 농촌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토지이용의 규제 및 유도
- 농촌 교량의 녹화사업을 통해 단절된 생태축 연결하고, 담장은 돌담 또는 식재를 통하여 전원적인 풍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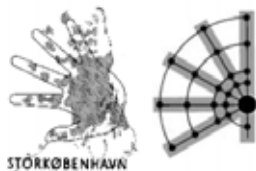
■ 경관시범도시조성사업

- 새롭게 건설되는 혁신도시나 기업도시는 특화된 도시기능과 함께 물리적으로 조화스럽고 경관적 특이성을 가지는 토탈 도시디자인시스템으로 구축
- 오송신도시의 경우 대규모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호남고속철분기점 등 대규모 국책사업과 연계되어 대표적인 경관시범도시로 계획하고 건설
- 물리적으로 주변 도시(행복도시, 청주, 대전)와 연계되고 모든 생활권별로 경관권역으로 형성되어 지구단위의 경관계획과 도시통합이미지에 근거한 입체적 도시의 건설
- 택지개발지구와 같은 소규모의 도시적 자립성을 가진 지역을 북부, 중부, 남부로 각각 형성하며, 이를 주거중심, 산업중심, 상업중심의 유형별로 경관시범도시를 조성

생태경관계획

사례 : 독일

핑거플랜(finger Plan)



하천및 호수의 보존

도시내 생태축 연결

고지대 식생의 보존

2) 경관유형별 사업계획

■ 자연경관에 대한 사업

구분	사업내용	실천단계			지역별		
		단기	중기	장기	북부	중부	남부
산지 경관사업	- 지역별 산지보존관리계획수립	●			●	●	●
	- 산림생태계를 고려한 산림경관 조성사업	●	●	●	●	●	●
	- 산지경관훼손 복원사업	●			●	●	●
	- 생태서식지 조성사업	●			●	●	●
	- 환경허용용량(Environmental Carrying Capacity)조사사업	●			●	●	●
	- 산지 정상산행 경관 (Foot Trail)조성사업		●		●	●	●
	- 생태경관탐방로(Ecological Landscape Trail)조성사업	●			●	●	●
	- 자연재해위험지역 및 방재 취약지역을 위한 사방 시설 경관조성사업	●	●		●	●	●
	- 송전선, 송전탑, 광고물(대형광고물)등 경관저해요소 차폐사업	●	●		●	●	●
	- 주요 산악의 배후마을에 대한 경관 정비사업			●	●	●	●
수변 경관사업	- 자연형 하천 조성을 위한 친수공간 도입을 위한 친환경 수변관리계획수립	●			●	●	●
	- 하천의 오염원 유입부의 수질정화습지 조성사업		●		●	●	●
	- 경관테마 교량과 연계한 조망시설조성사업	●	●		●	●	●
	- 수변과 도심내공원을 연결하는 Network형성사업			●	●	●	
	- 수변경관조망시설조성사업		●		●		●
	- 친변 녹지공간 및 수변경관을 위해 독방길, 프로나드 등으로 접근성 개선사업	●	●		●	●	●
	- 수경관 투어라인조성계획	●	●		●	●	●
	- 주요 수변주변마을 경관 정비사업			●	●	●	●
도로 경관사업	- 수변도로 구조물 및 시설물의 개선 및 조망권 보로1)사업	●	●		●	●	●
	- 가로경관시설물 통합이미지 구축사업	●			●	●	●
	- 우수경관지역 도로변 전신주 지중화 사업		●		●	●	●
	- 생태경관도로(Ecological Scenic Drive)조성사업	●			●		●
	- 경관도로(Scenic Drive)조성사업	●				●	
	- 자연경관조망시설조성사업		●		●	●	●
	- 지별역 진출입개선 정비사업	●	●		●	●	●

보행자도로계획

사례 : 일본 요코하마

미나토미라이21



중심 보행자도로 전경



Visual Corridor



수로로 인한 친환경보행로



1) 조망에 장애가 되는 옥외 광고물 및 조망차단 저해요소 정비

■ 인공경관에 대한 사업

구분	사업내용	실천단계			지역별		
		단기	중기	장기	북부	중부	남부
시가지 경관사업	- 경관기본계획의 수립	●			●	●	●
	- 주민과 지자체가 함께 하는 경관협정지구지정 및 조성	●	●		●	●	●
	- 건물의 setback 및 여유 공지 등 공개공지확보사업	●	●		●	●	●
	- 시범경관가로조성사업	●	●		●	●	●
	- 지역 진입경관시설물계획수립 및 조성사업	●	●		●	●	●
	- 시각 종점시설(Visual Termination)과 전이공간조성사업			●	●	●	●
	- 경관녹지조성사업			●	●	●	●
	- 건축물색채개선사업	●			●	●	●
	- 지역 대표경관상징물조성사업			●	●	●	●
	- 지역주민경관협의체구성	●			●	●	●
가로축 경관사업	- 주요가로축 경관계획의 수립	●			●	●	
	- 가로수 및 시설물에 대한 경관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		●	●	●
	- 주요 보행로에 시각회랑(Visual Corridor) 형성사업	●	●		●	●	
	- 중심 상업지역의 거리 미술관 조성			●		●	
	- 바닥패턴, 포장 등, 가로시설물 개선사업	●	●		●	●	●
	- 주요 간선가로변 야간조명시설물 설치계획	●	●		●	●	●
	- 가로축상의 시각 종점시설(Visual Termination) 및 연결공간조성사업			●	●	●	
역사문화 경관사업	- 지역별 역사·문화보전 및 관리계획 수립	●			●	●	●
	- 읍성 및 전통 마을 등 특수 문화의 정비를 위한 관리계획의 수립	●	●			●	
	- 역사·문화경관의 주 진입로관리 및 정비사업	●	●		●	●	
	- 역사·문화경관 주변시설에 대한 색채 관리사업			●	●	●	
	- 점적 역사·문화경관자원 사이의 진입공간 확보를 통한 자원의 조망 권 확보사업			●	●	●	●

역사문화경관사업

영국 런던

도클랜드(Docklands)



도클랜드 전경

- 도클랜드는 7개의 부두 지역으로 일궈져 있는데, 7개의 부두는 장소의 역사성과 분명한 경계적 특성을 각기 달리하고 있어서, 이를 보전하면서도 각종 축제를 개최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
- 역사적인 건축물을 보존하여 지역의 역사적 상징물을 관광자원으로 활용



Tower Brige

그리니치 천문대로

도클랜드 박물관

■ 혼합경관에 대한 사업

구분	사업내용	실천단계			지역별		
		단기	중기	장기	북부	중부	남부
취락 및 농경지 경관사업	- 취락지구개발 및 관리계획의 수립	●			●	●	●
	- 농촌 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	●		●	●	●
	- 우수경관경작지에 대한 경관상 표창 사업	●	●		●	●	●
	- 한옥 및 전통가옥에 대한 보조 및 지원사업(표준 설계도 및 경관주택 보조금)	●	●	●	●	●	●
	- 지형을 활용한 계단형 농경지 또는 전통적인 농지정리 경관보전사업	●	●		●	●	●
	- 농경지내 경관파괴시설의 차폐사업			●	●	●	●
도로 경관사업	- 주요간선 교차로의 가각부 정리사업		●		●	●	●
	- 도로변 통행자의 시각적 편안함 및 을 위한 그린라인(경관녹지) 형성사업	●	●		●	●	●
	- 지역간 연결도로변 시각적 연속성을 위한 가로수 계획 및 조망권 확보를 위한 계획 수립	●			●	●	●
	- 특별 시각회랑 구역을 설정하여 조망시설조성사업			●	●	●	●
	- 고속도로변 대형 옥외광고물 정리	●	●		●	●	●
사적 경관사업	- 비시가화구역의 역사경관자료 조사	●			●	●	●
	- 사적지 진입가로개선사업		●		●	●	●
	- 주변 경관지구조성사업			●	●	●	●
	- 역사탐방로조성사업			●	●	●	●
	- 생태경관과 연계프로그램운영사업			●	●		●

경관도로계획

사례 : 미국 미시간

경관도로(Scenic Drive)



- 인위적인 경관도로가 아닌 자연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의한 경관도로 연출하며 일방통행으로 가로를 건설하여 교행없이 경관감상을 많이하도록 배려
- 경관적 측면뿐만 아니라 방재적 차원으로 도로를 활용



경관시설물



일방통행



양방향교차로

3) 지역별 경관사업계획

■ 북부권역

유형	구분	사업내용	실천단계		
			단기	중기	장기
자연 경관사업	산지경관	- 지역별 산지보존관리계획수립	●		
		- 산림생태계를 고려한 산림경관 조성사업	●	●	●
		- 산지경관훼손 복원사업	●		
		- 생태서식지 조성사업	●		
		- 환경허용용량(Environmental Carrying Capacity)조사사업	●		
		- 산지 정상산행 경관 (Foot Trail)조성사업		●	
		- 생태경관탐방로(Ecological Landscape Trail)조성사업	●		
		- 자연재해위험지역 및 방재 취약지역을 위한 사방 시설 경관조성사업	●	●	
		- 송전선, 송전탑, 광고물(대형광고물)등 경관지해요소 차폐사업	●	●	
		- 주요 산악의 배후마을에 대한 경관 정비사업			●
	수변경관	- 자연형 하천 조성을 위한 친수공간 도입을 위한 친환경 수변관리계획수립	●		
		- 하천의 오염원 유입부의 수질정화습지 조성사업		●	
		- 경관테마 교량과 연계한 조망시설조성사업	●	●	
		- 수변과 도심내공원을 연결하는 Network형성사업			●
		- 수변경관조망시설조성사업		●	
		- 천변 녹지공간 및 수변경관을 위해 독방길, 프로나드 등으로 접근성 개선사업	●	●	
		- 수경관 투어라인조성계획	●	●	
		- 주요 수변주변마을 경관 정비사업			●
	도로경관	- 수변도로 구조물 및 시설물의 개선 및 조망권 보호사업	●	●	
		- 가로경관시설물 통합이미지 구축사업	●		
		- 우수경관지역 도로변 전신주 지중화 사업		●	
		- 생태경관도로(Ecological Scenic Drive)조성사업	●		
		- 자연경관조망시설조성사업		●	
		- 지별역 진출입개선 정비사업	●	●	

경관도로 및 농촌계획

사례 : 호주 Bright Town



Bright Town 전경

- 우리나라 농촌의 모습과 흡사한 호주의 브라이트 타운은 통행수단에 따라 분리된 공간을 형성하면서 경관도로(Scenic Drive)를 형성하고 있으며, 충분한 공간확보로 넓은 시각회량을 통한 경관의 여유로움을 제공



보차분리를 통한 경관도로(Scenic Drive)

유형	구분	사업내용	실천단계		
			단기	중기	장기
인공 경관사업	시가지 경관사업	- 경관기본계획의 수립	●		
		- 주민과 지자체가 함께 하는 경관협정지구지정 및 조성	●	●	
		- 건물의 setback 및 여유 공지 등 공개공지확보사업	●	●	
		- 시범경관가로조성사업	●	●	
		- 지역 진입경관시설물계획수립 및 조성사업	●	●	
		- 시각 종점시설(Visual Termination)과 전이공간조성사업			●
		- 경관녹지조성사업			●
		- 건축물색채개선사업	●		
		- 지역 대표경관상징물조성사업			●
		- 지역주민경관협의체구성	●		
	가로축 경관사업	- 주요가로축 경관계획의 수립	●		
		- 가로수 및 시설물에 대한 경관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	
		- 주요 보행로에 시각회랑(Visual Corridor) 형성사업	●	●	
		- 바닥패턴, 포장 등, 가로시설물 개선사업	●	●	
		- 주요 간선가로변 야간조명시설물 설치사업	●	●	
		- 가로축상의 시각 종점시설(Visual Termination) 및 연결공간조성사업			●
	역사문화 경관사업	- 지역별 역사·문화보존 및 관리계획 수립	●		
		- 역사·문화경관의 주 진입로관리 및 정비사업	●	●	
		- 역사·문화경관 주변시설에 대한 색채 관리사업			●
		- 점적 역사·문화경관자원 사이의 진입공간 확보를 통한 자원의 조망권 확보사업			●

사례 : 호주 Bright Town

- 우리나라 마을입구에 공통적으로 입지하고 있는 보호수나 공공생활시설처럼 브라이트타운의 경우 중심부에 상징시설물을 위치시키고 생활권의 중심역할을 담당
- 중심생활시설은 휴먼스케일을 바탕으로 저층중심의 보행우선 동선체계를 구성하여 느린 경관흐름(Slow Landscape Flow)을 형성



유형	구분	사업내용	실천단계		
			단기	중기	장기
혼합 경관사업	취락 및 농경지 경관사업	- 취락지구개발 및 관리계획의 수립	●		
		- 농촌 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	●	
		- 우수경관경작지에 대한 경관상 표창 사업	●	●	
		- 한옥 및 전통가옥에 대한 보조 및 지원사업(표준 설계도 및 경관주택 보조금)	●	●	●
		- 지형을 활용한 계단형 농경지 또는 전통적인 농지정리 경관보전사업	●	●	
		- 농경지내 경관파괴시설의 차폐사업			●
	도로 경관사업	- 주요간선 교차로의 가각부 정리사업		●	
		- 도로변 통행자의 시각적 편안함 및 을 위한 그린라인(경관녹지) 형성사업	●	●	
		- 지역간 연결도로변 시각적 연속성을 위한 가로수 계획 및 조망권 확보를 위한 계획 수립	●		
		- 특별 시각회랑 구역을 설정하여 조망시설조성사업			●
		- 고속도로변 대형 옥외광고물 정리	●	●	
	사적 경관사업	- 비시가화구역의 역사경관자료 조사	●		
		- 사적지 진입가로개선사업		●	
		- 주변 경관지구조성사업			●
		- 역사탐방로조성사업			●
		- 생태경관과 연계프로그램운영사업			●

경관녹지조성사업

사례 : 런던(London)

Birkenhead Park



Park Gate

- 도심에 자연적 요소를 최대한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기존생태녹지를 보존하는 계획으로 공간을 구성
- 진출입에 관련된 공간에 공원상징물 조성을 통한 영역성 부여



공원내 습지를 조성하여 생태계 및 주변경관 조성

시민의 휴식공간 제공

■ 중부권역

유형	구분	사업내용	실천단계		
			단기	중기	장기
자연 경관사업	산지 경관사업	- 지역별 산지보존관리계획수립	●		
		- 산림생태계를 고려한 산림경관 조성사업	●	●	●
		- 산지경관훼손 복원사업	●		
		- 생태서식지 조성사업	●		
		- 환경하용용량(Environmental Carrying Capacity)조사사업	●		
		- 산지 정상산행 경관 (Foot Trail)조성사업		●	
		- 생태경관탐방로(Ecological Landscape Trail)조성사업	●		
		- 자연재해위험지역 및 방재 취약지역을 위한 사방 시설 경관조성사업	●	●	
		- 송전선, 송전탑, 광고물(대형광고물)등 경관지해요소 차폐사업	●	●	
		- 주요 산악의 배후마을에 대한 경관 정비사업			●
	수변 경관사업	- 자연형 하천 조성을 위한 친수공간 도입을 위한 친환경 수변관리계획수립	●		
		- 하천의 오염원 유입부의 수질정화습지 조성사업		●	
		- 경관테마 교량과 연계한 조망시설조성사업	●	●	
		- 수변과 도심내공원을 연결하는 Network형성사업			●
		- 수변경관조망시설조성사업		●	
		- 천변 녹지공간 및 수변경관을 위해 독방길, 프로나드 등으로 접근성 개선사업	●	●	
		- 수경관 투어라인조성계획	●	●	
	도로 경관사업	- 주요 수변주변마을 경관 정비사업			●
		- 수변도로 구조물 및 시설물의 개선 및 조망권 보로사업	●	●	
		- 가로경관시설물 통합이미지 구축사업	●		
		- 우수경관지역 도로변 전신주 지중화 사업		●	
		- 생태경관도로(Ecological Scenic Drive)조성사업	●		
		- 경관도로(Scenic Drive)조성사업	●		
		- 자연경관조망시설조성사업		●	
		- 지별역 진출입개선 정비사업	●	●	

경관녹지조성사업

사례 : 런던(London)

Hyde Park



Hyde Park 전경



도심속 공원 모습이 아닌 자연의 일부로 조성

시민의 휴식공간 제공

- 도시의 생활 공간으로 공원성격이 부여되어 다양한 이용자를 위한 선택적 경관루트를 제공
- 전통적 풍경화풍계획으로 권역별 공간구성 주제에 의해 조성되어 있으며, 이동경관은 물론 조망경관으로도 활용 가능

유형	구분	사업내용	실천단계		
			단기	중기	장기
인공 경관사업	시가지 경관사업	- 경관기본계획의 수립	●		
		- 주민과 지자체가 함께 하는 경관협정지구지정 및 조성	●	●	
		- 건물의 setback 및 여유 공지 등 공개공지확보사업	●	●	
		- 청주시 성안길 시범경관가로조성사업	●	●	
		- 지역 진입경관시설물계획수립 및 조성사업	●	●	
		- 시각 종점시설(Visual Termination)과 전이공간조성사업			●
		- 경관녹지조성사업			●
		- 건축물색채개선사업	●		
		- 지역 대표경관상징물조성사업			●
		- 지역주민경관협의체구성	●		
	가로축 경관사업	- 주요가로축 경관계획의 수립	●		
		- 가로수 및 시설물에 대한 경관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	
		- 주요 보행로에 시각회랑(Visual Corridor) 형성사업	●	●	
		- 중심 상업지역의 거리 미술품 조성			●
		- 바닥패턴, 포장 등, 가로시설물 개선사업	●	●	
		- 주요 간선가로변 야간조명시설물 설치계획	●	●	
		- 가로축상의 시각 종점시설(Visual Termination) 및 연결공간조성사업			●
	역사문화 경관사업	- 지역별 역사·문화보전 및 관리계획 수립	●		
		- 읍성 및 전통 마을 등 특수 문화의 정비를 위한 관리계획의 수립	●	●	
		- 역사·문화경관의 주 진입로관리 및 정비사업	●	●	
		- 역사·문화경관 주변시설에 대한 색채 관리사업			●
		- 점적 역사·문화경관자원 사이의 진입공간 확보를 통한 자원의 조망권 확보사업			●

인간을 위한 도시 사례 : 밀턴케인즈



- 기존의 자연환경을 잘 보존해 공원 및 녹지로 활용하여 생태도시의 계획기법 적용
- 교통소음 및 매연을 막고 도로에서 집 내부가 바로 보이는 일종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와 택지 간에 나무와 고도차를 이용하여 분리



유형	구분	사업내용	실천단계		
			단기	중기	장기
종합 경관사업	취락 및 농경지 경관사업	- 취락지구개발 및 관리계획의 수립	●		
		- 농촌 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	●	
		- 우수경관경작지에 대한 경관상 표창 사업	●	●	
		- 한옥 및 전통가옥에 대한 보조 및 지원사업(표준 설계도 및 경관주택 보조금)	●	●	●
		- 지형을 활용한 계단형 농경지 또는 전통적인 농지정리 경관보전사업	●	●	
		- 농경지내 경관파괴시설의 차폐사업			●
	도로 경관사업	- 주요간선 교차로의 가각부 정리사업		●	
		- 도로변 통행자의 시각적 편안함 및 을 위한 그린라인(경관녹지) 형성사업	●	●	
		- 지역간 연결도로변 시각적 연속성을 위한 가로수 계획 및 조망권 확보를 위한 계획 수립	●		
		- 특별 시각회랑 구역을 설정하여 조망시설조성사업			●
		- 고속도로변 대형 옥외광고를 정리	●	●	
	사적 경관사업	- 비시가화구역의 역사경관자료 조사	●		
		- 사적지 진입가로개선사업		●	
		- 주변 경관지구조성사업			●
		- 역사탐방로조성사업			●

가로시설물 계획 (Street Furniture) 사례 : 일본



버스정류장



자전거보관소

식수대

가로등

신호등

벤치와 쓰레기통

장애인 탑승시설

■ 남부권역

유형	구분	사업내용	실천단계		
			단기	중기	장기
자연 경관사업	산지 경관사업	- 지역별 산지보존관리계획수립	●		
		- 산림생태계를 고려한 산림경관 조성사업	●	●	●
		- 산지경관훼손 복원사업	●		
		- 생태서식지 조성사업	●		
		- 환경하용용량(Environmental Carrying Capacity)조사사업	●		
		- 산지 정상산행 경관 (Foot Trail)조성사업		●	
		- 생태경관탐방로(Ecological Landscape Trail)조성사업	●		
		- 자연재해위험지역 및 방재 취약지역을 위한 사방 시설 경관조성사업	●	●	
		- 송전선, 송전탑, 광고물(대형광고물)등 경관저해요소 차폐사업	●	●	
		- 주요 산악의 배후마을에 대한 경관 정비사업			●
	수변 경관사업	- 자연형 하천 조성을 위한 친수공간 도입을 위한 친환경 수변관리계획수립	●		
		- 하천의 오염원 유입부의 수질정화습지 조성사업		●	
		- 경관테마 교량과 연계한 조망시설조성사업	●	●	
		- 수변과 도심내공원을 연결하는 Network형성사업			●
		- 대청호 주변 수변경관조망시설조성사업		●	
		- 천변 녹지공간 및 수변경관을 위해 독방길, 프로나드 등으로 접근성 개선사업	●	●	
		- 수경관 투어라인조성계획	●	●	
		- 주요 수변주변마을 경관 정비사업			●
	도로 경관사업	- 수변도로 구조물 및 시설물의 개선 및 조망권 보호사업	●	●	
		- 가로경관시설물 통합이미지 구축사업	●		
		- 우수경관지역 도로변 전신주 지중화 사업		●	
		- 생태경관도로(Ecological Scenic Drive)조성사업	●		
		- 자연경관조망시설조성사업		●	
		- 지별역 진출입개선 정비사업	●	●	

역사문화경관사업

사례 : 영국

에든버러(Edinburgh)



- Skyline과 조망권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개발시 기존 도시의 형태와 골격을 유지
- 역사적인 건축물과 자연의 특성이 조화되어 도시의 경관적인 질향상과 도시민의 활동을 격려



자연과 역사물의 조화

Skyline

유형	구분	사업내용	실천단계		
			단기	중기	장기
인공 경관사업	시가지 경관사업	- 경관기본계획의 수립	●		
		- 주민과 지자체가 함께 하는 경관협정지구지정 및 조성	●	●	
		- 건물의 setback 및 여유 공지 등 공개공지확보사업	●	●	
		- 시범경관가로조성사업	●	●	
		- 지역 진입경관시설물계획수립 및 조성사업	●	●	
		- 시각 종점시설(Visual Termination)과 전이공간조성사업			●
		- 경관녹지조성사업			●
		- 건축물색채개선사업	●		
		- 지역 대표경관상징물조성사업			●
		- 지역주민경관협의체구성	●		
	가로축 경관사업	- 가로수 및 시설물에 대한 경관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	
		- 바닥패턴, 포장 등, 가로시설물 개선사업	●	●	
		- 주요 간선가로변 야간조명시설물 설치계획	●	●	
	역사문화 경관사업	- 지역별 역사·문화보존 및 관리계획 수립	●		
		- 점적 역사·문화경관자원 사이의 진입공간 확보를 통한 자원의 조망권 확보사업			●

랜드마크 경관조성

사례 : 일본

오다이바

- 다양한 상업시설과 전시관시설, 방송국등을 입지시키고 친수공원을 적절히 배치시킴으로써 도쿄의 랜드마크로 가장 주목받는 장소
- 야간경관계획을 통해 도시의 활동성을 증대시키고 관광 자원으로 활용



오다이바 야경



교량조명



후지TV



친수공간의 확보

유형	구분	사업내용	실천단계		
			단기	중기	장기
혼합 경관사업	취락 및 농경지 경관사업	- 취락지구개발 및 관리계획의 수립	●		
		- 농촌 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	●	
		- 우수경관경작지에 대한 경관상 표창 사업	●	●	
		- 한옥 및 전통가옥에 대한 보조 및 지원사업(표준 설계도 및 경관주택 보조금)	●	●	●
		- 지형을 활용한 계단형 농경지 또는 전통적인 농지정리 경관보전사업	●	●	
		- 농경지내 경관파괴시설의 차폐사업			●
	도로 경관사업	- 주요간선 교차로의 가각부 정리사업		●	
		- 도로변 통행자의 시각적 편안함 및 을 위한 그린라인(경관녹지) 형성사업	●	●	
		- 지역간 연결도로변 시각적 연속성을 위한 가로수 계획 및 조망권 확보를 위 한 계획 수립	●		
		- 특별 시각회랑 구역을 설정하여 조망시설조성사업			●
		- 고속도로변 대형 옥외광고물 정리	●	●	
	사적 경관사업	- 비시가화구역의 역사경관자료 조사	●		
		- 사적지 진입가로개선사업		●	
		- 주변 경관지구조성사업			●
		- 역사탐방로조성사업			●
		- 생태경관과 연계프로그램운영사업			●

국내 친수공간 조성사업 서울 양재천



양재천 전경

- 도심속 하천을 복원하여 생태적·경관적 가치를 높이고 시민의 휴식공간을 제공
- 하천 복원을 통해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시민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조성



양재천

2. 경관행정

1) 기본원칙

- 충청북도 경관의 형성계획 및 관리는 주민·전문가·행정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며, 또한 지속적으로 계획·시행 및 관리
- 충북경관계획은 권역별, 유형별, 지역별로 구분되며 각 사업별로 장기사업으로 구분
- 주민자치사업의 경우, 내가 살고 있는 동네의 생활환경을 주민스스로 제안하고, 주민들이 함께 참여·협력하는 데에서 시작한다. 주민제안 내용에서 협조 및 지원요청이 있을시 행정 및 전문가들은 주민본위의 제도적·기술적 지원
- 주요시책사업은 시범경관구역, 또는 특별경관구역으로 경관지구지정을 하고, 그 외의 행정지원사업은 각 권역별로 경관적 특성과 지역적 특성, 그리고 역사문화자원 및 경관자원의 발굴을 위한 사업을 선정
- 도 경관계획에서 명확히 시·군 경관계획 작성에 요구할 사항을 명확히 제시하여야하며, 상호 보완적인 계획
- 도 전체 경관계획 지도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제시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심의기준을 마련하여 인센티브 및 디스인센티브 제도를 도입
- 우수한 경관일지라도 지지와 협조를 얻지 못한다면 목표에 도달할 수 없듯이, 경관계획에 대한 도민의 컨센서스 형성에 자긍심을 고취 시킬수 있는 공청회 및 주민 참여를 통해 경관계획과 시책을 적극 홍보

국내역사탐방로 조성사업

서울 낙산공원~한성성곽



역사문화탐방로

- 역사·자연환경및 역사문화환경의 복원이 목적이며, 다양한 역사실의 소유를 의미
- 선적인 공간과 시설계획으로 시민에게 쾌적한 공간을 통한 자긍심 및 조망점 제공



탐방로에서본 경관

산성에서 바라본 서울시 야경

2) 실천계획

(1) 경관관리조례의 제정 및 운용

- 충북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역사문화자원을 보존, 형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시민 전체의 공유재산임을 감안, 행정, 시민, 사업자가 일체가 되는 경관조성
- 경관위원회의 운영을 통해 경관사업을 폭넓고 탄력적으로 수용

(2) 경관업무부서의 설치

-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자치센터사업 운영지도를 담당하고 있으며, 주민자치과가 주민자치·통계 및 생활환경을 담당하고 있으나, 경관행정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어, 기존 기구의 역할설정 및 그에 따른 개편하는 안이 요구
- 각시군별 도시과내에 경관계의 설치 : 도시, 건축, 조경 및 환경설계, GIS담당자들로 구성, 주요업무로는 경관관련 정책의 입안,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의 행정관리, 경관심의위원회의 운영, '아름다운 충북' 사업의 추진, 경관DB구축 및 공개, 경관유형별 설계가이드라인 작성·시행·관리, 옥외광고물 관련업무 및 우수경관시설물의 포상제도 운영

(3) 경관성검토 제도의 도입

- 새롭게 건설되거나 법정의무 지구단위계획수립지구 등 규모나 유형에 따라 경관성 검토기준과 작성 방법을 설정하여 이를 근거로 경관을 관리
- 택지개발계획수립 등 대규모 개발계획수립 시 별도의 경관계획을 수립하여 경관성을 전문적으로 수립하고 도 도시계획위원회나 경관위원회(가칭)의 심의로 결정
- 교통영향평가심의대상인 되는 규모의 경우 지역경관구조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하여 도차원의 심의하도록 하고, 규모미하인 경우 지자체차원의 경관심의를 의무화
- 건축위원회의 심의에서도 단일건축물에 대한 경관성 검토를 의무화하고, 문화주변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양각과 시각회랑, 문화재차폐율 등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위치와 높이 그리고 기본적 형태를 결정
- 경관성 검토는 기본적으로 3차원 시뮬레이션을 사용하며, 기법 역시 지침을 통해 설정하여 시행자나 건축주의 자의적 경관해석이 되지 않도록 유의

한옥마을계획

사례 : 서울

남산골 한옥마을



한옥마을의 전경



자연형 습지조성

전통경관의 형성

- 한옥 마을 지정으로 전통의 보존 및 전통 경관 형성
- 마을 조성시 습지를 조성하여 수변경관 및 생태계보존

(4) 시범경관지구의 지정 및 관리

- 주민주도의 경관형성을 위해 행정기관과 지역주민간 협정에 의해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도시나 지역이 미지제고에 기여하는 만큼의 재산권행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경관협정지구의 도내 확산을 추진
- 충북에서 북부, 중부, 남부지역별로 시범경관가로를 지자체주도로 지정하고 중요사업으로 추진하면서 경관에 대한 지역홍보로 활용함은 물론 장기적으로 지역의 대표적 경관지구로 개발
- 단기적 경관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옥외광고물시범지역을 민관합동으로 설정하여 중앙정부의 재원확보를 위한 노력과 함께 지자체의 행정력과 기반시설의 분담을 통해 지역주민 협의체구성으로 추진

(5) 주민조직의 육성 및 지원

- 지역주민, 민간단체가 함께하는 「충북의 美센터」(가칭)의 결성을 통하여 충북경관에 대한 인식을 고취토록 하며, 이를 지원
- 도민의 자발적으로 운용하는 역사유적경관탐방로, 야경시찰, 역사탐방로 순행 등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유도, 권장
- 주민참여에 의한 경관형성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단체의 조직을 유도하며, 이의 요청이 있을 시 전문가의 기술지원
- 행정담당자는 주민과 전문가와의 제휴를 통하여 지역경관에 대한 인식의 확산을 도모하는 세미나 및 강연회 개최를 추진하며 기술료 등의 필요경비는 행정측이 담당
- 구축된 경관관련 정보의 공개를 통하여 시민제안 및 상담을 적극적으로 반영
- 기존의 ‘충북의 美상’ 제도 이외에 단일 건물 이외에 건물군, 혹은 자연풍경 등에 관한 충청북도의 경관상 제도의 운영

국내가로수길 조성사업사례

사례 : 우리나라

- 지역으로 진입하는 Gate 및 관광 자원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지역이미지 향상에 가장 중요함



3. 경관제도

1) 충청북도 조례제정(안)

(1) 조례의 성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하위적(위임) 성격
- 충청북도의 특징적 경관보전과 매력적인 경관창출을 목적
- 각 지자체 당위의 경관조례제정의 기본적 틀을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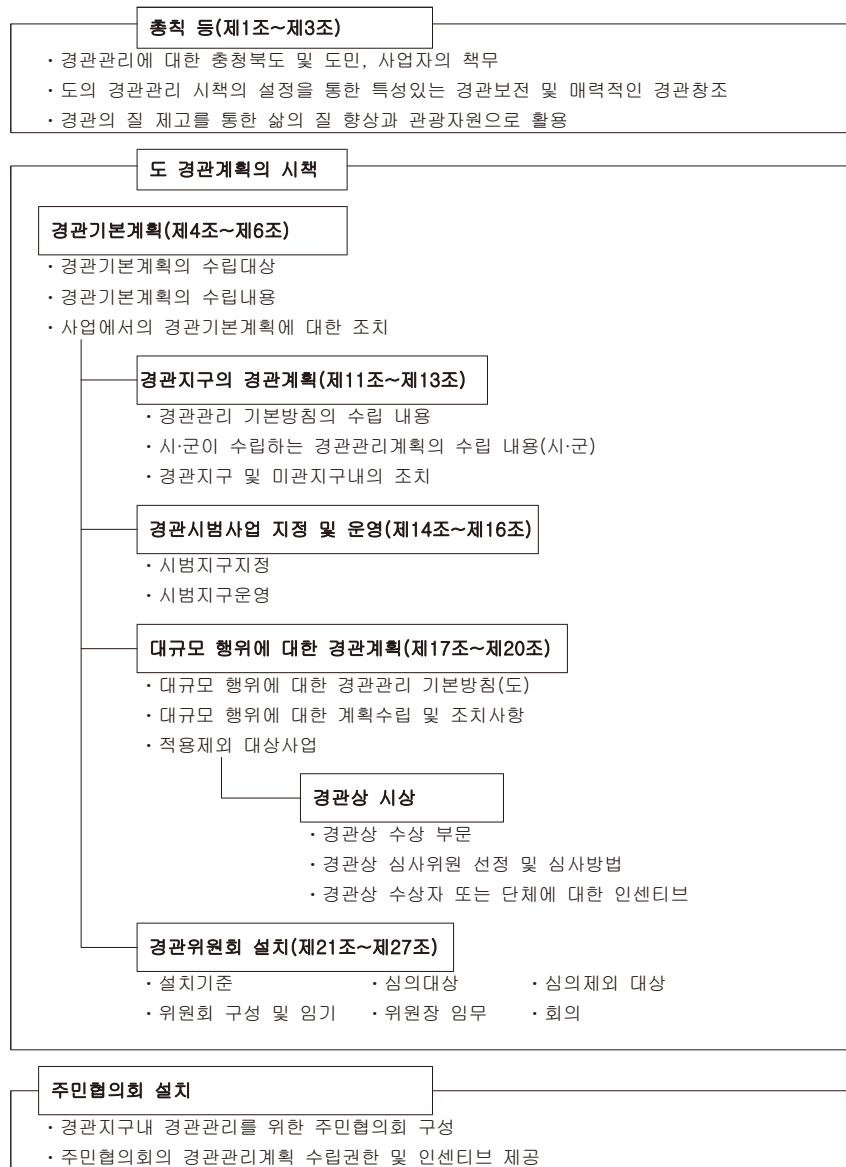
(2) 조례제정의 필요성

- 경관관리와 경관형성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한 충북 차원의 일반적인 원칙과 기분이 필요
- 법적, 제도적 조치로서 지역특성을 고려한 경관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경관담당부서를 설치, 조직정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근거 제시
- 다른 사업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개발행위에 대한 규제, 유도에 필요한 경관담당 조직의 정비와 운영 필요성
- 경관관련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경관행정을 위한 재원의 확보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3) 경관조례(안) 작성의 원칙

- 경관관리 및 추진의 용의성: 도단위 조례안을 근거로 시군별 경관조례를 유형별, 기능별 목적별로 지역에 맞추어 경관조례안을 작성함은 물론 경관가이드라인, 경관사례집, 경관관리편람 등 다양한 형태의 행정보조자료 및 경관홍보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작성
- 개발주체간의 형평성 제고: 민간개발에 의한 경관관리 뿐 만 아니라 공공개발에 의한 경관에 대한 기준의 작성을 통해 개발주체에 대한 형평성을 가짐은 물론 공공성을 가지는 시설과 공간에 대해서도 도시 미적 창조를 위한 근거 마련
- 지역적 경관 특이성 형성: 현재 일부 지역의 경관을 제외하고 경관의 특징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지역경관이미지 구축을 우선 설정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구체화하고 강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명시
- 야간경관과 경관시설물의 강화: 시간의 흐름에 따른 경관의 변화를 다양하고 특징 있게 유도하기 위해 야간 경관계획의 수립과 관리를 의무화하고 지역내에서 권역에 따라 조명시설의 기준을 설정
- 경관권역에 의한 경관관리체계의 수립: 시군별로 경관형성권역, 경관관리권역, 경관보전권역, 경관재생권역으로 나누어 별도의 기준과 가이드라인으로 특성화할 수 있는 근거 마련

(4) 충청북도 경관조례의 구성체계



2) 충청북도 경관조례(안)

■ 충청북도 경관 조례(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에 관하여 도, 도민 및 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도가 갖고 있는 특성 있는 경관을 보전하고 매력 있는 경관을 창출 할 수 있는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경관관리계획이라 함은 일정지역의 경관을 보전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가 수립하는 경관기본계획과 시·군이 수립하는 경관관리계획을 말한다.
2. 경관관리계획이라 함은 경관지구의 경관관리를 위해 수립하는 경관상세계획, 경관관리 지침을 말한다.
3.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 2조 1항 제2호에서 말한 건축물과 기타 건축적 구조물을 말한다.
4. 대규모 행위라 함은 다음과 같다.
 - 가. 건축면적이 1,000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또는 토지 면적이 1,000 제곱미터 이상의 공작물.
 - 나. 높이 21미터 이상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 다. 100톤 이상 또는 부피 100미터제곱 이상의 흙, 모래, 자갈, 석재, 기타 건축자재 등을 1개월 이상 쌓아 놓은 행위
5. 개발행위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 5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 51조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 흙, 모래, 자갈, 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토지분할 및 토지에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을 말한다.
6. 경관시범사업이라 함은 경관지구 이외의 특정지역이나 특정의 경관대상에 대한 시범적인 사업을 말한다.
7. 사업시행자라 함은 지정된 경관사업의 주체가 되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 민간 사업자 및 경관사업지구내의 개별건축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1. 도는 경관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2. 시·군은 도가 수립한 경관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당해 지역 설정에 알맞은 경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3. 도민은 경관계획 실현에 노력해야함은 물론, 도 및 시·군이 수립한 경관계획에 협력해야 한다.
4. 사업자는 사업 활동을 함에 있어서 경관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함은 물론, 도 및 시·군이 수립한 경관계획에 협력해야 한다.

제2장 경관기본계획

제4조(경관기본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항목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경관기본계획을 수립 할 수 있다.

1. 도의 경관기본계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수립하는 시·군의 도시 기본계획 또는 도시 관리계획의 경관부문에 도의 지침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3. 도를 대표하는 경관이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어서 일체적 경관계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관광지, 산업단지, 지역발전특구, 기업도시, 농어촌휴양단지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정되는 구역 내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5조(경관기본계획 내용) 제4조에 의한 경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관계획의 기본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경관계획의 기본 구상과 방침에 관한 사항
4. 경관지구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도민의 자주적 활동에 관한 사항

제6조(계획 또는 사업에서의 경관행위를 위한 조치)

도지사는 국가, 도, 시, 군, 민간이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5조의 내용이 아래 각호의 항목에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가 시행하는 공공사업
2. 국가나 기타 국영 기업체가 행하는 공공사업
3. 민간이 행하는 개발 사업. 단 이 경우 별도의 규칙에 의한 인센티브를 제공 할 수 있다.

제3장 경관지구의 경관관리

제7조(경관계획 수립내용) 시장, 군수는 당해 경관지구에 대해서는 제5조의 경관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항목이 포함된 경관관리계획을 수립 운영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위치 규모, 형태, 색채, 의장 및 재료, 대지녹화에 관한 사항
2. 토지의 형질 변경이나 벌목 등에 대한 경관적 배려사항
3. 옥외 적치물이나 저장 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경관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8조(주민협의회 구성)

경관지구내의 주민 스스로가 주민 협의회를 구성할 경우 당해지구에 대한 경관관리계획을 수립 할 수 있다.

1. 주민협의회가 경관계획을 수립 하고자 할 때 에는 제5조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9조(경관지구내에서의 경관행위를 위한 조치)

1. 경관지구에서 건축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 EH는 기존 건축물 등의 외관을 반 이상을 변경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경관 지구의 경관관리계획에 적합도록 해야 한다.
2. 경관지구에서의 행위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3. 당해 지구 내에서 건축 등의 행위가 경관관리계획에 적합할 경우에는 별도 규칙이 정하는 인센티브를 제공 할 수 있다.

제4장 경관시범사업 지정 및 운영

제10조(경관시범 사업 지정) 도지사는 경관지구 이외의 지역 중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특정의 지구 또는 요소 등의 대상에 대해 경관시범 사업을 할 수 있다.

제11조(경관시범 사업 절차)

1. 도지사는 경관시범사업을 할 경우에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2. 시·군이 경관시범사업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조와 제7조의 내용이 포함된 경관시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제12조(경관시범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도지사는 경관시범사업에 대하여 별도의 규칙이 정하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장 대규모 행위의 경관관리**제13조(대규모 행위 등의 경관관리 계획수립 및 조치)**

1. 시장, 군수는 경관지구 이외 지역의 대규모 행위에 대한 경관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항목이 포함된 경관관리계획을 지침으로 설정 할 수 있다.
 - 1). 건축물의 위치, 높이, 면적 등의 규모에 관한 사항
 - 2). 건축물의 의장, 색채, 재료 등의 외관에 관한 사항
 - 3). 건축물의 부지 내에서의 수목 등의 식재에 관한 사항
 - 4). 토지의 형질 변경에 대한 사항
2. 대규모 행위가 경관관리계획에 적합 할 경우에는 별도의 규칙에 의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적용제외)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1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 비상 재해를 위하여 필요한 응급조치로써의 행하는 행위
2. 관련 조례에 의해 행하는 행위
3. 기타 도지사가 적용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6장 경관상 시상

제15조(시상) 도지사는 경관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한 경관상을 수여 할 수 있다.

1. 건축물 및 거리(가로)부문.
2. 마을 부문
3. 토목 공작물 부문
4. 공원·녹지 부문
5. 역사문화 부문
6. 기타

제16조(심사)

1. 경관상은 시군의 추천을 받은 작품 중에서 도경관심의 위원회의 위원 또는 기타 경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선정한다.

2. 경관상 심의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수상자에 대한 인센티브) 경관상 수상자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칙에 의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장 경관위원회

제18조(위원회 설치) 도는 경관계획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경관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제19조(위원회 역할) 경관 위원회는 경관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자문 또는 심의 할 수 있다.

1. 자문사항

1) 도의 경관조례 제정에 관한 사항

2) 경관지구 지정 및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경관상 시상에 관한 사항

4) 시·군이 별도 용역으로 발주하는 시·군의 경관종합계획으로써 도시계획에의 반영이 필요한 사항

5) 기타 도시자가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발행위 및 대규모 행위에 대한 사항

2. 심의사항

1) 도가 발주하는 경관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시범 사업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기타 도시자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발 행위 및 대규모 행위에 대한 사항

제20조(적용제외) 다음의 각호에 대해서는 제 1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 의해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사항 (공동위원회 심의 사항 포함)

2. 충청북도 건축조례에 의해 건축위원회 심의사항

3.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조례에 의한 옥외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4.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조례 의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사항

5. 충청북도 국립공원 관리조례 의한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사항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사항

7. 기타 관계법령에 의해 의제 처리되거나 경관심의를 받은 사항

제21조(경관위원회 구성)

1. 경관 위원회는 도시계획, 도시설계, 건축, 미술, 조경, 문화관광, 환경 등의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2. 경관 위원은 23인 이내로 구성하며 공무원이 위원은 위원 정수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3. 경관위원은 상기 제20조의 1항-6항의 위원 중에서 가능한 위원의 3분의 2이상을 위촉하도록 한다.

4.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주무부서 과장으로 한다.

제22조(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를 통할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주무부서 과장으로 한다.

제23조(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24조(회의)

1.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2. 위원은 대리 출석 할 수 없으나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해당실국 소속의 공무원이 대리 참석할 수 있다.
3.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소위원회 구성)

1. 경관심의 위원회에서 수권 위임된 사항 및 현지조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소위원회의 위원은 7인 이내로 구성하며 3분예 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소위원회 의결은 경관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4.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제24조 내지 26조를 준용한다.

제26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PART VIII 시범경관지역 시물레이션 미래 충북의 모습은?

1. 개요

1) 목적

- 입체적인 경관분석 기법 제공
- 효과적인 의사결정 지원
- 지침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도구 마련

2) 범위

(1) 공간적 범위

■ 경관계획 대상지 중 3개 지역

지역적 안배	북부 / 중부 / 남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주시 성안길 로데오 • 충주 남산 개발관리지역 • 보은 회남면 대청호 수변공간
도시규모	수위도시(대표도시) / 중급도시 / 읍급도시	
경관계획 유형	경관관리 / 경관형성 / 경관보전	
도시화 정도	도시 / 준도시지역 / 교외지역	
계획추진 기법	주민주도 / 공공중심 행정지도(공적지도를 통한 민간개발)	

(2) 내용적 범위

■ 시물레이션 방향 설정

- 경관계획을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시물레이션 방법 설정

■ 시물레이션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 및 3D공간데이터 구축

- 시물레이션에 구축에 필요한 자료 수집
- 현황 및 계획에 따른 공간에 관한 정보를 3D공간데이터로 구축
- 구축된 자료는 기타 유사한 과제에 재사용 가능하도록 제작

■ 3D공간데이터에 경관계획 분석자료 입력

- 경관계획에 수립된 분석자료를 해당 3D공간데이터에 적용

■ 입체적인 분석 및 평가를 위한 시물레이션 구축

- 경관계획을 효과적으로 분석/평가할 수 있도록 시물레이션 구현

(3) 기술적 범위

- 가상현실모델링언어(VRML) 및 이미지합성을 이용한 시물레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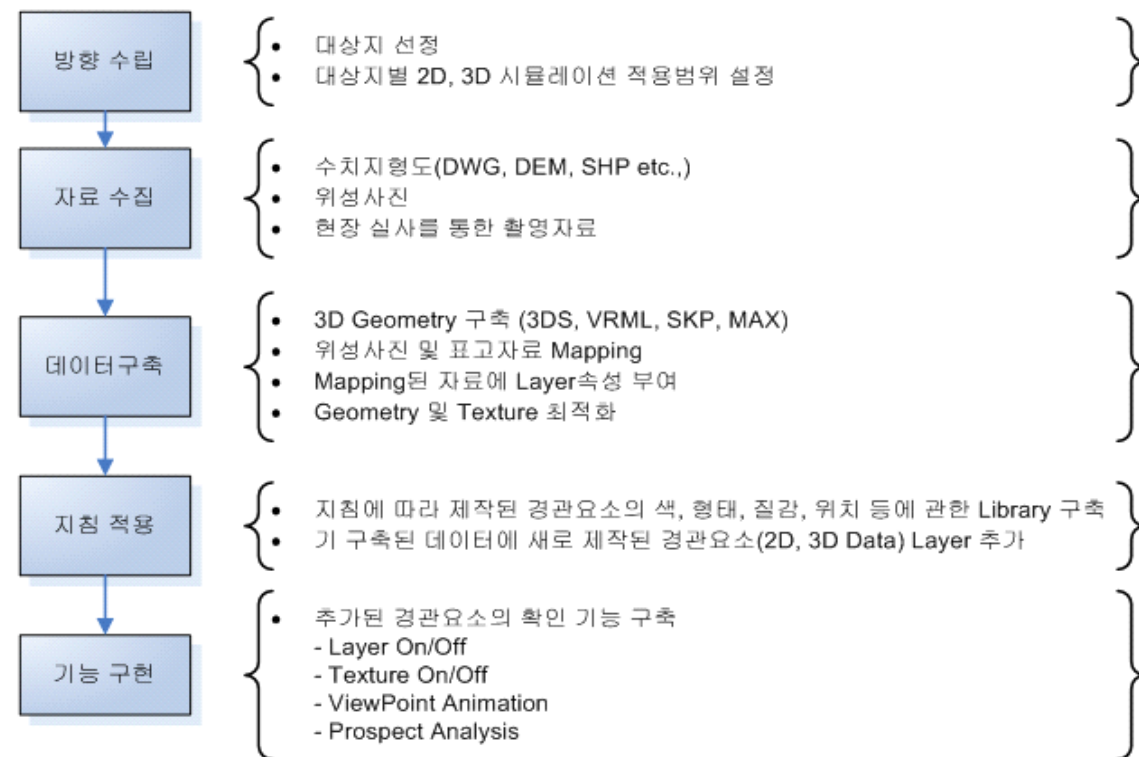
2. 시뮬레이션 구현

1)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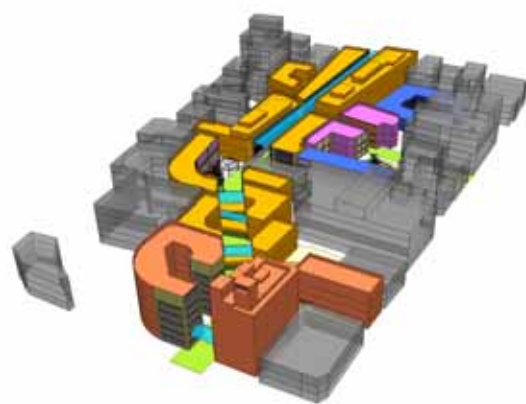
■ 과업기간

- 2006년 8월 ~ 12월 (총 16주)

■ 제작과정



[그림 8-1] 시뮬레이션 제작과정



[그림 8-2] 3D 시뮬레이션

2) 지역별 구축 방향

(1) 성안길 로데오거리

■ 현황 분석

- 대상지 실사자료를 바탕으로 한 매스 모델링 구현
- 실사자료를 이용한 색채 현황 파악
- 기타 경관요소 파악

■ 공간 계획 지침 마련

- 새로운 공간계획 구상
- 구상과 부합하는 공간의 매스 모델링 구현

■ 색채 계획 지침 마련

- 색채현황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된 색채계획 구상

■ 마련된 각가의 지침을 3D 데이터에 통합 구현

- 매스모델링 수준의 공간에 색채 및 기타 경관요소 적용

(2) 충주 남산

■ 현황 분석

- 수치지형도 및 GIS데이터를 이용하여 3D Data구축

■ 조망점 및 조망선 설정

- 주요 조망점 설정
- 각 조망점에서의 남산의 능선을 향한 양각 기준 마련

■ 주요 조망점에서의 조망선을 기준으로 한 건물배치의 밀도 설정

- 대상지내에서 높이에 따른 건물의 배치가능 영역 도출

(3) 회남 수변

■ 현황 분석

- 수치지형도 및 GIS데이터를 이용한 3D Data구축

■ 주요 조망점 설정

- 각각의 조망점에서의 조망범위 도식화

■ 3D지형 분석을 통한 수변도로의 Type분류

- 지형과 도로의 연관성을 이용한 도로별 Type설정

■ 각 Type별 도로 영역 표현

- 3D 지형위에 각 Type별 도로의 영역 표현

3) 지역별 구축 내용

■ 성안길 로데오거리



성안길 안에서의 로데오거리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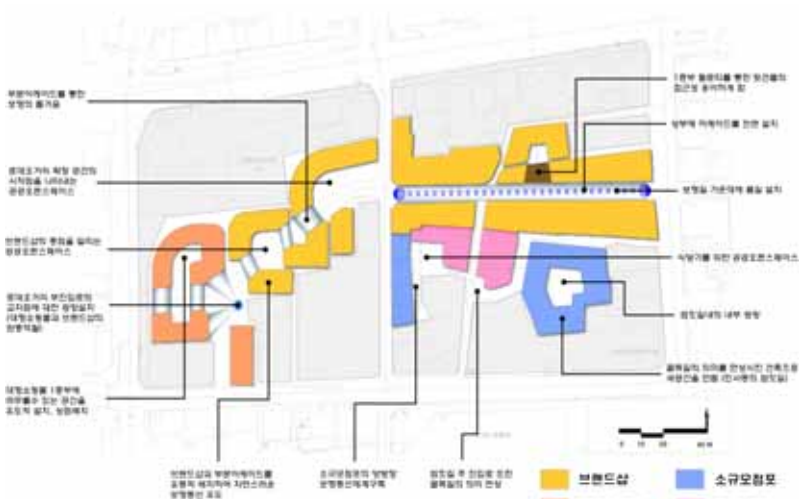


거리를 내려다본 모습



현황사진 서쪽 입구에서

대상지 주변 현황



공간개요 구상도



현황사진 동쪽 입구에서



대상지 일대의 건물 현황



현재의 로데오거리
건물 배치도



현재의 로데오거리
동쪽에서 본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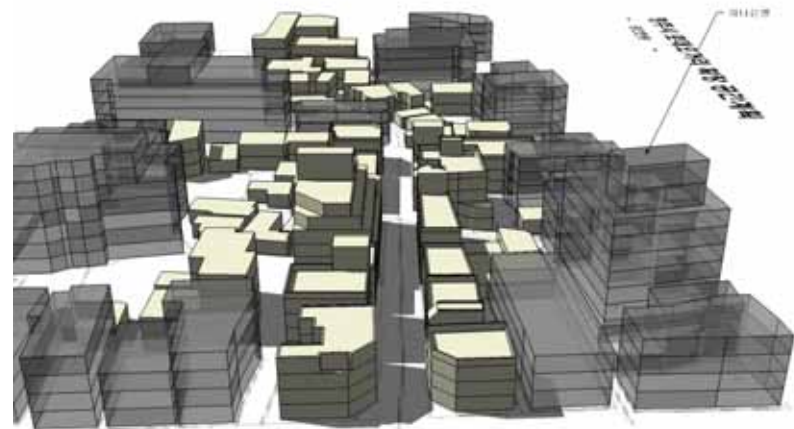
현재의 로데오거리
서쪽에서 본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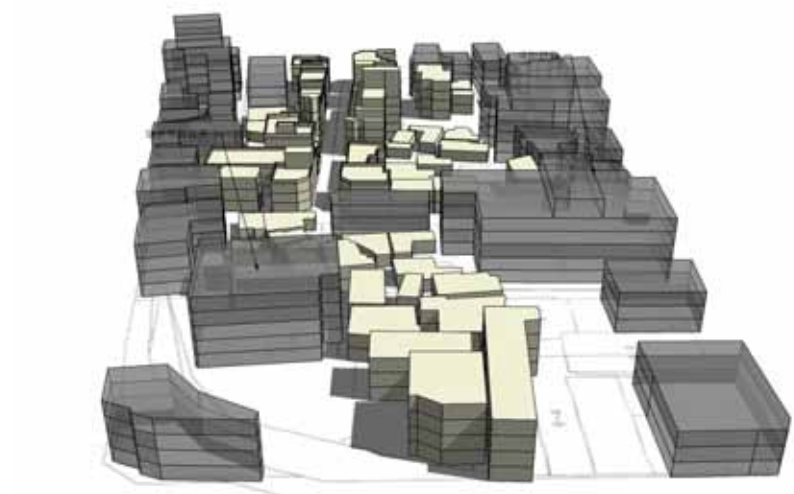
현재의 로데오거리
남쪽에서 본 모습



현재의 로데오거리
북쪽에서 본 모습



동쪽상공에서 본 모습



서쪽 상공에서 본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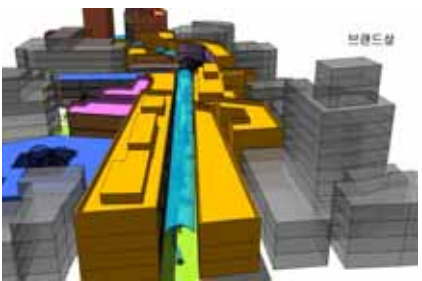
브랜드샵 이미지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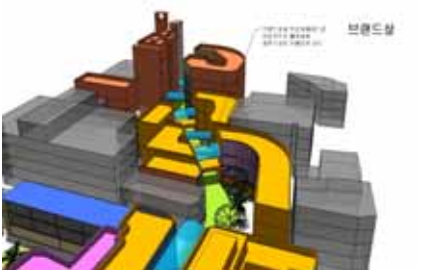
소규모점포 및 전문식당가 이미지



대형 쇼핑몰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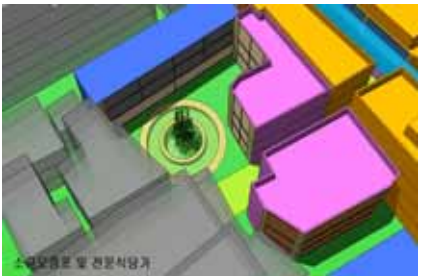
브랜드샵 이미지2



브랜드샵 이미지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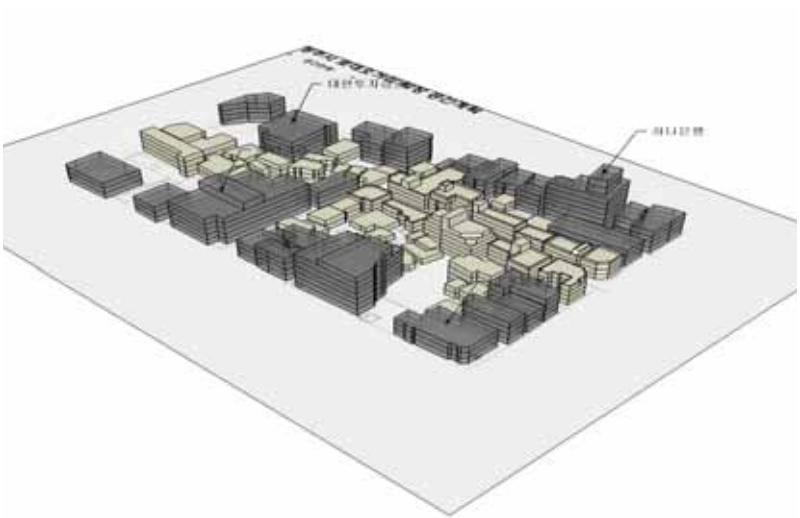
브랜드샵 이미지4



소규모 점포 및 전문 식당가



주진입로의 아케이드 및 물길



대상지 일대의 건물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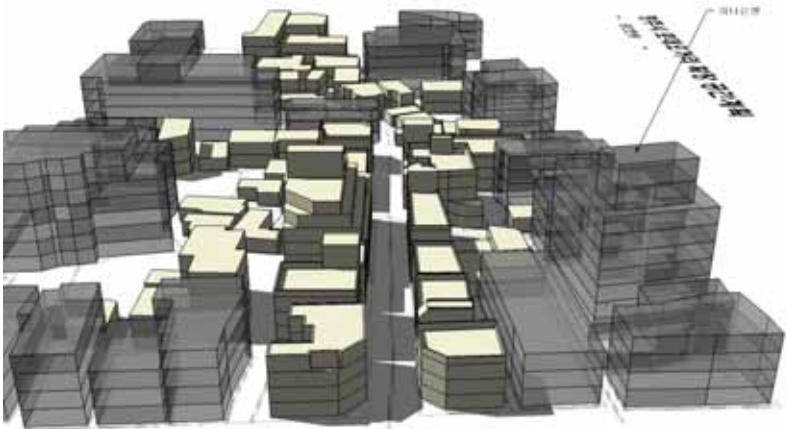
현재의 로데오거리
건물 배치도



현재의 로데오거리
동쪽에서 본 모습



현재의 로데오거리
서쪽에서 본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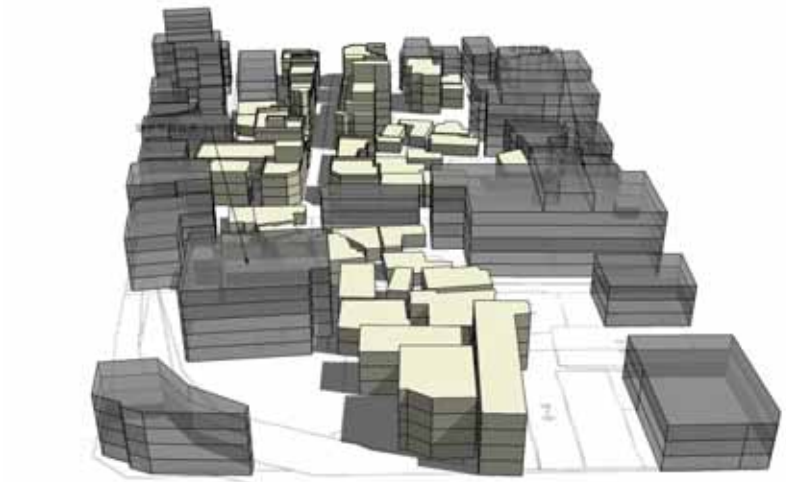
동쪽상공에서 본 모습



현재의 로데오거리
남쪽에서 본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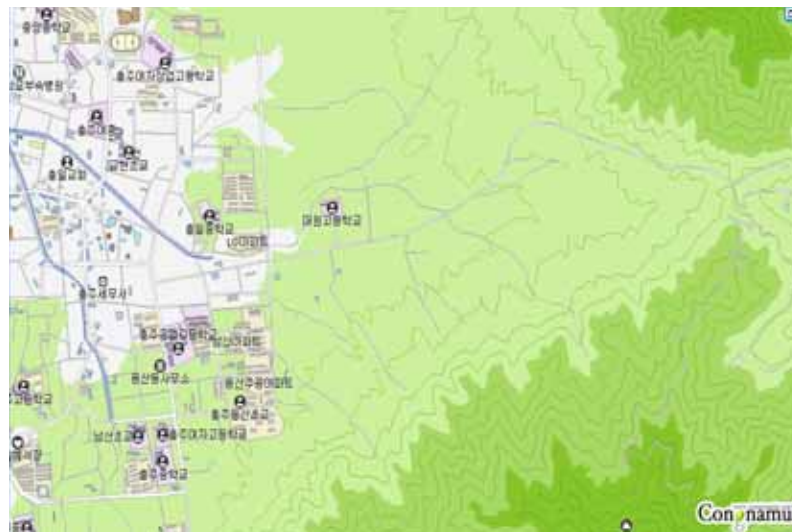
현재의 로데오거리
북쪽에서 본 모습



서쪽 상공에서 본 모습

■ 충주 남산

- 대상지 일반 현황
 - 위치 : 충주시 남서쪽에 위치(충주시와 충주호의 중간지점)
 - 면적 : 3.2km² (남산의 기슭 해발 230M 지점부터 인접 도로까지)
 - 주변현황 : 서쪽과 북쪽으로 택지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
 - 지형 : 산기슭으로부터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는 구릉지역(북서향)
- 계획의 개요
 - 남산의 6부능선을 기준으로 조망선 보존이 가능한 밀도배분
- 시뮬레이션 용도
 - 지형분석
 - 조망점 및 조망선 설정
 - 조망선 유지가 가능한 건물의 높이 및 배치 영역 도출



대상지 위치도



대상지 위치도 위성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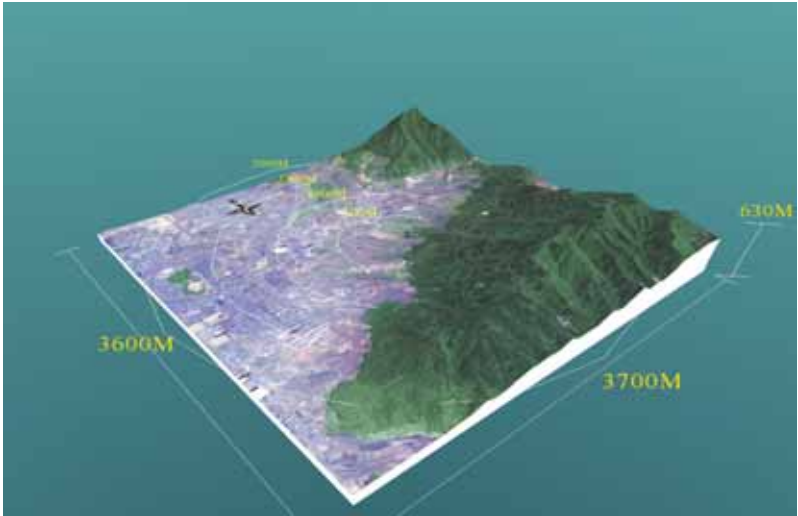
신도로 북쪽에서
남산을 바라본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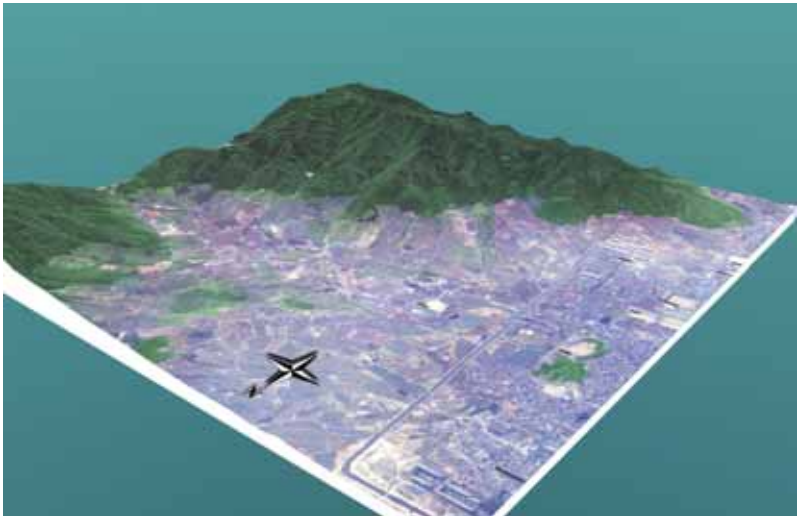
신도로 중간에서
남산을 바라본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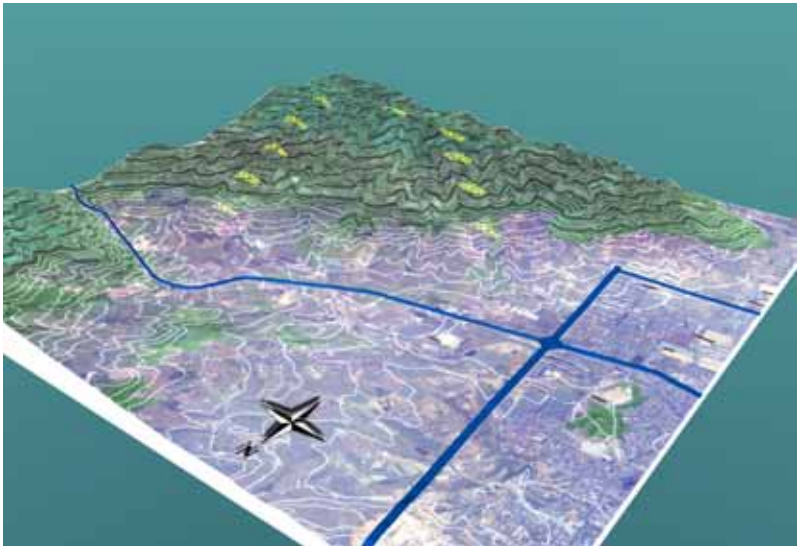
신도로 중간에서
마즈막재를 바로본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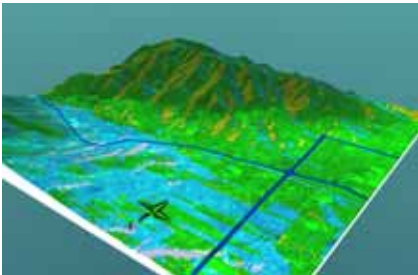
대상지의 공간적 범위



위성사진을 매핑한 3D 데이터



위성사진과 등고선이미지를 함께 적용한 3D Da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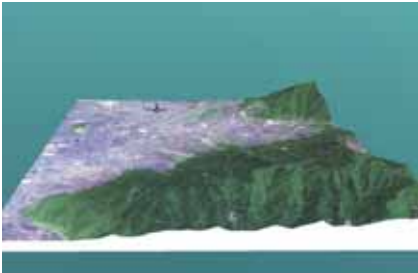
[그림 8-48] 대상지의 향(向)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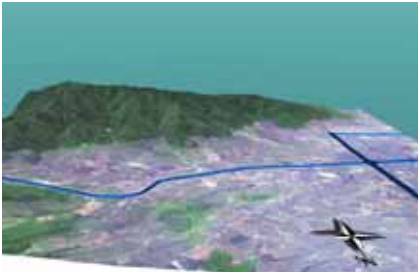
대상지를 동쪽 상공에서 본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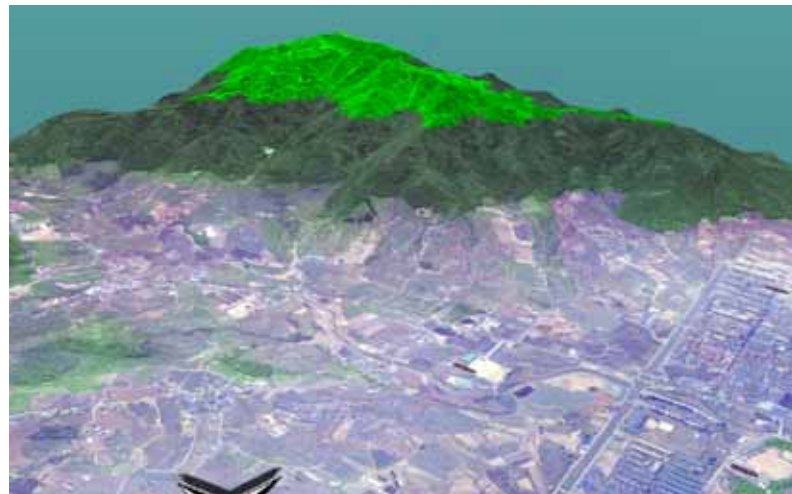
대상지를 서쪽 상공에서 본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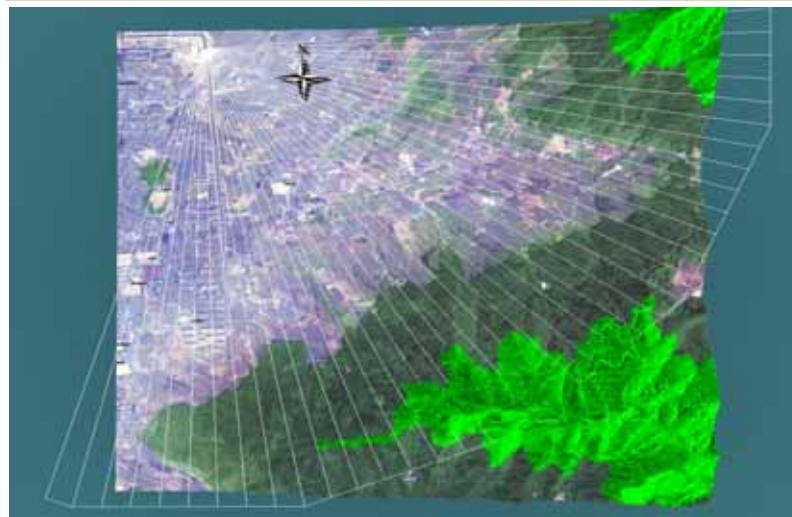
대상지를 남쪽 상공에서 본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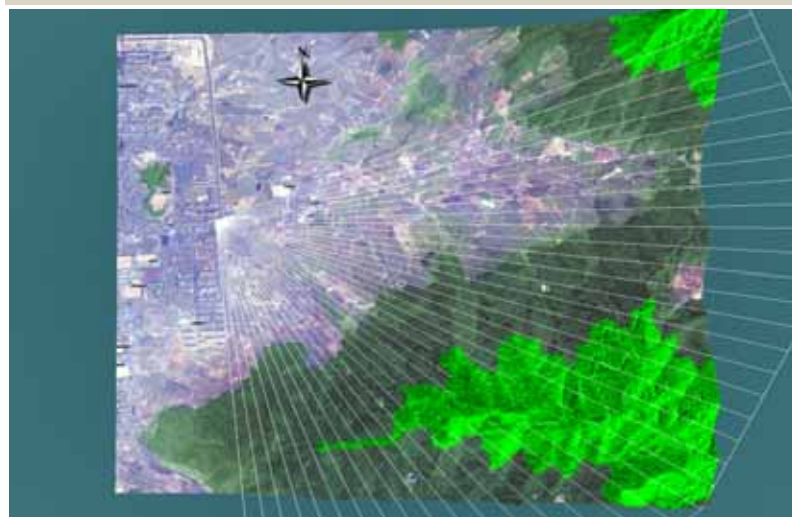
대상지를 북쪽 상공에서 본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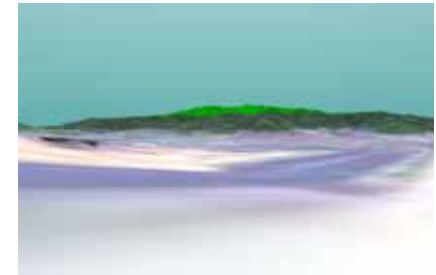
남산의 6부능선(해발 430m)이상의
영역을 표현한 모습(밝은 녹색부분)
6부능선을 주요 조망점에서의 조망선의 기준으로 설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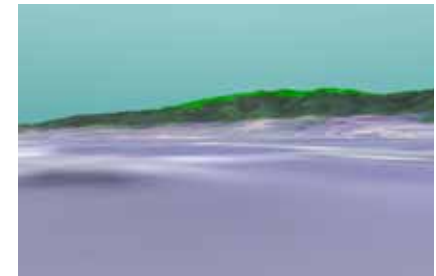
신도로북쪽에서 남산의 6부능선을 향한 조망선(양각 6°)



신도로 중간에서 남산의 6부능선을 향한 조망선(양각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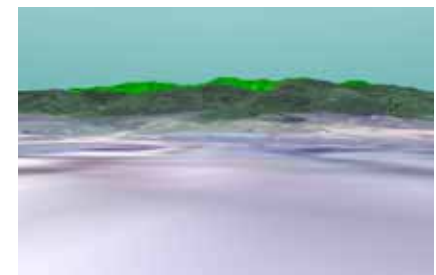
신도로북쪽에서 남산
정상을 향해서 본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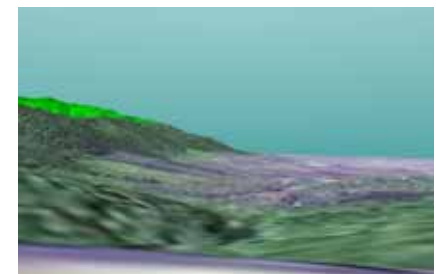
신도로 중간에서
남산을 바라본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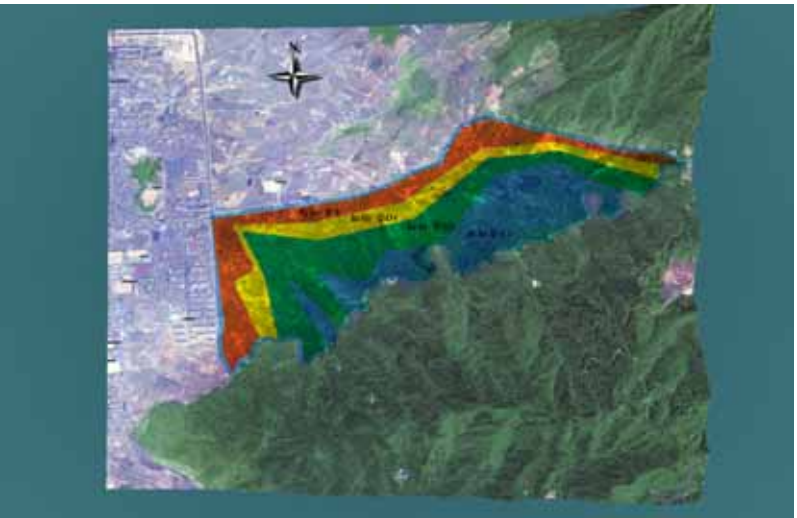
신도로 남쪽에서
남산을 바라본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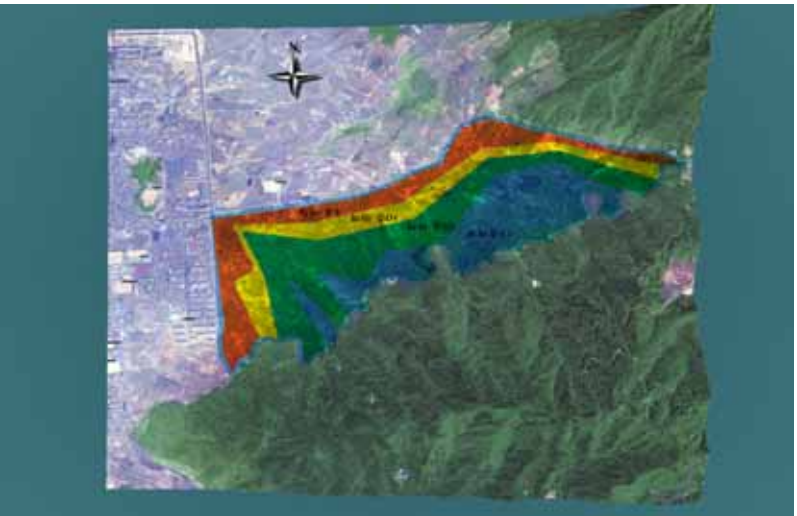
마즈막재 중간지점에서
남산을 바라본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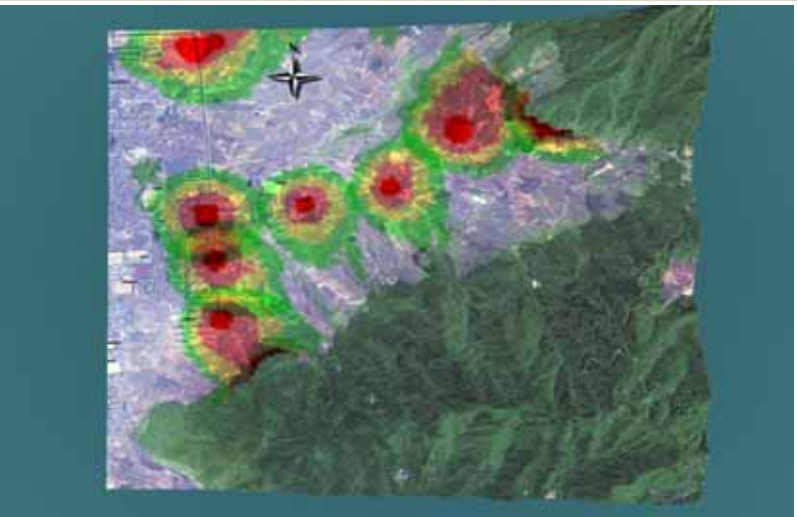
마즈막재 정상에서
대상지를 내려다본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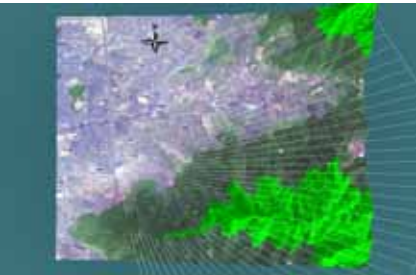
조망선을 침해하지 않는 건물높이분포 예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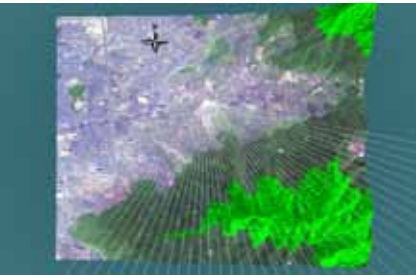
조망선을 침해하지 않는 건물높이분포 예측



주요조망점 주변의 고도제한 영역



신도로 남쪽에서 남산의 6부능선을 향한 조망선 (양각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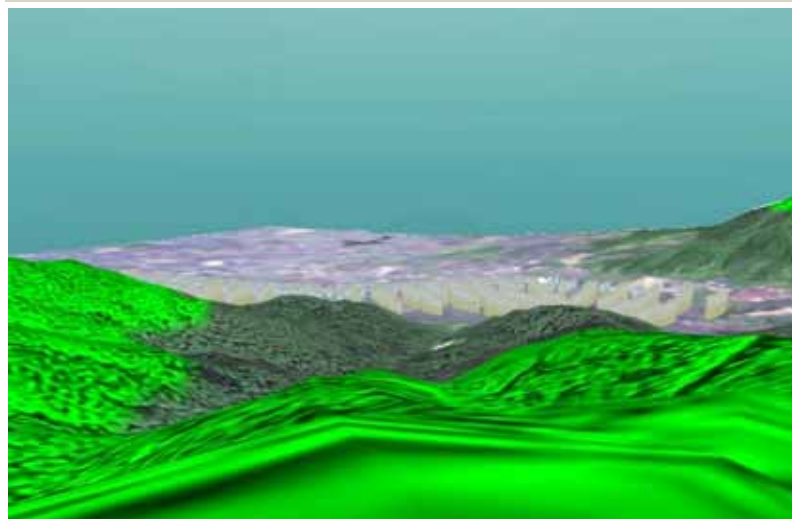


마즈막재 중간지점에서 남산의 6부능선을 향한 조망선(양각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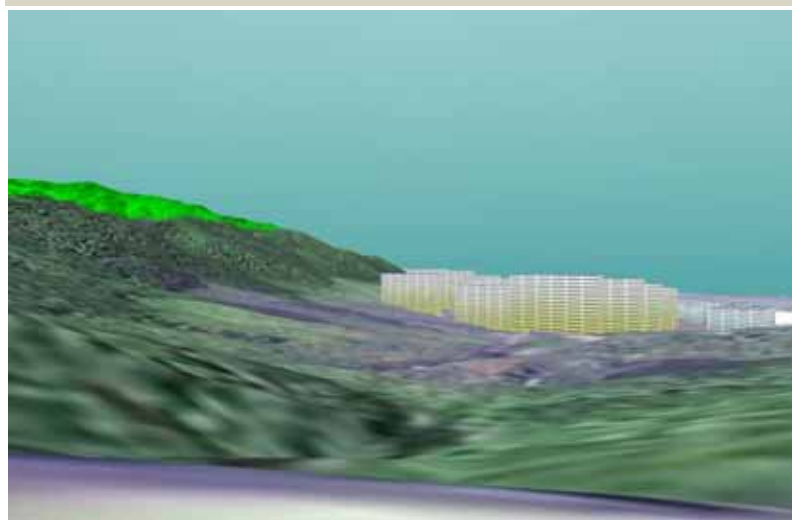
- 조망점의 사이를 좀더 조밀하게 설정할 경우 위와 같은 건물배치영역을 예측할 수 있음
- 각각의 주요 조망점에 남산의 6부능선을 향한 조망선을 설정한 뒤 해당 조망선을 해치지 않는 범위의 건물높이에 따른 배치영역을 표현한 것
- 녹색 영역은 15층 이하의 건물이 배치가능한 곳
- 노란색 영역은 10층 이하의 건물이 배치가능 한 곳
- 붉은색 영역은 5층 이하의 건물이 배치가능한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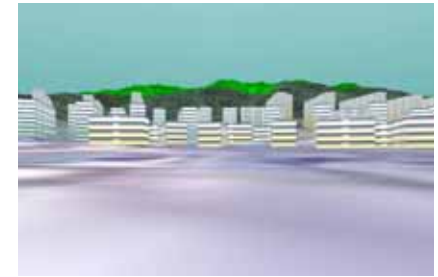
가상 건물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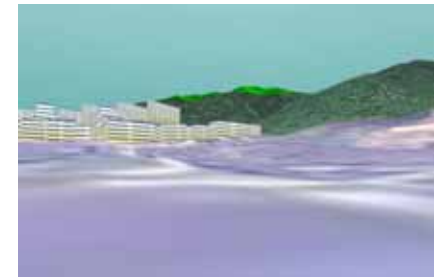
남산 정상에서 확인한 모습



마지막재 정상에서 확인한 모습



가상 건물 배치 후 마지막재
중간에서 확인한 모습



가상 건물 배치 후
신도로 남쪽에서 확인한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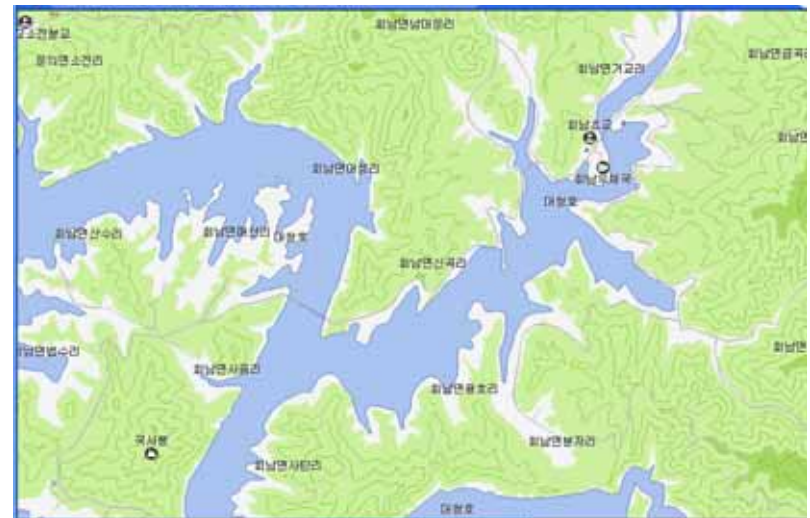
가상 건물 배치 후
신도로 중간에서 확인한 모습



가상건물 배치 후
신도로 북쪽에서 확인한 모습

■ 회남 수변

- 대상지 일반 현황
 - 위치 : 회남면사무소와 회남대교를 포함하는 수변일대
 - 도로의 총길이 : 12km
- 계획의 개요
 - 수변을 둘러싼 도로를 타입별로 분류
 - 타입별 도로의 영역 설정
- 시뮬레이션 용도
 - 지형제작
 - 지형분석 후 도로주변의 경사도 분석을 통해 ‘급/완경사 도로’로 분류
 - 각 위치별 조망범위 분석 후 조망범위의 정도에 따라 ‘내륙/수변 도로’로 분류
 - 종합하여 급경사/완경사/내륙도로로 분류하여 영역 표현



대상지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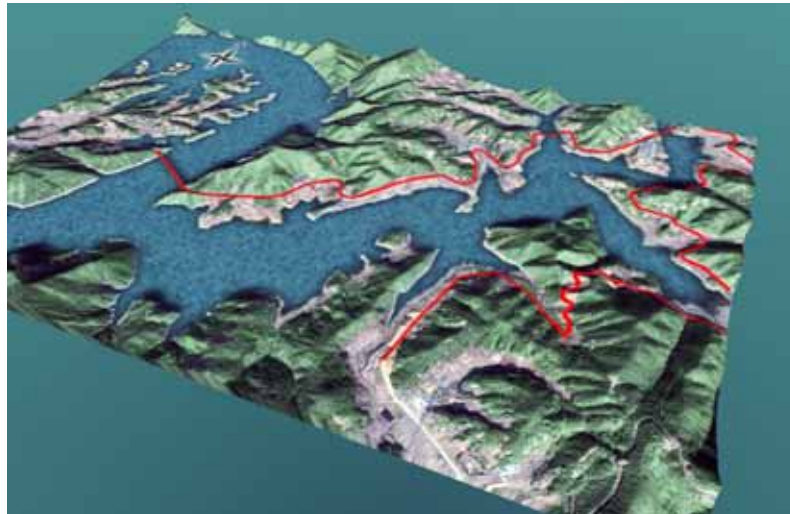
위성사진



위성사진과 등고선이미지를
함께 적용한 3D Da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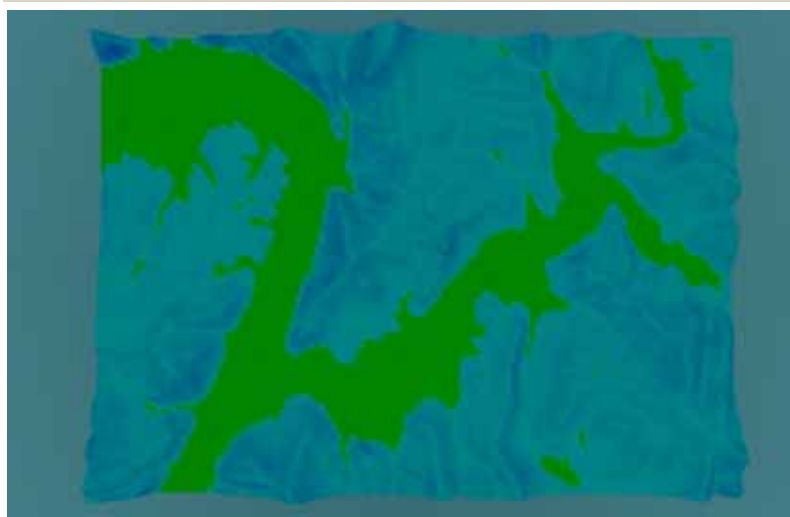
- 좌측 사진위부터
회남대교 주변 조망
수상식물재배지 주변 조망
거신교 주변 조망



위성사진을 매핑한 3D 데이터



경사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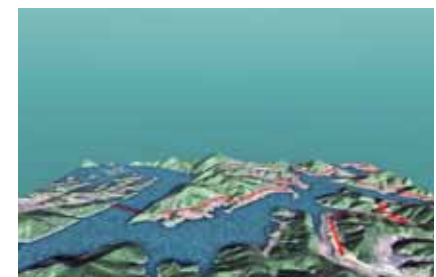
경사도를 분석한 모습
(푸른색이 짙을 수록 급경사임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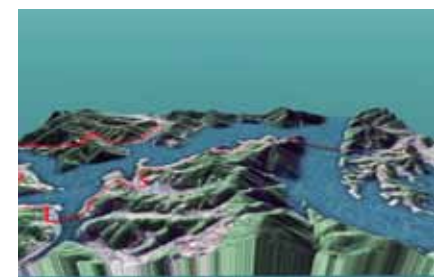
대상지를
동쪽 상공에서 바라본 모습



대상지를
서쪽 상공에서 바라본 모습



[그림 8-84] 대상지를
남쪽 상공에서 바라본 모습



대상지를
북쪽 상공에서 바라본 모습



회남대교에서의 조망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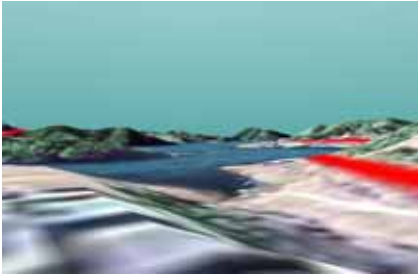
회남대교에서
동쪽으로 바라본 모습



남대문교에서
남서쪽을 바라본 모습



남대문교에서의 조망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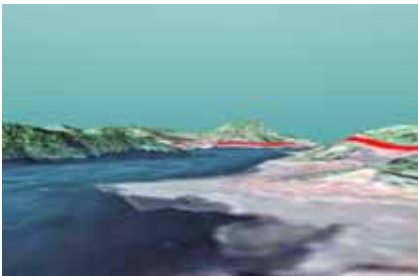
회남초등학교에서 남서쪽을 바라본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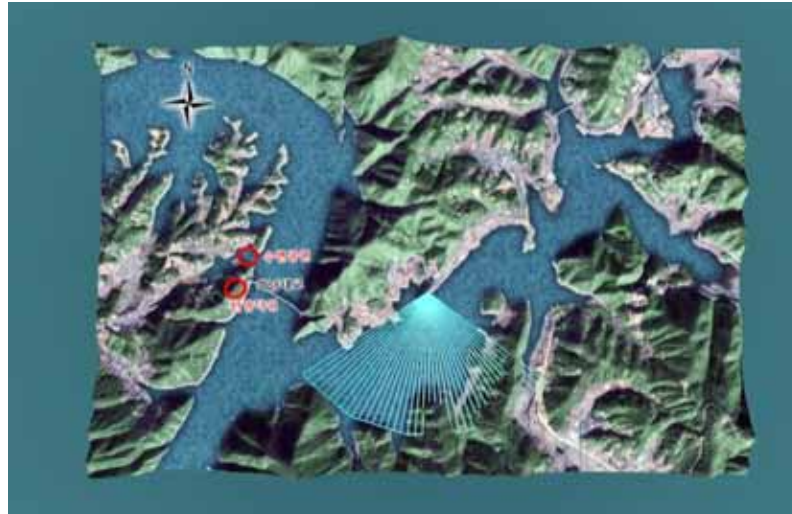
회남초등학교에서의 조망 범위



거신교에서의 조망 범위



거신교 남단에서 북서쪽을 바라본
모습



휴게소에서의 조망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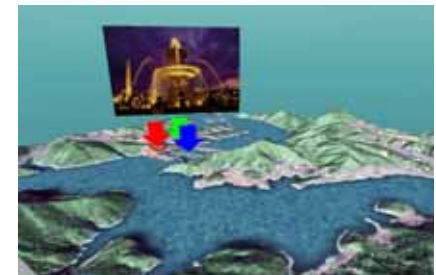
최종 도출된 도로패턴별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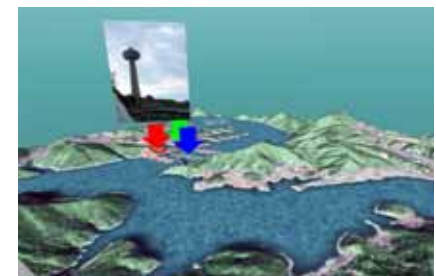
도로 타입별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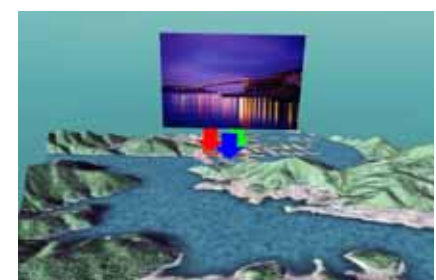
수생식물재배지에서의 조망범위



회남대교 옆
야외공원 구상 이미지



회남대교 옆 전망대 구상 이미지



회남대교의 야간이미지 스케치

- 각각의 조망선을 분석하여 어느 정도의 조망권을 포함하느냐에 따라 내륙도로와 수변도로(급경사도로, 완경사도로)로 구분하고, 도로의 지형상의 위치를 분석하여 수변도로를 완경사와 급경사로 구분함

PART IX 충북경관을 위한 제언

1. 결론

- 청풍명월이 가지는 충북의 이미지는 수려한 자연환경과 함께 지형적 특성에 순응하는 자생적 정주 환경의 의미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내륙으로만 이루어진 지역적 특성으로 경관유형이 다른 도 보다 압축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는 경관의 동질성이 우수한 것으로 여겨진다. 역사적으로 충북의 경관은 산지지형을 바탕으로 정주체계가 형성되고 험준한 지형 때문에 지역 간 연결기반시설이 없어 상대적으로 격리(Isolation)경관형태로 이어져 지역적 특성이 강하게 남아있었다. 이는 언어에서도 나타나서 어려운 지역 간 왕래로 인해 북부와 중부, 그리고 남부지역의 억양과 표현이 전라권과 경상권내에서 보다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 도민 2,000여명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의 경관분석인식에서는 도시지역, 농촌지역, 일반도민과 공무원의 구별 없이 전반적으로 보통이상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관유형별 생각과 이미지에서는 산지경관, 수변경관과 같은 자연경관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을 나타냈고, 농경지경관, 주거지경관, 가로경관, 역사문화경관 그리고 상업지경관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관의 중요성, 규제정도 및 규제 시 참여정도에서는 도민전체의 높은 의식수준을 보이고 있었는데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중요이상의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규제정도 및 규제 시 참여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응답이 많았다.
- 북부의 충주, 제천, 그리고 청주의 도시경관은 우리나라 중소도시가 가지는 경관 획일성, 경관파괴성, 그리고 경관지배형의 보편적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한 장소만이 가지는 장소성의 부재로부터 야기되는 도시배경경관의 단조로움은 충주, 제천, 청주 뿐 만아니라 다른 여타 중소도시와도 차별성을 보이지 못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보은 구병산 입구의 통신시설이나 단양의 시멘트 산업시설, 그리고 일부 자연녹지에서 나타나는 나홀로 건립되어있는 아파트는 주변 환경과 전혀 어울리기보다는 오히려 경관을 파괴하고 있고, 일부 택지개발이나 산업단지는 한 지역의 경관을 단순한 기능과 형태로 지배하기도 한다. 물론 청풍문화단지, 제천의림지, 청주 가로수길 등은 시설물이 주는 시각적 우수성과 함께 거점지역경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이러한 경관의 다의적 현상을 형성, 보전, 관리, 그리고 재생하기위해서 도차원의 경관기본계획과 이를 바탕으로 시·군별 구체화된 계획수립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가 시행되면서 지역의 경쟁력이 산업과 문화를 바탕으로 도시의 미관과 경관이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어 지역마케팅의 일부로 활용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의 수립은 필수적이다.
- 이런 충북경관의 특성을 바탕으로 미래의 충북경관이미지는 다섯 가지를 내포하는 포괄적 이미지 구축에 목표를 두어야한다. 첫째는 자연경관, 곡선경관, 호기심유발 경관을 가지는 청풍명월의 풍경화경관(Picturesque Landscape)모습이며, 둘째는 생태거점경관, 침투형경관, 연담경관을 가지는 백두대간의 생태경관(Ecological Landscape)의 모습, 셋째는 자생경관, 지역경관, 압축경관을 가지는 국토내륙의 향토경관(Vernacular Landscape)모습, 넷째는 관리경관, 참여경관, 경계경관을 가지는 정주환경의 맥락경관(Contextual Landscape)모습,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전이경관, 연결경관, 상징경관을 가지는 장소형성의 위계경관(Hierarchical Landscape)의 모습을 함께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이런 충북의 거시적 이미지를 실현할 수 있는 계획의 원칙은 우수하고 다양한 충북자연경관자원을 최대한 보전하면서 이들 자원을 공간적, 형태적, 시각적 연결체계를 통해 친환경성과 지속가능성을 우선적 부각시키는 자연과의 조화(Harmony with Nature), 정주환경의 기능성과 편리성을 바탕으로 심미성과 편안함을 첨가하여 다양한 공간 및 시각적 즐거움이 풍부한 장소를 조성하여 시민의 정서함양 및 정체성을 고취하는 정주환경의 쾌적성 증대(Amenity Within Living Environment), 지역의 위치, 토지이용, 도시의 규모, 경관유형에 따라 자연적 요소를 바탕으로 형태적 특징을 부여하여 지역 간 공간적, 시각적 차별성을 주는 지역특성의 확립(Establishment of Urban Significance), 지역마다 건축물 및 인공구조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함은 물론 이를 통해 거시적으로 지역의 경쟁력과 마케팅으로 이용하는 경관관리의 효율성(Efficiency of Landscape Control), 그리고 각자가 살고 있는 지역의 효율적 형성 및 관리를 위한 시민의식향상 방안을 마련하고 함께 만들어 가는 도시와 마을로서의 새로운 계획패러다임의 도입인 주민참여 경관조성(Creative Landscape with Citizen Participation)으로 설정할 수 있다.
- 북부지역의 계획은 충주, 제천, 단양을 포함하는 권역이 충북내에서 가장 수려한 자연형 경관자원을 보유하여 이에 대한 적극적 활용계획 수립과 홍보활동을 통한 관광자원화 전략과 동시에 경관자원에 대한 보전, 유지전략도 함께 필요하다. 이를 위해 주요 경관포인트들을 연결하는 루트 구상 및 개발과 자연형 경관자원, 조성형 경관자원, 역사문화경관자원, 스포츠형 경관자원 등 다양한 경관자원들에 관한 전략을 수립하고 특히 거점 경관으로서 경관적 특이성을 보이는 지역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 중부지역 계획은 청주, 청원, 증평, 음성, 진천을 포함하는 지역으로 도내 거주인구의 약65%가 거주하는 지역이며 대부분이 구릉지로 구성되어있고 개발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경관적 혼잡과 부조화가 심각하여 정비가 시급하다. 이 지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등 여러 대규모 국가사업에 의해 계속 경관의 모습이 달라지는 변화가 많은 지역으로 이에 대한 거시적이고 주변 지역과 연담경관체계가 필요하다. 경관요소들에 대한 훼손이 심각한 지역으로 경관형성과 경관관리가 동시에 진행되도록 효율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한 지역이며 경관 재생적 관점에서 계획의 수립과 사업추진이 필요하다.
- 남부지역 계획은 보은 옥천, 영동을 포함하는 지역으로 속리산을 중심으로 한 자연경관요소와 역사경관요소가 다수 존재하며 금강주변 수변경관요소의 질도 매우 뛰어난 지역이다. 자연형 경관요소들이 강세를 보이는 지역이지만 속리산을 제외하고는 활용되는 사례가 적은 보존형으로 존재하고 있어 보전을 바탕으로 활용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반면에 시가화구역의 개발밀도는 중부권과 비교할 때 강도가 약하며 정주환경이 자연발생적 취락구조로 되어있고, 주변 자연경관요소와의 시각적 조화를 고려한 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주요 녹지축과 수변축이 남북방향으로 지나가면서 자연경관으로 위요된 분지형태의 경관구조를 지닌 지역으로 타 지역에 비해 특히 주변자연경관과의 시각적 통과성 및 연계성 확보를 위한 계획수립이 필요하다.

2. 정책제언

- **도정의 경관마케팅 정책개념의 도입**

충청북도 정책기조에 경제특별도라는 최상위개념과 함께 이를 물리적으로 뒷받침하거나 혹은 경관을 통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독자적 계획관리체계와 함께 연계성을 가지도록 한다. 이는 오스트리아의 그라츠(Graz) 미국의 셀레브레이션(Celebration) 등 선진 외국의 역사도시나 문화도시의 경관성은 굴뚝 없는 산업으로 지역 자체가 경제와 산업을 의미하기 때문에 청풍명월의 자연성이 강한 지역 이미지를 토대로 경관산업화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 **충청북도 경관조례 및 경관가이드라인의 작성과 시행**

경관법의 시행으로 제도권에서 경관에 대한 중요성이 충분히 부각되었고 충북의 경우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그리고 호남고속전철 오송분기점 등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개발압력이 증대되어 기존의 자연경관의 위험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도 차원의 경관의 큰 틀이 각 지역차원에서 구체화될 수 있도록 경관조례가 신속히 제정되어야하며, 아직 경관의 개념과 제도가 일반시민이나 행정관리자에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경관계획에서부터 관리 집행에 이르기까지 지침이나 설계가이드라인(Design Guideline)의 수립이 필요하다.

- **경관기본계획의 위상정립과 도시관리제도로 활용**

경관계획이 계획개발에서 개발기본계획의 구체적이고 3차원적 물리적 계획으로 자리매김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행정적으로 경관계획의 위상을 기본계획(혹은 개발계획)에서 경관계획으로 연결을 시키며 이를 다음 단계인 지구단위계획으로 연결하여 실체화된 위계관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정주환경의 거시적 시각 이미지로부터 권역별 혹은 지역별 시각 이미지로 설정하고 이를 기능적, 물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구축함으로 통일된 모습으로 도시를 관리할 수 있게 된다.

- **지자체별 경관기본계획의 수립 유도**

상위계획으로써 충북경관형성계획을 근거로 하여 각 지자체에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및 유도를 하도록 한다. 아직 경관에 대한 전문가의 부족으로 인해 계획수립에 필요한 지원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군단위에서 경관의 형성은 물론 경관 파괴에 대한 사전적 의미로 경관계획은 매우 중요하며 장기적으로 지역의 물리적 거시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유도가 필요하다.

- **충청북도 야간경관기본계획의 수립**

야간경관은 일반 경관과 성격을 달리하기 때문에 별도의 전문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지역의 이미지를 유지하념서 공간적 특성을 가미하며 여기에 조명기술까지 접목하여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충청북도의 경우 자연경관의 우수성을 통한 경관이미지 특성은 지역에 따라 다른 야간경관주제로 구성함으로써 도내가 야간에는 다른 도시와 차별적인 이미지구축이 가능하게 된다. 이를 위해 도차원의 거시적인 원칙과 체계적이고 위계적인 계획이 필요하게 된다.

• **경관과나 도시미관관련 전문행정조직의 설치**

경관관련업무가 점차 중요하고 확대되면서 이에 대한 행정조직의 개편이 필수적이다. 특히 도시마케팅과 정주환경의 쾌적성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경관과나 도시디자인과의 신설이 필요하고 여기에 경관상임기획단을 구성하여 운영함으로 경관의 형성에서부터 관리 보전 그리고 재생까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행정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지자체별 주민경관센터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경관이 주민주도로 자연스럽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충북차원의 우수경관 시상제 도입**

충북경관을 향상시키고 전반적인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동기유발이 가능한 시상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단위건축물에서부터 단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설과 공간에 대한 우수경관을 선정하여 지역의 경관모델로 설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맥락적 경관을 형성하게 함으로써 경관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경관기반시설확보를 위한 자원의 확보**

경관대상(object)에 대한 규제나 보전도 중요하지만 경관의 밑그림이 되는 경관기반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자원의 확보는 필수적이며 만약 도시이미지 구축을 통한 마케팅의 차원에서 경관을 접근한다면 사회간접시설과 같은 위계로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시설은 가로시설물, 근린공원, 광장, 상징물, 도시구조물 그리고 공공중심의 시설물을 하나의 개념으로 전반적인 이미지통일을 추구한다.

• **민관학 역할 및 시민의 관심유도**

도는 지역 내 대학의 경관과 관련된 학과를 중심으로 우수한 도시경관조성사례의 수집과 전시회 및 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경관관련 행정에 대한 홍보책자 및 팸플렛 등을 작성하여 시민들에게 홍보 및 교육의 기회로 활용한다. 또한 자치 단체는 건축공사비의 일정부분을 징수하여 경관관리기금으로 조성하고 우수한 경관을 창출하는 사업을 시행할 때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바람직한 경관형성을 위해 지역에 기초한 경관형성의 활동을 전개하되 대표적인 경관 모델지구 선정사업 (도시안내체계 정비시범사업, 가로경관조성 시범사업, 야간경관조성 시범사업, 역사경관보전정비사업등)을 실시한다. 언론의 계몽활동, 시민단체와 학계와 강연회, 심포지엄개최, 학교교육, 사회교육을 위한 경관의식의 고취, 시민단체의 도시경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지원체계를 확립한다.

